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3F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T 055•713•7075 F 055•713•7093
www.gnwff.or.kr

비매품/무료
93330
9 791199 677432
ISBN 979-11-996774-3-2

연구보고서 2026-02
경남 이주배경가족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개선 방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2026-02

경남 이주배경가족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개선 방안

이혜림·이지영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2026-02

경남 이주배경가족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개선 방안

이혜림·이지영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2026-02

경남 이주배경가족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책임: 이혜림(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지영(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초빙연구위원)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발 간 사

우리 재단은 이주배경가족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경남의 지역 여건과 가족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남 이주배경가족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주배경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전달체계를 점검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이주배경가족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지원 정책과 사업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연구 결과가 경상남도와 시·군,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과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하고, 이주배경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어 주신 이주배경가족과 관계자 여러분, 조사와 자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기관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 주신 관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09월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요약

Ⅰ. 연구 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경남 이주배경가족에 대한 포용적 통합 지원을 위해 이주배경가족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연구의 주요 내용

○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논의

○ 외국인 주민 현황 분석

○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분석

○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주요 연구 방법

○ 문헌과 자료 분석

○ 설문조사

- 대상 : 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 내외국인 1,279명(외국인 483명)
- 내용 :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정보 인지 경로, 이용 시 불편 사항, 개선 요구 사항, 한국어교육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자본, 경제활동 특성, 인적 사항 등
- 기간 : 2026년 5월 29일(금) ~ 7월 15일(수)

○ 면접조사

- 대상 : 가족과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외국인 주민 22명, 외국인 주민 지원 관계자 5명, 총 27명
- 내용 :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현황 및 정책 수요
- 기간 : 2026년 2월 26일(목) ~ 3월 29일(일)
  2026년 6월 10일(수) ~ 6월 28일(일)

○ 전문가 자문회의

II. 주요 결과 및 정책 시사점

구분	조사·분석 결과	정책 시사점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 이용 경험은 주민 편의, 민원 행정, 이주민 지원, 체류 자격 등의 순임 ◦ 한국어, 체류 자격, 가족 유무 등이 공공서비스 이용 주요 영향 변수임 ◦ 공공서비스 미이용의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임 ◦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를 얻음	◦ 한국어교육 및 정책 홍보 강화 ◦ 보편적 행정서비스 기관 활용
공공서비스 도움 정도	◦ 도움 체감도는 주민 편의, 민원 행정, 보건의료, 이주민 지원, 교육 등의 순으로 높음. 복지형 서비스의 도움 체감도가 높게 나타남 ◦ 성별, 한국어, 체류 자격, 가족 유무, 근로 여부 등이 주요 영향 변수임 ◦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 '제출 서류 많고, 신청 절차 복잡', '언어 소통 어려움' 등임 ◦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정보 및 다국어 안내 강화'임	◦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력 기능 강화
공공서비스 이용 시 차별 경험	◦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46.4%가 차별, 무시, 부당대우 경험함 ◦ 차별은 담당 직원/공무원과 공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받았다고 인식함 ◦ 차별을 인식해도 주로 참았고, 참은 이유는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임 ◦ 성별, 한국어, 체류 자격에 따라 차별 대응 방식이 달랐음	◦ 상호 문화 이해 교육 다각화 ◦ 창구형 서비스 업무 매뉴얼 구축
공공서비스 수요	◦ 공공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아동·청소년 자녀 등임 ◦ 정책 수요는 이주민 지원, 취업/고용, 보건의료 등의 순임 ◦ 이주민 지원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교육'임 ◦ 취업/고용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자격증/직업훈련/취업 교육'임 ◦ 보건의료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진료 시 통·번역 지원'임 ◦ 가족 단위 정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양육 지원은 체류 자격에 묶여 있음	◦ 공공서비스 대상과 영역 확대
한국어 교육 서비스	◦ 한국어 역량과 토픽(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등급은 정비례함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수강자가 적은 주요 이유는 인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서임 ◦ 77.8%가 한국어 공부를 추가로 할 의향이 있었고, 학교와 이주민 지원 기관에서 대면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함 ◦ 한국어를 충분히 잘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공부 의향이 없는 이유는 '불편함이 없어서'인데, 의사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다는 집단이 상당함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한국어 학습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
경남 거주 의향 및 사회자본	◦ 삶의 만족도는 3.1점/4점으로 한국어, 근로 여부 등에 따라 다름 ◦ 90.1%가 경남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영구 거주 희망자도 46.2%임 ◦ 34.3%는 영구 거주를 위해 영주/국적 취득을 희망하나, 51.3%가 체류 자격 변경에 관한 결정은 유보함 ◦ 사회적 관계망은 출신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등의 순으로 형성	◦ 사회적 포용성 관점의 사회통합정책 추진 필요

경제활동 특성	◦ 종사상 지위는 전일제, 시간제/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순임 ◦ 여성은 한국어 역량이 뛰어남에도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취약성이 중첩된 집단으로 이중고를 겪음 ◦ 근로 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26.6%임. 이는 사회보험 가입과 유관함 ◦ 고용 불안정이 사회보험 배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발생시키며, 건강보험(지역 가입자) 부담은 체류 불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큼	◦ 이주여성의 일자리 지원 계획 필요 ◦ 취약/위기 상황 외국인 주민 지원 계획

Ⅲ. 경남 이주배경가족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 영역	주요 내용
1.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기반 마련	- 이민정책 전담 부서 신설 - 경남 외국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경남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체'(가칭) 구성 및 운영 - 경남 외국인 주민 생활 실태에 대한 정례조사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다국어 행정서비스 표준 마련 - 다국어 재난안전정보 제공체계 구축 - 공무원/현장 인력 전문성 강화
2. 외국인 주민 정보 접근성 지원 강화	- 공공형 통번역 서비스 'K-link 경남' 확대 - 다국어 통합 정보 플랫폼 '경남 생활'(가칭) 구축 - 오프라인 정책 홍보 및 정보 확산 거점 다각화 - 생활단계 및 상황별 맞춤형 정보 제공
3. 한국어교육 접근성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경남, 한글 나르샤(가칭)' 한국어 교실 운영
4. 이주배경 영유아 양육 지원과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단계적 무상보육 추진 - 다자녀 할인 혜택 적용 - 취학 전 예비학교 운영 - 공교육 진입-교과 학습 연계 지원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5. 외국인 주민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	- 상주 의료 통·번역 서비스 - 병·의원 동의서 다국어 번역 지원 - 지역 무료진료 정보 통합 -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강화 - 병원 이용 및 진료 절차 안내
6. 이주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 확대 지원	- 다양한 체류 배경 이주여성 생활/문화적응 지원 - 지역특화비자 제도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노력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개요 ····· 6
3. 연구 추진 절차 ····· 8

Ⅱ.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과 공공서비스 ····· **9**

1.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 ····· 11
2. 공공서비스 ····· 23
3.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과 공공서비스 ····· 28

Ⅲ. 외국인 주민 현황 ····· **33**

1. 외국인 주민 ····· 35
2. 외국인 주민 가정 ····· 51
3. 소결 ····· 55

Ⅳ.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 **57**

1. 설문조사 ····· 59
2. 면접조사 ····· 142
3. 소결 ····· 164

Ⅴ.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제고 방안 ····· **191**

1. 연구 요약 및 결론 ····· 193
2. 정책 제언 ····· 196

참고문헌 ····· **215**

부 록 ····· **223**

표 차례

〈표 Ⅱ-1〉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11
〈표 Ⅱ-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별 사회통합정책 주요 특징 ····· 19
〈표 Ⅱ-3〉 2026년 경상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과제 현황 ····· 21
〈표 Ⅱ-4〉 경상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예산 현황 ····· 22
〈표 Ⅱ-5〉 사회보장의 종류 비교 ····· 24
〈표 Ⅱ-6〉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관련 선행연구 ····· 29
〈표 Ⅲ-1〉 전국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2015~2025) ····· 36
〈표 Ⅲ-2〉 전국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2024) ····· 37
〈표 Ⅲ-3〉 국적별 외국인 인구(2025) ····· 39
〈표 Ⅲ-4〉 체류자격별 외국인 인구(2025) ····· 40
〈표 Ⅲ-5〉 이주민 정책 대상 분류 및 정의 ····· 42
〈표 Ⅲ-6〉 체류 유형별 외국인 인구(2025) ····· 43
〈표 Ⅲ-7〉 경남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2015~2025) ····· 44
〈표 Ⅲ-8〉 경남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주민(2024) ····· 45
〈표 Ⅲ-9〉 경남 국적별 이주배경주민 주민(2025) ····· 47
〈표 Ⅲ-10〉 경남 체류자격별 이주배경주민(2025) ····· 49
〈표 Ⅲ-11〉 경남 체류 유형별 이주배경주민(2025) ····· 50
〈표 Ⅲ-12〉 전국 총가구와 이주배경가구(2015~2024) ····· 51
〈표 Ⅲ-13〉 시도별 총가구와 이주배경 가구(2024) ····· 52
〈표 Ⅲ-14〉 경남 총가구와 이주배경 가구(2015~2024) ····· 53
〈표 Ⅲ-15〉 경남 시군별 총가구와 이주배경 가구(2024) ····· 54
〈표 Ⅳ-1〉 설문조사 개요 ····· 60
〈표 Ⅳ-2〉 설문조사 내용 ····· 60
〈표 Ⅳ-3〉 응답자 기본사항 ····· 62
〈표 Ⅳ-4〉 최근 1년 내외국인의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63
〈표 Ⅳ-5〉 최근 1년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64

〈표 Ⅳ-6〉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 65
〈표 Ⅳ-7〉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 ····· 66
〈표 Ⅳ-8〉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 67
〈표 Ⅳ-9〉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민원 행정서비스 ····· 68
〈표 Ⅳ-10〉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 69
〈표 Ⅳ-11〉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납세 관련 서비스 ····· 69
〈표 Ⅳ-12〉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안전/사법 관련 서비스 ···· 70
〈표 Ⅳ-13〉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 71
〈표 Ⅳ-14〉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교육 관련 서비스 ····· 72
〈표 Ⅳ-15〉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 73
〈표 Ⅳ-16〉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 ···· 74
〈표 Ⅳ-17〉 공공서비스 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미이용 이유(1+2순위) ····· 76
〈표 Ⅳ-18〉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이주민 지원 관련 기관 ····· 78
〈표 Ⅳ-19〉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 ····· 79
〈표 Ⅳ-20〉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 80
〈표 Ⅳ-21〉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민원 행정서비스 ····· 81
〈표 Ⅳ-22〉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보건의료 관련 기관 ····· 82
〈표 Ⅳ-23〉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납세 관련 서비스 ····· 83
〈표 Ⅳ-24〉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안전/사법 관련 서비스 ····· 84
〈표 Ⅳ-25〉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 86
〈표 Ⅳ-26〉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교육 관련 서비스 ····· 87
〈표 Ⅳ-27〉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 88
〈표 Ⅳ-28〉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 ····· 89
〈표 Ⅳ-29〉 공공서비스 유형별 외국인 주민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 (1+2순위) ····· 91
〈표 Ⅳ-30〉 내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정보 획득 경로(1순위) ····· 92
〈표 Ⅳ-31〉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정보 획득 경로(1순위) ····· 93
〈표 Ⅳ-32〉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한 도움(1순위) ····· 95
〈표 Ⅳ-33〉 공공서비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가족 구성원(1순위) ·····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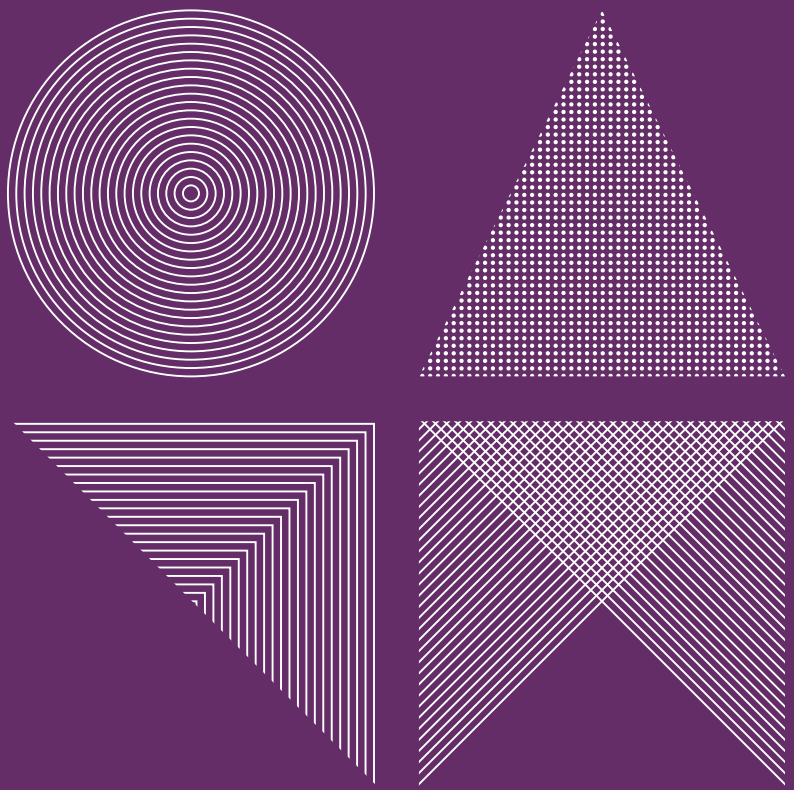
〈표 Ⅳ-34〉 공공서비스 이용 시 차별/무시/부당대우 경험 여부 ····· 98
〈표 Ⅳ-35〉 차별 한 대상(1순위) ····· 98
〈표 Ⅳ-36〉 차별 경험 후 대응 방식(1순위) ····· 100
〈표 Ⅳ-37〉 차별당했을 때 참은 이유(1순위) ····· 102
〈표 Ⅳ-38〉 내외국인이 생각하는 이주민이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1순위) · 104
〈표 Ⅳ-39〉 이주민이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1순위) ····· 105
〈표 Ⅳ-40〉 내외국인의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 106
〈표 Ⅳ-41〉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 107
〈표 Ⅳ-42〉 내외국인의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 108
〈표 Ⅳ-43〉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 109
〈표 Ⅳ-44〉 내외국인의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 109
〈표 Ⅳ-45〉 내외국인의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 111
〈표 Ⅳ-46〉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 112
〈표 Ⅳ-47〉 내외국인의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 113
〈표 Ⅳ-48〉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 114
〈표 Ⅳ-49〉 내외국인의 기타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 114
〈표 Ⅳ-50〉 한국어 학습 경험 ····· 115
〈표 Ⅳ-51〉 한국어 학습 방식 ····· 116
〈표 Ⅳ-5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경험 ····· 117
〈표 Ⅳ-53〉 한국어능력시험(TOPIK) 취득 등급 ····· 118
〈표 Ⅳ-54〉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수강 여부 ····· 119
〈표 Ⅳ-55〉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시험 응시 여부 ····· 120
〈표 Ⅳ-56〉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시험 취득 단계 ····· 120
〈표 Ⅳ-57〉 한국어 추가 학습 의향 ····· 121
〈표 Ⅳ-58〉 한국어 학습 희망 장소(1순위) ····· 122
〈표 Ⅳ-59〉 한국어 추가 학습 의향 없는 이유 ····· 124
〈표 Ⅳ-60〉 한국어 학습의 현실적인 어려움 ····· 125
〈표 Ⅳ-61〉 경남 정착 이유(1순위) ····· 126
〈표 Ⅳ-62〉 본국 삶 대비 경남에서의 전반적 삶 만족도 ····· 127

〈표 Ⅳ-63〉 본국 삶 대비 경남에서의 전반적 삶 만족도 ····· 128
〈표 Ⅳ-64〉 향후 경남 계속 체류 희망 ····· 129
〈표 Ⅳ-65〉 향후 체류 계획 기간 ····· 130
〈표 Ⅳ-66〉 최종 희망 체류자격 ····· 131
〈표 Ⅳ-67〉 최근 1년 내외국인 경제활동/주평균 근로시간 ····· 133
〈표 Ⅳ-68〉 최근 1년 경제활동/주평균 근로시간 ····· 134
〈표 Ⅳ-69〉 현재 근로 형태 ····· 135
〈표 Ⅳ-70〉 현재 근로 형태 ····· 135
〈표 Ⅳ-71〉 내외국인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136
〈표 Ⅳ-72〉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137
〈표 Ⅳ-73〉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 139
〈표 Ⅳ-74〉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 139
〈표 Ⅳ-75〉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고용보험 ····· 141
〈표 Ⅳ-76〉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 142
〈표 Ⅳ-77〉 내외국인 최근 3개월 월평균 개인소득 ····· 142
〈표 Ⅳ-78〉 내외국인 최근 3개월 월평균 개인소득 ····· 143
〈표 Ⅳ-79〉 면접 대상자 규모 ····· 144
〈표 Ⅳ-80〉 면접조사 내용 ····· 145
〈표 Ⅳ-81〉 이주배경가족 주요 특징 ····· 148
〈표 Ⅳ-82〉 이주민 상담사 ····· 150

그림 차례

[그림 Ⅲ-1] 외국인 인구 규모와 비율(2015~2025) ····· 35
[그림 Ⅲ-2] 이주배경인구 규모와 비율의 유형화 ····· 37
[그림 Ⅲ-3] 전국 성별 연령별 외국인 인구구조 변화(2015 vs. 2024) ····· 38
[그림 Ⅲ-4] 체류자격별 외국인 인구(2025) ····· 40
[그림 Ⅲ-5] 경남 외국인 인구 규모와 비율(2015~2025) ····· 44
[그림 Ⅲ-6] 이주배경주민 규모와 비율의 유형화 ····· 45
[그림 Ⅲ-7] 경남 성별 연령별 이주배경주민 인구구조 변화(2015 vs. 2024) 47
[그림 Ⅲ-8] 경남 체류자격별 이주배경주민(2025) ····· 49
[그림 Ⅳ-1] 공공서비스 유형별 내외국인 이용 경험 ····· 64
[그림 Ⅳ-2] 공공서비스 유형별 내외국인 도움 정도 ····· 77
[그림 Ⅳ-3] 내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획득 경로(1+2순위) ····· 92
[그림 Ⅳ-4]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한 도움(1+2순위) ····· 96
[그림 Ⅳ-5] 공공서비스 도움이 가장 필요한 가족 구성원(1+2+3순위) ····· 96
[그림 Ⅳ-6] 공공서비스 이용 시 차별한 대상(1+2+3순위) ····· 99
[그림 Ⅳ-7] 차별당했을 때 대응 방식(1+2순위) ····· 101
[그림 Ⅳ-8] 차별당했을 때 참은 이유(1+2순위) ····· 103
[그림 Ⅳ-9] 내외국인이 생각하는 이주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1+2순위) ····· 104
[그림 Ⅳ-10] 내외국인의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2순위) ····· 106
[그림 Ⅳ-11] 내외국인의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2순위) ····· 108
[그림 Ⅳ-12] 내외국인의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2순위) ····· 110
[그림 Ⅳ-13] 내외국인의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2순위) ····· 111
[그림 Ⅳ-14] 내외국인의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2순위) ····· 113
[그림 Ⅳ-15] 내외국인의 기타 서비스 상세 수요(1+2순위) ····· 115
[그림 Ⅳ-16] 한국어 학습 희망 장소(1+2+3순위) ····· 123
[그림 Ⅳ-17] 경남 정착 이유(1+2순위) ····· 127
[그림 Ⅳ-18]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지지 체계 ····· 133

[그림 Ⅳ-19] 내외국인 주민의 사회보험 가입률 ····· 138
[그림 Ⅳ-20] 1~2차 면접조사지 ····· 145
[그림 Ⅴ-1] 주요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195



I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정주형 이민 사회로의 전환

○ 이민정책은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관리, 결혼이민자 초기 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해 옴. 최근 저출생·고령화, 지역 인구 감소, 산업현장 노동력 부족 등 국가적 현안 대응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 방향은 이민자의 유입 및 체류 관리에서 장기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을 아우르는 육성형 이민정책으로 전환됨

○ 육성형 이민정책은 이민자의 유입과 적응을 넘어 정착과 정주를 포괄하는 의미로 누구를, 어떻게, 어느 영역까지 받아들이고 육성할 것인지가 정책 설계의 중요한 질문으로 작용함

○ 이민정책 기조 변화는 체류자격 제도 개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동반 가족과 함께 정주하며 귀화할 수 있는 단계적 정착 경로의 제도화임

-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K-point E74) 확대(법무부, 2023), Study Korea 300K Project(교육부, 2023),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법무부, 2025), 동포 체류자격(F-4) 통합(법무부, 2026) 등의 제도가 이에 해당함

□ 이주배경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

○ 체류자격 제도 변화는 필연적으로 이주배경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를 초래함. 이주배경인구는 지역의 주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동포, 귀화자 등 개인에서 이들의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 인구 집단으로 다변화하고 있음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경남 이주배경인구는 16만 8,121명으로 경남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 15만 5,659명보다 8.0% 증가함.[1] 2024년 경남 이주배경가구는 60,703가구로 경남 총가구

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 55,296가구보다 9.8% 증가함. 이주배경가구의 58.4%인 35,471가구가 외국인 주민 가구임

○ 경남은 노동력이 늘 필요한 산업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이 병존하고, 주요 시군을 중심으로 민족공동체(ethnic enclave)가 형성되어 국제이주네트워크로 기능하고 있는 점, 광역형 비자 제도로 인력 수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장기 정착을 계획하는 가족 동반 외국인 집단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이주배경인구, 특히 이주배경가족의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 지역 맥락에서 정주형 이민사회로의 국가 정책 기조전환은 외국인 주민의 양적 증가와 함께 이들의 생활 기반이 개인과 직장 중심에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함

○ 실제로 외국인 주민은 가족 유입 및 정착에 따라 한국어교육과 초기 생활 적응을 넘어 민원·행정, 취업과 고용, 보건의료, 보육과 교육, 사회보장, 안전과 권리 보호, 문화·여가 및 생활 편의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역사회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이용의 불편, 비합리적 적용 방식,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영역에 대한 불만을 인지하기 시작함

○ 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는 정책 수요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남은 산업인력 유치 및 체류 관리 중심에서 나아가 이주민 특화 지원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내에 이주배경인구를 포용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의 방향을 확대하고 기존 정책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으로서 공공서비스 확대 필요

○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의미함(전훈, 2022). 이주민에게 공공서비스는 초기 정착 및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이고, 교육, 노동, 복지, 보건 등 주요 제도에 참여하는 통로이며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하는 접점임

1) 전국 이주배경인구의 6.2%를 차지하며 경기, 서울, 인천, 충남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 규모임

○ 즉, 공공서비스는 이주민이 이주 수용 사회와 '관계'를 맺고, 관계의 거리를 좁혀나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며 높은 수준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수단임. 공공서비스는 이주민이 정착한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과정에 필요한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기회의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지역사회의 태도(modes of incorporation) 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포용적 관점을 견지해야 함

○ 따라서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은 단순히 서비스 수혜 여부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원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 이민 사회에서 공공서비스를 사회통합지표의 주요 개념에 포함해 사회통합정책의 성과 관리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라고 이해할 수 있음

□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이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 파악 필요

○ 최근, 정부는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이주민 대상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에 나서는 한편, 공공서비스 이용의 핵심 쟁점인 이주민의 복지정책 수급권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곽윤경 외; 2021; 유민이 외, 2024; 정동재 외, 2023)

○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빠르게 조응하는 한편, 관내에서 전개되는 다문화 현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오경석 외, 2025, 최정호·박미숙, 2023; 한혜림·배정은, 2023)

○ 주민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지방정부는 관내 이주민의 적응과 선주민과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내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펼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을 고민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생활 밀착형 시책을 이주민에게도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공공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이용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접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같은 서비스라도 개인과 가족의 체류

조건, 언어능력, 근로 여건, 사회적 관계망 및 거주지역에 따라 인지 가능성과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공공서비스 접근성은 단순한 이용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이주민이 서비스를 알고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 서비스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 이용 과정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용한 서비스가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상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개요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 내용적 범위

-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논의
- 외국인 주민 현황 분석
-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분석
-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2) 주요 연구 내용

○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논의

- 외국인 주민, 외국인 사회통합,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관련 법·조례,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분석

○ 외국인 주민 현황 분석

- 외국인 주민과 가족 현황 분석

○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분석

-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 설문조사·분석
-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 면접조사·분석

❍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3) 연구 방법

❍ 문헌과 자료 분석
- 국내외 선행연구, 관련 법·조례, 행정 자료, 행정 통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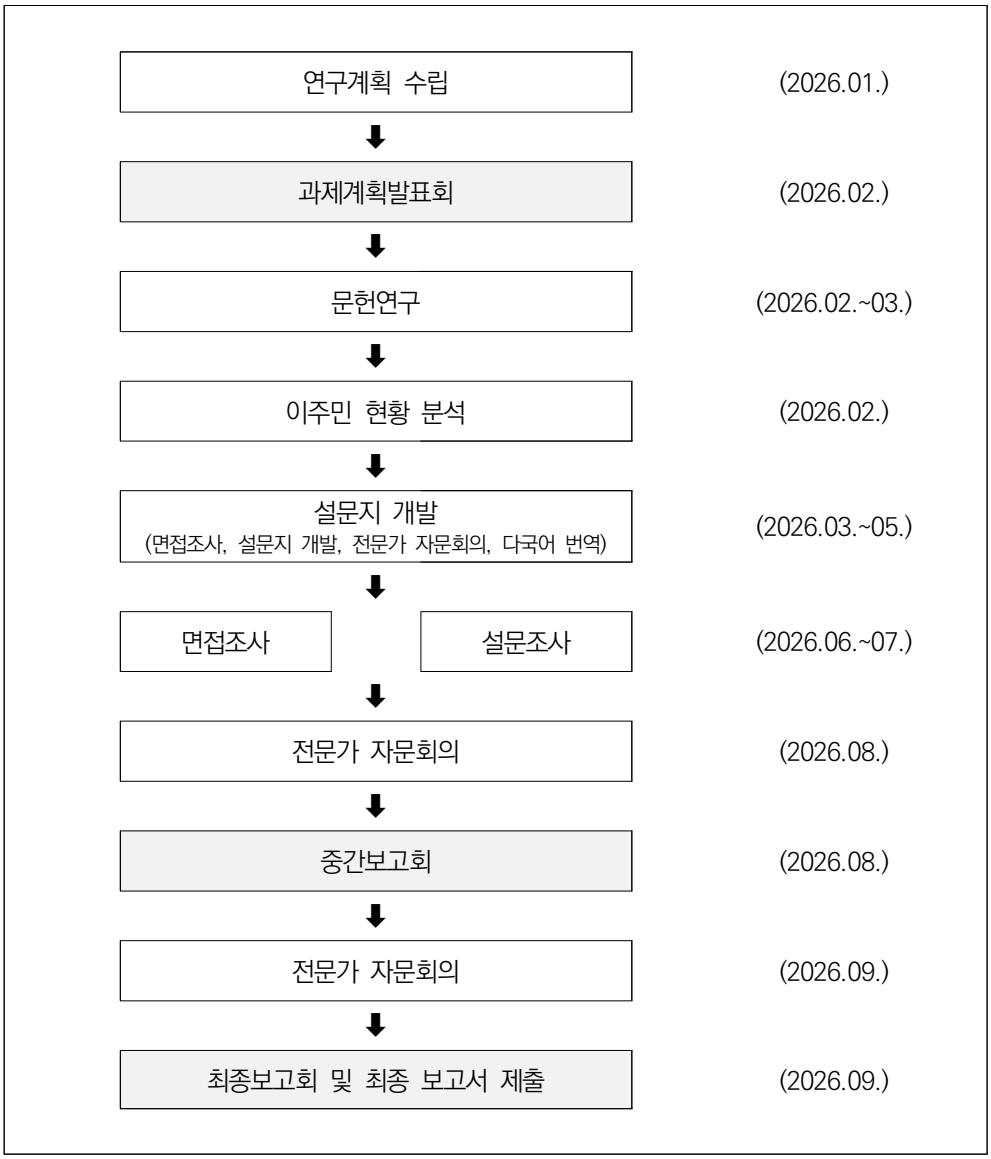
❍ 설문조사
- 대상 :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내외국인 1,279명(외국인 483명)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 분석에 내국인을 비교 집단으로 활용해 외국인 주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내용 :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정보 인지 경로, 이용 시 불편 사항, 개선 요구 사항, 한국어교육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자본, 경제활동 특성, 인적 사항 등
- 기간 : 2026년 5월 29일(금) ~ 7월 15일(수)

❍ 면접조사
- 대상 : 가족과 함께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외국인 주민 22명, 외국인 주민 지원 관계자 5명, 총 27명
- 내용 :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현황 및 정책 수요
- 기간 : 1차, 2026년 2월 26일(목)~3월 29일(일)
  2차, 2026년 6월 10일(수)~6월 28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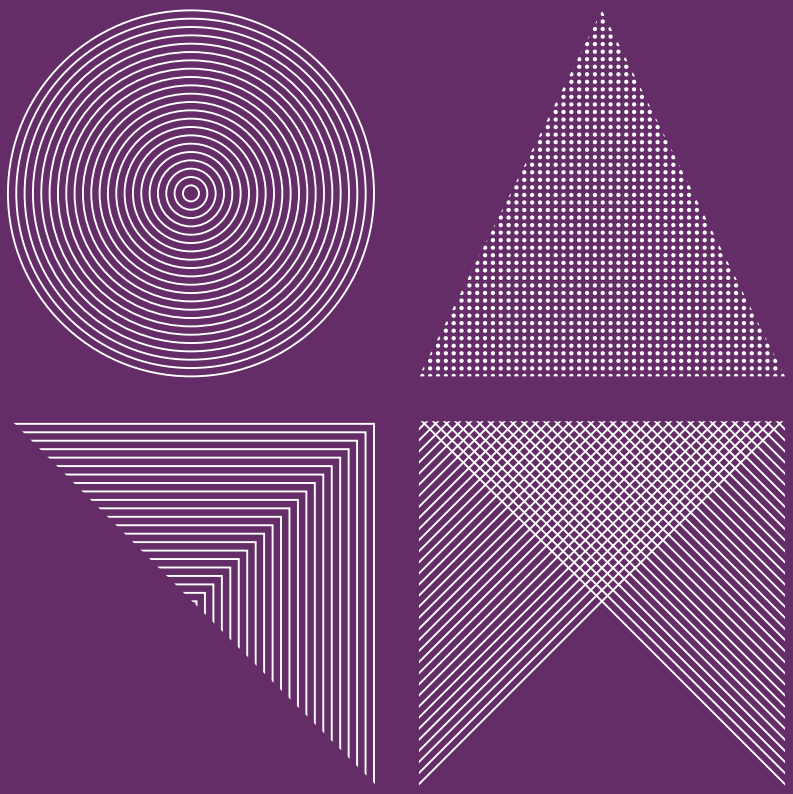
❍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 연구자, 교수, 및 현장 전문가
- 내용 : 경상남도 이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설문지(안)
  이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지원방안 관련 정책 자문
  ① 영유아 보육 정책, ② 보건의료 정책, ③ 통·번역 지원 정책
- 기간 : 2026년 4월, 7월, 8월, 9월

3. 연구 추진 절차

○ 연구 추진 절차는 [그림 Ⅰ-1]과 같음



[그림 Ⅰ-1] 연구추진 절차



II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과 공공서비스

Ⅱ.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과 공공서비스

1.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

1) 외국인 주민의 개념 및 정의

□ 외국인 주민의 개념 및 정의

○ ‘외국인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행정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경상남도는 ①도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②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③한국어/한국문화/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외국인 주민으로 정의함

〈표 Ⅱ-1〉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법·조례	조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도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외국인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 2026.08.04.)

□ 이주배경인구의 개념 및 정의

○ 최근, 국가데이터처는 이주배경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2023년부터 관련 통계를 공표함. 귀화자와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가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외국인 주민의 다양성이 증

가함에 따라 사회통합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대응임

-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외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적 개념으로, 외국인,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사할린동포, 이민자 2세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임(국가데이터처, 2024)

□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인구의 개념적 유사성과 차이점

○ 이주배경인구는 외국인 주민과 동의어로 볼 수 있음.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의 정의와 국가데이터처가 밝힌 이주배경인구의 개념이 포괄하는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임

○ 국가데이터처가 이주배경인구의 개념을 도입한 배경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음. 국민은 국가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국적으로 연결됨.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가 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

○ 법률은 국적을 기준으로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함(「출입국관리법」 제2조). 외국인 중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재한외국인으로 규정하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재한 외국인 관련 현안에 대응해 왔음. 다문화 사회가 장기화하면서 재한외국인의 체류 상태가 복잡·다양해졌고, 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짐에 따라 외국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주배경인구를 도입했다고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외국인 주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과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을 결합한 용어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며 주소를 가진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2세 등의 체류 자격을 비롯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속성을 가진 자 모두를 포괄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인구'는 포괄 대상이 일부 겹치지만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움. '외국인 주민'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상이며, '이주배경인구'는 국가데이터처가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 개념임. 본 연구는 도 지원정책 대상을 설명할 때 '외국인 주민'을, 국가통계

인용 시 해당 통계 용어를 사용함. 설문조사에서 '외국인 주민'에 귀화자가 포함됨을 밝힘

□ 외국인 주민의 지위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3조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를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3조1항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 주민이 인권 차원에서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보육/교육, 의료, 노동,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서도 체류 자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함

2)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정책과 사회적 포용성

□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개념과 정의

○ 이주민 사회통합은 이민자가 수용 국가에 적응/정착하는 과정과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학문적 배경, 분석 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됨. 개인 수준 연구는 이민자의 문화적응 방식과 정체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국가/제도 수준의 연구는 국가가 이주민의 정주와 권리, 제도 참여 및 문화적 다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조정하는가에 초점을 둠

○ 대표적인 개인 수준 연구로 Berry(2005)의 문화적응 전략(acculturation strategies) 모형이 있음. 이는 ①이민자가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도와 ②주류 사회와 관계를 형성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두 축으로 설정하여 문화적응 전략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로 유형화함. Berry의 유형은 개념적 명료성과 실증분석의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심리/사회적 적응을 분석하는 연구에 활용됨

○ Berry가 제시한 '통합'은 이민자 개인의 문화적응 과정이자 결과 중 하나로, 국가와 사회제도의 대응을 의미하는 사회통합정책과는 분석 수준이 다름. 국가나 제도 수준에서 사회통합은 국가가 이주민을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진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정주와 국적 취득, 사회적 권리, 제도 참여 및 문화적 다양성 관리 등을 어떻게 제도화하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임.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이민자의 주류 사회 편입을 강조하는 동화주의(Gordon, 1964), 문화적 차이와 소수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Kymlicka, 1995), 집단 간 접촉과 대화 및 상호 변화를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Cantle, 2012)가 있음

○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국가/제도적 수준의 개념으로 사용함. 따라서 사회통합정책은 중앙정부와 경상남도가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이들이 보육/교육, 노동, 복지, 보건의료 등 주요 사회제도와 공공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이주민과 지역사회 간 관계 형성 및 상호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함

□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논의

○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이주민이 수용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인정받는, 이주민과 수용 사회가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의 거리와 위계를 재설정하는 장기적인 과정임. 다시 말해, 사회통합은 이주민이 수용 국가의 언어/문화를 일방적으로 습득하는 동화 과정이 아니라, 이주민과 수용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제도를 조정해 가는 상호 수용의 과정임(Penninx & Garcés-Mascareñas, 2016)

○ 이는 법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역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주민이 언어/문화적으로 익숙해지는 문화적응(acculturation)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주요 제도와 자원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에 구조적으로 적응하는(structural assimilation) 과정까지 포함함(Ager & Strang, 2008; Gordon, 1964)

- Gordon은 동화 모형(assimilation)에서 문화적응(acculturation)과 구조적 적응(structural assimilation)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지는 않았고, 구조적 동화가 동화 모형의 핵심이라고 설명함. 사회·구조적으로 먼저 적응한 이민자는 주류 사회의 구성원과 어울리면서 더 수준 높은 문화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는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 교육과 같이 이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뿐 아니라 교육, 고용, 주거, 복지, 보건의료, 문화 등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정책도 포함됨. 일반적인 공공서비스라도 국적과 체류 자격, 언어, 정보 부족, 이용 절차 및 차별적 관행 등에 따라 이주민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고, 따라서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주민 사회통합은 이주민과 수용 사회 간 관계의 문제이기에 그 결과는 이주민의 노력뿐 아니라 수용 사회의 문화, 언어, 인종 등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 제도의 개방성, 공공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등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이주민 사회통합 양상(modes of incorporation)에 의해 결정됨(Portes & Rumbaut, 2001; Williamson, 2018). 이주민 사회통합 조건/환경에 해당하는 modes of incorporation 조성에 정부 역할이 막강하므로, 정부는 이주민의 언어/문화 적응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다언어 서비스 제공, 제도적 차별의 해소, 보편적 공공서비스 접근 보장, 주민 간 교류와 참여 확대 등 수용 사회의 제도적 변화를 함께 추구해야 함

□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유형

○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국가가 사회에 유입된 외국인을 통합하는 정책의 철학적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문화 정책, 동화 정책, 차별적 배제 정책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Castles et al.(2014)은 이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인 '국적'을 기준으로 사회통합정책을 개념적으로 유형화를 했다는 점에서 인정받고 있으나, 실제 정책 현장에서 각 유형은 정책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라 혼합적으로 나타남

○ 민족주의 기반의 차별적 배제 정책은 이주민의 정주와 국적 취득을 허용하지 않음. 노동시장과 같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 영역에 이주민의 유입을 허용하나, 사회·정치적 영역에서는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모델로 이주민은 국가/지역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음. 최근까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한 정책 기조가 대표적인 사례임

○ 다문화 정책과 동화 정책은 이주민의 정주와 국적 취득은 허용하나, 철학적 기반이 다른 탓에 이주민의 언어/문화 유지/보존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임. 동화주의에 기반한 동화 정책은 사회 내 동질성에 기반한 통합을 지향하므로 이주민이 수용 국가의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에 일방적으로

동화할 것을 기대함. 따라서 동화 정책 기조에서는 언어, 역사, 정치, 경제, 삶의 방식 등으로 구성된 사회통합 교육정책이 강조되고, 교육의 성과인 수료 여부와 시험 점수를 국적 취득과 연계함으로써 정부가 이주자에게 사회통합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함(Joppke, 2017)

- ❍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다문화 정책 기조를 취하는 국가는 결과적으로 이주민이 주류 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에 동화되기를 원하나, 이는 이민자가 자유의지로 결정할 권리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에 개입하지 않고(Bourhis et al., 1997),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선주민과의 상호 공존을 추구함. 이주민이 수용 국가의 주류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종속적 포섭보다는 보편적 인권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이주민에게 국적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함(Colombo, 2015)
- ❍ 유럽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동화 정책 기조에 힘이 실리고 있음(Lesinska, 2014; De Haas et al., 2020). EU는 이민자와 난민의 대량 유입에 따른 사회 내 인종 및 문화 다양성 확대에 다문화 정책으로 대응했으나 2010년을 전후로 경기 침체, 자생적 테러리스트(homegrown terrorist)의 등장 등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반이민정서가 확대됨. 이민정책이 정치적 문제로 떠오른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이민 국가 지도자들은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시민 통합 시험, 언어·가치 교육 의무화 등 신동화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였음[2)]
- ❍ 다만, 최신 동향은 동화 정책을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주류로 판단하기 어려움.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5」에 따르면, 룩셈부르크는 기존 통합 프레임을 상호문화적 공생(intercultural living together) 모델로 전환했고, 라트비아는 지방정부/이주민단체와 공동설계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역 분권형/상호문화적 접근이 동화주의적 흐름과 병존하고 있음

□ 이주민 사회적 포용성의 개념

- ❍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사회적 배제에 대응해 등장한 개념임.

2) 2010년 독일의 Angela Merkel 수상, 2011년 프랑스의 Nicolas Sarkozy 대통령과 영국의 David Cameron 수상 등 EU 주요 지도자들은 대량 이민이 사회적 문제이며, 다문화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선포하고 강력한 이민 통제와 동화 정책으로 외국인 정책 기조를 선회함

사회 구성원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 권리, 사회적 관계 등의 기회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배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배제를 발생시키는 관습적,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참여 조건을 마련하는 동태적인 과정임(Levitas et al., 2007)

- Silver(2015)는 사회적 포용이 사회 구성원의 ①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②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③존중과 인정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다차원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함. 아울러, 소득 보전이나 복지급여와 같은 분배정책 외에도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람 또는 사회제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지,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는지 등이 사회적 포용의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함
- '사회적 포용'이 포용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면, '사회적 포용성'은 특정 사회나 제도, 정책이 다양한 구성원을 배제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함.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은 이주민을 기존 사회에 기계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넘어 이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둠
- 사회적 포용은 3단계-①접근, ②참여, ③역량 강화에 의한 성취-로 구분하는데(Gidley et al., 2010), 이에 따르면 이주민에게 공공서비스 이용 대상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포용의 첫 단계로 볼 수 있음. 사회적 포용성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이주민이 공교육 및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체류자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 상태를 넘어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적 역할과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화 수준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이주민 사회통합과 사회적 포용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

- 이주민 사회통합과 사회적 포용성은 모두 이주민의 제도 참여, 사회적 관계, 권리와 소속감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함. 그러나, 사회통합은 이주민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인정받는 전반적인 과정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적 포용성은 그 참여가 얼마나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강조함
- 요컨대, 사회통합은 이주민 정착의 과정과 결과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고 사회적 포용성은 그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조건과 질을 판단하는 기

준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사회통합이 '참여와 소속의 정도'를 보여준다면 사회적 포용성은 '참여의 조건과 관계의 질'을 보여줌. 이주민이 취업하거나 학교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진전을 의미할 수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 서비스 이용 제한, 사회적·구조적 차별과 배제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포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사회통합과 사회적 포용성은 이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상호 보완적 개념임.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적응과 참여를 개별 사업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와 공공서비스가 이주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성에 대응하도록 변화하는 것이 필요함

3) 정부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분석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정부의 외국인·이주민 정책 원칙과 방향, 중장기 전략 체계를 담은 범정부 최상위 종합계획임. 1~4차 계획의 목표는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이라는 다섯 개 개념을 유지하고 있으나, 각 개념의 우선순위는 차수별 정책 내외부 환경에 따라 조정됨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사회통합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통합의 주체가 외국인에서 내외국인으로 확대된 것임. 사회통합은 제3차 계획까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포섭/동화되어야 한다는 동화 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나, 제4차 계획은 국민이 이주민과 더불어 이민자 사회통합의 주체라는 점을 명시하고 상호문화주의 관점의 다문화 정책 기조로 담론의 방향 전환을 시도함(김철효, 2025)

○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차수를 거듭할수록 이주 배경 자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동포, 장기 체류자 등 전체 이주민과 내국인으로 확대했으나, 사회복지 수급권과 직결되는 체류 자격별 위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 정책 수단은 한국어 및 문화 교육과 생활 지원 중심의 직접 서비스 공급 확대에 집중했지만, 제4차 계획에서는 계량적 지표를 활용해 사회통합정

책의 중장기적 효과성을 측정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지자체 정책 컨설팅을 추진하며 증거 기반, 성과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정책 수단 확대를 시도함

〈표 Ⅱ-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별 사회통합정책 주요 특징

구분	1차 (2008~2012)	2차 (2013~2017)	3차 (2018~2022)	4차 (2023~2027)
비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국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 국가
5대 목표	◦ 적극적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개방]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	◦ [개방]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질 높은 사회통합	◦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 [통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안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 사회 구현
	◦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 [인권] 차별 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	◦ [안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외국인 인권 옹호	◦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 [인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협력]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	◦ [협력]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 행정 기반 구축
주요 정책 대상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 이주배경 자녀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 이주배경 자녀 ◦ 외국인 근로자	◦ 이주민 전체 ◦ 지역 주민
주요 정책 수단	◦ 개별 서비스 공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 정보/복지 접근성 확대	◦ 지표 기반 성과관리 ◦ 거버넌스 개편
중앙-지방 관계	◦ 중앙 일원화	◦ 중앙 일원화	◦ 중앙 중심	◦ 지역 맞춤형 지향

출처: 차수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참고해 저자 작성

○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동화주의 기조에서 다문화주의와 상호 문화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했으나, 사회통합교육과 체류 자격/국적 취득의 연계, 경제적 필요에 따른 선별적 유입 및 체류 자격별 권리 차이 등 주요 정책의 면면을 보면 이주민에게 적응책임을 부과하는 동화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음. 이주민이 정착한 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동화 정책 유지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고(Colombo, 2015), 오히려 다문화/상호문화주의 관점을 수용함으로 사회적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사회통합의 질 개선으로 관심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주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임. 중앙정부는 국가 사무인 체류 자격, 각종 법적 권한 관련과 지역의 사회통합정책 수준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주민의 적응과 지역사회 통합은 이주민의 생활세계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련 사무를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2) 경상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경상남도는 별도의 이주민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근거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본 장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확인한 사회통합정책의 특징이 경남의 시행계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정책 영역별 과제 및 예산 현황

○ 2026년 시행계획은 공통과제 15개, 자체과제 54개 총 6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5대 영역 중 '통합' 영역에 가장 많은 과제가 추진되고 있음. 2026년 총예산은 32,788.7 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함

○ 시행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의 5대 목표 영역 중 국가 사무인 출입국관리에 해당하는 '안전', '협력' 사업 외에 '통합', '경제', '인권' 세 영역을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통합' 영역이 전체 사업의 73.9%(51개), 전체 예산의 56.5%(18,514백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 영역별로 봤을 때 특징은 다음과 같음. 가장 비중이 큰 '통합' 영역 사업 예산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5,469.9백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4,073.6 백만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2,460백만원 등으로 82.1%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3)]

〈표 Ⅱ-3〉 2026년 경상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과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영역	과제수		예산	
		비율		비율
계	69	100.0	32,788.7	100.0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0	14.5	11,325.0	34.5
[안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 사회 구현	0	0	0	0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51	73.9	18,514.7	56.5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8	11.6	2,949.0	9.0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	0	0	0

출처: 경상남도(2026).「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2026년 시행계획(안). p35.
주: 예산=공통과제 예산+자체과제 예산

❍ 이는 국민의 배우자로 국내 정주가 허용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던 다양한 통합 지원 정책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 대상 다양한 통합 지원사업은 정책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그 대상 범위를 외국인 주민 자녀까지로 확대함. 그러나 사업 운영 지침상 확대에 그치고 있어 실제 사업 수행 단계에서 사업 참여 우선권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외국인 주민 증가로 ‘통합’ 관련 정책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2.9% 증가에 그침.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구, 등록 외국인, 체류 인구를 합산한 ‘생활인구’가 반영되어 있고, 경남은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산

3) 2026년 ‘통합’ 영역의 공통과제 예산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5,469.9 백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4,073.6 백만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2,460.0 백만원, 문화다양성 축제(MAMF) 1,100 백만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운영 471.6 백만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45.0 백만원으로 구성됨

정 기준의 적용을 받음(행정안전부, 2025.10.31.). 즉, 등록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해당 시군의 지방교부세 재배분 규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앙정부가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를 지방재정 배분의 근거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함. 하지만, 경남의 외국인 주민 '통합'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에 그쳐,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인정한 행정수요 증가분이 도 차원의 예산 편성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제' 영역은 11,32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를 차지하는데, '지역산업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유도 사업'에 처음으로 4,61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3,750백만원)과 '지역일자리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2,486백만원)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예산이 196.5% 증가함

〈표 Ⅱ-4〉 경상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영역	25년			26년			증감
	A	공통	자체	B	공통	자체	
계	24,378.7	18,075.1	6,303.6	32,788.7	25,497.1	7,291.6	34.5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3,819.7	3,363.7	456	11,325	10,853.0	472	196.5
[안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 사회 구현	0	0	0	0	0	0	0.0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17,986	14,120.4	3,865.6	18,514.7	13,720.1	4,794.6	2.9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2,573	591	1,982	2,949	924	2,025	14.6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	0	0	0	0	0	0.0

출처: 경상남도(2026).「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2026년 시행계획(안). p35.
주: 증감=(B-A)/A×100

○ '인권' 영역은 전체 예산의 9%인 2,949백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경제 영역이라 볼 수 있는 지역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지원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에 인권 영역 예산의 68.2%인 2,010백만원이 편성됨. 실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예산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467백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297백만원 등으로 위기/취약 상황에 대응하는 개별 사업 예산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 요약하면, 경상남도의 사회통합정책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있고, 이주민 대상 위기 대응/긴급 지원 성격의 서비스는 과제 수와 예산 모두 비교적 작게 편성되어 있음

2. 공공서비스

1) 공공서비스의 개념적 정의

□ 공공서비스의 개념 정의 기준

○ 공공서비스는 행정학/정책학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재화의 성격에 근거한 정의와 제공 주체에 근거한 정의가 혼용되고 있음(Savas, 1987; 유민봉, 2015)

○ 재화의 성격을 기준으로 보면, 공공서비스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특징으로 하는 순수 공공재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용이 제한되는 요금재(toll goods), 가치재(merit goods)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함(유민봉, 2015)

○ 제공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직접 제공하거나 예산 지원을 통해 민간에 위탁·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일체를 의미하며(Savas, 1987; 유민봉, 2015), 본 연구는 이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가 이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공공서비스의 범위로 설정함

□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체계

○ 공공서비스는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다시 세분되며, 이러한 세분화는 이주민에 대한 수급자격 설계와 밀접하게 연관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영역은 재정방식(기여형/비기여형), 대상자 선정방식(보편적/선별적), 운영주체(보험자/국가, 지자체/민간 포함) 등에 차이가 있음

○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주민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8조).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은 기여를 전제로 하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적용 여부는 체류 자격별로 상이하게 설계되어 있음

〈표 Ⅱ-5〉 사회보장의 종류 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주체	보험자	국가/자지체	국가/지자체/민간
목적	사회적 위험 대처	최저생활보장 자립 지원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삶의 질 향상
방식	보험방식 (기여금)	국가/지자체 책임 (자산 조사)	다양한 방식
대표 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등	돌봄, 바우처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출처: 국회법률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총칙을 참고하여 정리함

- ❍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음(§ 제3조4호)
- ❍ 즉, 사회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과 수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설계하기에 적합한 영역이므로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자체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범위와 급여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기후보험[4]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음

4) 경기도 기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자와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약1,440만 명 모두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단체보험으로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함. 메리츠화재를 대표사로 하는 5개 민간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온열·한랭질환 진단비(15만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20만원), 기후재해 위로금(30만원), 응급실 내원비(10만원), 사망위로금(300만원) 등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임(한국경제(2026.08.07.), '폭염에 쓰러지면 15만원 받는다…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2) 이주민 사회통합과 공공서비스의 관계 : 시민권/사회권 이론

□ 시민권 이론과 사회적 요소

○ 전술한 사회통합 이론이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국가 제도 편입의 양상을 다룬다면, 공공서비스 접근권 논의는 시민권 이론에 정초하여 이주민의 제도적 편입이 이주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로 구현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시민권은 한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법적 지위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로 구성됨(Marshall, 1950). 이 중 사회적 요소는 경제적 복지와 안보를 위한 권리,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문명화된 삶을 살 권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 보육/교육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체계로 구체화 됨

○ 마샬의 논의는 국적(nationality)을 전제로 한 국민 국가의 시민권 개념에 기반하고 있어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구성원 자격을 국가가 아닌 공동체 단위와 연계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데니즌쉽(denizenship) 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됨(설동훈, 2005; 윤영근·정동재, 2021)

□ 데니즌쉽 모델과 공공서비스 접근권

○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공공서비스 접근권 범위에 관한 Groenendijk(2006)의 연구는 거주권과 사회권 두 기준으로 법적 지위부여 방식을 시민권, 준시민권, 특별대우, 데니즌쉽 네 가지로 구분함

○ 역사적으로 서구권에서 데니즌의 개념은 '귀화한 나라에서 특정한 권리가 허용되는 외국인' 혹은 '거주자'를 의미함(Tonkiess & Bloom, 2016; 정동재 외, 2022 재인용). 시민권이 이주 수용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면, 데니즌쉽은 합법적인 비자로 이주 수용 국가에 체류할 수 있고 지역 주민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복지 수급권, 정치적 참정권 등이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음(Standing, 2014; 정동재 외, 2022 재인용; Turner, 2016)

○ 윤영근·정동재(2021)는 데니즌 개념이 현행 한국의 '외국인 주민' 개념과 제도운영 방식-정치적 참정권이 인정되는 시민과 공적 서비스 대상으로서 거주 자격을 갖는 주민을 구분하는 방식-과 가깝다고 설명함

□ 접근성-통합 성과 간의 실증적 연관성

○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사회적 포용성의 첫 단계라는 명제(Gidley et al., 2010)는 공공서비스의 인지율과 실제 수혜 경험률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 인지는 접근의 전제조건이므로, 인지율이 낮은 서비스가 실제 수혜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지는 이중 격차가 발생한다면, 이는 접근성 격차가 사회통합 성과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음

○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은 정(+)의 관계가 있음(유민이 외, 2024; 이인숙 외, 2023) 사회복지 서비스별 인지율과 수혜 경험률의 관계를 살펴본 유민이 외(2025)는 인지율이 가장 높은 아동수당(57.6%)은 수혜 경험률도 47.2%로 높았던 반면, 인지율이 낮은 장애인 등록(25.3%)과 공공근로사업 참가(17.8%)는 수혜 경험률이 각각 5.0%, 7.4%에 그쳐 절대적 수준에서 인지도가 낮은 서비스가 실제 이용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실증함. 결혼이민자 대상 경남 지역 서비스 기관의 인지율과 이용률을 살펴본 이인숙 외(2023)는 인지도(95.6%)가 높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이용률이 80.0%에 이른다고 보고함

○ 요컨대 인지율과 수혜 경험률 간의 정비례 관계와 그에 따른 이중 격차는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사회통합을 뒷받침하는 부수적 수단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의 첫 단계인 '접근'의 실현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단계인 '참여'와 '역량 강화에 의한 성취'(Gidley et al., 2010)로 이어지는 통합 성과의 출발점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임을 방증함

3)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성

□ 이주민 특성과 정책 수요의 지역별 차이

○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하향식 방식으로는 지역의 정책 현안과 수요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경남은 조선업/기계산업 중심의 제조업

벨트와 농어업 중심 지역이 공존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정책 대상의 구성비 자체가 시군별로 상이함

○ 이러한 지역 간 이질성은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과 재정 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논의로 뒷받침됨. Oates(1972)의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에 따르면, 지역별로 선호와 수요가 이질적일 때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서비스 수준을 차등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임

○ 이는 앞서 공공서비스 개념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영역이 지역 자원과 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조례로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재량이 사회보험, 공공부조보다 큰 것과 같은 맥락임

□ 근접행정과 서비스 전달의 실행력

○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성과는 정책의 설계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달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함. Lipsky(1980)가 제시한 일선 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개념에 따르면, 복지/행정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은 중앙정부가 설계한 법령이나 지침이 아니라 창구에서 이주민을 직접 대면하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족센터 상담 인력 등 일선 행정력의 재량과 역량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됨

○ 이는 앞서 확인한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조사의 인지율-수혜 경험률 이중격차 문제와 직접 연결됨. 이주민이 서비스에 대해 인지한 후, 신청 절차의 복잡성, 자격요건, 언어 조력자 부재 등 서비스 이용 과정의 장벽이 수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데, 이러한 장벽을 낮추는 주체는 이주민의 생활공간에 밀착한 지방정부와 그 산하 전달체계라고 볼 수 있음. 즉 공공서비스 접근성이라는 사회적 포용의 첫 단계는 정책 설계 차원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집행 역량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음

□ 사회통합정책 추진 주체, 중앙 집중에서 지역 분권화로

○ 이러한 필요성은 국내외 정책 동향에서도 확인됨. 전술한 바와 같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중앙정부가 체류 자격, 법적 권한 등 국가 사무에 집중하고 이주민의 적응과 지역사회 통합은 지역의 역할로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은 경남이 그간 연간 시행계획을 추진하며 축적해 온 경험과 현장 네트워크를 토대로, 도 차원의 자율적/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기회로 볼 수 있음. 특히 도내 시군별 산업구조와 이주민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경남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앞서 논의한 보충성의 원칙과 근접 행정의 장점을 실현하고, 중앙정부의 분권화 기조에 부응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본 연구는 이후 장에서 경상남도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를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3.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과 공공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주요 연구를 살펴본 결과,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연구의 초점이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음. 중앙기관은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에 지방기관은 외국인 주민의 생활 실태와 실천적 지원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차이는 연구 결과 정책 제언의 차이와도 연결됨. 중앙기관에서 추진한 연구는 외국인이 사회적, 제도적 기회에서 차별받는 것을 완화/제거하는 법제도 개선안을 제언해 외국인의 인권, 기본권 보장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관내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시도별 연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세계에 대한 종합적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기조로 한 이들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는 별도의 지원 정책/정책 개선안을 도출함

○ 선행 연구는 공통적으로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에 주목하며,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관련 문항을 질문하고 있는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것을 주요 주제로 다루는 연구(정동재 외, 2022; 오경석 외, 2025)와 종합적 생활 실태의 하나로 다루는 연구(이인숙 외, 2023; 이한숙 외, 2017; 이혜진 외, 2021; 최정호·박미숙, 2023; 최윤정 외, 2025; 한혜림·배정은, 2023)로 나눌 수 있음. 후자의 연구는 연구 대상에 따라 외국인 주민 집단 전체를 다룬 연구와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차이가 있음(이인숙 외, 2023; 최윤정 외, 2025)

○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도 차이가 있음. 선행 연구는 공공서비스를 서비스 공급 기관(조직)과 지원 내용(기능)으로 개념화하는 영미권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전훈, 2022). 공공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본문에서 다루지 않아도 공공서비스는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고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문항은 어느 정도 표준화된 문항이기 때문에 신뢰도 및 타당도가 확보된 조사 도구라는 인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문항 구성 자체가 공공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구성일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시도별 연구는 각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게 설문 문항을 조정하여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방정부가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발견됨. 수요자인 외국인 주민이 이용하는/이용을 희망하는 공공서비스가 무엇인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에는 접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

〈표 Ⅱ-6〉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관련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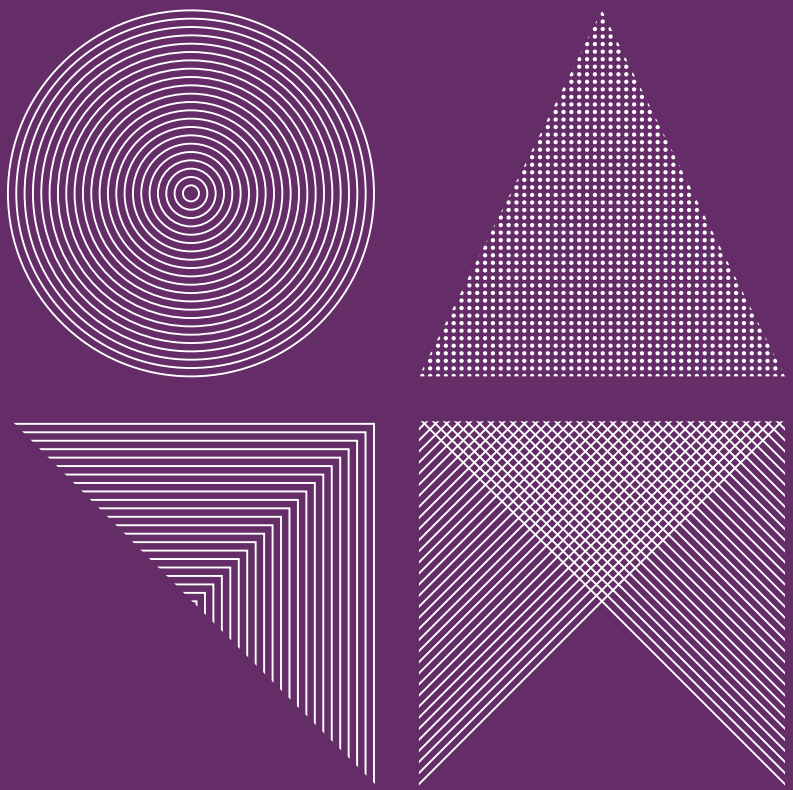
<table>
<tr><th>연구명</th><th>연구 방법</th><th colspan="2">연구 내용</th></tr>
<tr><td>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정동재·윤영근·염지선·류현숙·김태희, 2022)</td><td>◦ 문헌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
◦ 초점집단면접</td><td colspan="2">◦ 외국인/이민자 관련 국내외 사회통합 측정·평가지표 비교 분석
◦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수준 평가 지표 개발 및 조사 방법, 전략 체계 마련</td></tr>
<tr><td>데니즌쉽(Denizenship)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td><td>◦ 문헌분석
◦ 설문조사
◦ 심층 면접조사
◦ 국내외 사례분석</td><td colspan="2">◦ 기관 및 공공/행정서비스 이용 및 도움 여부, 도움 요청 시 거절 경험 및 거절 이유 등 조사
공공서비스
조직별: ◦ 지방지차단체 외국인 이민자 관련 부서 ◦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 지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 ◦ 지역 내 외국인 지원기관/센터 ◦ 기타
기능별: ◦ 의료/건강(국공립병원/보건소 이용, 긴급의료 등) ◦ 치안/안전(경찰, 119 등) ◦ 사회보장(기초생활수급/보장, 기초연금 등) ◦ 생활정보(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공공 체육시설, 노약자 지하철 무임승차, 장애인 이용시설 등) ◦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신청, 전월세 대출 등) ◦ 교육(자녀의 초중등학교 입학/전학, 아동 보육료,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 취업/고용(취업교육,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
◦ 주요 영향 요인: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거주, 취업비자(취업제한,</td></tr>
</table>

<table>
<tr><th>연구명</th><th>연구 방법</th><th>연구 내용</th></tr>
<tr><td></td><td></td><td>취업 가능), 체류 비자와 상태(단기/불안정, 장기/안정적)</td></tr>
<tr><td>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이한숙·김사강·강혜숙·오경석·우삼열, 2017)</td><td>◦ 설문조사
◦ 면접조사
◦ 사례분석</td><td>◦ 이주민 관련 제도 인지 여부, 이용경험, 만족도/공공기관에서의 차별 경험/정부 제공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향후 바라는 정책 등 조사
공공서비스
조직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노동청과 고용센터 ◦ 주민센터와 시군구청 ◦ 경찰청 ◦ 법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주여성쉼터/외국인력지원센터
기능별: ◦ 의료지원사업(노동청, 국가인권위, 고용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 등) ◦ 초중등무상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 최저임금
◦ 주요 영향 요인: 체류자격(취업비자 소지자/정주형 장기체류비자/기타 체류자격 소지자/미등록 체류자)</td></tr>
<tr><td>2023년 다문화사회통합전략 연구 (전기택·김은경·정가원·정다은·심예리, 2024)</td><td>◦ 문헌분석
◦ 면접조사</td><td>◦ 사회보장 정책 중 건강 및 노후보장 분야 총 322개 사업에 관한 차별 요소 분석</td></tr>
<tr><td>2024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최윤정·전기택·김이선·조혜승·동제연·염혜경·서덕희·양계민·최영미, 2025)</td><td>◦ 설문조사</td><td>◦ 지원 서비스 및 시설 인지 여부, 지원 시설 인지 및 이용 여부, 교육 및 지원 경험 및 필요성
공공서비스
조직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누리 콜센터(1577-1366)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정부지원여성센터(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등) ◦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사회복지관 ◦ 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주여성 보호시설 ◦ 그 밖의 외국인 지원단체 ◦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 및 복지시설,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별: ◦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 교육 ◦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 각종 상담 ◦ 통·번역 서비스 ◦ 임신·출산 지원 ◦ 부모 교육 ◦ 자녀 학습 지원 및 언어발달/이중언어 지원 ◦ 사회활동 지원(자조모임, 지역주민 교류활동 등) ◦ 취·창업 지원 ◦ 학력 취득 지원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주요 영향 요인: 가구 유형,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국내 거주 기간, 취업 여부, 가구소득</td></tr>
<tr><td>외국인지원시설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td><td>◦ 설문조사
◦ 초점집단 면접조사</td><td>◦ 서울시 운영 외국인 지원 시설 인지도, 이용 경험, 인지 경로, 이용 이유, 만족도(품질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시설평가(환경 만족도, 환경 세부 항목 만족도), 정책 수요 등 조사</td></tr>
</table>

<table>
<tr><th>연구명</th><th>연구 방법</th><th>연구 내용</th></tr>
<tr><td>(강희영·이화용, 2018)</td><td></td><td>공공서비스
조직별: ◦ 글로벌센터 ◦ 글로벌빌리지센터 ◦ 외국인근로자센터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문화체험센터
기능별: ◦ 한국적응프로그램 ◦ 생활관련 정보 제공 ◦ 취창업 교육 및 알선 ◦ 외국인 모임 ◦ 상담 ◦ 문화/예술 ◦ 의료 시설 ◦ 무료 진료 ◦ 기타
◦ 주요 영향 요인: 국적,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성별, 연령</td></tr>
<tr><td>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최정호·박미숙, 2023)</td><td>◦ 설문조사
◦ 초점집단 면접조사</td><td>◦ 인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경험 및 만족도/필요성, 인천시 공공시설 이용 경험, 한국어교육 경험 및 교육 기관, 토픽(TOPIK) 응시 여부 및 결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검진 실시 여부, 주로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 등 조사</td></tr>
<tr><td>부산지역 외국인 주민 생활실태 조사
(한혜림·배정은, 2023)</td><td>◦ 설문조사
◦ 초점집단 면접조사</td><td>◦ 시설 이용 경험, 인지 경로, 이용 시 어려운 점, 이용하지 않은 이유,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돌봄·교육 서비스 이용 여부, 국적 취득 시 어려운 점, 정책 수요 등을 질문함
공공서비스
조직별: ◦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글로벌센터) ◦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소 ◦ 도서관 ◦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능별: ◦ 한국어교육 프로그램(한국어교육, 자녀 이중 언어교육 등) ◦ 공공기관 내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 자녀 양육관련 지원 및 정보제공 ◦ 외국인주민 취업 및 창업 교육/정보제공 ◦ 주거 관련 서비스(주택 임차 관련 안내, 상담 등) ◦ 교통 관련 서비스(도로·교통 외국어 안내 서비스 등) ◦ 가족관계 관련 상담/교육 프로그램 ◦ 한국생활 정보제공(교통, 의료, 쓰레기분리수거 등) ◦ 문화·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수강, 관람, 체험 등) ◦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산시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 ◦ 내국인주민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 동호회
◦ 주요 영향 요인: 외국인 유형(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성별, 연령대, 학력, 출신 국적, 거주지역(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 남부산권), 거주기간, 희망 체류 기간</td></tr>
<tr><td>경기도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오경석·박성일·이경숙·최경식·최서리·안은진, 2025)</td><td>◦ 설문조사
◦ 심층 면접조사
◦ 국내외 사례분석</td><td>◦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이용 방식, 공공서비스 인지 경로, 공공서비스 이용 만족도, 이용 시 어려운 점, 공공서비스 이용 시 인식한 사회적 차별, 공공서비스 개선 및 이용 촉진 방안 등 조사
공공서비스
조직 × 기능: ◦ 고용 관련 서비스(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 체류자격(비자) 관련 서비스(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출입국사무소, 하이코리아(Hi KOREA) 등)</td></tr>
</table>

<table>
<tr><th>연구명</th><th>연구 방법</th><th colspan="2">연구 내용</th></tr>
<tr><td></td><td></td><td></td><td>◦ 민원행정 서비스(시청(민원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 가족 관련 서비스(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누리 콜센터(1577-1366) 등)
◦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경기도 운영 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
◦ 납세 관련 서비스(세무서, 홈택스 등)
◦ 안전/사법관련 서비스(법원, 경찰서, 소방서 등)
◦ 교육 관련 서비스(유치원, 학교, 교육청 등)
◦ 주민편의 관련 서비스(도서관, 우체국,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체육시설 등)
◦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외국인복지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등)</td></tr>
<tr><td></td><td></td><td colspan="2">◦ 주요 영향 요인: 성별, 거주 지역(지역발전 평균 이상), 국내 가족 체류, 근로 여부, 체류유형(조건부, 한시적, 영구적, 기타, 귀화), 연령, 체류 기간, 한국어 실력</td></tr>
<tr><td>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이혜진·박선희·김민정·강채련, 2021)</td><td>◦ 설문조사
◦ 심층 면접조사</td><td colspan="2">◦ 국적 취득시 어려움, 토픽(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 인지 및 이용 여부,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 문화생활 시 불편한 점, 사회활동 참여 경험, 가장 참여하고 싶은 지역사회 활동 등을 질문함
공공서비스
조직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요 영향 요인: 성별, 체류유형</td></tr>
<tr><td>202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이인숙·이혜림·최나현, 2023)</td><td>◦ 설문조사
◦ 초점집단 면접조사</td><td colspan="2">◦ 지역사회 정책 추진기관 인지 및 이용 여부, 인지 경로/도·시군 가족센터 인지 경로/가족센터 교육 및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만족도, 필요도 등을 조사함
공공서비스
조직별: ◦ 경상남도가족센터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새일센터/여성회관/여성인력개발센터 ◦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종합사회복지관 ◦ 외국인 지원단체
기능별: ◦ (가족센터 교육 및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 부모 교육 ◦ 자녀 언어발달지원/이중언어교육 ◦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 한국 학교 진학 지원 ◦ 직업훈련 ◦ 통·번역서비스 ◦ 임신·출산 지원 ◦ 사회활동 지원 ◦ 각종 상담 ◦ 일자리 소개·알선 ◦ 창업 지원 ◦ 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검진 지원 등
◦ 주요 영향 요인: 성별, 취업 여부, 체류 기간, 자녀 유무</td></tr>
</table>

출처: 저자 작성



III

외국인 주민 현황

Ⅲ. 외국인 주민 현황

1. 외국인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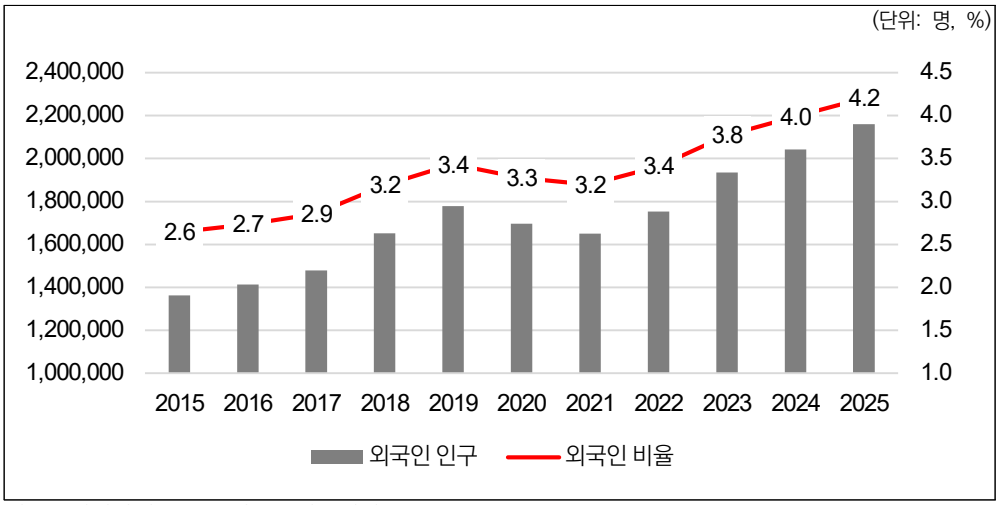
1) 전국

(1) 규모

□ 전국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4.2%

○ 2025년 외국인 인구는 총 2,159,052명으로 2015년 1,363,712명 대비 58.3% 증가함. 최근 10년간, 외국인 인구 증가와 주민등록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 인구 비율은 2015년 2.6%에서 2025년 4.2%로 1.6%p 증가함

- 외국인 인구는 2022년 대비 2023년 10.4% 증가했는데,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K-point E74), Study Korea 300K Project 등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체류자격 정책 개편의 영향이라 볼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KOSIS.

[그림 Ⅲ-1] 외국인 인구 규모와 비율(2015~2025)

□ 전국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5.3%

○ 2024년 이주배경인구는 총 2,715,074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5.3%임

- 이주배경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비롯해 국적자나 이주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귀화자, 이민자2세,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내 거주 이주배경인구의 전체적인 규모와 현황을 파악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대상 발굴 및 맞춤형 이민사회 통합정책 수립을 위해 2023년부터 공표됨

〈표 Ⅲ-1〉 전국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2015~2025)

(단위 :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인구[1] (비율)		이주배경인구[2] (비율)	
2015	51,529,338	1,363,712	(2.6)	-	
2016	51,696,216	1,413,758	(2.7)	-	
2017	51,778,544	1,479,247	(2.9)	-	
2018	51,826,059	1,651,561	(3.2)	-	
2019	51,849,861	1,778,918	(3.4)	-	
2020	51,829,023	1,695,643	(3.3)	-	
2021	51,638,809	1,649,967	(3.2)	-	
2022	51,439,038	1,752,346	(3.4)	-	
2023	51,325,329	1,935,150	(3.8)	2,580,913	(5.0)
2024	51,217,221	2,042,744	(4.0)	2,715,074	(5.3)
2025	51,117,378	2,159,052	(4.2)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KOSIS.

주: [1] 외국인 인구: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하며,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2] 이주배경인구: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내국인(귀화·인지), 내국인(이민자2세), 내국인(기타)의 합으로 산출

□ 경남의 이주배경인구 규모와 비율 모두 전국 평균과 비슷

○ 2024년 기준, 경남의 이주배경인구는 168,121명으로 경기 887,122명, 서울 474,857명, 인천 180,348명, 충남 176,257명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 규모임

○ 경남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5.2%로 충남 8.2%, 경기 6.5%, 충북 6.4%, 제주 6.0%, 인천 6.0%, 전남 5.6%, 경북 5.3%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 규모임

○ 이주배경인구의 규모와 비율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외국인 인구 분포를 유형화한 결과는 [그림 Ⅲ-2]와 같음. 이주배경인구의 중윗값 93,973명, 이주배경인구 비율 중윗값 5.1%를 기준으로 4개 유형을 도출했는데, 경남은 이주배경인구 규모가 크고 비율도 높은 1유형으로 분류됨

구분		이주배경인구 규모	
		93,973명 이하	93,973명 이상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	5.1% 이상	〔2유형〕 제주	〔1유형〕 경기, 서울, 인천,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5.1% 이하	〔3유형〕 광주, 대전, 대구, 세종, 울산, 강원, 전북	〔4유형〕 부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2] 이주배경인구 규모와 비율의 유형화

〈표 Ⅲ-2〉 전국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2024)

(단위 :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이주배경인구 (비율)	
서울	9,331,828	474,857	(5.1)
부산	3,266,598	93,973	(2.9)
대구	2,363,629	65,303	(2.8)
인천	3,021,010	180,348	(6.0)
광주	1,408,422	50,864	(3.6)
대전	1,439,157	45,453	(3.2)
울산	1,098,049	47,574	(4.3)
세종	390,685	11,446	(2.9)
경기	13,694,685	887,122	(6.5)
강원	1,517,766	54,647	(3.6)
충북	1,591,177	102,322	(6.4)
충남	2,136,574	176,257	(8.2)
전북	1,738,690	83,079	(4.8)
전남	1,788,819	99,546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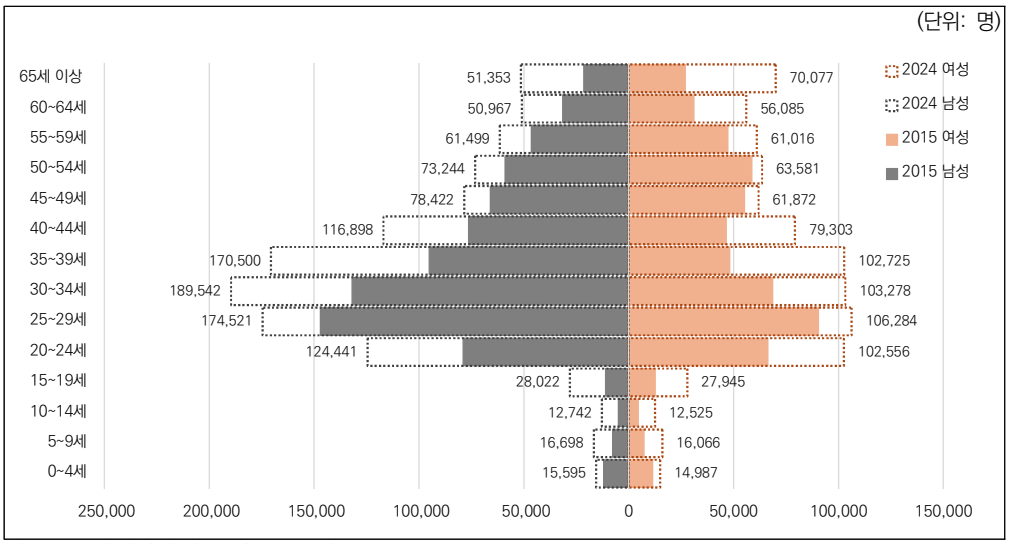
구분	주민등록인구	이주배경인구 (비율)	
경북	2,531,384	133,851	(5.3)
경남	3,228,380	168,121	(5.2)
제주	670,368	40,311	(6.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KOSIS.

(2) 구조

□ 외국인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20세 미만과 55세 이상 연령대 증가

○ [그림 Ⅲ-3]는 지난 10년간 외국인 인구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를 보여줌. 먼저, 2015년과 2024년 그래프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 그래프의 크기는 좌우로 확대되었으나, 성별 비대칭 구조는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KOSIS.

[그림 Ⅲ-3] 전국 성별 연령별 외국인 인구구조 변화(2015 vs. 2024)

○ 지난 10년간 외국인 인구는 특정 연령대가 아닌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성별 비대칭 구조는 대칭 구조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내국인 인구구조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25~29세 인구 규모가 전체의 17.4%인 237,392명으로 가장 컸지만, 2024년에는 30~34세 인구 규모가 전체의 14.3%인 292,820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다음과 같음. 절대 규모는 35~39세 구간이 129,952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나, 증가율로는 10~14세 구간이 167.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서 65세 이상 151.4%, 15~19세 137.8%, 5~9세 119.9% 등의 순임

□ 국적별 외국인 인구

○ 전국적으로 국적별 외국인 인구는 한국계 중국인 29.5%, 베트남 13.6%, 중국 10.5% 등의 순으로 분포함. 한국계 러시아인은 전체의 1.6%임

〈표 Ⅲ-3〉 국적별 외국인 인구(2025)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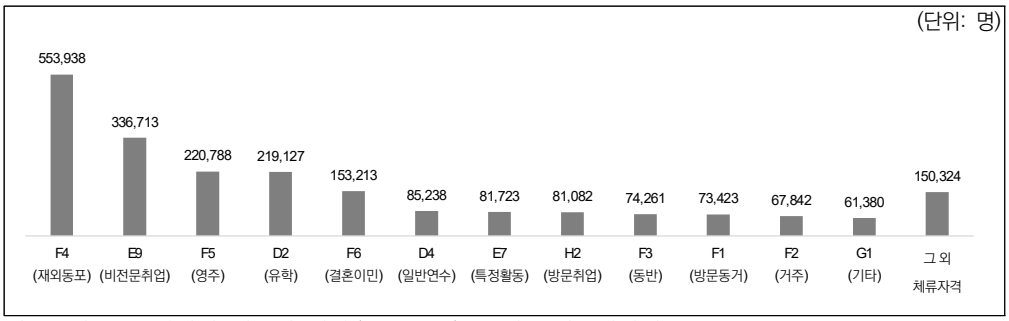
구분	규모	비율
총합계	2,159,052	100.0
한국계중국인	637,186	29.5
베트남	293,908	13.6
중국	226,628	10.5
우즈베키스탄*	98,934	4.6
미국	89,875	4.2
네팔	89,521	4.1
캄보디아	65,232	3.0
인도네시아	62,271	2.9
미얀마	58,016	2.7
필리핀	54,880	2.5
타이	45,899	2.1
몽골	42,050	1.9
스리랑카	36,951	1.7
한국계러시아인*	35,424	1.6
카자흐스탄*	35,329	1.6
방글라데시	32,407	1.5
일본	30,244	1.4
캐나다	22,282	1.0
러시아(연방)*	22,138	1.0

구분	규모	비율
파키스탄	17,395	0.8
타이완	17,270	0.8
인도	15,838	0.7
키르기즈*	12,073	0.6
라오스	11,543	0.5
오스트레일리아	7,796	0.4
영국	6,241	0.3
프랑스	5,883	0.3
말레이시아	5,409	0.3
기타	80,429	3.7

자료: 법무부, 지역별 외국인 현황(2025.1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 *독립국가연합(CIS)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 체류 자격별 외국인 인구

❍ 체류 자격별 외국인 인구는 F-4(재외동포) 25.7%, E-9(비전문취업) 15.6%, F-5(영주) 10.2%, D-2(유학) 10.1%, F-6(결혼이주) 7.1% 등의 순으로 분포함. F-3(동반)은 전체의 3.4%를 차지함



자료: 법무부, 지역별 외국인 현황(2025.1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림 Ⅲ-4] 체류자격별 외국인 인구(2025)

〈표 Ⅲ-4〉 체류자격별 외국인 인구(2025)

(단위 : 명, %)

구분	규모	비율
총합계	2,159,052	100.0
D1(문화예술)	58	0.0
D2(유학)	219,127	10.1

구분	규모	비율
D3(기술연수)	931	0.0
D4(일반연수)	85,238	3.9
D5(취재)	128	0.0
D6(종교)	1,778	0.1
D7(주재)	1,089	0.1
D8(기업투자)	8,518	0.4
D9(무역경영)	2,650	0.1
D10(구직)	21,933	1.0
E1(교수)	1,729	0.1
E2(회화)	12,864	0.6
E3(연구)	3,365	0.2
E4(기술지도)	209	0.0
E5(전문직업)	221	0.0
E6(예술흥행)	4,224	0.2
E7(특정활동)	81,723	3.8
E8(계절근로)	31,609	1.5
E9(비전문취업)	336,713	15.6
E10(선원취업)	20,920	1.0
F1(방문동거)	73,423	3.4
F2(거주)	67,842	3.1
F3(동반)	74,261	3.4
F4(재외동포)	553,938	25.7
F5(영주)	220,788	10.2
F6(결혼이민)	153,213	7.1
G1(기타)	61,380	2.8
H1(관광취업)	3,889	0.2
H2(방문취업)	81,082	3.8
기타(others)	34,209	1.6

자료: 법무부, 지역별 외국인 현황(2025.1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체류 안정성별 외국인 인구

○ 복잡다단한 비자 체계를 Juvik 외(2020)가 제시한 체류 안정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함. Juvik 외(2020)는 외국인의 거주 지위를 '조건부 거주', '한시적 거주', '영구적 거주', '시민권' 4단계로 제시했는데, 이 기준을 국내 비자 체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음(오경석 외, 2025)

〈표 Ⅲ-5〉 이주민 정책 대상 분류 및 정의

정책대상		내용(조작적 정의)	세부 체류자격
외국 국적자	조건부 거주	◦ 거주 근거가 사전 허가받은 활동(취업, 학업 등)이기에 사전 허가받은 활동이 중단되면 거주의 근거가 즉시 상실됨 ◦ 거주권 유지를 위해 체류 기간에는 사전 허가를 받은 활동만 할 수 있음	D계열, E계열, H-2, F-1, F-3, G-1-5
	한시적 거주	◦ 사전 허가받은 활동 유지가 거주의 전제 조건은 아님. 일정 기간 이후 거주권 재평가. 거주권 재평가 시 거주국 사회와의 관계성이 단절되었다면 거주권 상실	F-2, F-4
	조건부 영구거주	◦ 국민과 혼인관계 또는 현재 혼인이 유효하지 않지만 일정요건(자녀 양육, 불가피한 혼인단절)을 갖춘 혼인 경험이 있는 경우 영구적 거주에 준하는 거주권 보장	F-6
	영구거주	◦ 거주권에 대해 재평가 받을 필요 없는 안정적 거주권 보장	F-5
	취약집단	◦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 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받을 합리적 근거'가 있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인도적 체류자) ◦ 「난민법」에 따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거주권 및 기타 권리는 구분됨 ◦ 성년 미등록체류자	F-2-4 F-2-16 G-1-6
	아동·청소년 (미성년)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국내 체류 중인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미등록 포함)	F-1, F-2, F-3 중 외국국적 미성년자
한국 국적자	이민자2세	◦ 부/모 중 1인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귀화자	◦ 「국적법」에 따라 일반/간이/특별 등 귀화 요건을 갖추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내에 거주 ◦ 국민과 동등한 권리 보장	

자료: 오경석 외(2025).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p31.

❍ 주요 행정 통계의 외국인 인구 분포를 위 기준으로 분류하면, 조건부 거주자 46.8%, 한시적 거주자 25.9%, 영구적 거주자 15.6% 귀화자 10.2% 등의 순임

〈표 Ⅲ-6〉 체류 유형별 외국인 인구(2025)

(단위 : 명, %)

체류유형		규모	비율
계		2,404,630	100.0
외국 국적자	조건부 거주자	1,125,173	46.8
	한시적 거주자	621,780	25.9
	영구적 거주자	374,001	15.6
	기타형태 거주자	38,098	1.6
한국 국적자	귀화자	245,578	10.2

자료: 외국국적자는 법무부(2025.12.) 지역별 외국인(등록+거소) 현황.
한국국적자는 행정안전부(202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사용함
주: 조건부 거주자=D계열, E계열, H-2, F-1, F-3, G-1 체류자격/한시적 거주자=F-2, F-4 체류자격/영구적 거주자=F-5, F-6 체류자격/기타형태 거주자=H-1, 기타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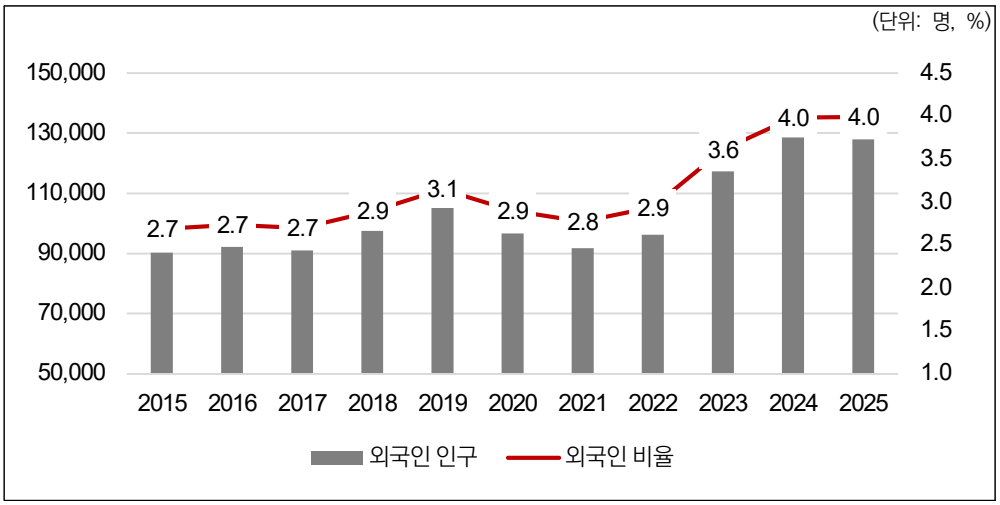
2) 경남

(1) 규모

□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4.0%

○ 2025년 외국인 인구는 총 127,901명으로 2015년 90,361명 대비 41.5% 증가함. 최근 10년간, 외국인 인구 증가와 주민등록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 인구 비율은 2015년 2.7%에서 2025년 4.0%로 1.3%p 증가함

-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 수요가 큰 경남은 2023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체류자격 제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2022년 대비 2023년 외국인 인구가 21.7% 증가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KOSIS.

[그림 Ⅲ-5] 경남 외국인 인구 규모와 비율(2015~2025)

☐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5.2%

❍ 2024년 이주배경인구는 총 168,121명으로 경남 사회는 주민등록인구의 5.2%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됨

〈표 Ⅲ-7〉 경남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2015~2025)

(단위 :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인구 (비율)		이주배경인구 (비율)	
2015	3,364,702	90,361	(2.7)	-	
2016	3,373,871	92,185	(2.7)	-	
2017	3,380,404	91,072	(2.7)	-	
2018	3,373,988	97,494	(2.9)	-	
2019	3,362,553	105,908	(3.1)	-	
2020	3,340,216	96,669	(2.9)	-	
2021	3,314,183	91,836	(2.8)	-	
2022	3,280,493	96,303	(2.9)	-	
2023	3,251,158	117,235	(3.6)	155,659	(4.8)
2024	3,228,380	128,519	(4.0)	168,121	(5.2)
2025	3,207,383	127,901	(4.0)	-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KOSIS.

□ 경남 시군별 이주배경인구 규모 1위 김해시, 이주배경인구 비율 1위 함안군

○ 2024년 기준, 경남 시군별 이주배경인구는 김해시가 39,577명으로 가장 많고 창원시 32,613명, 거제시 19,403명, 양산시 14,886명, 진주시 11,706명 등의 순임

○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함안군이 11.4%로 가장 높고, 창녕군 10.1%, 거제시 8.3%, 밀양시 7.7%, 김해시 7.4% 등의 순임

○ 이주배경인구의 규모와 비율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시군별 이주배경인구 분포를 유형화한 결과는 [그림 Ⅲ-4]와 같음. 경남 이주배경인구 규모의 중윗값 6,326명, 비율의 중윗값 4.5%를 기준으로 4개 유형을 도출했고, 각 유형에 속한 시군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이주배경인구 규모	
		6,326명 이하	6,326명 이상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	4.5% 이상	〔2유형〕 창녕, 고성, 의령, 산청, 남해, 합천	〔1유형〕 김해, 거제, 밀양, 통영, 사천, 함안
	4.5% 이하	〔3유형〕 하동, 함양, 거창, 창원 마산회원, 성산, 마산합포, 의창	〔4유형〕 양산, 진주, 창원 진해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6] 이주배경주민 규모와 비율의 유형화

〈표 Ⅲ-8〉 경남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주민(2024)

(단위 :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이주배경주민 (비율)	
창원시	999,858	32,613	(3.3)
의창	209,695	6,973	(3.3)
성산	244,489	7,603	(3.1)
마산합포	178,211	4,920	(2.8)
마산회원	178,724	5,173	(2.9)
진해	188,739	7,944	(4.2)
진주시	338,785	11,706	(3.5)
통영시	118,481	8,009	(6.8)

구분	주민등록인구	이주배경주민 (비율)	
사천시	108,504	6,326	(5.8)
김해시	531,676	39,577	(7.4)
밀양시	100,691	7,726	(7.7)
거제시	232,972	19,403	(8.3)
양산시	359,531	14,886	(4.1)
의령군	25,150	1,593	(6.3)
함안군	58,842	6,702	(11.4)
창녕군	56,085	5,676	(10.1)
고성군	48,005	3,144	(6.5)
남해군	39,832	1,870	(4.7)
하동군	40,765	1,695	(4.2)
산청군	33,259	1,786	(5.4)
함양군	36,131	1,484	(4.1)
거창군	59,588	2,102	(3.5)
합천군	40,225	1,823	(4.5)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KOSIS.

(2) 구조

□ 지난 10년간 경남 외국인 인구구조, 20~45세 남성 인구 압도적 규모 유지

○ 2015년과 2024년 그래프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 그래프의 크기는 좌우로 확대되었고, 성별 비대칭 구조는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전국 추세와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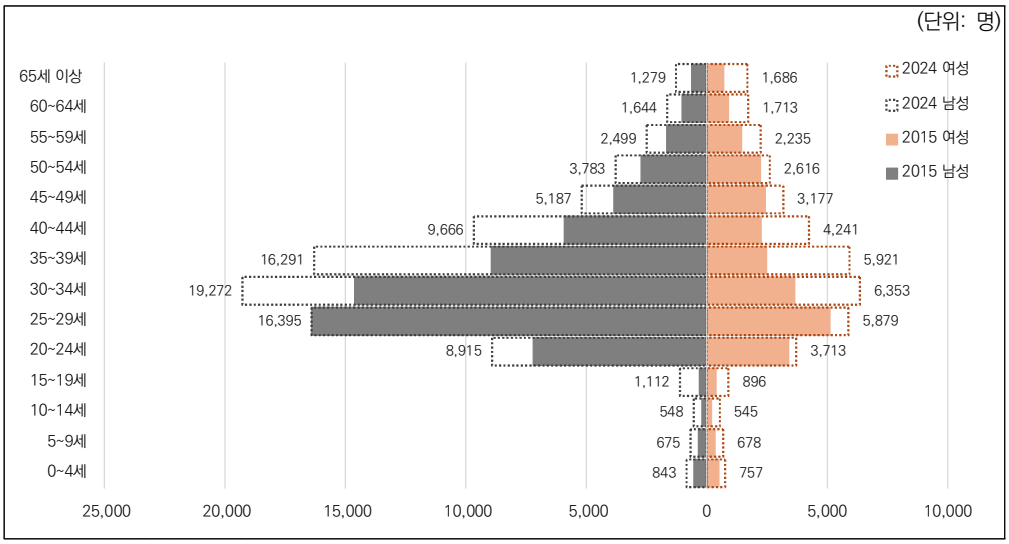
- [그림 Ⅲ-3]과 그래프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 경남은 20~45세 남성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지역 이민정책이 오랫동안 산업인력 정책 기조로 추진되어 온 결과로 볼 수 있음

○ 지난 10년간 경남의 외국인 인구는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지만, 20세 미만, 65세 이상 연령대의 증가가 주목할 만함. 전국적 추세와 같이 경남도 55세 이상에서 성별 비대칭 구조가 대칭 구조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여성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25~29세 인구 규모가 23.8%인

21,501명으로 가장 컸지만, 2024년에는 30~34세 인구 규모가 19.9% 25,625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인구가 수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35~39세 구간으로 10,794명이 증가함. 증가율로는 15~19세 구간이 189.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서 10~14세 177.4%, 65세 이상 123.4% 등의 순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KOSIS.

[그림 Ⅲ-7] 경남 성별 연령별 이주배경주민 인구구조 변화(2015 vs. 2024)

☐ 국적별 이주배경주민

○ 경남에는 28개국 이상의 출신지에서 유입된 이주배경주민이 거주하는데, 규모로는 베트남 22.8%, 한국계 중국인 9.5%, 인도네시아 8.9%, 우즈베키스탄 8.3%, 네팔 6.4% 등의 순임

〈표 Ⅲ-9〉 경남 국적별 이주배경주민 주민(2025)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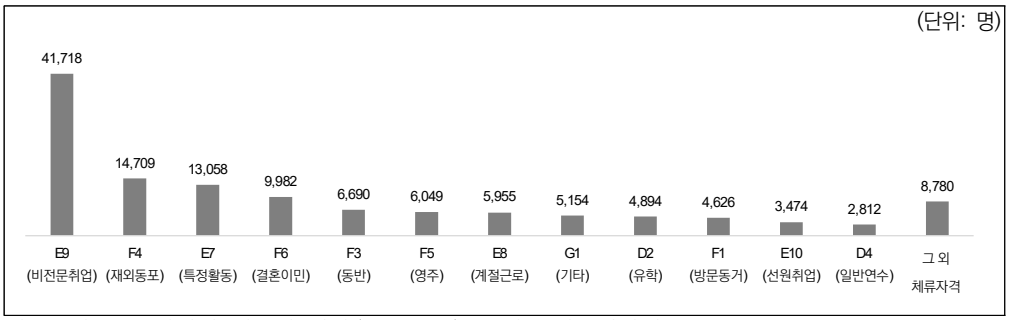
구분	규모	비율
총합계	127,901	100.0
한국계중국인	12,154	9.5
베트남	29,134	22.8
중국	6,064	4.7
우즈베키스탄*	10,585	8.3

구분	규모	비율
미국	1,900	1.5
네팔	8,149	6.4
캄보디아	7,405	5.8
인도네시아	11,337	8.9
미얀마	4,423	3.5
필리핀	4,318	3.4
타이	3,304	2.6
몽골	1,095	0.9
스리랑카	6,108	4.8
한국계러시아인*	2,473	1.9
카자흐스탄*	2,398	1.9
방글라데시	2,479	1.9
일본	1,223	1.0
캐나다	450	0.4
러시아(연방)*	1,506	1.2
파키스탄	2,022	1.6
타이완	258	0.2
인도	1,014	0.8
키르기즈*	653	0.5
라오스	2,184	1.7
오스트레일리아	278	0.2
영국	193	0.2
프랑스	146	0.1
말레이시아	519	0.4
기타	4,129	3.2

자료: 법무부, 지역별 외국인 현황(2025.1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 *독립국가연합(CIS)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 체류 자격별 이주배경주민

○ 경남의 체류 자격별 이주배경주민은 E-9(비전문취업) 32.6%, F-4(재외동포) 11.5%, E-7(특정활동) 10.2%, F-6(결혼이민) 7.8%, F-3(동반) 5.2%, F-5(영주) 4.7% 등의 순으로 분포함



자료: 법무부, 지역별 외국인 현황(2025.1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림 Ⅲ-8] 경남 체류자격별 이주배경주민(2025)

〈표 Ⅲ-10〉 경남 체류자격별 이주배경주민(2025)

(단위 : 명, %)

구분	규모	비율
총합계	127,901	100.0
D1(문화예술)	0	0.0
D2(유학)	4,894	3.8
D3(기술연수)	222	0.2
D4(일반연수)	2,812	2.2
D5(취재)	0	0.0
D6(종교)	76	0.1
D7(주재)	81	0.1
D8(기업투자)	246	0.2
D9(무역경영)	655	0.5
D10(구직)	850	0.7
E1(교수)	23	0.0
E2(회화)	575	0.4
E3(연구)	130	0.1
E4(기술지도)	16	0.0
E5(전문직업)	0	0.0
E6(예술흥행)	292	0.2
E7(특정활동)	13,058	10.2
E8(계절근로)	5,955	4.7
E9(비전문취업)	41,718	32.6
E10(선원취업)	3,474	2.7
F1(방문동거)	4,626	3.6
F2(거주)	2,689	2.1

구분	규모	비율
F3(동반)	6,690	5.2
F4(재외동포)	14,709	11.5
F5(영주)	6,049	4.7
F6(결혼이민)	9,982	7.8
G1(기타)	5,154	4.0
H1(관광취업)	23	0.0
H2(방문취업)	1,645	1.3
기타(others)	1,257	1.0

자료: 법무부, 지역별 외국인 현황(2025.1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체류 안정성별 이주배경주민

○ 경남의 체류 안정성별 이주배경주민은 조건부 거주자 66.4%, 한시적 거주자 12.4%, 영구적 거주자 11.4% 귀화자 8.9% 등의 순임

-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조건부 거주자 +20.4%p, 한시적 거주자 -13.5%p, 영구적 거주자 -4.2%p, 기타형태 거주자 -0.7%p, 귀화자 -1.3%p임
- 즉, 경남 거주 이주배경주민 과반이 체류 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표 Ⅲ-11〉 경남 체류 유형별 이주배경주민(2025)

(단위 : 명, %)

체류유형		규모	비율
계		140,323	100.0
외국 국적자	조건부 거주자	93,192	66.4
	한시적 거주자	17,398	12.4
	영구적 거주자	16,031	11.4
	기타형태 거주자	1,280	0.9
한국 국적자	귀화자	12,422	8.9

자료: 외국국적자는 법무부(2025.12.) 지역별 외국인(등록+거소) 현황.
한국국적자는 행정안전부(202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사용함
주: 조건부 거주자=D계열, E계열, H-2, F-1, F-3, G-1 체류자격/한시적 거주자=F-2, F-4 체류자격/영구적 거주자=F-5, F-6 체류자격/기타형태 거주자=H-1, 기타 자격

2. 외국인 주민 가정

1) 전국

□ 지난 10년간, 전국 이주배경가구 53.2% 증가

○ 2024년 기준 이주배경가구는 1,122,131가구로 2015년 732,350가구 대비 53.2% 증가함. 같은 기간 일반가구[5]의 증가율이 16.7%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이주배경가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표 Ⅲ-12〉 전국 총가구와 이주배경가구(2015~2024)

(단위 : 가구, %)

구분	총가구[1](A)	이주배경가구(B)			총가구 중 이주배경가구 구성비 (B/A×100)
			외국인 가구	다문화 가구	
2015	19,560,603	732,350	433,109	299,241	3.7
2016	19,837,665	773,068	457,001	316,067	3.9
2017	20,167,922	797,015	478,098	318,917	4.0
2018	20,499,543	838,002	503,146	334,856	4.1
2019	20,891,348	885,234	531,431	353,803	4.2
2020	21,484,785	909,462	541,687	367,775	4.2
2021	22,022,753	942,177	556,958	385,219	4.3
2022	22,383,187	991,864	592,468	399,396	4.4
2023	22,728,163	1,052,802	637,218	415,584	4.6
2024	22,997,120	1,122,131	682,827	439,304	4.9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KOSIS.
주: [1] 총가구=일반가구+집단가구+외국인가구

○ 한국 사회 총가구 가운데 이주배경가구 구성비 역시 2015년 3.7%에서 2024년 4.9%로 1.2%p 증가함. 이주배경가구 가운데 외국인 가구 구성비는 2015년 59.1%에서 2024년 60.9%로 1.7%p 증가함

5) 일반가구의 수는 2015년 19,111,030가구에서 2024년 22,294,419가구로 증가함

□ 시도별 이주배경가구 규모, 경남은 5.4%로 전국 5위

○ 2024년 기준 전국 시도별 총가구 중 이주배경가구 구성비가 높은 지역은 충남 6.5%, 경기 6.3%, 인천 5.7% 등의 순임

〈표 Ⅲ-13〉 시도별 총가구와 이주배경 가구(2024)

(단위 : 가구, %)

구분	총가구(A)		이주배경가구(B)						총가구 중 이주배경가구 구성비 (B/A×100)
					외국인 가구		다문화 가구		
합계	22,997,120	100.0	1,122,131	100.0	682,827	100.0	439,304	100.0	4.9
서울	4,319,073	18.8	235,507	21.0	157,129	23.0	78,378	17.8	5.5
부산	1,491,579	6.5	37,591	3.3	20,188	3.0	17,403	4.0	2.5
대구	1,059,084	4.6	27,731	2.5	14,693	2.2	13,038	3.0	2.6
인천	1,310,880	5.7	74,631	6.7	41,695	6.1	32,936	7.5	5.7
광주	641,029	2.8	21,055	1.9	12,085	1.8	8,970	2.0	3.3
대전	670,971	2.9	20,295	1.8	11,582	1.7	8,713	2.0	3.0
울산	473,979	2.1	19,301	1.7	11,328	1.7	7,973	1.8	4.1
세종	161,309	0.7	4,370	0.4	2,293	0.3	2,077	0.5	2.7
경기	5,827,597	25.3	367,031	32.7	230,240	33.7	136,791	31.1	6.3
강원	714,657	3.1	22,232	2.0	11,313	1.7	10,919	2.5	3.1
충북	750,756	3.3	37,325	3.3	22,764	3.3	14,561	3.3	5.0
충남	1,007,652	4.4	65,190	5.8	41,692	6.1	23,498	5.3	6.5
전북	805,961	3.5	31,725	2.8	16,523	2.4	15,202	3.5	3.9
전남	817,003	3.6	33,792	3.0	16,793	2.5	16,999	3.9	4.1
경북	1,204,317	5.2	48,502	4.3	28,321	4.1	20,181	4.6	4.0
경남	1,452,638	6.3	60,703	5.4	35,471	5.2	25,232	5.7	4.2
제주	288,635	1.3	15,150	1.4	8,717	1.3	6,433	1.5	5.2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KOSIS.

○ 인구의 서울·경기 집중 현상은 이주배경가구도 마찬가지임. 2024년 기준 전체 이주배경가구의 53.7%가 경기(32.7%), 서울(21.0%)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인천 6.7%, 충남 5.8%, 경남 5.4% 등의 순임

2) 경남

□ 지난 10년간, 경남 이주배경가구 47.4% 증가

○ 2024년 기준 경남 이주배경 가구는 60,703가구로 2015년 41,192가구 대비 47.4% 증가함. 같은 기간 일반가구[6]의 증가율이 12.5%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이주배경 가구는 전국적 추세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경남 사회 총가구 가운데 이주배경 가구 구성비 역시 2015년 3.2%에서 2024년 4.2%로 1.0%p 증가함. 이주배경가구 가운데 외국인 가구 구성비는 2015년 55.7%에서 2024년 58.4%로 2.7%p 증가함. 이는 전국 평균보다 2.5%p 낮은 수준임

〈표 Ⅲ-14〉 경남 총가구와 이주배경 가구(2015~2024)

(단위 : 가구, %)

구분	총가구(A)	이주배경가구(B)			총가구 중 이주배경가구 구성비 (B/A×100)
			외국인 가구	다문화 가구	
2015	1,282,617	41,192	22,954	18,238	3.2
2016	1,299,027	43,134	24,559	18,575	3.3
2017	1,318,106	43,382	23,995	19,387	3.3
2018	1,331,278	43,851	23,716	20,135	3.3
2019	1,347,182	45,958	24,783	21,175	3.4
2020	1,376,240	47,003	24,959	22,044	3.4
2021	1,405,646	48,472	25,566	22,906	3.4
2022	1,420,266	49,976	26,500	23,476	3.5
2023	1,436,738	55,296	31,068	24,228	3.8
2024	1,452,638	60,703	35,471	25,232	4.2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KOSIS.

□ 경남 이주배경가구의 74.5%는 김해, 창원, 거제, 양산, 진주 거주

○ 2024년 기준 경남 시군별 총가구 중 이주배경가구 구성비가 높은 지역은 거제시 6.8%, 함안군 6.8%, 창녕군 6.2%, 김해시 6.1% 등의 순임

6) 경남 일반가구의 수는 2015년 1,258,487가구에서 2024년 1,415,780가구로 증가함

○ 경남 이주배경가구의 74.5%는 김해시 23.2%, 창원시 22.3%, 거제시 11.7%, 양산시 9.8%, 진주시 7.5%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15〉 경남 시군별 총가구와 이주배경 가구(2024)

(단위 : 가구, %)

구분	총가구(A)		이주배경가구(B)						총가구 중 이주배경가구 구성비 (B/A×100)
					외국인 가구		다문화 가구		
합계	1,452,638	100.0	60,703	100.0	35,471	100.0	25,232	100.0	4.2
창원시	438,279	30.2	13,556	22.3	7,166	20.2	6,390	25.3	3.1
의창	91,826	6.3	3,110	5.1	1,623	4.6	1,487	5.9	3.4
성산	103,908	7.2	3,202	5.3	1,845	5.2	1,357	5.4	3.1
마산합포	81,117	5.6	1,746	2.9	751	2.1	995	3.9	2.2
마산회원	78,764	5.4	2,113	3.5	1,044	2.9	1,069	4.2	2.7
진해	82,664	5.7	3,385	5.6	1,903	5.4	1,482	5.9	4.1
진주시	155,489	10.7	4,560	7.5	2,206	6.2	2,354	9.3	2.9
통영시	55,343	3.8	2,385	3.9	1,340	3.8	1,045	4.1	4.3
사천시	50,563	3.5	1,798	3.0	916	2.6	882	3.5	3.6
김해시	230,166	15.8	14,092	23.2	9,487	26.7	4,605	18.3	6.1
밀양시	49,508	3.4	2,447	4.0	1,553	4.4	894	3.5	4.9
거제시	104,080	7.2	7,093	11.7	5,092	14.4	2,001	7.9	6.8
양산시	155,774	10.7	5,936	9.8	3,163	8.9	2,773	11.0	3.8
의령군	12,784	0.9	492	0.8	248	0.7	244	1.0	3.8
함안군	27,821	1.9	1,896	3.1	1,188	3.3	708	2.8	6.8
창녕군	28,103	1.9	1,743	2.9	1,103	3.1	640	2.5	6.2
고성군	22,962	1.6	1,031	1.7	547	1.5	484	1.9	4.5
남해군	19,744	1.4	547	0.9	233	0.7	314	1.2	2.8
하동군	19,658	1.4	622	1.0	254	0.7	368	1.5	3.2
산청군	16,506	1.1	586	1.0	298	0.8	288	1.1	3.6
함양군	17,618	1.2	553	0.9	168	0.5	385	1.5	3.1
거창군	27,798	1.9	776	1.3	277	0.8	499	2.0	2.8
합천군	20,442	1.4	590	1.0	232	0.7	358	1.4	2.9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KOSIS.

3. 소결

□ 전국보다 낮은 장기 증가율, 최근 가파른 증가세

○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여, 경남에서 이주배경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일로에 있으나, 장기적인 증가 속도와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음

- 2015~2025년 이주배경주민 증가율은 41.5%로 전국 증가율 58.3%보다 16.8%p 낮고,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도 4.0%로 전국 4.2%를 소폭 밑도는 수준임

○ 경남은 이주배경인구의 증가율은 전국보다 낮지만, 정책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이주배경인구가 단기간에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

- 2022~2023년 이주배경인구가 21.7%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 10.4%의 두 배를 상회 함.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수요가 큰 경남의 산업구조와 숙련 기능인력 전환 확대 등 체류자격 제도 개편이 결합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비수도권의 대표적인 이주배경인구 집중지역

○ 2024년 경남의 이주배경인구는 168,121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음.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5.2%로 전국 5.3%와 유사하며, 전국 시도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하면 경남은 이주배경인구의 규모와 비율이 모두 높은 유형에 해당함

○ 이는 경남이 수도권에 비해서 이주배경인구의 절대 규모가 작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충남과 함께 이주배경인구가 집중된 대표적인 지역임을 보여줌. 외국인 인구 비율만 보면 전국보다 다소 낮지만, 귀화자와 이민자 2세 등을 포함하면 경남의 이주배경인구 규모와 비중은 전국적으로도 높은 수준임

□ 제조업·취업 중심의 외국인 인구구조

○ 전국적으로 외국인 인구의 중심 연령대가 25~29세에서 30~34세로 이동하였으나, 경남은 20~45세 남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이는 경남의 외국인 인구 유입이 제조업과 조선업 등 산업인력 수요를 중심으로 이

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체류 자격별로 경남의 비전문취업(E-9) 비율은 32.6%로 전국 15.6%의 두 배를 넘고, 특정활동(E-7)도 10.2%로 전국 3.8%보다 높음. 국적별로도 전국은 한국계 중국인이 29.5%로 가장 많지만, 경남은 베트남이 22.8%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산업인력 유입 중심의 특성이 확인됨

□ 아동·청소년 증가와 가족 단위 정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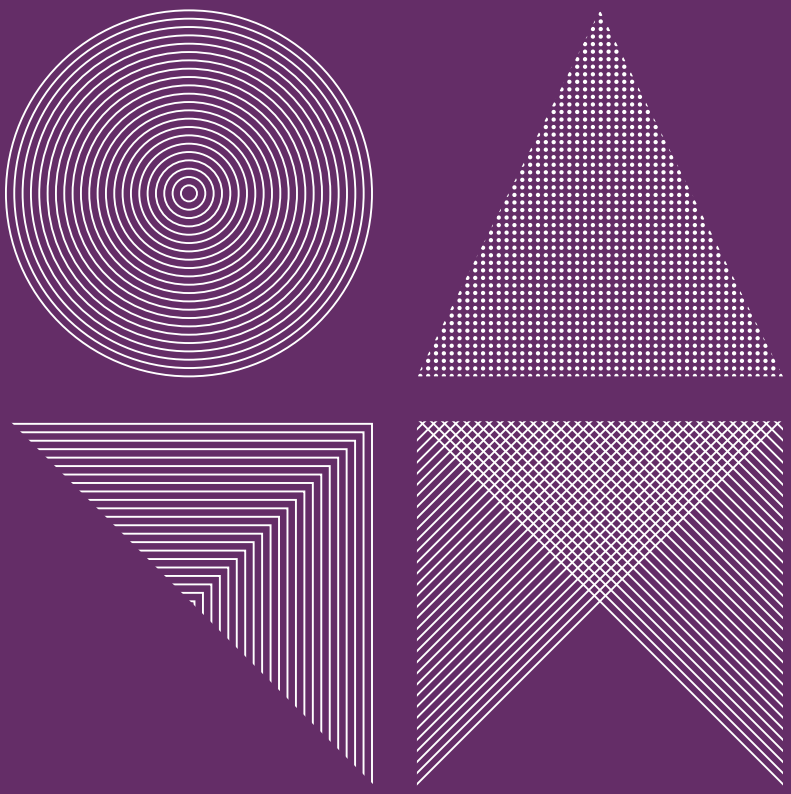
○ 경남 외국인 인구는 생산 연령층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고령층에서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15~19세 외국인 인구는 189.8%, 10~14세는 177.4%, 65세 이상은 123.4%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증가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이러한 변화는 경남의 외국인 인구 증가가 근로자 개인의 일시적 유입에 그치지 않고 가족 동반과 자녀의 성장·정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이에 따라 경남은 산업인력 중심의 외국인 정책에서 나아가 보육, 교육, 돌봄, 보건, 주거 등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낮은 체류 안정성과 시군 간 분포 격차

○ 경남 외국인 주민 중 조건부 거주자 비율은 66.4%로 전국 46.8%보다 약 20%p 높지만, 한시적·영구적 거주자와 귀화자의 비율은 전국보다 낮음. 경남의 외국인 주민 다수가 취업이나 학업 등 특정 활동의 유지 여부에 따라 체류에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용 변동과 체류자격 변경 과정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역적으로는 경남 이주배경가구의 74.5%가 김해, 창원, 거제, 양산, 진주에 집중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함안, 창녕, 거제, 밀양, 김해에서 높게 나타남. 따라서 이주배경인구가 대규모로 집중된 산업도시의 서비스 수요와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높지만, 서비스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도시·군지역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지역별 대응이 필요함



IV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Ⅳ.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1.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이 조사의 목적은 경남 거주 외국인 주민 가족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것임.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의 특수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내국인 주민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고, 두 집단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을 비교·분석에 활용함

□ 조사 대상

○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내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외국인 주민 응답자는 도내 외국인 밀집 지역/그 외 지역, 가족 유형, 체류 안정성 분포를 고려했고, 내국인 주민 응답자는 밀집 지역/그 외 지역, 가족 유형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집함

□ 자료 수집 방법

○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함. 설문조사 온라인 링크는 경남 거주 외국인 주민의 출신 국적별 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한국어 외에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7개 언어로 구축함. 온라인 설문 링크는 SKT, 카카오뱅크 패널 중 경남 지역 내외국인 가입자와 도내 외국인 주민 지원 기관의 협조로 기관 이용 외국인 주민에게 배포함

○ 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7주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1,346명의 응답을 확보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67명을 제외한 1,279명-외국인 주민 483명, 내국인 주민 796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함

○ 본 조사는 온라인 패널과 외국인 주민 지원 기관을 통해 응답자를 모집하고, 지역과 응답자 특성을 고려해 표집했으나, 확률 표집이 아니므로 결과를 경남 전체 주민의 분포나 이용률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온라인 접근

성이 높거나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더 많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결과는 응답자의 경험과 집단 간 경향으로 해석함

〈표 Ⅳ-1〉 설문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 대상	◦ 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 내외국인
조사 방법	◦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웹설문 조사
설문 언어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조사 표본	◦ 총 1,279명 – 외국인 주민 483명 – 내국인 주민 796명
조사 기간	◦ 2026년 5월 29일 ~ 7월 15일

출처: 저자 작성

□ 조사 내용

○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한국어 교육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자본, 경제활동 특성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Ⅳ-2〉와 같음

〈표 Ⅳ-2〉 설문조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입국 시기 ◦ 성별, 출생 연도 ◦ 결혼 상태, 가족 유형 등	◦ 체류 자격 ◦ 현재 거주 지역(밀집지/그 외)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 이용 경험, 미이용 이유 ◦ 이용 만족도, 불만족 이유 ◦ 공공서비스 정보 구득 경로	◦ 공공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 ◦ 서비스 이용 시 차별 경험 등 ◦ 공공서비스 수요
한국어교육 관련 서비스	◦ 한국어 학습 경험 ◦ 한국어능력시험 경험 및 등급 ◦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경험 및 등급 ◦ 한국어교육 수요 관련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자본	◦ 경남 정착 이유 ◦ 경남에서 삶의 만족도	◦ 향후 체류 계획(기간, 체류자격) ◦ 사회적 지지체계
경제활동 특성	◦ 취업 여부 ◦ 근로 여건	◦ 사회보험 가입 유무 ◦ 최근 3개월 월 평균 소득

출처: 저자 작성

○ 내외국인 공통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경제활

동 특성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두 집단 간 비교 분석에 활용하였음. 외국인 주민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한국어교육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정착, 사회자본 영역 문항임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전체 응답자는 1,279명으로 이 중 외국인 주민이 483명(37.8%), 내국인 주민이 796명(62.2%)을 차지함. 외국인 주민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여성이 303명(62.7%)으로 남성 180명(37.3%)보다 많았는데, 결혼이민자 등 여성 비중이 높은 체류유형이 다수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연령대는 30대 165명(34.2%), 40대 141명(29.2%), 20대 이하 86명(17.8%), 50대 67명(13.9%), 60대 이상 24명(5.0%) 순으로, 30~40대가 전체의 과반(63.4%)을 차지함
- 거주지역은 밀집 지역(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 거주자가 397명(82.2%)이고, 체류 자격은 한국 국적 155명(32.1%), 조건부 거주자 144명(29.8%), 영구적 거주자 133명(27.5%), 한시적 거주자 47명(9.7%), 기타 자격 거주자 4명(0.8%) 순임
- 가족 유형은 가족형 367명(76.0%), 독신형 101명(20.9%), 공동거주형 15명(3.1%)이었고, 경남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310명(64.2%)으로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 95명(19.7%), 1~5년 미만 65명(13.5%), 1년 미만 13명(2.7%) 순으로, 다수가 장기 정착 상태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218명(45.1%)으로 가장 많았음
- 취업 상태 406명(84.0%), 미취업 77명(15.9%)이고, 월평균 개인소득은 200~300만 원 미만 167명(41.1%), 300만 원 이상 86명(21.2%), 100만 원 미만 78명(19.2%), 100~200만 원 미만 75명(18.5%)임

○ 내국인 주민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여성 414명(52.0%), 남성 382명(48.0%)으로 여성이 약간 과대 표집됨. 연령대는 30대 222명(27.8%), 40대 218명(27.4%), 20대 이하 186명(23.4%), 50대 124명(15.6%), 60대 이상 46명(5.8%) 순임
- 밀집 지역 거주자가 690명(86.7%)이고, 가족 유형별로는 가족형 611명(76.8%), 독신형 167명(21.0%), 공동거주형 18명(2.3%)으로 외국인 주민과 유사한 분포를 보임. 경남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702명(88.2%)으로 매우 높았으며, 5~10년 미만 45명(5.7%), 1~5년 미만 43명(5.4%), 1년

미만 6명(0.8%) 순임

- 취업 상태 637명(80.0%), 미취업 159명(20.0%)이고, 월평균 개인소득은 200~300만 원 미만 215명(33.8%), 300만 원 이상 214명(33.6%), 100만 원 미만 121명(19.0%), 100~200만 원 미만 87명(13.7%)임

〈표 Ⅳ-3〉 응답자 기본사항

(단위 : 명, %)

항 목		외국인 주민		내국인 주민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483	100.0	796	100.0	1,279	100.0
성별	여성	303	62.7	414	52.0	717	56.1
	남성	180	37.3	382	48.0	562	43.9
연령대	20대 이하	86	17.8	186	23.4	272	21.3
	30대	165	34.2	222	27.9	387	30.3
	40대	141	29.2	218	27.4	359	28.1
	50대	67	13.9	124	15.6	191	14.9
	60대 이상	24	5.0	46	5.8	70	5.5
거주 지역[1)]	밀집 지역	397	82.2	690	86.7	1,087	85.0
	그 외 지역	86	17.8	106	13.3	192	15.0
체류 자격[2)]	조건부 거주	144	29.8	-	-	144	11.3
	한시적 거주	47	9.7	-	-	47	3.7
	영구적 거주	133	27.5	-	-	133	10.4
	기타 자격 거주	4	0.8	-	-	4	0.3
	한국 국적(귀화/인지/출생)	155	32.1	796	100.0	951	74.4
가족 유형	독신형	101	20.9	167	21.0	268	21.0
	가족형	367	76.0	611	76.8	978	76.5
	공동 거주형	15	3.1	18	2.3	33	2.6
경남 거주기간	1년 미만	13	2.7	6	0.8	19	1.5
	1~5년 미만	65	13.5	43	5.4	108	8.4
	5~10년 미만	95	19.7	45	5.7	140	10.9
	10년 이상	310	64.2	702	88.2	1,012	79.1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218	45.1	-	-	218	45.1
	어려움 거의 없음	172	35.6	-	-	172	35.6
	어려움 전혀 없음	93	19.3	-	-	93	19.3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77	15.9	159	20.0	236	18.5
	일한적 있음	406	84.1	637	80.0	1,043	81.5
월 평균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78	19.2	121	19.0	199	19.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5	18.5	87	13.7	162	15.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7	41.1	215	33.8	382	36.6
	300만원 이상	86	21.2	214	33.6	300	28.8

주 1) 밀집 지역: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2) 조건부거주자: D계열, E계열, H-2, F-1, F-3, G-1/한시적거주자: F-2, F-4/영구적거주자: F-5, F-6/기타자격거주자: H-1

2) 분석 결과

(1)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 최근 1년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최근 1년간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1,279명 중 970명(75.8%)임. 외국인 주민(82.4%)이 내국인 주민(71.9%)보다 10.5%p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X^2=18.234, p<.001)

○ 이는 외국인 주민이 체류 자격 유지·연장, 한국어 미숙 등의 이유로 행정·복지 서비스 접점에 상대적으로 더 자주 노출되거나,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정착 지원 체계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안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표 Ⅳ-4〉 최근 1년 내외국인의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970(75.8)	309(24.2)	1,279(100.0)
외국인 주민	398(82.4)	85(17.6)	483(100.0)
내국인 주민	572(71.9)	224(28.1)	796(100.0)
검정통계량	X^2=18.234***		

주: *p<0.05, **p<0.01, ***p<0.001

○ 외국인 주민 내에서는 가족 유형에 따라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X^2=9.564, p<.01). 가족형(85.0%)의 이용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독신형(76.2%), 공동 거주형(60.0%) 순으로 나타남

○ 가족형의 높은 이용률은 자녀 양육·교육, 배우자나 자녀의 체류 자격 관련 행정 절차 등으로 공공서비스와의 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공동 거주형은 직장 중심의 생활로 인해 한국 사회 및 공공서비스와의 접촉면이 적다고 이해할 수 있음

〈표 Ⅳ-5〉 최근 1년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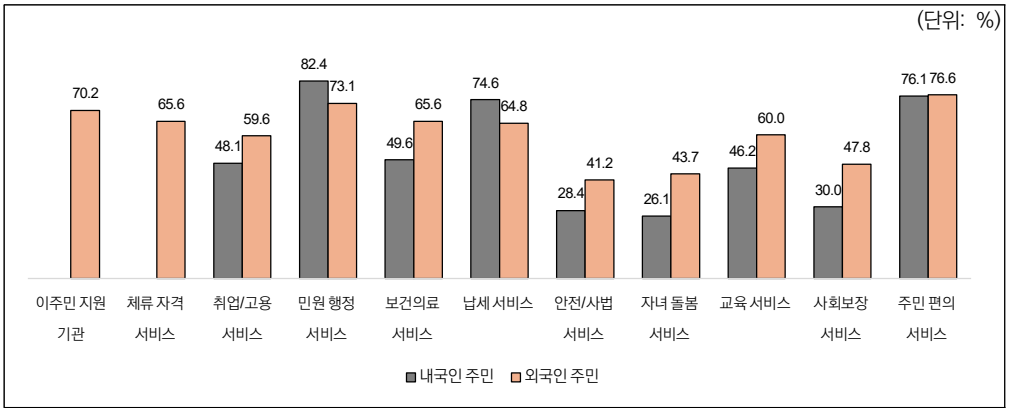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외국인 주민		398(82.4)	85(17.6)	483(100.0)
가족 유형	독신형	77(76.2)	24(23.8)	101(100.0)
	가족형	312(85.0)	55(15.0)	367(100.0)
	공동 거주형	9(60.0)	6(40.0)	15(100.0)
	검정통계량	X^2=9.564**		

주: *p<0.05, **p<0.01, ***p<0.001

❑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 공공서비스 유형별 내외국인 이용 경험률을 비교한 결과, 내외국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9개 서비스 유형 중 7개 유형에서 외국인 주민의 이용률이 내국인 주민보다 높게 나타남

❍ 격차가 가장 큰 영역은 사회보장 서비스(내국인 30.0%, 외국인 47.8%), 자녀 돌봄 서비스(내국인 26.1%, 외국인 43.7%), 보건의료 서비스(내국인 49.6%, 외국인 65.6%) 순으로 나타남. 반면, 민원 행정 서비스(내국인 82.4%, 외국인 73.1%)와 납세 서비스(내국인 74.6%, 외국인 64.8%)는 내국인 주민의 이용률이 높았고, 주민 편의 서비스(내국인 76.1%, 외국인 76.6%)는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었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1] 공공서비스 유형별 내외국인 이용 경험

○ 이는 외국인 주민이 공공서비스에서 전반적으로 소외된다는 통념과 다른 양상을 보여줌. 자녀 돌봄, 사회보장, 보건의료 등 생활밀착형/복지형 서비스에서 외국인 주민의 최근 1년간 이용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주민 지원체계를 통한 안내/연계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작동하고 있거나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인구가 본 조사에 참여한 결과로 볼 수 있음. 반면 민원 행정, 납세 등 신청자의 자기 주도적 처리 역량이 전제되는 창구형 서비스에서는 내국인 대비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 언어/정보 접근성이 이용 여부를 가르는 영역이 존재함을 시사함

①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 외국인 주민의 70.2%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체류 자격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X^2=11.614, p<.05). 조건부 거주(73.6%), 한시적 거주(72.3%), 영구적 거주(72.2%) 자격자의 이용률이 한국 국적자(66.5%)보다 높게 나타남. 이주 초기 단계일수록 이주민 지원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전체적으로 귀화 여부를 떠나 이주민의 이주민 지원 관련 기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6〉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외국인 주민		339(70.2)	144(29.8)	483(100.0)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106(73.6)	38(26.4)	144(100.0)
	한시적 거주	34(72.3)	13(27.7)	47(100.0)
	영구적 거주	96(72.2)	37(27.8)	133(100.0)
	기타자격 거주	0(0.0)	4(100.0)	4(100.0)
	한국 국적(귀화/인지/출생)	103(66.5)	52(33.5)	155(100.0)
	검정통계량	X^2=11.614*		

주 1: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외국인주민(근로자)지원센터, 가족센터, 영진코리아센터 등
2: *p<0.05, **p<0.01, ***p<0.001

○ 이는 장기 거주자여도 한국어와 사회 참여 수준이 입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유사한 '신입형' 속성을 가진 이주민이 클 가능성을 시사함(이

혜림·박재완, 2018) 즉, 체류 기간이나 체류 자격이 안정되어도 여전히 이주민 특화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② 체류자격 관련 서비스

❍ 이용 경험률은 65.6%이며, 체류 자격(X^2=26.630, p<.001)과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X^2=8.451,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조건부 거주(77.1%), 한시적 거주(74.5%) 등 체류 갱신 주기가 짧은 자격일수록 이용률이 높았는데, 이는 체류 기간 연장, 자격 변경 등 행정 수요의 반복성에 기인함

〈표 Ⅳ-7〉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외국인 주민		317(65.6)	166(34.4)	483(100.0)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111(77.1)	33(22.9)	144(100.0)
	한시적 거주	35(74.5)	12(25.5)	47(100.0)
	영구적 거주	87(65.4)	46(34.6)	133(100.0)
	기타자격 거주	0(0.0)	4(100.0)	4(100.0)
	한국 국적(귀화/인지/출생)	84(54.2)	71(45.8)	155(100.0)
	검정통계량	X^2=26.630***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157(72.0)	61(28.0)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08(62.8)	64(37.2)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52(55.9)	41(44.1)	93(100.0)
	검정통계량	X^2=8.451*		

주 1: 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출입국사무소, 하이코리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경남비자센터 등
2: *p<0.05, **p<0.01, ***p<0.001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울수록 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한국어 의사소통은 한국/경남 체류 기간, 문화 적응 수준 등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인데,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을수록 한국에 짧게 거주했고, 따라서 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음

③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 이용 경험률은 59.6%이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X^2=6.875, p<.01). 남성(67.2%)이 여성(55.1%)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설문조사에 예시로 제시한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기관인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은 주로 남성이 주류인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실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체류 자격 제도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자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려면 근속기간, 소득, 한국어능력(TOPIK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점수제 요건을 충족해야 함[7]. 최근 정부가 전환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특화형 경로(E-7-4R)를 신설하는 등 체류 자격을 완화 추세에 있으나, 일정 수준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남성의 높은 이용 경험률을 이해할 수 있음

〈표 Ⅳ-8〉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외국인 주민		288(59.6)	195(40.4)	483(100.0)
성별	여성	167(55.1)	136(44.9)	303(100.0)
	남성	121(67.2)	59(32.8)	180(100.0)
	검정통계량	X^2=6.875**		

주 1: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2: *p<0.05, **p<0.01, ***p<0.001

④ 민원 행정서비스

○ 이용 경험률은 73.1%로 11개 공공서비스 유형 중 가장 높았으며, 체류자격(X^2=11.647, p<.05)과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X^2=11.45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집단(86.0%)이 어려움이 있는 집단(67.4%)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언어 역량과 서비스 필요도 등이 함께 관련됐을 가능성이 큼

○ 민원 행정서비스가 전 유형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점은 이인숙 외

7) 법무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계획」 등 참조

(2023)의 연구 결과와도 일관됨. 〈2023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6곳의 인지도·이용도를 비교한 결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가 인지도(95.6%)와 실제 이용도(80.0%) 모두 6개 기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가 외국인 주민이 비교적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행정 접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9〉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민원 행정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외국인 주민		353(73.1)	130(26.9)	483(100.0)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91(63.2)	53(36.8)	144(100.0)
	한시적 거주	37(78.7)	10(21.3)	47(100.0)
	영구적 거주	100(75.2)	33(24.8)	133(100.0)
	기타자격 거주	4(100.0)	0(0.0)	4(100.0)
	한국 국적(귀화/인지/출생)	121(78.1)	34(21.9)	155(100.0)
	검정통계량	X^2=11.647*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147(67.4)	71(32.6)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26(73.3)	46(26.7)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80(86.0)	13(14.0)	93(100.0)
	검정통계량	X^2=11.457**		

주 1: 민원 행정서비스-행정복지센터, 시군청 민원실, 정부24등
2: *p〈0.05, **p〈0.01, ***p〈0.001

⑤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 공공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65.6%이며, 성별, 연령, 거주 권역, 가족 유형, 체류 자격,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근로 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

〈표 Ⅳ-10〉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외국인 주민	317(65.6)	166(34.4)	483(100.0)

주 1: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마산의료원, 보건소 등
2: *p〈0.05, **p〈0.01, ***p〈0.001

⑥ 납세 관련 서비스

❍ 이용 경험률은 64.8%이며,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X^2=9.375, p〈.01). 의사소통 어려움이 전혀 없는 집단(74.2%)이 어려움이 있는 집단(57.8%)보다 납세 관련 이용률이 높아, 세무 관련 서식, 용어의 특성상 언어 장벽이 이용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납세 관련 서비스는 외국인 주민에게 단순한 행정 편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8]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주민에게 납세는 체류 자격의 유지·연장과 직접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 언어 장벽이라는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외국인 주민(64.8%)이 납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Ⅳ-11〉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납세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외국인 주민		313(64.8)	170(35.2)	483(100.0)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126(57.8)	92(42.2)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18(68.6)	54(31.4)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69(74.2)	24(25.8)	93(100.0)
	검정통계량	X^2=9.375**		

주 1: 납세 관련 서비스-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등
2: *p〈0.05, **p〈0.01, ***p〈0.001

8) 본 제도는 비자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 등 출입국 관련 신청 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확인되면 체류 기간 제한 등의 불이익과 연계하고 있음(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

⑦ 안전/사법 관련 서비스

❍ 이용 경험률은 41.2%로 전 유형 중 가장 낮았으며, 성별, 연령, 권역, 가족 유형, 체류 자격, 한국어 수준, 근로 여부 등 모든 하위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안전/사법 관련 서비스는 내국인 주민의 이용률(28.4%) 역시 낮게 나타난 영역임. 그러나 외국인 주민 집단의 낮은 이용률과 하위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없는 점은 실제 수요가 적어서라기보다, 사법 접근 자체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이나 정보 접근성의 전반적 부족, 법적 소송 사건에 휘말리면 체류 자격 변경에 불이익 발생 등의 이유로 외국인 주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음

❍ 이혜림·이지영(2025)의 〈경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호자와 자녀가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사법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신고 자체를 주저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음. 이는 안전/사법 관련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이용률이 단순히 수요나 정보 부족의 문제를 넘어, 체류 자격 제도 자체가 심각한 피해 상황에서도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Ⅳ-12〉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안전/사법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외국인 주민	199(41.2)	284(58.8)	483(100.0)

주 1: 안전/사법 관련 서비스-경찰서, 소방서, 산업안전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보호시설, 범죄피해자보호시설 등
2: *p〈0.05, **p〈0.01, ***p〈0.001

⑧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 이용 경험률은 43.7%이며, 가족 유형(X^2=22.152, p〈.001), 체류 자격(X^2=12.925, p〈.05),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X^2=17.77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53.7%)의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이는

자녀 연령, 돌봄 필요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큼

〈표 Ⅳ-13〉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외국인 주민		211(43.7)	272(56.3)	483(100.0)
가족 유형	독신형	24(23.8)	77(76.2)	101(100.0)
	가족형	182(49.6)	185(50.4)	367(100.0)
	공동 거주형	5(33.3)	10(66.7)	15(100.0)
	검정통계량	X^2=22.152***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53(36.8)	91(63.2)	144(100.0)
	한시적 거주	15(31.9)	32(68.1)	47(100.0)
	영구적 거주	64(48.1)	69(51.9)	133(100.0)
	기타자격 거주	0(0.0)	4(100.0)	4(100.0)
	한국 국적(귀화/인지/출생)	79(51.0)	76(49.0)	155(100.0)
	검정통계량	X^2=12.925*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117(53.7)	101(46.3)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66(38.4)	106(61.6)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28(30.1)	65(69.9)	93(100.0)
	검정통계량	X^2=17.777***		

주 1: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2: *p〈0.05, **p〈0.01, ***p〈0.001

⑨ 교육 관련 서비스

❍ 이용 경험률은 60.0%이며, 연령, 가족 유형, 체류 자격, 근로 여부,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큰 40대(71.6%)와 가족형(65.4%)에서 이용률이 높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한 집단(74.2%)일수록 이용률이 높아 자녀 돌봄 서비스와 대조되는데, 이는 초중고교 과정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표 Ⅳ-14〉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교육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외국인 주민		290(60.0)	193(40.0)	483(100.0)
연령	20대 이하	42(48.8)	44(51.2)	86(100.0)
	30대	95(57.6)	70(42.4)	165(100.0)
	40대	101(71.6)	40(28.4)	141(100.0)
	50대 이상	52(57.1)	39(42.9)	91(100.0)
	검정통계량	X^2=13.131**		
가족 유형	독신형	46(45.5)	55(54.5)	101(100.0)
	가족형	240(65.4)	127(34.6)	367(100.0)
	공동 거주형	4(26.7)	11(73.3)	15(100.0)
	검정통계량	X^2=20.196***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89(61.8)	55(38.2)	144(100.0)
	한시적 거주	18(38.3)	29(61.7)	47(100.0)
	영구적 거주	83(62.4)	50(37.6)	133(100.0)
	기타자격 거주	1(25.0)	3(75.0)	4(100.0)
	한국 국적(귀화/인지/출생)	99(63.9)	56(36.1)	155(100.0)
	검정통계량	X^2=12.753*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38(49.4)	39(50.6)	77(100.0)
	일한적 있음	252(62.1)	154(37.9)	406(100.0)
	검정통계량	X^2=4.364*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126(57.8)	92(42.2)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18(68.6)	54(31.4)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69(74.2)	24(25.8)	93(100.0)
	검정통계량	X^2=9.375**		

주 1: 교육 관련 서비스-학교, 교육청 등
2: *p<0.05, **p<0.01, ***p<0.001

○ 다만, 경험의 내용은 다를 수 있음. 실제 결혼이민자는 학교 발송 정보/알

림을 이해하지 못해 학부모 설명회, 참관 수업 등 학교 행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이혜림, 2022), 보호자의 언어 장벽은 자녀 교육 관련 의사결정과 정보 접근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남(이혜림·이지영, 2025). 즉, 한국어 활용 능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⑩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 이용 경험률은 47.8%이며, 권역(X^2=5.523, p<.05)과 가족 유형(X^2=8.359,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밀집 지역(45.3%)보다 그 외 지역(59.3%) 거주자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한 점임

○ 관련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밀집 지역은 그 외 지역보다 이주민의 체류 자격이 다양해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 인구가 그 외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음

〈표 Ⅳ-15〉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외국인 주민		231(47.8)	252(52.2)	483(100.0)
권역별	밀집지역	180(45.3)	217(54.7)	397(100.0)
	그 외 지역	51(59.3)	35(40.7)	86(100.0)
	검정통계량	X^2=5.523*		
가족 유형	독신형	36(35.6)	65(64.4)	101(100.0)
	가족형	189(51.5)	178(48.5)	367(100.0)
	공동 거주형	6(40.0)	9(60.0)	15(100.0)
	검정통계량	X^2=8.359*		

주 1: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임신/출산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2: *p<0.05, **p<0.01, ***p<0.001

○ 다음으로 밀집 지역의 경우 민간, 민족공동체(ethnic enclave) 자원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공적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음. 밀집 지역에 정착해 입국 초기부터 모국인 커뮤니티에 편입된 결혼이민자는 생활 편의, 취업 등에 관한 정보와 정서

적 지지를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이미 얻고 있어 가족센터 등 공적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이혜림, 2022). 이는 밀집 지역의 낮은 이용률이 접근성 부족이 아니라 민족공동체 자원이 공적 서비스를 상당 부분 대체한 결과일 수 있음을 뒷받침함

⑪ 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

- 외국인 주민의 76.6%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성별(X^2=5.858, $p<.05$), 가족 유형(X^2=12.371, $p<.01$), 체류 자격(X^2=9.732, $p<.05$),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X^2=10.508,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한국어 의사소통과 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 이용률은 정비례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특성상, 체류 기간이 길고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며 가족 단위로 정착한 집단일수록 지역사회 생활 자원에 대한 접근과 활용도가 높아짐을 보여줌. 한편, 정착 초기 단계이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집단은 행정·복지 영역뿐 아니라 일상생활 편의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 이 영역 역시 정보 제공·이용 유도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함

〈표 Ⅳ-16〉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 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외국인 주민		370(76.6)	113(23.4)	483(100.0)
성별	여성	243(80.2)	60(19.8)	303(100.0)
	남성	127(70.6)	53(29.4)	180(100.0)
	검정통계량	X^2=5.858*		
가족 유형	독신형	66(65.3)	35(34.7)	101(100.0)
	가족형	295(80.4)	72(19.6)	367(100.0)
	공동 거주형	9(60.0)	6(40.0)	15(100.0)
	검정통계량	X^2=12.371**		
체류	조건부 거주	100(69.4)	44(30.6)	144(100.0)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자격	한시적 거주	34(72.3)	13(27.7)	47(100.0)
	영구적 거주	107(80.5)	26(19.5)	133(100.0)
	기타자격 거주	2(50.0)	2(50.0)	4(100.0)
	한국 국적(귀화/인지/출생)	127(81.9)	28(18.1)	155(100.0)
	검정통계량	X^2=9.732*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153(70.2)	65(29.8)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37(79.7)	35(20.3)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80(86.0)	13(14.0)	93(100.0)
	검정통계량	X^2=10.508**		

주 1: 주민편의 관련 서비스-도서관, 문화센터, 공공 체육시설, 지역화폐(제로페이), 공공자전거 등
2: *p<0.05, **p<0.01, ***p<0.001

□ 공공서비스 유형별 미이용 이유

○ 미이용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서비스 유형에서 '필요 없어서'였으나, 이주민 지원 서비스와 민원 행정서비스는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필요 없어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두 서비스 영역에서 실제 수요가 있음에도 서비스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지-이용 전환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근거로, 정착 초기 안내 체계 강화가 필요한 영역을 시사함

○ 경남 다문화가족 대상 조사에서도 가족센터 미이용의 1순위 이유는 '몰라서'(28.3%)였고(이인숙 외, 2023), 결혼이민자의 낮은 정보 접근성이 서비스 미이용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음(이혜림, 2022). 경남 지역 이주민의 정보 부족에 따른 미이용은 이주민 지원 서비스 전반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그 외에 언어 장벽으로 인한 미이용은 민원 행정(24.6%), 납세(23.5%), 보건의료(22.9%), 안전/사법(22.2%)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문 서식이나 용어가 수반되는 영역일수록 언어 장벽이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물리적 거리(23.5%)와 근무 시간 상충(22.9%)은 모두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확인됨

○ 공공서비스 미이용 이유로 체류 자격 상 접근 권한 부재(납세 8.2%, 사회보장 7.9%), 체류 자격 노출 기피(납세 8.2%)는 전반적으로 비중이 작았으나 납세, 사회보장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격요건에 따른 제도적 배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실제 제도 설계와 정합하는 응답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영주권자(F-5), 재외동포(F-4)가 5년 이상 합법 거주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F-6)조차 '국민과의 혼인' 그 자체만으로는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고 한국 국적 자녀 양육 등 가족관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함(유민이 외, 2025). 즉, 사회보장 영역에서 '접근 권한 부재'를 이유로 든 응답은 개인의 오인이 아니라 법·제도상 실재하는 제도적 장벽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17〉 공공서비스 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미이용 이유(1+2순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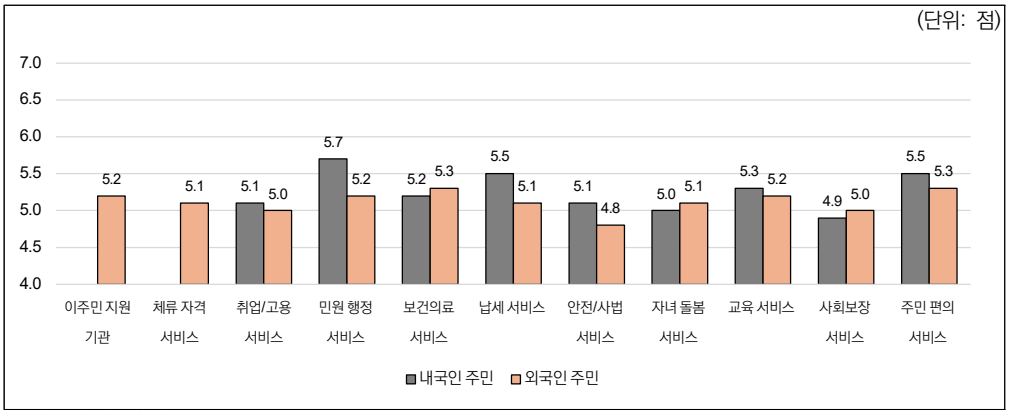
구분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서비스가 필요 없어서	언어 장벽으로 서류나 절차를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어서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직장근무 시간과 공공서비스 운영시간이 겹쳐서	체류자격 때문에 서비스 이용 접근 권한이 없어서	체류자격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주민 지원 서비스	73(50.7)	57(39.6)	23(16.0)	24(16.7)	25(17.4)	4(2.8)	6(4.2)
체류 자격 서비스	64(38.6)	79(47.6)	33(19.9)	28(16.9)	35(21.1)	10(6.0)	6(3.6)
취업/고용 서비스	81(41.5)	83(42.6)	39(20.0)	31(15.9)	40(20.5)	13(6.7)	4(2.1)
민원 행정서비스	69(53.1)	44(33.8)	32(24.6)	25(19.2)	27(20.8)	5(3.8)	4(3.1)
보건의료 서비스	64(38.6)	67(40.4)	38(22.9)	39(23.5)	38(22.9)	13(7.8)	6(3.6)
납세 서비스	64(37.6)	84(49.4)	40(23.5)	20(11.8)	32(18.8)	14(8.2)	14(8.2)
안전/사법 서비스	94(33.1)	155(54.6)	63(22.2)	42(14.8)	53(18.7)	17(6.0)	8(2.8)
자녀 돌봄 서비스	80(29.4)	182(66.9)	42(15.4)	30(11.0)	35(12.9)	16(5.9)	8(2.9)
교육 서비스	60(31.1)	112(58.0)	28(14.5)	29(15.0)	37(19.2)	8(4.1)	9(4.7)
사회보장 서비스	109(43.3)	116(46.0)	48(19.0)	34(13.5)	54(21.4)	20(7.9)	6(2.4)

□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

○ 이용률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내국인보다 높았던 영역(안전/사법, 자녀 돌봄, 사회보장 등)에서도, 실제 이용자가 체감한 도움 정도는 높지 않아 '이용'과 '체감 도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

○ 7점 만점인 조사에서 안전/사법 서비스는 내국인 5.1점 대비 외국인 4.8점으로 전 유형 중 유일하게 0.3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는데, 이 영역은 이용률(41.2%, 전유형 중 최저)과 도움 못 받은 비율(21.1%, 전유형 중 최고)이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 이용 여부, 도움 충분성, 만족도 세 측면 모두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확인됨

○ 민원 행정(내국인 5.7점, 외국인 5.2점)과 납세 서비스(내국인 5.5점, 외국인 5.1점)는 이용률, 도움 정도 모두 내국인이 높았던 반면, 보건의료(내국인 5.2점, 외국인 5.3점), 자녀 돌봄(내국인 5.0점, 외국인 5.1점), 사회보장(내국인 4.9점, 외국인 5.0점)은 외국인 주민의 점수가 근소하게 더 높아 복지형 서비스에서는 이용 시 체감 도움이 내국인과 유사하거나 다소 나은 수준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2] 공공서비스 유형별 내외국인 도움 정도

① 이주민 지원 기관

○ 평균 5.2점(도움 받음 67.3%)이며 성별(t=4.388, p<.001), 거주 지역(t=3.242, p<.01), 체류 자격(F=6.145, p<.001), 한국어 의사소통(F=20.831, p<.001), 근로 여부(t=3.94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표 Ⅳ-18〉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이주민 지원 관련 기관

(단위 : 명(%), 점)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주민		58(17.1)	53(15.6)	228(67.3)	339(100.0)	5.2	1.9
성별	여성	27(12.4)	29(13.3)	162(74.3)	218(100.0)	5.5	1.8
	남성	31(25.6)	24(19.8)	66(54.5)	121(100.0)	4.6	1.9
	검정통계량	t=4.388***					
거주 지역	밀집지역	42(15.2)	40(14.4)	195(70.4)	277(100.0)	5.3	1.8
	그 외 지역	16(25.8)	13(21.0)	33(53.2)	62(100.0)	4.5	2.0
	검정통계량	t=3.242**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32(30.2)	13(12.3)	61(57.5)	106(100.0)	4.7	2.1
	한시적 거주	0(0.0)	6(17.6)	28(82.4)	34(100.0)	6.0	1.2
	영구적 거주	9(9.4)	10(10.4)	77(80.2)	96(100.0)	5.5	1.7
	기타자격 거주	-	-	-	-	-	-
	한국 국적	17(16.5)	24(23.3)	62(60.2)	103(100.0)	5.0	1.8
	검정통계량	F=6.145***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45(27.8)	31(19.1)	86(53.1)	162(100.0)	4.6	2.0
	어려움 거의 없음	10(8.3)	17(14.2)	93(77.5)	120(100.0)	5.6	1.5
	어려움 전혀 없음	3(5.3)	5(8.8)	49(86.0)	57(100.0)	6.1	1.4
	검정통계량	F=20.831***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5(9.1)	3(5.5)	47(85.5)	55(100.0)	6.0	1.6
	일한적 있음	53(18.7)	50(17.6)	181(63.7)	284(100.0)	5.0	1.9
	검정통계량	t=3.948***					

주: *p<0.05, **p<0.01, ***p<0.001

❍ 한시적 거주(6.0점), 영구적 거주(5.5점)가 조건부 거주(4.7점)보다 도움 체감도가 높고, 한국어 소통이 원활할수록 도움 체감도가 높아 지원 기관 이용 시에도 언어 역량이 도움 체감도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음

② 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

❍ 평균 5.1점이며 성별(t=2.496, p<.05), 연령(F=3.380, p<.05), 체류 자격(F=5.326, p<.01), 한국어 소통(F=9.94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50대 이상(4.5점), 한국어 소통 '어려움' 집단(4.7점)의 도움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Ⅳ-19〉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점)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주민		53(16.7)	64(20.2)	200(63.1)	317(100.0)	5.1	1.7
성별	여성	30(15.2)	33(16.7)	135(68.2)	198(100.0)	5.3	1.7
	남성	23(19.3)	31(26.1)	65(54.6)	119(100.0)	4.8	1.7
	검정통계량	t=2.496*					
연령	20대 이하	7(13.5)	13(25.0)	32(61.5)	52(100.0)	4.9	1.6
	30대	14(11.6)	21(17.4)	86(71.1)	121(100.0)	5.3	1.6
	40대	16(17.8)	15(16.7)	59(65.6)	90(100.0)	5.2	1.8
	50대 이상	16(29.6)	15(27.8)	23(42.6)	54(100.0)	4.5	1.9
	검정통계량	F=3.380*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26(23.4)	22(19.8)	63(56.8)	111(100.0)	4.8	2.0
	한시적 거주	2(5.7)	3(8.6)	30(85.7)	35(100.0)	5.6	1.2
	영구적 거주	9(10.3)	16(18.4)	62(71.3)	87(100.0)	5.5	1.5
	기타자격 거주	-	-	-	-	-	-
	한국 국적	16(19.0)	23(27.4)	45(53.6)	84(100.0)	4.7	1.6
	검정통계량	F=5.326**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40(25.5)	36(22.9)	81(51.6)	157(100.0)	4.7	1.9
	어려움 거의 없음	8(7.4)	21(19.4)	79(73.1)	108(100.0)	5.6	1.4
	어려움 전혀 없음	5(9.6)	7(13.5)	40(76.9)	52(100.0)	5.4	1.5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검정통계량	F=9.944***					

주: *p<0.05, **p<0.01, ***p<0.001

③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 평균 5.0점이며 성별(t=2.201, p<.05), 연령(F=5.924, p<.01), 체류 자격(F=3.668, p<.01), 한국어 소통(F=15.13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50대 이상(4.2점), 조건부 거주(4.6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이용 경험은 있으나 체감하는 도움 정도는 낮은 이중 취약성이 확인됨

〈표 Ⅳ-20〉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점)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주민		57(19.8)	47(16.3)	184(63.9)	288(100.0)	5.0	1.8
성별	여성	29(17.4)	21(12.6)	117(70.1)	167(100.0)	5.2	1.8
	남성	28(23.1)	26(21.5)	67(55.4)	121(100.0)	4.7	1.8
	검정통계량	t=2.201*					
연령	20대 이하	7(12.7)	16(29.1)	32(58.2)	55(100.0)	5.0	1.6
	30대	16(15.8)	7(6.9)	78(77.2)	101(100.0)	5.4	1.7
	40대	12(16.7)	13(18.1)	47(65.3)	72(100.0)	5.0	1.8
	50대 이상	22(36.7)	11(18.3)	27(45.0)	60(100.0)	4.2	2.0
	검정통계량	F=5.924**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26(28.0)	16(17.2)	51(54.8)	93(100.0)	4.6	2.1
	한시적 거주	5(16.1)	5(16.1)	21(67.7)	31(100.0)	4.9	1.6
	영구적 거주	7(10.4)	5(7.5)	55(82.1)	67(100.0)	5.6	1.4
	기타자격 거주	0(0.0)	0(0.0)	2(100.0)	2(100.0)	7.0	0.0
	한국 국적	19(20.0)	21(22.1)	55(57.9)	95(100.0)	4.8	1.7
	검정통계량	F=3.668**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41(32.0)	23(18.0)	64(50.0)	128(100.0)	4.4	2.0
	어려움 거의 없음	11(9.9)	20(18.0)	80(72.1)	111(100.0)	5.3	1.5
	어려움 전혀 없음	5(10.2)	4(8.2)	40(81.6)	49(100.0)	5.7	1.5
	검정통계량	F=15.135***					

주: *p<0.05, **p<0.01, ***p<0.001

④ 민원 행정 관련 서비스

○ 평균 5.2점이며 성별(t=3.802, p<.001), 가족 유형(F=3.409, p<.05), 체류 자격(F=6.108, p<.001), 한국어 소통(F=20.60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한국어 소통 '어려움' 집단(4.7점)과 '어려움 전혀 없음' 집단(6.0점) 간 차이는 1.3점으로 전 유형 중 언어 관련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창구형 서비스의 특성상 의사소통 역량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표 Ⅳ-21〉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민원 행정서비스

(단위 : 명(%), 점)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주민		52(14.7)	64(18.1)	237(67.1)	353(100.0)	5.2	1.7
성별	여성	29(12.7)	30(13.2)	169(74.1)	228(100.0)	5.5	1.6
	남성	23(18.4)	34(27.2)	68(54.4)	125(100.0)	4.8	1.7
	검정통계량	t=3.802***					
가족 유형	독신형	11(15.3)	14(19.4)	47(65.3)	72(100.0)	5.2	1.8
	가족형	37(13.6)	48(17.6)	187(68.8)	272(100.0)	5.3	1.6
	공동 거주형	4(44.4)	2(22.2)	3(33.3)	9(100.0)	3.9	1.7
	검정통계량	F=3.409*					
체류	조건부 거주	23(25.3)	21(23.1)	47(51.6)	91(100.0)	4.6	1.9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자격	한시적 거주	2(5.4)	7(18.9)	28(75.7)	37(100.0)	5.5	1.2
	영구적 거주	9(9.0)	13(13.0)	78(78.0)	100(100.0)	5.6	1.4
	기타자격 거주	0(0.0)	0(0.0)	4(100.0)	4(100.0)	7.0	0.0
	한국 국적	18(14.9)	23(19.0)	80(66.1)	121(100.0)	5.3	1.6
	검정통계량	F=6.108***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40(27.2)	28(19.0)	79(53.7)	147(100.0)	4.7	1.9
	어려움 거의 없음	8(6.3)	27(21.4)	91(72.2)	126(100.0)	5.5	1.4
	어려움 전혀 없음	4(5.0)	9(11.3)	67(83.8)	80(100.0)	6.0	1.2
	검정통계량	F=20.606***					

주: *p<0.05, **p<0.01, ***p<0.001

⑤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 평균 5.3점이며 성별(t=3.781, p<.001), 체류 자격(F=6.74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한국어 소통 수준별로도 도움받지 못함 비율이 큰 차이를 보여, 이용 경험 단계에서는 하위집단 간 차이가 없었던 것과 달리 실제 도움 정도 단계에서는 언어 역량에 따른 격차가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음

〈표 Ⅳ-22〉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위 : 명(%), 점)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주민		40(12.6)	57(18.0)	220(69.4)	317(100.0)	5.3	1.6
성별	여성	21(10.1)	32(15.5)	154(74.4)	207(100.0)	5.6	1.6
	남성	19(17.3)	25(22.7)	66(60.0)	110(100.0)	4.9	1.6
	검정통계량	t=3.781***					
체류	조건부 거주	23(25.0)	16(17.4)	53(57.6)	92(100.0)	4.8	1.9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자격	한시적 거주	2(5.7)	5(14.3)	28(80.0)	35(100.0)	5.7	1.3
	영구적 거주	4(4.4)	12(13.3)	74(82.2)	90(100.0)	5.8	1.3
	기타자격 거주	0(0.0)	0(0.0)	2(100.0)	2(100.0)	7.0	0.0
	한국 국적	11(11.2)	24(24.5)	63(64.3)	98(100.0)	5.2	1.5
	검정통계량	F=6.749***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31(21.4)	33(22.8)	81(55.9)	145(100.0)	4.8	1.8
	어려움 거의 없음	8(6.9)	16(13.8)	92(79.3)	116(100.0)	5.6	1.3
	어려움 전혀 없음	1(1.8)	8(14.3)	47(83.9)	56(100.0)	6.1	1.2
	검정통계량	F=18.329***					

주: *p<0.05, **p<0.01, ***p<0.001

⑥ 납세 관련 서비스

❍ 평균 5.1점이며 성별(t=2.931, p<.01), 체류 자격(F=6.048, p<.001), 한국어 소통(F=18.745, p<.001), 근로 여부(t=2.759,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조건부 거주(4.5점)와 한국어 소통 어려움 집단(4.5점)에서 도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남

〈표 Ⅳ-23〉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납세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점)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주민		48(15.3)	61(19.5)	204(65.2)	313(100.0)	5.1	1.7
성별	여성	26(13.5)	33(17.2)	133(69.3)	192(100.0)	5.3	1.7
	남성	22(18.2)	28(23.1)	71(58.7)	121(100.0)	4.8	1.6
	검정통계량	t=2.931**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24(27.9)	20(23.3)	42(48.8)	86(100.0)	4.5	1.9
	한시적 거주	4(10.5)	4(10.5)	30(78.9)	38(100.0)	5.3	1.6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영구적 거주	7(8.5)	10(12.2)	65(79.3)	82(100.0)	5.7	1.4
	기타자격 거주	0(0.0)	0(0.0)	2(100.0)	2(100.0)	7.0	0.0
	한국 국적	13(12.4)	27(25.7)	65(61.9)	105(100.0)	5.1	1.6
	검정통계량	F=6.048***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34(27.0)	28(22.2)	64(50.8)	126(100.0)	4.5	1.8
	어려움 거의 없음	9(7.6)	25(21.2)	84(71.2)	118(100.0)	5.4	1.4
	어려움 전혀 없음	5(7.2)	8(11.6)	56(81.2)	69(100.0)	5.9	1.4
	검정통계량	F=18.745***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3(6.3)	6(12.5)	39(81.3)	48(100.0)	5.7	1.4
	일한적 있음	45(17.0)	55(20.8)	165(62.3)	265(100.0)	5.0	1.7
	검정통계량	t=2.759**					

주: *p<0.05, **p<0.01, ***p<0.001

⑦ 안전/사법 관련 서비스

❍ 평균 4.8점이며 성별(t=3.286, p<.01), 가족 유형(F=3.319, p<.05), 체류자격(F=3.507, p<.05), 한국어 소통(F=8.28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독신형(4.2점), 조건부 거주(4.2점), 한국어 소통 어려움 집단(4.3점)에서 특히 도움 체감도가 낮아, 사회적 관계망과 체류 안정성이 취약한 집단일수록 사법 접근 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24〉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안전/사법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점)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주민		42(21.1)	44(22.1)	113(56.8)	199(100.0)	4.8	1.8
성별	여성	19(15.7)	23(19.0)	79(65.3)	121(100.0)	5.1	1.7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남성	23(29.5)	21(26.9)	34(43.6)	78(100.0)	4.3	1.7
	검정통계량	t=3.286**					
가족 유형	독신형	12(27.9)	10(23.3)	21(48.8)	43(100.0)	4.2	1.8
	가족형	28(18.8)	32(21.5)	89(59.7)	149(100.0)	5.0	1.7
	공동 거주형	2(28.6)	2(28.6)	3(42.9)	7(100.0)	4.3	1.9
	검정통계량	F=3.319*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19(31.1)	14(23.0)	28(45.9)	61(100.0)	4.2	1.9
	한시적 거주	4(19.0)	6(28.6)	11(52.4)	21(100.0)	4.7	1.7
	영구적 거주	10(18.5)	8(14.8)	36(66.7)	54(100.0)	5.2	1.7
	기타자격 거주	-	-	-	-	-	-
	한국 국적	9(14.3)	16(25.4)	38(60.3)	63(100.0)	5.0	1.5
	검정통계량	F=3.507*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30(29.7)	25(24.8)	46(45.5)	101(100.0)	4.3	1.8
	어려움 거의 없음	8(13.3)	12(20.0)	40(66.7)	60(100.0)	5.2	1.5
	어려움 전혀 없음	4(10.5)	7(18.4)	27(71.1)	38(100.0)	5.3	1.6
	검정통계량	F=8.285***					

주: *p<0.05, **p<0.01, ***p<0.001

⑧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 평균 5.1점이며 성별(t=3.748, p<.001), 연령(F=2.706, p<.05), 거주 지역(t=2.326, p<.05), 가족 유형(F=9.649, p<.001), 체류 자격(F=11.144, p<.001), 한국어 소통(F=11.33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표 Ⅳ-25〉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점)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주민		32(15.2)	47(22.3)	132(62.6)	211(100.0)	5.1	1.7
성별	여성	15(10.7)	26(18.6)	99(70.7)	140(100.0)	5.4	1.6
	남성	17(23.9)	21(29.6)	33(46.5)	71(100.0)	4.5	1.9
	검정통계량	t=3.748***					
연령	20대 이하	4(14.8)	8(29.6)	15(55.6)	27(100.0)	4.9	1.5
	30대	10(13.5)	17(23.0)	47(63.5)	74(100.0)	5.1	1.8
	40대	6(8.8)	14(20.6)	48(70.6)	68(100.0)	5.5	1.7
	50대 이상	12(28.6)	8(19.0)	22(52.4)	42(100.0)	4.6	1.7
	검정통계량	F=2.706*					
거주 지역	밀집지역	19(11.4)	37(22.2)	111(66.5)	167(100.0)	5.3	1.6
	그 외 지역	13(29.5)	10(22.7)	21(47.7)	44(100.0)	4.5	2.0
	검정통계량	t=2.326*					
가족 유형	독신형	9(37.5)	7(29.2)	8(33.3)	24(100.0)	3.9	2.1
	가족형	21(11.5)	39(21.4)	122(67.0)	182(100.0)	5.3	1.6
	공동 거주형	2(40.0)	1(20.0)	2(40.0)	5(100.0)	3.6	1.7
	검정통계량	F=9.649***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18(34.0)	12(22.6)	23(43.4)	53(100.0)	4.1	1.9
	한시적 거주	2(13.3)	3(20.0)	10(66.7)	15(100.0)	5.0	1.6
	영구적 거주	3(4.7)	11(17.2)	50(78.1)	64(100.0)	5.8	1.4
	기타자격 거주	-	-	-	-	-	-
	한국 국적	9(11.4)	21(26.6)	49(62.0)	79(100.0)	5.2	1.6
	검정통계량	F=11.144***					
한국어 의사	어려움	29(24.8)	28(23.9)	60(51.3)	117(100.0)	4.6	1.8
	어려움 거의 없음	3(4.5)	12(18.2)	51(77.3)	66(100.0)	5.6	1.4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소통	어려움 전혀 없음	0(0.0)	7(25.0)	21(75.0)	28(100.0)	6.0	1.3
	검정통계량	F=11.330***					

주: *p<0.05, **p<0.01, ***p<0.001

⑨ 교육 관련 서비스

○ 평균 5.2점이며 성별(t=4.784, p<.001), 연령(F=3.432, p<.05), 체류 자격(F=6.479, p<.001), 한국어 소통(F=11.56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특히, 조건부 거주(4.6점)의 도움 체감도가 낮아 체류 초기 단계 자녀 교육 지원의 도움 체감도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줌

〈표 Ⅳ-26〉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교육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점)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주민		47(16.2)	47(16.2)	196(67.6)	290(100.0)	5.2	1.7
성별	여성	19(10.6)	24(13.4)	136(76.0)	179(100.0)	5.6	1.6
	남성	28(25.2)	23(20.7)	60(54.1)	111(100.0)	4.6	1.8
	검정통계량	t=4.784***					
연령	20대 이하	8(19.0)	9(21.4)	25(59.5)	42(100.0)	5.0	1.6
	30대	9(9.5)	17(17.9)	69(72.6)	95(100.0)	5.5	1.6
	40대	15(14.9)	15(14.9)	71(70.3)	101(100.0)	5.4	1.8
	50대 이상	15(28.8)	6(11.5)	31(59.6)	52(100.0)	4.6	1.8
	검정통계량	F=3.432*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29(32.6)	13(14.6)	47(52.8)	89(100.0)	4.6	2.0
	한시적 거주	3(16.7)	1(5.6)	14(77.8)	18(100.0)	5.2	1.7
	영구적 거주	4(4.8)	12(14.5)	67(80.7)	83(100.0)	5.8	1.3
	기타자격 거주	0(0.0)	0(0.0)	1(100.0)	1(100.0)	7.0	0.0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한국 국적	11(11.1)	21(21.2)	67(67.7)	99(100.0)	5.3	1.6
	검정통계량	F=6.479***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33(23.9)	25(18.1)	80(58.0)	138(100.0)	4.8	1.9
	어려움 거의 없음	11(10.6)	16(15.4)	77(74.0)	104(100.0)	5.5	1.5
	어려움 전혀 없음	3(6.3)	6(12.5)	39(81.3)	48(100.0)	6.0	1.4
	검정통계량	F=11.561***					

주: *p<0.05, **p<0.01, ***p<0.001

⑩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 평균 5.0점이며 성별(t=3.186, p<.01), 체류 자격(F=4.401, p<.01), 한국어 소통(F=9.35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체류 안정성이 낮을수록 체감하는 도움 정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이주민 지원, 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 사회보장 등 여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됨

〈표 Ⅳ-27〉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점)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주민		32(13.9)	63(27.3)	136(58.9)	231(100.0)	5.0	1.6
성별	여성	16(10.7)	39(26.0)	95(63.3)	150(100.0)	5.2	1.6
	남성	16(19.8)	24(29.6)	41(50.6)	81(100.0)	4.5	1.6
	검정통계량	t=3.186**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21(30.0)	17(24.3)	32(45.7)	70(100.0)	4.4	1.8
	한시적 거주	1(4.3)	8(34.8)	14(60.9)	23(100.0)	4.9	1.4
	영구적 거주	4(5.8)	16(23.2)	49(71.0)	69(100.0)	5.5	1.4
	기타자격 거주	0(0.0)	1(100.0)	0(0.0)	1(100.0)	4.0	0.0
	한국 국적	6(8.8)	21(30.9)	41(60.3)	68(100.0)	5.2	1.5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검정통계량	F=4.401**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27(26.0)	24(23.1)	53(51.0)	104(100.0)	4.5	1.8
	어려움 거의 없음	3(3.8)	22(28.2)	53(67.9)	78(100.0)	5.4	1.3
	어려움 전혀 없음	2(4.1)	17(34.7)	30(61.2)	49(100.0)	5.3	1.3
	검정통계량	F=9.352***					

주: *p<0.05, **p<0.01, ***p<0.001

⑪ 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

- ❍ 평균 5.3점이며 성별(t=4.548, p<.001), 체류 자격(F=4.249, p<.01), 한국어 소통(F=17.750, p<.001), 근로 여부(t=2.953,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 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와 같이 한국어 소통이 어려울수록, 체류 자격이 안정적이지 않을수록 도움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28〉 공공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

(단위 : 명(%), 점)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주민		42(11.4)	74(20.0)	254(68.6)	370(100.0)	5.3	1.6
성별	여성	21(8.6)	36(14.8)	186(76.5)	243(100.0)	5.6	1.5
	남성	21(16.5)	38(29.9)	68(53.5)	127(100.0)	4.8	1.7
	검정통계량	t=4.548***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21(21.0)	19(19.0)	60(60.0)	100(100.0)	4.9	1.8
	한시적 거주	1(2.9)	5(14.7)	28(82.4)	34(100.0)	5.4	1.1
	영구적 거주	6(5.6)	15(14.0)	86(80.4)	107(100.0)	5.7	1.4
	기타자격 거주	0(0.0)	0(0.0)	2(100.0)	2(100.0)	7.0	0.0

구분		도움 받지 못함 (①+②+③)	보통(④)	도움 받음 (⑤+⑥+⑦)	합계	평균	표준편차
	한국 국적	14(11.0)	35(27.6)	78(61.4)	127(100.0)	5.2	1.6
	검정통계량	F=4.249**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32(20.9)	35(22.9)	86(56.2)	153(100.0)	4.7	1.8
	어려움 거의 없음	8(5.8)	24(17.5)	105(76.6)	137(100.0)	5.6	1.4
	어려움 전혀 없음	2(2.5)	15(18.8)	63(78.8)	80(100.0)	5.8	1.3
	검정통계량	F=17.750***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1(1.6)	8(13.1)	52(85.2)	61(100.0)	5.7	1.2
	일한적 있음	41(13.3)	66(21.4)	202(65.4)	309(100.0)	5.2	1.7
	검정통계량	t=2.953**					

주: *p<0.05, **p<0.01, ***p<0.001

□ 공공서비스 유형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

○ 전반적으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출 서류/신청 절차의 복잡성'이 유형을 불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앞서 살펴본 서비스 미이용 이유(몰라서/필요 없어서)와 같이 정보 접근성 문제가 서비스 이용의 전 단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장벽임을 보여줌

○ '정보 부족'이 민원 행정(51.9%), 주민 편의(50.0%), 취업/고용(49.1%), 이주민 지원(46.6%), 체류자격(45.3%) 서비스에서는 1위 이유였고, 납세(52.1%), 사회보장(50.0%), 안전/사법(45.2%) 서비스에서는 '서류/절차 복잡성'이 1위로 나타나 행정형 서비스일수록 절차적 진입장벽이 두드러짐

○ 언어 장벽(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은 보건의료 서비스(45.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 돌봄(37.5%), 사회보장(34.4%), 교육(34.0%) 등 생활밀착형/복지형 서비스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아, 이 영역들은 앞서 확인한 이용 경험률 자체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하는 도움의 정도는 언어능력이 매개한다고 이해할 수 있음

○ 대기 시간(안전/사법 33.3%, 납세 29.2%), 공무원/직원의 불친절(교육 25.5%, 납세 22.9%, 이주민 지원 22.4%)도 일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음.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배려 부족은 보건의료 서비스(12.5%),

안전/사법 서비스(11.9%), 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11.9%)로 나타남

〈표 Ⅳ-29〉 공공서비스 유형별 외국인 주민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1+2순위)

(단위 : 명(%))

구분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제출 서류가 많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직원이 불친절해서	종교, 음식, 관습 등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이주민 지원 서비스	20(34.5)	27(46.6)	15(25.9)	6(10.3)	13(22.4)	3(5.2)
체류 자격 서비스	15(28.3)	24(45.3)	20(37.7)	13(24.5)	10(18.9)	2(3.8)
취업/고용 서비스	18(31.6)	28(49.1)	19(33.3)	12(21.1)	10(17.5)	2(3.5)
민원 행정 서비스	15(28.8)	27(51.9)	19(36.5)	15(28.8)	5(9.6)	3(5.8)
보건의료 서비스	18(45.0)	12(30.0)	16(40.0)	9(22.5)	4(10.0)	5(12.5)
납세 서비스	12(25.0)	13(27.1)	25(52.1)	14(29.2)	11(22.9)	2(4.2)
안전/사법 서비스	13(31.0)	14(33.3)	19(45.2)	14(33.3)	5(11.9)	5(11.9)
자녀 돌봄 서비스	12(37.5)	12(37.5)	9(28.1)	8(25.0)	7(21.9)	3(9.4)
교육 서비스	16(34.0)	19(40.4)	13(27.7)	13(27.7)	12(25.5)	4(8.5)
사회보장 서비스	11(34.4)	12(37.5)	16(50.0)	5(15.6)	6(18.8)	1(3.1)
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	12(28.6)	21(50.0)	15(35.7)	8(19.0)	8(19.0)	5(11.9)

□ 공공서비스 정보 획득 경로

○ 내국인 주민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1순위 34.0%, 1+2순위 48.1%)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외국인 주민은 배우자/가족/친척(26.5%), 한국인 지인(23.6%), 외국인 지인(16.6%)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획득 비중이 66.7%에 달함.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X^2=171.950, p<.001)

○ 이는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정보가 온라인 채널보다 인적 관계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거나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외국인 주민일수록 정보 자체에 접근하지 못할 위험이 큼을 시사함. 아울러 인적 관계망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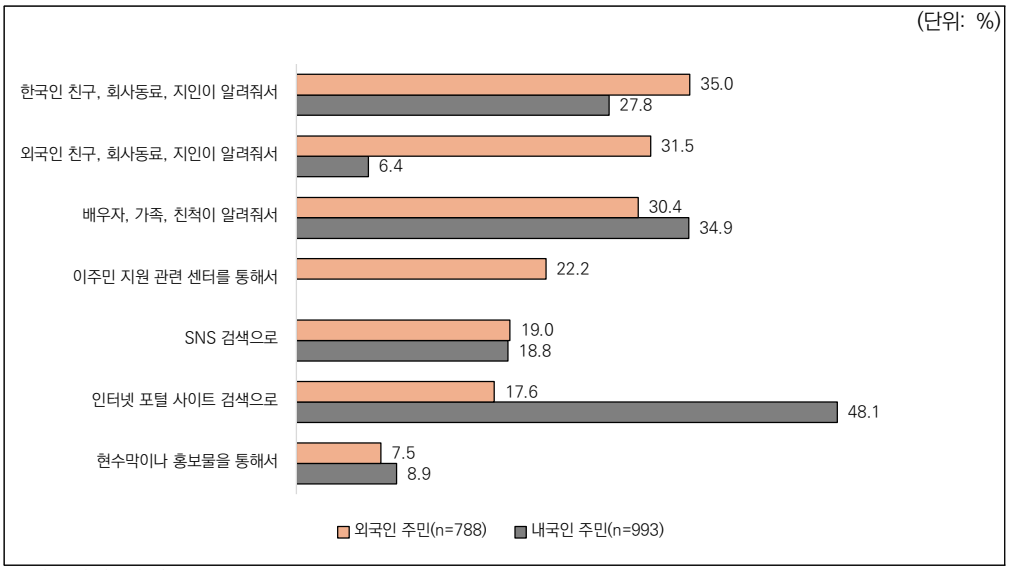
경우도 있어 온라인 중심의 정보 제공 방식보다 이주민 지원센터, 커뮤니티 등 관계 기반 채널을 통한 정보 전달 전략이 더 실효적일 수 있음

〈표 Ⅳ-30〉 내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정보 획득 경로(1순위)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가족, 친척이 알려줘서	한국인 친구, 회사동료, 지인이 알려줘서	외국인 친구, 회사동료, 지인이 알려줘서	이주민 지원 관련 센터를 통해서	SNS 검색으로	현수막/ 홍보물을 통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합계
전체	349(28.1)	234(18.8)	107(8.6)	54(4.3)	138(11.1)	47(3.8)	314(25.3)	1,243(100.0)
외국인 주민	128(26.5)	114(23.6)	80(16.6)	54(11.2)	46(9.5)	18(3.7)	43(8.9)	483(100.0)
내국인 주민	221(27.8)	120(15.1)	27(3.4)	-	92(11.6)	29(3.6)	271(34.0)	760(100.0)
검정통계량	X^2=171.950***							

주: *p<0.05, **p<0.01, ***p<0.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3] 내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획득 경로(1+2순위)

○ 정보 획득 경로는 외국인 주민 내집단에서도 연령(X^2=29.254, p<.05), 가족 유형(X^2=39.202, p<.001), 체류 자격(X^2=53.207, p<.01), 한국어 의

사소통 수준(X^2=68.688, p<.001), 근로 여부(X^2=27.59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 독신형(외국인 지인 35.6%, 한국인 지인 25.7%)은 가족형(배우자·가족 30.8%)에 비해 또래/동료 관계망 의존도가 높아, 가족 단위 정착 여부에 따라 정보 획득 경로 자체가 상이함
- ❍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집단은 인터넷 포털 검색(23.7%)이 상대적으로 주요 정보 획득 경로이지만, 한국어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은 배우자/가족(27.5%)/한국인 지인(23.9%) 등 인적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두드러져, 한국어 역량이 정보 획득 경로의 '독립성'을 좌우함
- ❍ 근로 경험이 있는 집단은 한국인 지인(26.6%)을 통한 정보 획득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직장 내 형성된 관계망이 정보 유통의 주요 통로로 작동함을 보여주며, 근로 경험이 없는 집단(가족/친척 31.2%)과 대조를 이룸

〈표 Ⅳ-31〉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정보 획득 경로(1순위)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가족, 친척이 알려줘서	한국인 친구, 회사동료, 지인이 알려줘서	외국인 친구, 회사동료, 지인이 알려줘서	이주민 지원 관련 센터를 통해서	SNS 검색으로	현수막/홍보물을 통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합계
외국인 주민		128(26.5)	114(23.6)	80(16.6)	54(11.2)	46(9.5)	18(3.7)	43(8.9)	483(100.0)
연령	20대 이하	15(17.4)	24(27.9)	12(14.0)	8(9.3)	9(10.5)	9(10.5)	9(10.5)	86(100.0)
	30대	40(24.2)	41(24.8)	30(18.2)	21(12.7)	19(11.5)	4(2.4)	10(6.1)	165(100.0)
	40대	43(30.5)	32(22.7)	19(13.5)	19(13.5)	10(7.1)	3(2.1)	15(10.6)	141(100.0)
	50대 이상	30(33.0)	17(18.7)	19(20.9)	6(6.6)	8(8.8)	2(2.2)	9(9.9)	91(100.0)
	검정통계량	X^2=29.254*							
가족 유형	독신형	12(11.9)	36(35.6)	26(25.7)	9(8.9)	9(8.9)	2(2.0)	7(6.9)	101(100.0)
	가족형	113(30.8)	70(19.1)	51(13.9)	44(12.0)	37(10.1)	16(4.4)	36(9.8)	367(100.0)
	공동 거주형	3(20.0)	8(53.3)	3(20.0)	1(6.7)	0(0.0)	0(0.0)	0(0.0)	15(100.0)
	검정통계량	X^2=39.202***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26(18.1)	46(31.9)	30(20.8)	20(13.9)	12(8.3)	4(2.8)	6(4.2)	144(100.0)
	한시적 거주	6(12.8)	10(21.3)	7(14.9)	5(10.6)	7(14.9)	7(14.9)	5(10.6)	47(100.0)
	영구적 거주	47(35.3)	24(18.0)	24(18.0)	14(10.5)	10(7.5)	2(1.5)	12(9.0)	133(100.0)

구분		배우자, 가족, 친척이 알려줘서	한국인 친구, 회사동료, 지인이 알려줘서	외국인 친구, 회사동료, 지인이 알려줘서	이주민 지원 관련 센터를 통해서	SNS 검색으로	현수막/ 홍보물을 통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합계
	기타자격 거주	2(50.0)	1(25.0)	0(0.0)	0(0.0)	0(0.0)	0(0.0)	1(25.0)	4(100.0)
	한국 국적	47(30.3)	33(21.3)	19(12.3)	15(9.7)	17(11.0)	5(3.2)	19(12.3)	155(100.0)
	검정통계량	X^2=53.207**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60(27.5)	52(23.9)	42(19.3)	32(14.7)	19(8.7)	5(2.3)	8(3.7)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48(27.9)	50(29.1)	31(18.0)	15(8.7)	12(7.0)	3(1.7)	13(7.6)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20(21.5)	12(12.9)	7(7.5)	7(7.5)	15(16.1)	10(10.8)	22(23.7)	93(100.0)
	검정통계량	X^2=68.688***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24(31.2)	6(7.8)	10(13.0)	7(9.1)	11(14.3)	8(10.4)	11(14.3)	77(100.0)
	일한적 있음	104(25.6)	108(26.6)	70(17.2)	47(11.6)	35(8.6)	10(2.5)	32(7.9)	406(100.0)
	검정통계량	X^2=27.594***							

주: *p<0.05, **p<0.01, ***p<0.001

□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한 도움

○ 외국인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정보 및 다국어 안내 강화'(1순위 28.8%, 1+2순위 34.2%)였고, 이어서 '현장에서의 실시간 통·번역 지원'(1+2순위 26.5%), '시간 및 장소 접근성 확대'(1+2 순위 24.6%) 등의 순임

○ 이는 앞서 확인한 공공서비스 미이용 이유 및 도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정보 부족'과 '언어 장벽'이 외국인 주민 스스로 인식하는 우선 개선 과제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다국어 정보 제공과 통·번역 지원이 정책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체감도 높은 개선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한 도움은 거주 지역(X^2=16.321, p<.01)과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X^2=92.314,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밀집 지역 거주자는 '도움 없이 혼자 이용 가능' 응답(23.9%)이 그 외 지역(10.5%)보다 높지만,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정보 및 다국어 안내 강화'(38.4%)에 대한 요구가 밀집 지역(26.7%)보다 뚜렷이 높아, 외국인 커

뮤니티 및 지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일수록 정보 접근 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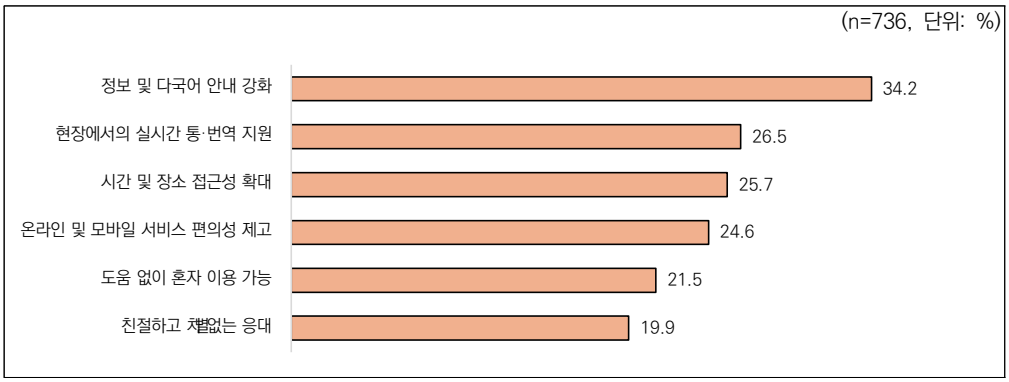
○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은 '정보 및 다국어 안내 강화'(37.2%)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고, 어려움이 전혀 없는 집단은 '혼자 이용 가능'이 54.8%로 나타나, 한국어 역량이 서비스의 자립적 이용 여부의 핵심 영향 요인임을 보여줌. 이는 한국어교육 지원과 다국어 안내 체계 확충이 상호 보완적인 정책 우선순위임을 시사함

〈표 Ⅳ-32〉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한 도움(1순위)

(단위 : 명(%))

구분		도움 없이 혼자 이용 가능	정보 및 다국어 안내 강화	현장에서의 실시간 통·번역 지원	시간 및 장소 접근성 확대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편의성 제고	외국인에 대한 친절하고 차별 없는 응대	합계
외국인 주민		104(21.5)	139(28.8)	76(15.7)	70(14.5)	57(11.8)	37(7.7)	483(100.0)
권역별	밀집지역	95(23.9)	106(26.7)	62(15.6)	56(14.1)	52(13.1)	26(6.5)	397(100.0)
	그 외 지역	9(10.5)	33(38.4)	14(16.3)	14(16.3)	5(5.8)	11(12.8)	86(100.0)
	검정통계량	X^2=16.321**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19(8.7)	81(37.2)	39(17.9)	33(15.1)	25(11.5)	21(9.6)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34(19.8)	49(28.5)	31(18.0)	28(16.3)	20(11.6)	10(5.8)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51(54.8)	9(9.7)	6(6.5)	9(9.7)	12(12.9)	6(6.5)	93(100.0)
	검정통계량	X^2=92.314***						

주: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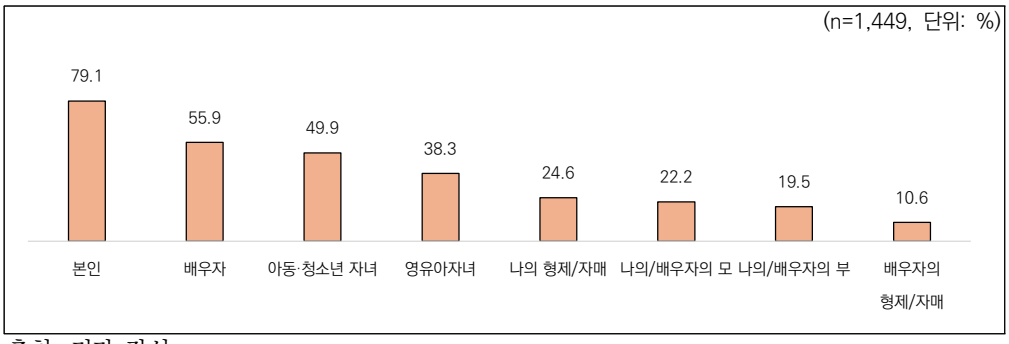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4]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한 도움(1+2순위)

□ 공공서비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가족 구성원

○ 외국인 주민의 58.0%(1순위)가 '본인'을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응답하였고, 배우자(14.7%), 아동·청소년 자녀(9.7%), 영유아 자녀(7.5%)가 뒤를 이었음. 1+2+3순위 기준으로도 순위 차이는 없어, 본인 다음으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도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가족 유형(X^2=33.943, $p<.01$)과 체류 자격(X^2=42.358,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독신형(80.2%), 공동 거주형(73.3%)은 본인에 대한 도움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가족형은 본인(51.2%) 비중이 낮아지고 배우자(17.7%), 아동·청소년 자녀(11.7%)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필요도가 함께 분산되어 나타나,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지원 필요 대상의 범위 자체가 달라짐을 보여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5] 공공서비스 도움이 가장 필요한 가족 구성원(1+2+3순위)

〈표 Ⅳ-33〉 공공서비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가족 구성원(1순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영유아 자녀 (손자/ 손녀)	아동·청소년 자녀 (손자/ 손녀)	나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나의/ 배우자의 부	나의/ 배우자의 모	합계
외국인 주민		280(58.0)	71(14.7)	36(7.5)	47(9.7)	18(3.7)	9(1.9)	9(1.9)	13(2.7)	483(100.0)
가족 유형	독신형	81(80.2)	4(4.0)	5(5.0)	4(4.0)	3(3.0)	1(1.0)	2(2.0)	1(1.0)	101(100.0)
	가족형	188(51.2)	65(17.7)	30(8.2)	43(11.7)	15(4.1)	8(2.2)	7(1.9)	11(3.0)	367(100.0)
	공동 거주형	11(73.3)	2(13.3)	1(6.7)	0(0.0)	0(0.0)	0(0.0)	0(0.0)	1(6.7)	15(100.0)
	검정통계량	X^2=33.943**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82(56.9)	17(11.8)	17(11.8)	10(6.9)	8(5.6)	6(4.2)	2(1.4)	2(1.4)	144(100.0)
	한시적 거주	32(68.1)	7(14.9)	0(0.0)	4(8.5)	2(4.3)	0(0.0)	1(2.1)	1(2.1)	47(100.0)
	영구적 거주	77(57.9)	21(15.8)	7(5.3)	17(12.8)	2(1.5)	2(1.5)	2(1.5)	5(3.8)	133(100.0)
	기타자격 거주	1(25.0)	1(25.0)	0(0.0)	0(0.0)	1(25.0)	0(0.0)	1(25.0)	0(0.0)	4(100.0)
	한국 국적	88(56.8)	25(16.1)	12(7.7)	16(10.3)	5(3.2)	1(0.6)	3(1.9)	5(3.2)	155(100.0)
	검정통계량	X^2=42.358*								

주: *p<0.05, **p<0.01, ***p<0.001

□ 공공서비스 이용 시 차별/무시/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 여부

○ 외국인 주민의 46.4%가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차별, 무시,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이는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X^2=22.805, p<.001)

○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의 경험률(58.3%)이 어려움이 다른 집단보다 뚜렷이 높아, 언어 장벽이 차별이나 부당대우 경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다만, 어려움이 전혀 없는 집단(38.7%)이 거의 없는 집단(35.5%)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난 점은 단순한 정비례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외모나 억양 등 언어능력 외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음

〈표 Ⅳ-34〉 공공서비스 이용 시 차별/무시/부당대우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외국인 주민		224(46.4)	259(53.6)	483(100.0)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127(58.3)	91(41.7)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61(35.5)	111(64.5)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36(38.7)	57(61.3)	93(100.0)
	검정통계량	X^2=22.805***		

주: *p<0.05, **p<0.01, ***p<0.001

□ 차별 한 대상

○ 차별 및 부당대우의 주체는 '담당 직원/공무원'(1순위 39.3%, 1+2+3순위 55.8%)이 가장 많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1순위 28.1%, 1+2+3순위 51.3%)이 뒤를 이었으며, 체류 자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X^2=40.076, p<.01)

○ 영구적 거주 자격자는 '담당 직원/공무원'에 의한 차별(50.0%)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한국 국적자는 '다른 이용자'에 의한 차별(40.6%)이 담당 직원(39.1%)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남

○ 이는 차별의 주체가 서비스 공급 주체와 일반 시민 양쪽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담당 인력에 대한 다문화/상호 문화 감수성 교육뿐 아니라 이주 배경이 없는 도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함께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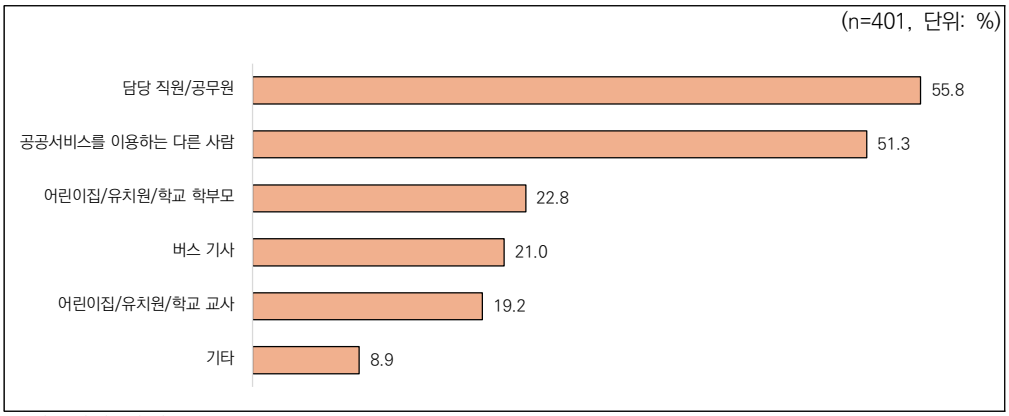
〈표 Ⅳ-35〉 차별 한 대상(1순위)

(단위 : 명(%))

구분		담당 직원/ 공무원	버스 기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사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	기타	합계
외국인 주민		88(39.3)	23(10.3)	22(9.8)	19(8.5)	63(28.1)	9(4.0)	224(100.0)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24(34.3)	14(20.0)	7(10.0)	9(12.9)	13(18.6)	3(4.3)	70(100.0)
	한시적 거주	6(27.3)	3(13.6)	1(4.5)	4(18.2)	8(36.4)	0(0.0)	22(100.0)

구분		담당 직원/공무원	버스 기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학부모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	기타	합계
	영구적 거주	31(50.0)	4(6.5)	4(6.5)	5(8.1)	13(21.0)	5(8.1)	62(100.0)
	기타자격 거주	0(0.0)	0(0.0)	0(0.0)	0(0.0)	1(100.0)	0(0.0)	1(100.0)
	한국 국적	27(39.1)	2(2.9)	10(14.5)	1(1.4)	28(40.6)	1(1.4)	69(100.0)
	검정통계량	X^2=40.076**						

주: *p<0.05, **p<0.01, ***p<0.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6] 공공서비스 이용 시 차별한 대상(1+2+3순위)

□ 차별당했을 때 대응

○ 차별 경험자의 42.9%가 '참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족, 친구와 상의'(19.6%), '상대에게 말투와 행동 수정 요구'(15.6%) 등이 뒤를 이었고, 공식적 구제 절차인 '상담 기관 문의'(9.4%)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신고'(2.7%)의 비중은 작음. 차별 인식 후 대응 방식은 성별(X^2=18.712, p<.01), 가족 유형(X^2=24.198, p<.05), 체류 자격(X^2=41.438,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여성(1순위 51.0%, 1+2순위 62.2%)이 남성(28.4%, 43.2%)보다 '참았다'는 응답이 높지만, 남성은 상담 기관 문의(1+2순위 39.5%, 여성 18.9%), 수정 요구, 사과 요구 등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 비중이 높아, 대응 방식에 있어 성별 격차가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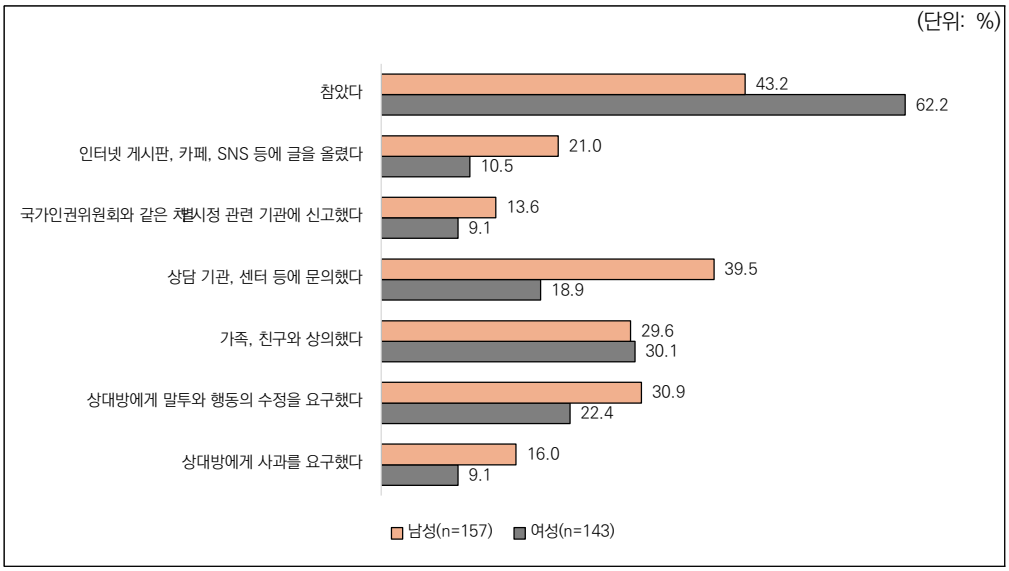
〈표 Ⅳ-36〉 차별 경험 후 대응 방식(1순위)

(단위 : 명(%))

구분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상대에게 말투와 행동의 수정을 요구했다	가족, 친구와 상의했다	상담 기관, 센터 등에 문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차별 시정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인터넷 게시판, 카페, SNS 등에 글을 올렸다	참았다	합계
차별 경험자		15(6.7)	35(15.6)	44(19.6)	21(9.4)	6(2.7)	7(3.1)	96(42.9)	224(100.0)
성별	여성	7(4.9)	19(13.3)	29(20.3)	11(7.7)	3(2.1)	1(0.7)	73(51.0)	143(100.0)
	남성	8(9.9)	16(19.8)	15(18.5)	10(12.3)	3(3.7)	6(7.4)	23(28.4)	81(100.0)
	검정통계량	X^2=18.712**							
가족 유형	독신형	5(12.5)	10(25.0)	3(7.5)	1(2.5)	0(0.0)	1(2.5)	20(50.0)	40(100.0)
	가족형	8(4.5)	25(14.1)	40(22.6)	20(11.3)	6(3.4)	5(2.8)	73(41.2)	177(100.0)
	공동 거주형	2(28.6)	0(0.0)	1(14.3)	0(0.0)	0(0.0)	1(14.3)	3(42.9)	7(100.0)
	검정통계량	X^2=24.198*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8(11.4)	23(32.9)	11(15.7)	6(8.6)	1(1.4)	2(2.9)	19(27.1)	70(100.0)
	한시적 거주	0(0.0)	0(0.0)	6(27.3)	3(13.6)	1(4.5)	0(0.0)	12(54.5)	22(100.0)
	영구적 거주	4(6.5)	3(4.8)	11(17.7)	7(11.3)	3(4.8)	1(1.6)	33(53.2)	62(100.0)
	기타자격 거주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1(100.0)
	한국 국적	3(4.3)	9(13.0)	16(23.2)	5(7.2)	1(1.4)	4(5.8)	31(44.9)	69(100.0)
	검정통계량	X^2=41.438*							

주: *p<0.05, **p<0.01, ***p<0.001

○ 한편, 체류가 가장 불안정한 조건부 거주자의 '참았다'는 응답(27.1%)이 가장 낮고 '말투/행동 수정 요구'(32.9%)가 가장 높게 나타나, 체류 안정성이 낮을수록 대응이 소극적일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이는 조건부 거주자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거나 최근 이주자가 많아 문제 제기 성향이 강할 가능성 등을 시사하나, 표본 특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7] 차별당했을 때 대응 방식(1+2순위)

□ 차별당했을 때 참은 이유

○ '대응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1순위 47.6%, 1+2순위 남성 60.0%, 여성 67.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31.5%)가 뒤를 이었음. 차별을 인지하고도 참은 이유는 가족 유형(X^2=18.627, $p<.05$), 체류 자격(X^2=33.210, $p<.01$), 한국어 소통(X^2=26.0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독신형은 '한국말을 잘 못해서'(30.4%)의 비중이 가족형(8.3%)보다 크게 높아 언어 문제와 결합해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조건부 거주 자격자는 '체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18.5%)의 비중이 다른 체류 자격 집단보다 높아, 체류 불안정성이 차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실질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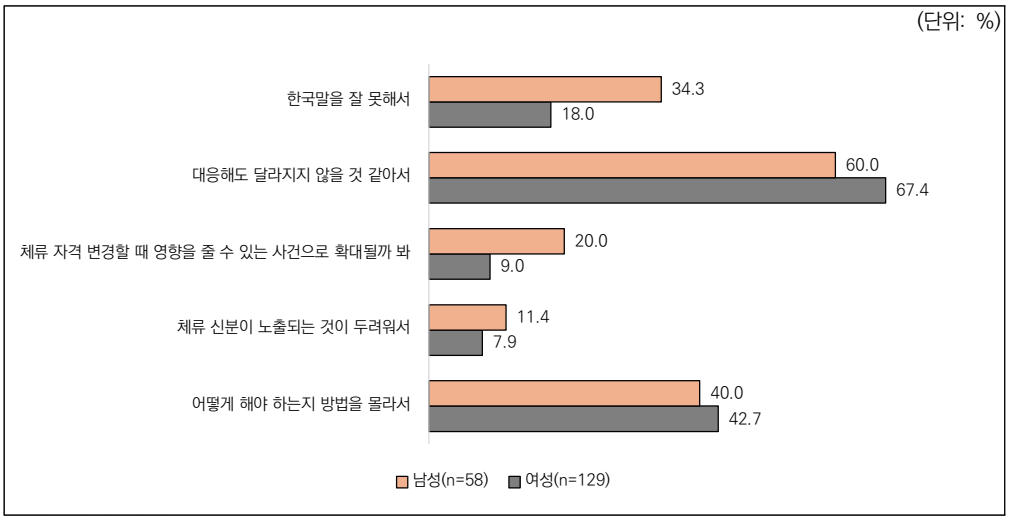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차별 대응을 가로막는 요인은 '제도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이 가장 크고, 이어서 '절차적 정보 부족'과 '구조적 취약성'이 결합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공식적 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를 함께 제고할 필요성을 시사함

〈표 Ⅳ-37〉 차별당했을 때 참은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체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체류 자격 변경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확대될까 봐	대응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국말을 잘 못해서	합계
외국인 주민		39(31.5)	6(4.8)	4(3.2)	59(47.6)	16(12.9)	124(100.0)
가족 유형	독신형	7(30.4)	3(13.0)	0(0.0)	6(26.1)	7(30.4)	23(100.0)
	가족형	31(32.3)	2(2.1)	4(4.2)	51(53.1)	8(8.3)	96(100.0)
	공동 거주형	1(20.0)	1(20.0)	0(0.0)	2(40.0)	1(20.0)	5(100.0)
	검정통계량	X^2=18.627*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9(33.3)	5(18.5)	0(0.0)	6(22.2)	7(25.9)	27(100.0)
	한시적 거주	1(5.9)	0(0.0)	1(5.9)	13(76.5)	2(11.8)	17(100.0)
	영구적 거주	15(38.5)	0(0.0)	2(5.1)	19(48.7)	3(7.7)	39(100.0)
	기타자격 거주	1(100.0)	0(0.0)	0(0.0)	0(0.0)	0(0.0)	1(100.0)
	한국 국적	13(32.5)	1(2.5)	1(2.5)	21(52.5)	4(10.0)	40(100.0)
	검정통계량	X^2=33.210**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22(36.7)	5(8.3)	2(3.3)	17(28.3)	14(23.3)	60(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0(27.8)	1(2.8)	0(0.0)	23(63.9)	2(5.6)	36(100.0)
	어려움 전혀 없음	7(25.0)	0(0.0)	2(7.1)	19(67.9)	0(0.0)	28(100.0)
	검정통계량	X^2=26.005**					

주: *p<0.05, **p<0.01, ***p<0.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8] 차별당했을 때 참은 이유(1+2순위)

□ 이주민이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대분류)

○ 이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로 전체 응답자는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30.5%)와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28.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내외국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X^2=38.961, p<.001)

○ 외국인 주민은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35.4%)를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29.0%)보다 우선시했지만, 내국인 주민은 두 영역을 거의 동등하게 평가하였고(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27.5%,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28.3%) '기타 서비스'[9] 응답(10.8%)이 외국인 주민(2.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내국인의 인식이 특정 영역에 집중되기보다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줌

○ 다만 1+2순위 기준으로는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가 외국인(56.9%), 내국인(55.4%)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단일 응답(1순위)에서는 이주민 지원 서비스가 우선시되지만, 종합적으로는 취업/고용이 내외국인 모두가 폭넓게 공감하는 핵심 수요 영역임을 보여줌.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는 내국인(33.5%)이 당사자인 외국인(26.7%)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으로 나타나 인식의 방향이 엇갈리는 지점도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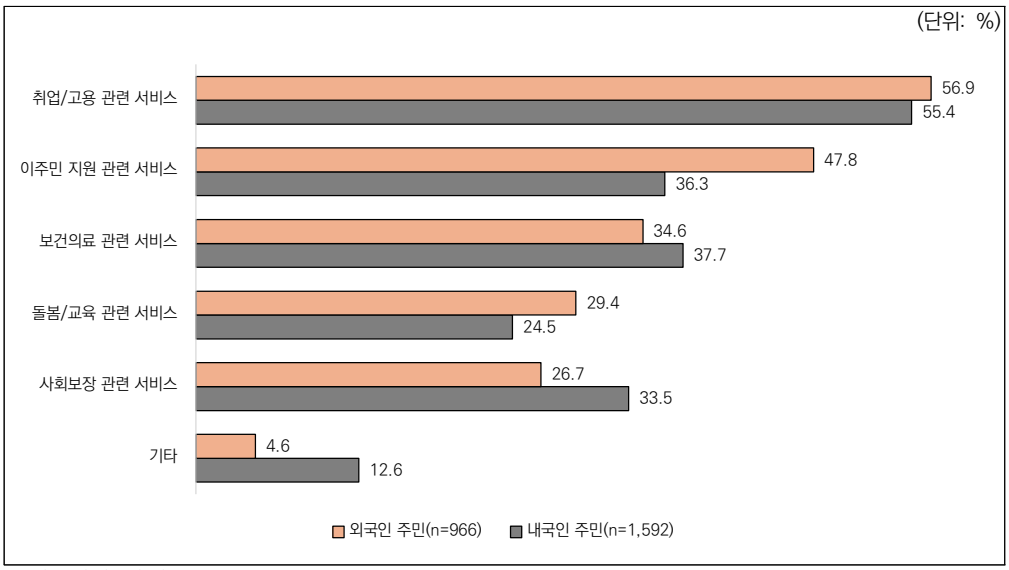
9) 기타 서비스로는 통·번역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다국어 지원, 정책 홍보/주민 편의 안내 문구 등 다국어 병기,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제시함

〈표 Ⅳ-38〉 내외국인이 생각하는 이주민이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기타 서비스	합계
전체	390(30.5)	365(28.5)	178(13.9)	114(8.9)	136(10.6)	96(7.5)	1,279(100.0)
외국인 주민	171(35.4)	140(29.0)	67(13.9)	49(10.1)	46(9.5)	10(2.1)	483(100.0)
내국인 주민	219(27.5)	225(28.3)	111(13.9)	65(8.2)	90(11.3)	86(10.8)	796(100.0)
검정통계량	X^2=38.961***						

주: *p<0.05, **p<0.01, ***p<0.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9] 내외국인이 생각하는 이주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1+2순위)

❍ 외국인 주민 내부에서는 경남 거주기간(X^2=28.660, p<.05)에 따라 뚜렷한 변화 패턴이 나타남. 거주 1년 미만 신규 이주자는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69.2%)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거주 10년 이상 집단은 이 비중이 28.7%로 크게 낮아지고 대신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31.9%)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정착 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정책 수요의 중심이 '적응 지원'에서 '경제활동 지원'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뚜렷이 보여줌

❍ 가족 유형(X^2=29.173, p<.01)에서는 공동 거주형의 사회보장 서비스 수요

(26.7%)가 독신형(13.9%), 가족형(7.6%)보다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한국어 소통 수준(X^2=23.376, p<.01)에서도 소통이 원활한 집단일수록 취업/고용 서비스 수요(어려움 거의 없음 37.2%)가 이주민 지원 서비스 수요를 앞질러, 언어 역량 향상이 정책 수요의 성격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시사함

〈표 Ⅳ-39〉 이주민이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1순위)

(단위 : 명(%))

구분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기타	합계
외국인 주민		171(35.4)	140(29.0)	67(13.9)	49(10.1)	46(9.5)	10(2.1)	483(100.0)
가족 유형	독신형	38(37.6)	28(27.7)	13(12.9)	2(2.0)	14(13.9)	6(5.9)	101(100.0)
	가족형	126(34.3)	110(30.0)	53(14.4)	46(12.5)	28(7.6)	4(1.1)	367(100.0)
	공동 거주형	7(46.7)	2(13.3)	1(6.7)	1(6.7)	4(26.7)	0(0.0)	15(100.0)
	검정통계량	X^2=29.173**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83(38.1)	47(21.6)	32(14.7)	28(12.8)	23(10.6)	5(2.3)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52(30.2)	64(37.2)	29(16.9)	13(7.6)	13(7.6)	1(0.6)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36(38.7)	29(31.2)	6(6.5)	8(8.6)	10(10.8)	4(4.3)	93(100.0)
	검정통계량	X^2=23.376**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38(49.4)	16(20.8)	9(11.7)	12(15.6)	1(1.3)	1(1.3)	77(100.0)
	일한적 있음	133(32.8)	124(30.5)	58(14.3)	37(9.1)	45(11.1)	9(2.2)	406(100.0)
	검정통계량	X^2=16.918**						

주: *p<0.05, **p<0.01, ***p<0.001

□ 이주민이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대분류 1순위의 상세 분류)

①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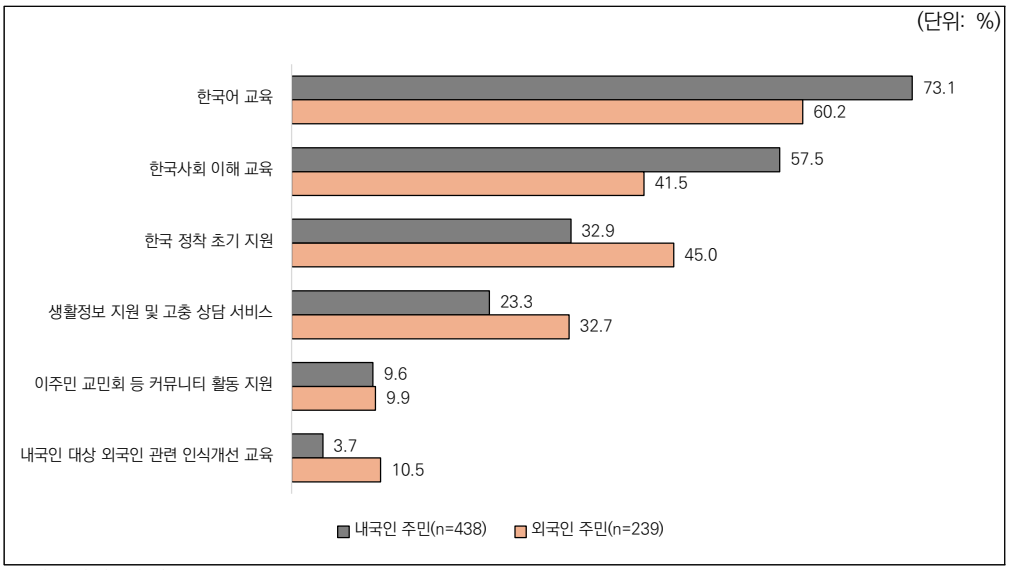
○ 이주민 지원 서비스 중에서는 '한국어교육'(56.7%)이 1순위였고 '한국 사회 이해 교육'(20.8%)이 뒤를 이었으며, 내외국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X^2=12.656, p<.05)

〈표 Ⅳ-40〉 내외국인의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단위 : 명(%))

구분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이해 교육	한국 정착 초기 지원	생활정보 지원 및 고충 상담 서비스	이주민 교민회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내국인 대상 외국인 관련 인식 개선 교육	합계
전체	221(56.7)	81(20.8)	41(10.5)	28(7.2)	9(2.3)	10(2.6)	390(100.0)
외국인 주민	84(49.1)	45(26.3)	16(9.4)	17(9.9)	3(1.8)	6(3.5)	171(100.0)
내국인 주민	137(62.6)	36(16.4)	25(11.4)	11(5.0)	6(2.7)	4(1.8)	219(100.0)
검정통계량	X^2=12.656*						

주: *p〈0.05, **p〈0.01, ***p〈0.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10] 내외국인의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2순위)

❍ 내국인 주민은 '한국어교육'(62.6%)을 강하게 우선했지만, 외국인 주민은 한국어교육(49.1%) 못지않게 '한국 사회 이해 교육'(26.3%, 내국인 16.4%)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 스스로는 언어능력과 더불어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함께 원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내국인 대상 외국인 관련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수요는 1+2순위 기준 외국인 주민(10.5%)이 내국인 주민(3.7%)보다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이는 외국인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견이나 차별적 시선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정책 수요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서 확인한 공공서비스 이용 시 차별 경험률(46.4%)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Ⅳ-41〉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단위 : 명(%))

구분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이해 교육	한국 정착 초기 지원	생활정보 지원 및 고충 상담 서비스	이주민 교민회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내국인 대상 외국인 관련 인식 개선 교육	합계
외국인 주민		84(49.1)	45(26.3)	16(9.4)	17(9.9)	3(1.8)	6(3.5)	171(100.0)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51(61.4)	21(25.3)	5(6.0)	5(6.0)	0(0.0)	1(1.2)	83(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6(30.8)	14(26.9)	8(15.4)	7(13.5)	3(5.8)	4(7.7)	5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17(47.2)	10(27.8)	3(8.3)	5(13.9)	0(0.0)	1(2.8)	36(100.0)
	검정통계량	X^2=22.535*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20(52.6)	7(18.4)	7(18.4)	2(5.3)	2(5.3)	0(0.0)	38(100.0)
	일한적 있음	64(48.1)	38(28.6)	9(6.8)	15(11.3)	1(0.8)	6(4.5)	133(100.0)
	검정통계량	X^2=11.788*						

주: *p<0.05, **p<0.01, ***p<0.001

○ 외국인 주민 내부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X^2=22.535, p<.05)과 근로 여부(X^2=11.788,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은 한국어교육 수요(61.4%)가 압도적이나,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거의 없는 집단은 이 비중이 30.8%로 낮아지고 정착 초기 지원(15.4%), 생활정보 지원 및 고충 상담(13.5%)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언어 장벽 해소 이후 수요가 보다 다각화되는 양상을 보임

○ 근로 경험이 없는 집단은 '한국 정착 초기 지원'(18.4%) 수요가 근로 경험이 있는 집단(6.8%)보다 뚜렷이 높아, 경제활동에 편입되지 않은 이주민

-결혼이주자,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와 자녀-일수록 기초적인 정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게 나타남

②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중에서는 '자격증 취득/직업훈련/취업 교육'(전체 53.7%), '취업 관련 정보제공/취업 기회 확대'(38.6%) 순이었고, 내외국인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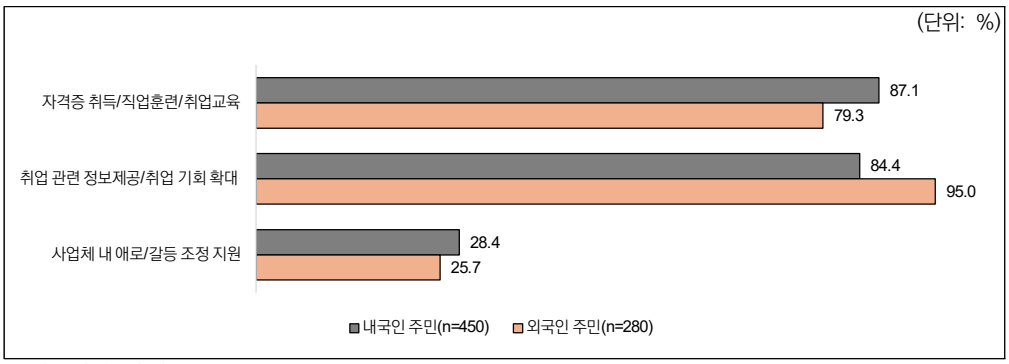
❍ 다만 1+2순위 기준으로는 외국인 주민의 '취업 관련 정보 제공/취업 기회 확대' 응답(95.0%)이 내국인 주민(84.4%)보다 높게 나타나, 단일 응답에서는 직업훈련/교육 자체에 대한 요구가 앞서지만, 종합적으로는 정보/기회에 대한 접근성 요구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는 점을 보여줌

〈표 Ⅳ-42〉 내외국인의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단위 : 명(%))

구분	자격증 취득/직업훈련/ 취업 교육	취업 관련 정보제공/ 취업 기회 확대	사업체 내 애로/갈등 조정 지원	합계
전체	196(53.7)	141(38.6)	28(7.7)	365(100.0)
외국인 주민	72(51.4)	61(43.6)	7(5.0)	140(100.0)
내국인 주민	124(55.1)	80(35.6)	21(9.3)	225(100.0)
검정통계량	X^2=3.766			

주: *p<0.05, **p<0.01, ***p<0.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11] 내외국인의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2순위)

○ 외국인 주민 내부에서 하위 특성에 따른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이 영역에 대한 수요는 하위집단 간 뚜렷한 차이 없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표 Ⅳ-43〉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단위 : 명(%))

구분	자격증 취득/직업훈련/취업 교육	취업 관련 정보제공/취업 기회 확대	사업체 내 애로/갈등 조정 지원	합계
외국인 주민	72(51.4)	61(43.6)	7(5.0)	140(100.0)

주: *p<0.05, **p<0.01, ***p<0.001

③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 외국인 주민은 '진료 시 통·번역 지원'(41.8%)을 압도적 1로, 내국인 주민은 '임신·출산 지원'(31.5%)을 가장 우선시하여 내외국인 간 우선순위가 엇갈렸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X^2=15.976, p<.01)

〈표 Ⅳ-44〉 내외국인의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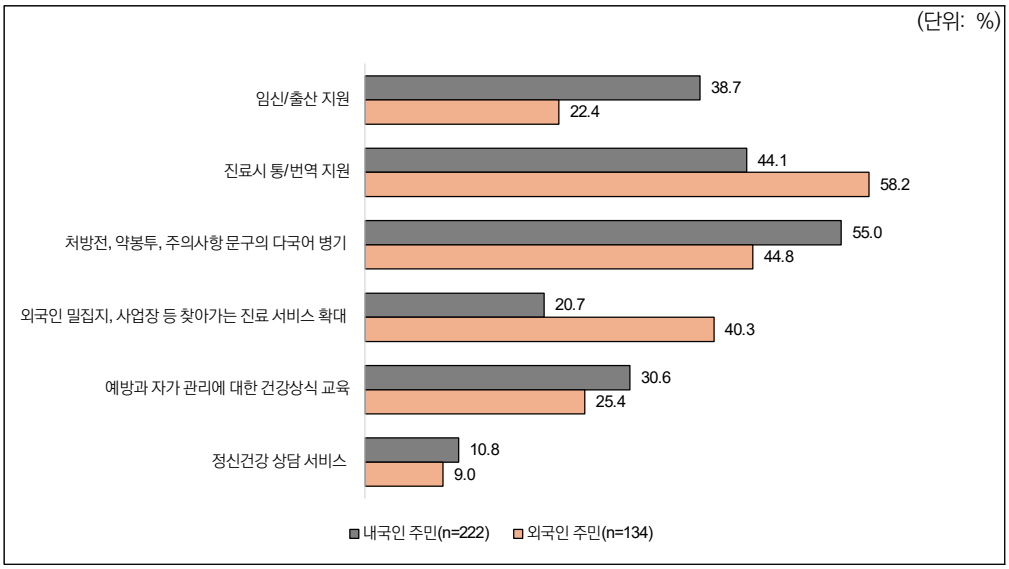
구분	임신·출산 지원	진료 시 통·번역 지원	처방전, 약 봉투, 주의사항 문구의 다국어 병기	외국인 밀집지, 사업장 등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확대	예방과 자가 관리에 대한 건강 상식 교육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합계
전체	49(27.5)	56(31.5)	40(22.5)	14(7.9)	16(9.0)	3(1.7)	178(100.0)
외국인 주민	14(20.9)	28(41.8)	8(11.9)	9(13.4)	6(9.0)	2(3.0)	67(100.0)
내국인 주민	35(31.5)	28(25.2)	32(28.8)	5(4.5)	10(9.0)	1(0.9)	111(100.0)
검정통계량	X^2=15.976**						

주: *p<0.05, **p<0.01, ***p<0.001

○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 밀집지, 사업장 등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13.4%)도 내국인 주민(4.5%)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

며, 1+2순위 기준으로도 이 항목(외국인 40.3%, 내국인 20.7%)과 진료 시 통·번역 지원(외국인 58.2%, 내국인 44.1%)에서 외국인 주민의 요구가 뚜렷이 높게 확인됨

❍ 이는 외국인 주민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진료 내용 자체보다 '의사소통'과 '물리적 접근성'이라는 진입 단계의 장벽 해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확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미이용 및 도움이 불충분했다고 생각한 이유에서 언어 장벽과 거리/시간 문제가 두드러졌던 결과와 일관되게 맞닿아 있음. 한편, 외국인 주민 내부에서 거주 권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12] 내외국인의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2순위)

④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

❍ 돌봄·교육 서비스 중에서는 '자녀 보육비/교육비 지원'(전체 32.5%)과 '자녀 한국어 학습 지원'(26.3%)에 대한 수요가 컸고, 내외국인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다만 1+2순위 기준으로는 외국인 주민이 '자녀 진로/진학 교육'(36.7%, 내국인 26.2%)과 '한국어 학습 중인 자녀의 교과 학습 지원'(34.7%, 내국인 26.2%)에서 내국인보다 높은 요구를 보여, 학령이 올라갈수록 발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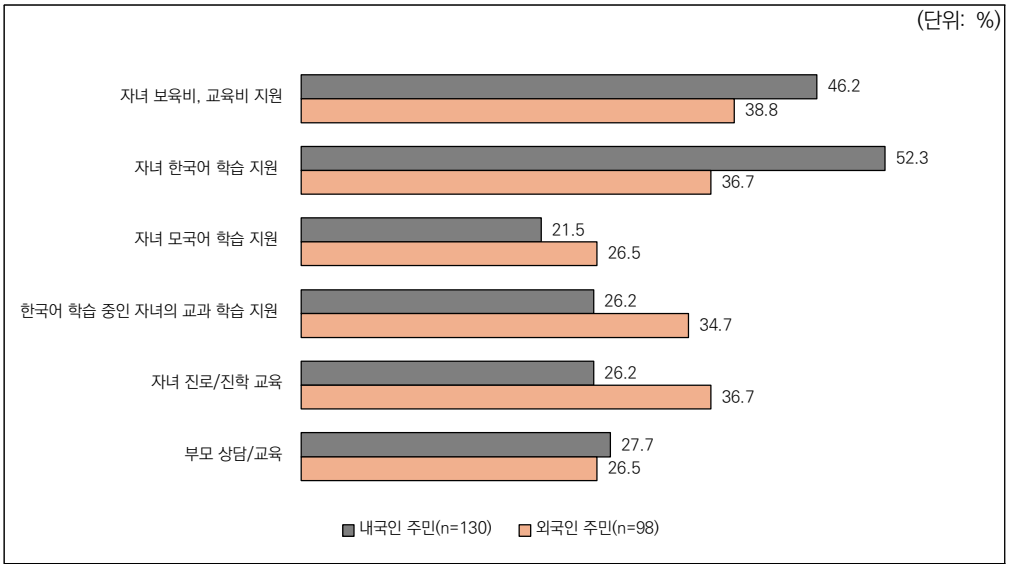
는 학업 격차와 진로 설계의 어려움이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표 Ⅳ-45〉 내외국인의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단위 : 명(%))

구분	자녀 보육비, 교육비 지원	자녀 한국어 학습 지원	자녀 모국어 학습 지원	한국어 학습 중인 자녀의 교과 학습 지원	자녀 진로/진학 교육	부모 상담/교육	합계
전체	37(32.5)	30(26.3)	17(14.9)	15(13.2)	8(7.0)	7(6.1)	114(100.0)
외국인 주민	12(24.5)	12(24.5)	7(14.3)	8(16.3)	6(12.2)	4(8.2)	49(100.0)
내국인 주민	25(38.5)	18(27.7)	10(15.4)	7(10.8)	2(3.1)	3(4.6)	65(100.0)
검정통계량	X^2=6.387						

주: *p<0.05, **p<0.01, ***p<0.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13] 내외국인의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2순위)

○ 외국인 주민 내부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X^2=19.144, p<.05).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은 '자녀 한국어 학습 지원'(35.7%)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거의 없는 집단은 오히려 '자녀 모국어 학습 지원'(30.8%)을 가장 많이 원했고,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집단은 '보육비, 교육비 지원'(50.0%)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비선형적 변화는 부모의 한국어 역량이 낮은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자녀의 한국어 습득 자체가 절박한 과제이지만, 부모의 정착이 안정화될수록 관심이 자녀의 이중언어, 이중 문화 정체성 유지(모국어 학습)나 경제적 지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정착 단계별로 세분화된 돌봄/교육 지원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표 Ⅳ-46〉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단위 : 명(%))

구분		자녀 보육비, 교육비 지원	자녀 한국어 학습 지원	자녀 모국어 학습 지원	한국어 학습 중인 자녀의 교과 학습 지원	자녀 진로/진학 교육	부모 상담/교육	합계
외국인 주민		12(24.5)	12(24.5)	7(14.3)	8(16.3)	6(12.2)	4(8.2)	49(100.0)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5(17.9)	10(35.7)	3(10.7)	6(21.4)	3(10.7)	1(3.6)	2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3(23.1)	0(0.0)	4(30.8)	2(15.4)	1(7.7)	3(23.1)	13(100.0)
	어려움 전혀 없음	4(50.0)	2(25.0)	0(0.0)	0(0.0)	2(25.0)	0(0.0)	8(100.0)
	검정통계량	X^2=19.144*						

주: *p<0.05, **p<0.01, ***p<0.001

⑤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 사회보장 서비스 세부 수요는 내외국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국인 주민은 '가정폭력·젠더폭력 등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23.9%)을 '아동·청소년 지원'(23.9%)과 함께 공동 1위로 꼽아 내국인 주민(15.6%)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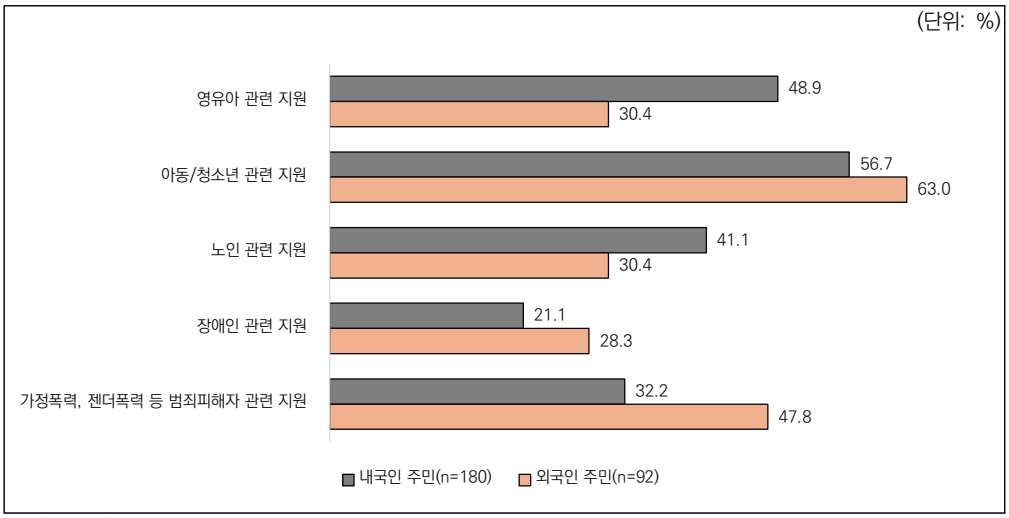
○ 1+2순위 기준으로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뚜렷해져, 외국인 주민(47.8%)의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요구가 내국인 주민(32.2%)보다 15.6%p 높게 나타남. 이는 여성 외국인 주민이 가정폭력·젠더폭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기존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폭력 피해 보호/지원체계의 접근성과 실효성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Ⅳ-47〉 내외국인의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관련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	노인 관련 지원	장애인 관련 지원	가정폭력, 젠더폭력 등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합계
전체	33(24.3)	35(25.7)	26(19.1)	17(12.5)	25(18.4)	136(100.0)
외국인 주민	8(17.4)	11(23.9)	10(21.7)	6(13.0)	11(23.9)	46(100.0)
내국인 주민	25(27.8)	24(26.7)	16(17.8)	11(12.2)	14(15.6)	90(100.0)
검정통계량	X^2=2.866					

주: *p〈0.05, **p〈0.01, ***p〈0.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14] 내외국인의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2순위)

❍ 외국인 주민 내부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X^2=12.926, p〈.05). 여성은 '영유아 관련 지원'(32.0%)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남성은 '노인 관련 지원'(33.3%)을 가장 우선시해 대조적인 패턴을 보임. 이는 가정 내 성별화된 돌봄 역할 분담이 정책 수요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표 Ⅳ-48〉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관련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	노인 관련 지원	장애인 관련 지원	가정폭력, 젠더폭력 등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합계
외국인 주민		8(17.4)	11(23.9)	10(21.7)	6(13.0)	11(23.9)	46(100.0)
성별	여성	8(32.0)	6(24.0)	3(12.0)	1(4.0)	7(28.0)	25(100.0)
	남성	0(0.0)	5(23.8)	7(33.3)	5(23.8)	4(19.0)	21(100.0)
	검정통계량	X^2=12.926*					

주: *p<0.05, **p<0.01, ***p<0.001

⑥ 기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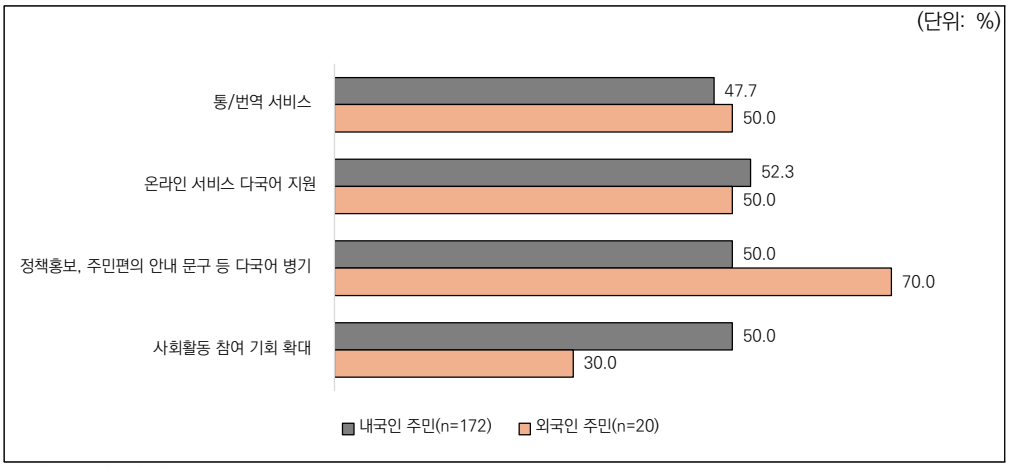
❍ 기타 서비스 중에서는 '통·번역 서비스'(전체 37.5%)가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내외국인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1+2순위 기준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정책 홍보, 주민 편의 안내 문구 등 다국어 병기'(70.0%)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음

〈표 Ⅳ-49〉 내외국인의 기타 서비스 상세 수요(1순위)

(단위 : 명(%))

구분	통·번역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다국어 지원	정책 홍보, 주민 편의 안내 문구 등 다국어 병기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합계
전체	36(37.5)	14(14.6)	22(22.9)	24(25.0)	96(100.0)
외국인 주민	3(30.0)	1(10.0)	4(40.0)	2(20.0)	10(100.0)
내국인 주민	33(38.4)	13(15.1)	18(20.9)	22(25.6)	86(100.0)
검정통계량	X^2=1.861				

주: *p<0.05, **p<0.01, ***p<0.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15] 내외국인의 기타 서비스 상세 수요(1+2순위)

(2) 한국어교육 관련 서비스

☐ 한국어 학습 경험

- ❍ 외국인 주민의 79.9%가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남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X^2=8.267, p<.05)
- ❍ 거주 1~5년 미만 집단의 학습 경험률(92.3%)이 가장 높고 5~10년 미만 집단(74.7%)에서 오히려 낮아졌다가 10년 이상 집단(78.7%)에서 소폭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임

〈표 Ⅳ-50〉 한국어 학습 경험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요	합계
전체		386(79.9)	97(20.1)	483(100.0)
경남 거주 기간	1년 미만	11(84.6)	2(15.4)	13(100.0)
	1~5년 미만	60(92.3)	5(7.7)	65(100.0)
	5~10년 미만	71(74.7)	24(25.3)	95(100.0)
	10년 이상	244(78.7)	66(21.3)	310(100.0)
	검정통계량	X^2=8.267*		

주: *p<0.05, **p<0.01, ***p<0.001

□ 한국어 학습 방식

○ 한국어 학습 방식은 대면 교육(43.5%)이 가장 많았고, 성별(X^2=7.683, p<.05), 가족 유형(X^2=17.967, p<.01), 체류 자격(X^2=20.584, p<.01),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X^2=32.247,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집단은 대면 교육(66.2%) 선호가 뚜렷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집단은 대면(34.9%), 온라인(32.0%), 혼합(33.1%)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 한국어 역량이 향상될수록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면 교육으로 학습 방식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여줌

〈표 Ⅳ-51〉 한국어 학습 방식

(단위 : 명(%))

구분		대면교육	온라인 교육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 혼합	합계
전체		168(43.5)	85(22.0)	133(34.5)	386(100.0)
성별	여성	115(47.9)	43(17.9)	82(34.2)	240(100.0)
	남성	53(36.3)	42(28.8)	51(34.9)	146(100.0)
	검정통계량	X^2=7.683*			
가족 유형	독신형	38(46.9)	25(30.9)	18(22.2)	81(100.0)
	가족형	126(43.2)	53(18.2)	113(38.7)	292(100.0)
	공동 거주형	4(30.8)	7(53.8)	2(15.4)	13(100.0)
	검정통계량	X^2=17.967**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45(41.7)	37(34.3)	26(24.1)	108(100.0)
	한시적 거주	16(38.1)	8(19.0)	18(42.9)	42(100.0)
	영구적 거주	56(51.9)	13(12.0)	39(36.1)	108(100.0)
	기타자격 거주	1(50.0)	0(0.0)	1(50.0)	2(100.0)
	한국 국적	50(39.7)	27(21.4)	49(38.9)	126(100.0)
	검정통계량	X^2=20.584**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60(34.9)	55(32.0)	57(33.1)	172(100.0)
	어려움 거의 없음	57(41.6)	26(19.0)	54(39.4)	137(100.0)
	어려움 전혀 없음	51(66.2)	4(5.2)	22(28.6)	77(100.0)
	검정통계량	X^2=32.247***			

주: *p<0.05, **p<0.01, ***p<0.001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경험률은 55.1%였으며, 거주 권역(X^2=12.251, p<.001)과 체류 자격(X^2=18.488,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그 외 지역 거주자의 응시율(72.1%)이 밀집 지역(51.4%)보다 높았고, 한시적 거주(63.8%), 조건부 거주(63.2%) 등 체류 자격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집단의 응시율이 한국 국적자(43.9%)보다 높게 나타나, 체류 자격 유지·연장 등 실질적 필요가 있는 집단일수록 자격 시험에 더 적극적으로 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

〈표 Ⅳ-5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경험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요	합계
전체		266(55.1)	217(44.9)	483(100.0)
권역별	밀집지역	204(51.4)	193(48.6)	397(100.0)
	그 외 지역	62(72.1)	24(27.9)	86(100.0)
	검정통계량	X^2=12.251***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91(63.2)	53(36.8)	144(100.0)
	한시적 거주	30(63.8)	17(36.2)	47(100.0)
	영구적 거주	77(57.9)	56(42.1)	133(100.0)
	기타자격 거주	0(0.0)	4(100.0)	4(100.0)
	한국 국적	68(43.9)	87(56.1)	155(100.0)
	검정통계량	X^2=18.488**		

주: *p<0.05, **p<0.01, ***p<0.001

○ TOPIK 취득 등급은 응시자의 20.7%가 5급을 취득해 가장 많았으며, 성별(X^2=26.370, p<.001), 연령(X^2=43.580, p<.01), 가족 유형(X^2=59.788, p<.001), 체류 자격(X^2=57.346, p<.001),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X^2=45.15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여성은 고급 등급(5급 25.4%, 6급 21.9%) 취득 비중이 남성(5급 12.4%, 6급 8.2%)보다 높아, 응답자가 스스로 보고한 한국어 소통 수준뿐 아니라 실제 공인 시험 성취도에서도 여성의 한국어 숙달도가 높게 나타남

〈표 Ⅳ-53〉 한국어능력시험(TOPIK) 취득 등급

(단위 :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불합격	합계
전체		17(6.4)	39(14.7)	51(19.2)	53(19.9)	55(20.7)	45(16.9)	6(2.3)	266(100.0)
성별	여성	9(5.3)	15(8.9)	27(16.0)	35(20.7)	43(25.4)	37(21.9)	3(1.8)	169(100.0)
	남성	8(8.2)	24(24.7)	24(24.7)	18(18.6)	12(12.4)	8(8.2)	3(3.1)	97(100.0)
	검정통계량	X^2=26.370***							
연령	20대 이하	8(16.7)	6(12.5)	8(16.7)	9(18.8)	12(25.0)	3(6.3)	2(4.2)	48(100.0)
	30대	4(4.3)	18(19.4)	14(15.1)	25(26.9)	20(21.5)	9(9.7)	3(3.2)	93(100.0)
	40대	5(6.7)	12(16.0)	15(20.0)	8(10.7)	12(16.0)	23(30.7)	0(0.0)	75(100.0)
	50대 이상	0(0.0)	3(6.0)	14(28.0)	11(22.0)	11(22.0)	10(20.0)	1(2.0)	50(100.0)
	검정통계량	X^2=43.580**							
가족 유형	독신형	4(8.0)	10(20.0)	11(22.0)	20(40.0)	4(8.0)	1(2.0)	0(0.0)	50(100.0)
	가족형	13(6.2)	28(13.3)	40(19.0)	33(15.7)	48(22.9)	44(21.0)	4(1.9)	210(100.0)
	공동 거주형	0(0.0)	1(16.7)	0(0.0)	0(0.0)	3(50.0)	0(0.0)	2(33.3)	6(100.0)
	검정통계량	X^2=59.788***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10(11.0)	19(20.9)	19(20.9)	27(29.7)	10(11.0)	4(4.4)	2(2.2)	91(100.0)
	한시적 거주	2(6.7)	3(10.0)	5(16.7)	2(6.7)	15(50.0)	2(6.7)	1(3.3)	30(100.0)
	영구적 거주	1(1.3)	9(11.7)	11(14.3)	14(18.2)	19(24.7)	22(28.6)	1(1.3)	77(100.0)
	기타자격 거주	-	-	-	-	-	-	-	-
	한국 국적	4(5.9)	8(11.8)	16(23.5)	10(14.7)	11(16.2)	17(25.0)	2(2.9)	68(100.0)
	검정통계량	X^2=57.346***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9(7.8)	22(19.0)	34(29.3)	21(18.1)	16(13.8)	9(7.8)	5(4.3)	116(100.0)
	어려움 거의 없음	4(4.2)	14(14.6)	14(14.6)	23(24.0)	23(24.0)	17(17.7)	1(1.0)	96(100.0)
	어려움 전혀 없음	4(7.4)	3(5.6)	3(5.6)	9(16.7)	16(29.6)	19(35.2)	0(0.0)	54(100.0)
	검정통계량	X^2=45.157***							

주: *p<0.05, **p<0.01, ***p<0.001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및 응시

○ 외국인 주민의 30.8%만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고, 16.1%는 프로그램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및 응시는 체류 자격(X^2=16.972, p<.05), 근로 여부(X^2=10.980,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해당 프로그램이 체류 자격 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표 Ⅳ-54〉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수강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해 모름	합계
전체		149(30.8)	256(53.0)	78(16.1)	483(100.0)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55(38.2)	75(52.1)	14(9.7)	144(100.0)
	한시적 거주	12(25.5)	26(55.3)	9(19.1)	47(100.0)
	영구적 거주	30(22.6)	82(61.7)	21(15.8)	133(100.0)
	기타자격 거주	2(50.0)	1(25.0)	1(25.0)	4(100.0)
	한국 국적	50(32.3)	72(46.5)	33(21.3)	155(100.0)
	검정통계량	X^2=16.972*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24(31.2)	50(64.9)	3(3.9)	77(100.0)
	일한적 있음	125(30.8)	206(50.7)	75(18.5)	406(100.0)
	검정통계량	X^2=10.980**			

주: *p<0.05, **p<0.01, ***p<0.001

○ 수강 경험자의 70.5%가 시험에 응시하였고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취득 단계는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X^2=29.179, p<.01)

○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은 2단계(35.1%)에 집중되어 있고, 어려움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집단은 5단계(각 47.1%, 42.9%)에 집중되어, 앞서 확인한 TOPIK 취득 등급과 마찬가지로 자기 보고식 한국어 소통 수

준이 실제 공인 이수 단계와 매우 정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55〉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시험 응시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요	합계
전체	105(70.5)	44(29.5)	149(100.0)

주: *p<0.05, **p<0.01, ***p<0.001

〈표 Ⅳ-56〉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시험 취득 단계

(단위 : 명(%))

구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합계
전체		7(6.7)	18(17.1)	27(25.7)	19(18.1)	9(8.6)	25(23.8)	105(100.0)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6(10.5)	10(17.5)	20(35.1)	14(24.6)	4(7.0)	3(5.3)	57(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2.9)	5(14.7)	5(14.7)	3(8.8)	4(11.8)	16(47.1)	34(100.0)
	어려움 전혀 없음	0(0.0)	3(21.4)	2(14.3)	2(14.3)	1(7.1)	6(42.9)	14(100.0)
	검정통계량	X^2=29.179**						

주: *p<0.05, **p<0.01, ***p<0.001

□ 한국어 공부에 대한 수요

○ 외국인 주민의 77.8%가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으며, 연령(X^2=9.990, p<.05), 경남 거주기간(X^2=15.799, p<.01), 한국어 소통 수준(X^2=46.638, p<.001, 근로 여부(X^2=28.84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거주 1년 미만 신규 이주자의 학습 의향(46.2%)이 오히려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 특기할 만한데, 이는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주거/생계 등 다른 우선순위가 앞서 학습 의지는 있으나 실제 학습을 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이혜림, 2022), 거주 5~10년 미만 구간에서 학습 의향(89.5%)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과 대조를 이룸

○ 근로 경험이 있는 집단의 학습 의향(82.3%)이 없는 집단(54.5%)보다 확실히 높아, 경제활동 참여가 한국어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정착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에 관한 적응 즉, 문화적응을 먼저 하고 사회에 구조적으로 적응하는 것보다, 사회에 구조적으로

먼저 적응한 이주민이 더 높은 수준의 문화 적응을 이룰 수 있다는 Gordon(1964)의 주장을 뒷받침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Ⅳ-57〉 한국어 추가 학습 의향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요	합계
전체		376(77.8)	107(22.2)	483(100.0)
연령	20대 이하	57(66.3)	29(33.7)	86(100.0)
	30대	138(83.6)	27(16.4)	165(100.0)
	40대	109(77.3)	32(22.7)	141(100.0)
	50대 이상	72(79.1)	19(20.9)	91(100.0)
	검정통계량	X^2=9.990*		
경남 거주 기간	1년 미만	6(46.2)	7(53.8)	13(100.0)
	1~5년 미만	50(76.9)	15(23.1)	65(100.0)
	5~10년 미만	85(89.5)	10(10.5)	95(100.0)
	10년 이상	235(75.8)	75(24.2)	310(100.0)
	검정통계량	X^2=15.799**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180(82.6)	38(17.4)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48(86.0)	24(14.0)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48(51.6)	45(48.4)	93(100.0)
	검정통계량	X^2=46.638***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42(54.5)	35(45.5)	77(100.0)
	일한적 있음	334(82.3)	72(17.7)	406(100.0)
	검정통계량	X^2=28.840***		

주: *p<0.05, **p<0.01, ***p<0.001

- ❍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장소는 '학교'(1순위 35.6%, 1+2+3순위 49.7%)와 '가족센터'(20.2%, 48.4%)가 근접한 비중으로 상위를 차지하였고, '혼자 공부'도 1+2+3순위 기준 34.6%에 달해 독학에 대한 수요 역시 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X^2=30.132, p<.001) 여성은 '가족센

터’(26.0%)를, 남성은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27.7%)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여,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 패턴과 그 외 체류자격(근로 등) 중심의 남성 이용 패턴이 대비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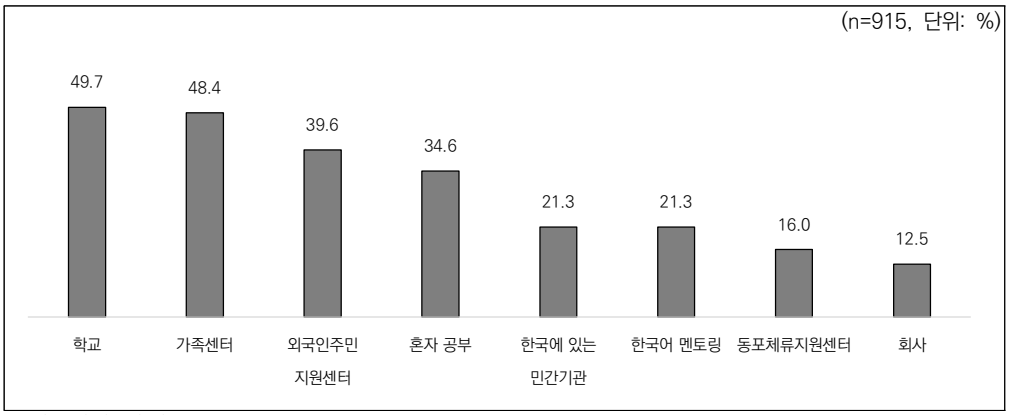
❍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집단은 ‘혼자 공부’(22.9%)의 비중이 어려움이 있는 집단(7.2%)보다 크게 높아, 언어 역량이 향상될수록 기관 의존형 학습에서 독학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줌

〈표 Ⅳ-58〉 한국어 학습 희망 장소(1순위)

(단위 : 명(%))

구분		학교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가족센터	동포체류 지원센터	한국에 있는 민간기관	회사	혼자 공부	한국어 멘토링	합계
전체		134(35.6)	75(19.9)	76(20.2)	14(3.7)	11(2.9)	9(2.4)	42(11.2)	15(4.0)	376(100.0)
성별	여성	80(34.0)	36(15.3)	61(26.0)	5(2.1)	7(3.0)	3(1.3)	30(12.8)	13(5.5)	235(100.0)
	남성	54(38.3)	39(27.7)	15(10.6)	9(6.4)	4(2.8)	6(4.3)	12(8.5)	2(1.4)	141(100.0)
	검정통계량	X^2=30.132***								
가족 유형	독신형	30(35.7)	19(22.6)	7(8.3)	4(4.8)	1(1.2)	3(3.6)	16(19.0)	4(4.8)	84(100.0)
	가족형	95(34.2)	55(19.8)	68(24.5)	10(3.6)	10(3.6)	4(1.4)	25(9.0)	11(4.0)	278(100.0)
	공동 거주형	9(64.3)	1(7.1)	1(7.1)	0(0.0)	0(0.0)	2(14.3)	1(7.1)	0(0.0)	14(100.0)
	검정통계량	X^2=33.407**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35(29.9)	32(27.4)	23(19.7)	4(3.4)	3(2.6)	3(2.6)	14(12.0)	3(2.6)	117(100.0)
	한시적 거주	10(33.3)	7(23.3)	4(13.3)	2(6.7)	1(3.3)	4(13.3)	1(3.3)	1(3.3)	30(100.0)
	영구적 거주	36(34.0)	17(16.0)	25(23.6)	1(0.9)	4(3.8)	0(0.0)	16(15.1)	7(6.6)	106(100.0)
	기타자격거주	1(50.0)	0(0.0)	0(0.0)	0(0.0)	0(0.0)	0(0.0)	1(50.0)	0(0.0)	2(100.0)
	한국 국적	52(43.0)	19(15.7)	24(19.8)	7(5.8)	3(2.5)	2(1.7)	10(8.3)	4(3.3)	121(100.0)
	검정통계량	X^2=42.755*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53(29.4)	48(26.7)	43(23.9)	9(5.0)	4(2.2)	5(2.8)	13(7.2)	5(2.8)	180(100.0)
	어려움 거의 없음	60(40.5)	23(15.5)	25(16.9)	5(3.4)	5(3.4)	4(2.7)	18(12.2)	8(5.4)	148(100.0)
	어려움 전혀 없음	21(43.8)	4(8.3)	8(16.7)	0(0.0)	2(4.2)	0(0.0)	11(22.9)	2(4.2)	48(100.0)
	검정통계량	X^2=29.476**								

주: *p<0.05, **p<0.01, ***p<0.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16] 한국어 학습 희망 장소(1+2+3순위)

□ 한국어 공부를 하기 어려운 이유

○ 추가 학습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지금도 충분히 잘함'(49.5%)과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불편함이 없음'(37.4%)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권역(X^2=8.018, $p<.05$), 가족 유형(X^2=18.975, $p<.01$), 체류자격(X^2=28.531, $p<.001$), 한국어 소통 수준(X^2=67.71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특히,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조차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68.4%)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객관적인 언어 역량 부족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학습 필요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추가 학습 동기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집단에는 프로그램 제공/접근성 제고만으로는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반면 학습 의향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14명, 소표본으로 해석에 유의 필요)는 '근처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별로 없음'(42.9%)과 '신청 희망자가 많아 신청이 어려움'(28.6%)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아, 학습 의지가 있더라도 지역 내 운영기관의 물리적 부족과 수요 초과 공급이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Ⅳ-59〉 한국어 추가 학습 의향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금도 충분히 잘함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불편함이 없음	배우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합계
전체		53(49.5)	40(37.4)	14(13.1)	107(100.0)
권역별	밀집지역	49(55.7)	28(31.8)	11(12.5)	88(100.0)
	그 외 지역	4(21.1)	12(63.2)	3(15.8)	19(100.0)
	검정통계량	X^2=8.018*			
가족 유형	독신형	2(11.8)	12(70.6)	3(17.6)	17(100.0)
	가족형	51(57.3)	28(31.5)	10(11.2)	89(100.0)
	공동 거주형	0(0.0)	0(0.0)	1(100.0)	1(100.0)
	검정통계량	X^2=18.975**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2(7.4)	17(63.0)	8(29.6)	27(100.0)
	한시적 거주	12(70.6)	4(23.5)	1(5.9)	17(100.0)
	영구적 거주	17(63.0)	8(29.6)	2(7.4)	27(100.0)
	기타자격 거주	2(100.0)	0(0.0)	0(0.0)	2(100.0)
	한국 국적	20(58.8)	11(32.4)	3(8.8)	34(100.0)
	검정통계량	X^2=28.531***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2(5.3)	26(68.4)	10(26.3)	3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9(37.5)	13(54.2)	2(8.3)	24(100.0)
	어려움 전혀 없음	42(93.3)	1(2.2)	2(4.4)	45(100.0)
	검정통계량	X^2=67.715***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24(68.6)	8(22.9)	3(8.6)	35(100.0)
	일한적 있음	29(40.3)	32(44.4)	11(15.3)	72(100.0)
	검정통계량	X^2=7.552*			

주: *p<0.05, **p<0.01, ***p<0.001

〈표 Ⅳ-60〉 한국어 학습의 현실적인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일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음	거리가 멀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곳까지 갈 수가 없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지만, 신청 희망자가 많아 신청이 어려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지만, 근처에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별로 없음	기타	합계
전체	2(14.3)	1(7.1)	4(28.6)	6(42.9)	1(7.1)	14(100.0)

(3)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자본

□ 경남 정착 이유

○ 경남 정착 이유는 '결혼'(36.4%)과 '일자리/취업'(35.6%)이 비슷한 비중으로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그동안 추진된 성별화된 이주민 체류 관리에 따라 매우 뚜렷한 이원적 구조가 확인됨(X^2=73.597, p<.001)

○ 여성은 '결혼'(1순위 49.5%, 1+2순위 66.0%)이, 남성은 '일자리/취업'(52.8%, 73.3%)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결혼이주 중심의 여성 유입과 노동이주 중심의 남성 유입이라는 서로 다른 경로가 경남 외국인 주민 구성의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줌

○ 한편, 최근 유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정책의 영향으로 학업 때문에 경남에 정착했다는 응답자 비율도 6.6%를 차지했는데, 주로 남성 유학생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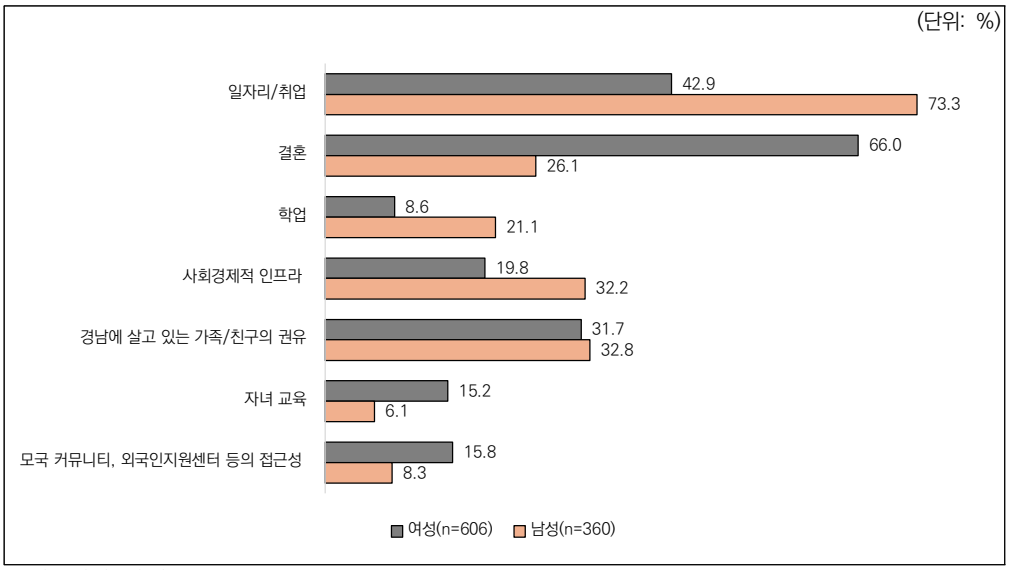
○ 체류 자격에 따른 차이도 매우 강하게 나타나(X^2=113.186, p<.001) 조건부 거주는 일자리(54.2%), 영구적 거주는 결혼(63.2%)이 압도적이었으며,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집단은 결혼(52.7%)이 가장 높아 결혼이주자의 장기 거주에 따른 한국어 숙달을 반영함

〈표 Ⅳ-61〉 경남 정착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일자리/취업	결혼	학업	사회 경제적 인프라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가족/친구의 권유	자녀 교육	모국 커뮤니티, 외국인 지원센터 등의 접근성	합계
외국인 주민		172(35.6)	176(36.4)	32(6.6)	32(6.6)	51(10.6)	6(1.2)	14(2.9)	483(100.0)
성별	여성	77(25.4)	150(49.5)	13(4.3)	15(5.0)	33(10.9)	4(1.3)	11(3.6)	303(100.0)
	남성	95(52.8)	26(14.4)	19(10.6)	17(9.4)	18(10.0)	2(1.1)	3(1.7)	180(100.0)
	검정통계량	X^2=73.597***							
가족 유형	독신형	64(63.4)	7(6.9)	4(4.0)	7(6.9)	13(12.9)	0(0.0)	6(5.9)	101(100.0)
	가족형	99(27.0)	169(46.0)	27(7.4)	23(6.3)	36(9.8)	6(1.6)	7(1.9)	367(100.0)
	공동 거주형	9(60.0)	0(0.0)	1(6.7)	2(13.3)	2(13.3)	0(0.0)	1(6.7)	15(100.0)
	검정통계량	X^2=81.341***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78(54.2)	18(12.5)	16(11.1)	17(11.8)	8(5.6)	2(1.4)	5(3.5)	144(100.0)
	한시적 거주	14(29.8)	16(34.0)	1(2.1)	3(6.4)	8(17.0)	2(4.3)	3(6.4)	47(100.0)
	영구적 거주	28(21.1)	84(63.2)	6(4.5)	4(3.0)	9(6.8)	1(0.8)	1(0.8)	133(100.0)
	기타자격 거주	1(25.0)	1(25.0)	0(0.0)	0(0.0)	2(50.0)	0(0.0)	0(0.0)	4(100.0)
	한국 국적	51(32.9)	57(36.8)	9(5.8)	8(5.2)	24(15.5)	1(0.6)	5(3.2)	155(100.0)
	검정통계량	X^2=113.186***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89(40.8)	62(28.4)	16(7.3)	21(9.6)	22(10.1)	1(0.5)	7(3.2)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62(36.0)	65(37.8)	12(7.0)	7(4.1)	17(9.9)	4(2.3)	5(2.9)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21(22.6)	49(52.7)	4(4.3)	4(4.3)	12(12.9)	1(1.1)	2(2.2)	93(100.0)
	검정통계량	X^2=26.729**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14(18.2)	49(63.6)	0(0.0)	2(2.6)	8(10.4)	2(2.6)	2(2.6)	77(100.0)
	일한적 있음	158(38.9)	127(31.3)	32(7.9)	30(7.4)	43(10.6)	4(1.0)	12(3.0)	406(100.0)
	검정통계량	X^2=36.107***							

주: *p<0.05, **p<0.01, ***p<0.00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17] 경남 정착 이유(1+2순위)

□ 경남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4점 척도 기준 외국인 주민의 평균 만족도는 3.1점으로 내국인 주민(3.3점)보다 낮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t=-3.726, p<.001)

〈표 Ⅳ-62〉 본국 삶 대비 경남에서의 전반적 삶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불만족 (①+②)	다소 만족	매우 만족	만족 (③+④)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7 (2.1)	105 (8.2)	132 (10.3)	696 (54.4)	451 (35.3)	1,147 (89.7)	1,279 (100.0)	3.2	0.7
외국인 주민	8 (1.7)	50 (10.4)	58 (12.0)	292 (60.5)	133 (27.5)	425 (88.0)	483 (100.0)	3.1	0.7
내국인 주민	19 (2.4)	55 (6.9)	74 (9.3)	404 (50.8)	318 (39.9)	722 (90.7)	796 (100.0)	3.3	0.7
검정통계량	t=-3.726***								

주: *p<0.05, **p<0.01, ***p<0.001

○ 외국인 주민 내부에서는 경남 거주기간(F=3.496, p<.05)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남. 거주 1년 미만 집단의 만족도(2.6점)가 다른 모든

구간보다 확연히 낮고 1~5년 미만 구간(3.2점)에서 급격히 상승한 이후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정착 초기 1년의 적응 과정이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F=8.710, p<.001)과 근로 여부(t=-3.796, p<.0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언어 역량과 경제적 자립이 정착 만족도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줌

〈표 Ⅳ-63〉 본국 삶 대비 경남에서의 전반적 삶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불만족 (①+②)	다소 만족	매우 만족	만족 (③+④)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외국인 주민		8(1.7)	50(10.4)	58(12.0)	292(60.5)	133(27.5)	425(88.0)	483(100.0)	3.1	0.7
연령	20대 이하	1(1.2)	19(22.1)	20(23.3)	44(51.2)	22(25.6)	66(76.7)	86(100.0)	3.0	0.7
	30대	4(2.4)	14(8.5)	18(10.9)	100(60.6)	47(28.5)	147(89.1)	165(100.0)	3.2	0.7
	40대	0(0.0)	6(4.3)	6(4.3)	90(63.8)	45(31.9)	135(95.7)	141(100.0)	3.3	0.5
	50대 이상	3(3.3)	11(12.1)	14(15.4)	58(63.7)	19(20.9)	77(84.6)	91(100.0)	3.0	0.7
	검정통계량	F=4.253**								
거주 지역	밀집지역	4(1.0)	40(10.1)	44(11.1)	239(60.2)	114(28.7)	353(88.9)	397(100.0)	3.2	0.6
	그 외 지역	4(4.7)	10(11.6)	14(16.3)	53(61.6)	19(22.1)	72(83.7)	86(100.0)	3.0	0.7
	검정통계량	t=1.996*								
경남 거주 기간	1년 미만	0(0.0)	6(46.2)	6(46.2)	6(46.2)	1(7.7)	7(53.8)	13(100.0)	2.6	0.7
	1~5년 미만	1(1.5)	6(9.2)	7(10.8)	35(53.8)	23(35.4)	58(89.2)	65(100.0)	3.2	0.7
	5~10년 미만	1(1.1)	7(7.4)	8(8.4)	60(63.2)	27(28.4)	87(91.6)	95(100.0)	3.2	0.6
	10년 이상	6(1.9)	31(10.0)	37(11.9)	191(61.6)	82(26.5)	273(88.1)	310(100.0)	3.1	0.7
	검정통계량	F=3.496*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6(2.8)	27(12.4)	33(15.1)	145(66.5)	40(18.3)	185(84.9)	218(100.0)	3.0	0.7
	어려움 거의 없음	1(0.6)	10(5.8)	11(6.4)	108(62.8)	53(30.8)	161(93.6)	172(100.0)	3.2	0.6
	어려움 전혀 없음	1(1.1)	13(14.0)	14(15.1)	39(41.9)	40(43.0)	79(84.9)	93(100.0)	3.3	0.7
	검정통계량	F=8.710***								
근로	일한적 없음	2(2.6)	20(26.0)	22(28.6)	40(51.9)	15(19.5)	55(71.4)	77(100.0)	2.9	0.7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불만족 (①+②)	다소 만족	매우 만족	만족 (③+④)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여부	일한적 있음	6(1.5)	30(7.4)	36(8.9)	252(62.1)	118(29.1)	370(91.1)	406(100.0)	3.2	0.6
	검정통계량	t=-3.796***								

주: *p<0.05, **p<0.01, ***p<0.001

□ 향후 경남 거주 계획

○ 외국인 주민의 90.1%가 향후에도 경남에서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연령(X^2=27.321, p<.001), 거주기간(X^2=24.139, p<.001), 한국어 소통(X^2=16.833, p<.001), 근로 여부(X^2=6.956,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거주 1년 미만 신규 이주자의 계속 체류 희망률(53.8%)이 뚜렷이 낮아 정착 초기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한편,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집단의 희망률(79.6%)이 어려움이 있는 집단(90.4%)이나 거의 없는 집단(95.3%)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난 점은 흥미로운 지점으로, 한국어에 능숙한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경제적 기회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성이 크게 열려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면밀한 해석이 필요함

〈표 Ⅳ-64〉 향후 경남 계속 체류 희망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요	합계
외국인 주민		435(90.1)	48(9.9)	483(100.0)
연령	20대 이하	65(75.6)	21(24.4)	86(100.0)
	30대	154(93.3)	11(6.7)	165(100.0)
	40대	135(95.7)	6(4.3)	141(100.0)
	50대 이상	81(89.0)	10(11.0)	91(100.0)
	검정통계량	X^2=27.321***		
경남 거주 기간	1년 미만	7(53.8)	6(46.2)	13(100.0)
	1~5년 미만	59(90.8)	6(9.2)	65(100.0)
	5~10년 미만	92(96.8)	3(3.2)	95(100.0)
	10년 이상	277(89.4)	33(10.6)	310(100.0)

구분		예	아니요	합계
	검정통계량	X^2=24.139***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197(90.4)	21(9.6)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64(95.3)	8(4.7)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74(79.6)	19(20.4)	93(100.0)
	검정통계량	X^2=16.833***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63(81.8)	14(18.2)	77(100.0)
	일한적 있음	372(91.6)	34(8.4)	406(100.0)
	검정통계량	X^2=6.956**		

주: *p<0.05, **p<0.01, ***p<0.001

○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응답자 중 '영구 거주'(46.2%)와 '10년 이상'(29.9%)을 합쳐 76.1%가 장기/영구 정착 의사를 밝혔고, 성별(X^2=15.639, p<.01), 가족 유형(X^2=32.233, p<.001), 체류 자격(X^2=40.823,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가족형(영구 거주+10년 이상 80.5%)이 독신형보다 장기 정착 지향이 뚜렷함

〈표 Ⅳ-65〉 향후 체류 계획 기간

(단위 : 명(%))

구분		1~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영구 거주	합계
외국인 주민		25(5.7)	47(10.8)	32(7.4)	130(29.9)	201(46.2)	435(100.0)
성별	여성	16(5.9)	21(7.8)	14(5.2)	79(29.3)	140(51.9)	270(100.0)
	남성	9(5.5)	26(15.8)	18(10.9)	51(30.9)	61(37.0)	165(100.0)
	검정통계량	X^2=15.639**					
권역별	밀집지역	21(5.8)	40(11.0)	19(5.2)	115(31.8)	167(46.1)	362(100.0)
	그 외 지역	4(5.5)	7(9.6)	13(17.8)	15(20.5)	34(46.6)	73(100.0)
	검정통계량	X^2=15.719**					
가족 유형	독신형	8(8.6)	21(22.6)	5(5.4)	16(17.2)	43(46.2)	93(100.0)
	가족형	15(4.6)	25(7.6)	24(7.3)	110(33.4)	155(47.1)	329(100.0)

구분		1~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영구 거주	합계
	공동 거주형	2(15.4)	1(7.7)	3(23.1)	4(30.8)	3(23.1)	13(100.0)
	검정통계량	X^2=32.233***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13(10.5)	20(16.1)	18(14.5)	27(21.8)	46(37.1)	124(100.0)
	한시적 거주	1(2.4)	5(12.2)	5(12.2)	17(41.5)	13(31.7)	41(100.0)
	영구적 거주	4(3.3)	10(8.3)	4(3.3)	42(34.7)	61(50.4)	121(100.0)
	기타자격 거주	0(0.0)	0(0.0)	0(0.0)	1(33.3)	2(66.7)	3(100.0)
	한국 국적	7(4.8)	12(8.2)	5(3.4)	43(29.5)	79(54.1)	146(100.0)
	검정통계량	X^2=40.823**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16(8.1)	24(12.2)	23(11.7)	54(27.4)	80(40.6)	197(100.0)
	어려움 거의 없음	6(3.7)	18(11.0)	9(5.5)	48(29.3)	83(50.6)	164(100.0)
	어려움 전혀 없음	3(4.1)	5(6.8)	0(0.0)	28(37.8)	38(51.4)	74(100.0)
	검정통계량	X^2=20.675**					

주: *p<0.05, **p<0.01, ***p<0.001

□ 최종적으로 취득하기를 원하는 체류 자격

○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체류 자격은 '지금은 모르겠다'(51.3%)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해 아직 명확한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류 자격에 따라 강한 차이를 보임(X^2=279.230, p<.001)

○ 조건부 거주는 영주 자격 취득(29.8%), 한시적 거주와 영구적 거주는 국적 취득(각 43.9%, 32.2%)을 상대적으로 많이 희망하여 체류 안정성을 높이려는 지향이 뚜렷함

〈표 Ⅳ-66〉 최종 희망 체류자격

(단위 : 명(%))

구분		현재 체류 자격의 기간 연장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	영주 자격 취득	국적 취득	지금은 모르겠다	합계
전체		44(10.1)	19(4.4)	73(16.8)	76(17.5)	223(51.3)	435(100.0)
가족 유형	독신형	15(16.1)	7(7.5)	13(14.0)	12(12.9)	46(49.5)	93(100.0)
	가족형	25(7.6)	12(3.6)	57(17.3)	63(19.1)	172(52.3)	329(100.0)

구분		현재 체류 자격의 기간 연장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	영주 자격 취득	국적 취득	지금은 모르겠다	합계
	공동 거주형	4(30.8)	0(0.0)	3(23.1)	1(7.7)	5(38.5)	13(100.0)
	검정통계량	X^2=17.645*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27(21.8)	15(12.1)	37(29.8)	18(14.5)	27(21.8)	124(100.0)
	한시적 거주	0(0.0)	4(9.8)	14(34.1)	18(43.9)	5(12.2)	41(100.0)
	영구적 거주	17(14.0)	0(0.0)	22(18.2)	39(32.2)	43(35.5)	121(100.0)
	기타자격 거주	0(0.0)	0(0.0)	0(0.0)	1(33.3)	2(66.7)	3(100.0)
	검정통계량	X^2=279.230***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23(11.7)	12(6.1)	46(23.4)	39(19.8)	77(39.1)	197(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7(10.4)	6(3.7)	23(14.0)	19(11.6)	99(60.4)	164(100.0)
	어려움 전혀 없음	4(5.4)	1(1.4)	4(5.4)	18(24.3)	47(63.5)	74(100.0)
	검정통계량	X^2=33.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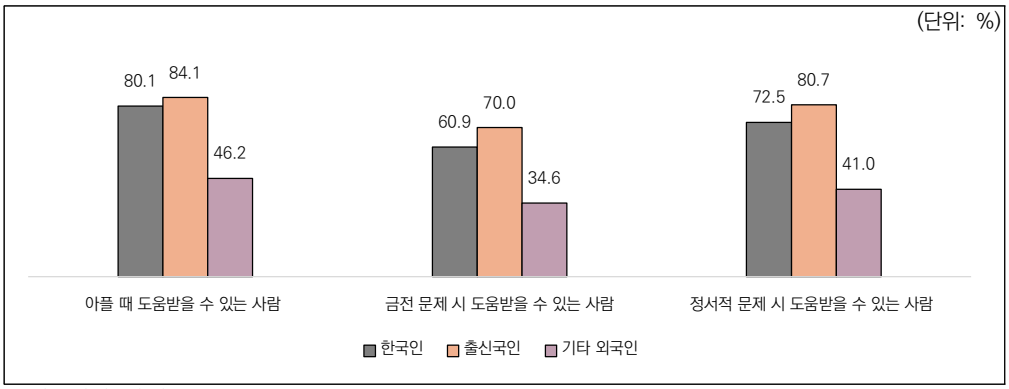
주: *p<0.05, **p<0.01, ***p<0.001

□ 사회적지지 체계

○ 아플 때, 금전 문제가 있을 때, 정서적 문제가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세 가지 상황 모두 '출신국인'의 지지 가능성이 가장 높고, '한국인', '기타 외국인' 순으로 나타남

- 아플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출신국인 84.1% 〉 한국인 80.1% 〉 기타 외국인 46.2%
- 금전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출신국인 70.0% 〉 한국인 60.9% 〉 기타 외국인 34.6%
- 정서적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출신국인 80.7% 〉 한국인 72.5% 〉 기타 외국인 41.0%

○ 이는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 지지망이 동일 출신국 커뮤니티를 중심축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국인과의 관계망도 상당 수준(72~80%) 형성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출신국 이주민 간의 연대는 상대적으로 약함을 보여줌. 이는 앞서 확인한 정보 획득 경로(가족/지인 의존)나 정착 이유(결혼/동족 네트워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18]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지지 체계

(4) 경제활동 특성

□ 취업 여부와 주당 평균 근로 시간

○ 최근 1년 경제활동/주평균 근로 시간은 내외국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표 Ⅳ-67〉 최근 1년 내외국인 경제활동/주평균 근로시간

(단위 : 명(%))

구분	일한 적 없음	주 15시간 미만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주 40시간 이상	합계
전체	236(18.5)	332(26.0)	315(24.6)	396(31.0)	1,279(100.0)
외국인 주민	77(15.9)	135(28.0)	126(26.1)	145(30.0)	483(100.0)
내국인 주민	159(20.0)	197(24.7)	189(23.7)	251(31.5)	796(100.0)
검정통계량	X^2=4.729				

주: *p<0.05, **p<0.01, ***p<0.001

○ 외국인 주민 내부에서는 성별(X^2=33.645, p<.001), 한국어 소통 수준(X^2=26.597, p<.001)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여성의 '일한 적 없음' 비율(22.4%)이 남성(5.0%)보다 크게 높고, 남성의 '주 40시간 이상' 비율(40.0%)이 여성(24.1%)보다 높아 성별 격차가 확인됨

〈표 Ⅳ-68〉 최근 1년 경제활동/주평균 근로시간

(단위 : 명(%))

구분		일한 적 없음	주 15시간 미만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주 40시간 이상	합계
외국인 주민		77(15.9)	135(28.0)	126(26.1)	145(30.0)	483(100.0)
성별	여성	68(22.4)	90(29.7)	72(23.8)	73(24.1)	303(100.0)
	남성	9(5.0)	45(25.0)	54(30.0)	72(40.0)	180(100.0)
	검정통계량	X^2=33.645***				
연령	20대 이하	20(23.3)	30(34.9)	22(25.6)	14(16.3)	86(100.0)
	30대	34(20.6)	29(17.6)	48(29.1)	54(32.7)	165(100.0)
	40대	15(10.6)	38(27.0)	35(24.8)	53(37.6)	141(100.0)
	50대 이상	8(8.8)	38(41.8)	21(23.1)	24(26.4)	91(100.0)
	검정통계량	X^2=34.522***				
가족 유형	독신형	6(5.9)	28(27.7)	30(29.7)	37(36.6)	101(100.0)
	가족형	71(19.3)	105(28.6)	89(24.3)	102(27.8)	367(100.0)
	공동 거주형	0(0.0)	2(13.3)	7(46.7)	6(40.0)	15(100.0)
	검정통계량	X^2=18.593**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33(15.1)	75(34.4)	60(27.5)	50(22.9)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20(11.6)	43(25.0)	51(29.7)	58(33.7)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24(25.8)	17(18.3)	15(16.1)	37(39.8)	93(100.0)
	검정통계량	X^2=26.597***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77(100.0)	0(0.0)	0(0.0)	0(0.0)	77(100.0)
	일한적 있음	0(0.0)	135(33.3)	126(31.0)	145(35.7)	406(100.0)
	검정통계량	X^2=483.000***				

주: *p<0.05, **p<0.01, ***p<0.001

□ 종사상 지위

○ 현재 근로 형태는 '전일제'(전체 43.0%)가 가장 많았으나, 내외국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X^2=10.053, p<.05)

○ 외국인 주민은 전일제 비중(38.2%)이 내국인(46.0%)보다 낮고 시간제/아

르바이트(외국인 33.3%, 내국인 27.0%), 일용직(외국인 16.7%, 내국인 14.0%) 비중이 모두 높아,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은 근로 형태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Ⅳ-69〉 현재 근로 형태

(단위 : 명(%))

구분	전일제	시간제/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자	합계
전체	448(43.0)	307(29.4)	157(15.1)	107(10.3)	24(2.3)	1,043(100.0)
외국인 주민	155(38.2)	135(33.3)	68(16.7)	42(10.3)	6(1.5)	406(100.0)
내국인 주민	293(46.0)	172(27.0)	89(14.0)	65(10.2)	18(2.8)	637(100.0)
검정통계량	X^2=10.053*					

주: *p<0.05, **p<0.01, ***p<0.001

- ❍ 외국인 주민 내부에서도 성별(X^2=37.132, p<.001), 한국어 소통 수준(X^2=18.021, p<.05)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 남성의 일용직 비중(26.3%)이 여성(9.8%)보다 뚜렷이 높고,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은 일용직 비중(23.8%)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어려움이 전혀 없는 집단은 전일제, 시간제 등 안정적 고용 형태에 84.1%가 집중되어 있어, 언어 역량이 고용 안정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표 Ⅳ-70〉 현재 근로 형태

(단위 : 명(%))

구분		전일제	시간제/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자	합계
외국인 주민		155(38.2)	135(33.3)	68(16.7)	42(10.3)	6(1.5)	406(100.0)
성별	여성	81(34.5)	103(43.8)	23(9.8)	24(10.2)	4(1.7)	235(100.0)
	남성	74(43.3)	32(18.7)	45(26.3)	18(10.5)	2(1.2)	171(100.0)
	검정통계량	X^2=37.132***					
연령	20대 이하	13(19.7)	26(39.4)	15(22.7)	10(15.2)	2(3.0)	66(100.0)
	30대	73(55.7)	34(26.0)	19(14.5)	5(3.8)	0(0.0)	131(100.0)
	40대	49(38.9)	39(31.0)	17(13.5)	20(15.9)	1(0.8)	126(100.0)

구분		전일제	시간제/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자	합계
	50대 이상	20(24.1)	36(43.4)	17(20.5)	7(8.4)	3(3.6)	83(100.0)
	검정통계량	X^2=46.555***					
가족 유형	독신형	46(48.4)	25(26.3)	19(20.0)	3(3.2)	2(2.1)	95(100.0)
	가족형	104(35.1)	106(35.8)	43(14.5)	39(13.2)	4(1.4)	296(100.0)
	공동 거주형	5(33.3)	4(26.7)	6(40.0)	0(0.0)	0(0.0)	15(100.0)
	검정통계량	X^2=20.982**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49(40.2)	23(18.9)	31(25.4)	15(12.3)	4(3.3)	122(100.0)
	한시적 거주	15(45.5)	12(36.4)	4(12.1)	2(6.1)	0(0.0)	33(100.0)
	영구적 거주	34(31.8)	43(40.2)	10(9.3)	20(18.7)	0(0.0)	107(100.0)
	기타자격 거주	1(25.0)	2(50.0)	1(25.0)	0(0.0)	0(0.0)	4(100.0)
	한국 국적	56(40.0)	55(39.3)	22(15.7)	5(3.6)	2(1.4)	140(100.0)
	검정통계량	X^2=42.468***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58(31.4)	60(32.4)	44(23.8)	19(10.3)	4(2.2)	185(100.0)
	어려움 거의 없음	65(42.8)	49(32.2)	20(13.2)	16(10.5)	2(1.3)	15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32(46.4)	26(37.7)	4(5.8)	7(10.1)	0(0.0)	69(100.0)
	검정통계량	X^2=18.021*					

주: *p<0.05, **p<0.01, ***p<0.001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미작성 비율(26.6%)이 내국인 주민(16.3%)보다 뚜렷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X^2=16.631, p<.001),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함

〈표 Ⅳ-71〉 내외국인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요	모르겠음	합계
전체	704(67.5)	212(20.3)	127(12.2)	1,043(100.0)

구분	예	아니요	모르겠음	합계
외국인 주민	249(61.3)	108(26.6)	49(12.1)	406(100.0)
내국인 주민	455(71.4)	104(16.3)	78(12.2)	637(100.0)
검정통계량	X^2=16.631***			

주: *p<0.05, **p<0.01, ***p<0.001

○ 외국인 주민 내부에서는 체류 자격(X^2=16.646, p<.05)과 한국어 소통 수준(X^2=18.353,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조건부 거주(54.1%), 영구적 거주(52.3%) 등 체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집단과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50.3%)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낮다는 의미로 체류 안정성과 언어 역량이 낮을수록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에서도 취약해지는 중첩적 취약성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72〉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요	모르겠음	합계
외국인 주민		249(61.3)	108(26.6)	49(12.1)	406(100.0)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66(54.1)	40(32.8)	16(13.1)	122(100.0)
	한시적 거주	23(69.7)	6(18.2)	4(12.1)	33(100.0)
	영구적 거주	56(52.3)	36(33.6)	15(14.0)	107(100.0)
	기타자격 거주	4(100.0)	0(0.0)	0(0.0)	4(100.0)
	한국 국적	100(71.4)	26(18.6)	14(10.0)	140(100.0)
	검정통계량	X^2=16.646*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93(50.3)	65(35.1)	27(14.6)	185(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05(69.1)	31(20.4)	16(10.5)	15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51(73.9)	12(17.4)	6(8.7)	69(100.0)
	검정통계량	X^2=18.353**			

주: *p<0.05, **p<0.01, ***p<0.001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 제도에 편입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취약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 더욱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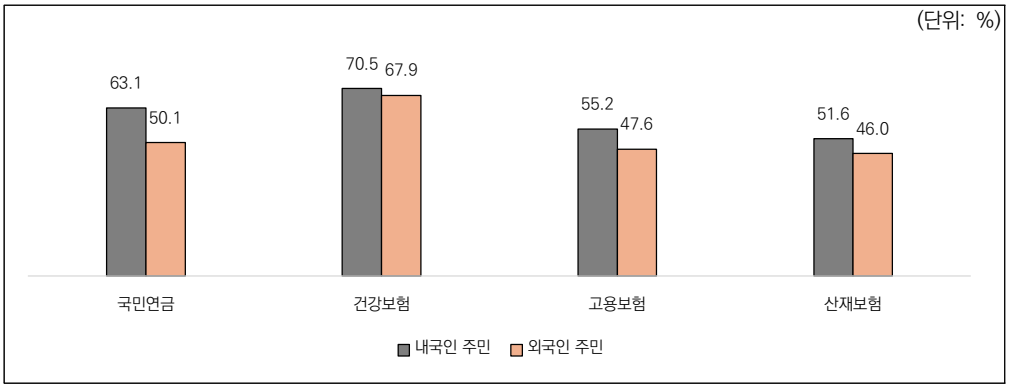
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사회보험 가입 여부

○ 4대 사회보험 전 종목에서 외국인 주민의 가입률이 내국인 주민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종목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

- 국민연금: 내국인 63.1%, 외국인 50.1%(격차 13.0%p, X^2=26.981, p<.001)
- 고용보험: 내국인 55.2%, 외국인 47.6%(격차 7.6%p, X^2=13.740, p<.01)
- 산재보험: 내국인 51.6%, 외국인 46.0%(격차 5.6%p, X^2=9.525, p<.01)
- 건강보험: 내국인 70.5%, 외국인 67.9%(격차 2.6%p, X^2=6.497, p<.05)

○ 이러한 격차 구조는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 부양자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고용 형태와 근로계약 여부와 직결되어 있어 외국인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불안정 고용 형태(시간제/일용직, 근로계약 미작성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국민연금의 큰 격차는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19] 내외국인 주민의 사회보험 가입률

○ 외국인 주민 내부에서는 종목에 따라 성별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흥미로운 패턴이 확인됨. 건강보험은 여성(71.6%)이 남성(61.7%)보다 가입률이 높았던 반면(X^2=6.673, p<.05)〈표 Ⅳ-75〉, 고용보험(여성 41.6%, 남성 57.8%, X^2=12.991, p<.01)〈표 Ⅳ-76〉과 산재보험(여성 40.3%, 남성 55.6%, X^2=11.561, p<.01)〈표 Ⅳ-77〉은 반대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여성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성이 상대적으로 정규직, 전일제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명확한 근로 형태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고용 구조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은 4개 보험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으며(국민연금 X^2=24.729, 건강보험 X^2=24.477, 고용보험 X^2=21.042, 산재보험 X^2=20.237, p<.001), 대체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할수록 가입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언어 역량이 사회보험 가입이라는 제도적 편입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함

〈표 Ⅳ-73〉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단위 : 명(%))

구분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잘 모르겠음	합계
외국인 주민		242(50.1)	141(29.2)	100(20.7)	483(100.0)
가족 유형	독신형	37(36.6)	36(35.6)	28(27.7)	101(100.0)
	가족형	196(53.4)	104(28.3)	67(18.3)	367(100.0)
	공동 거주형	9(60.0)	1(6.7)	5(33.3)	15(100.0)
	검정통계량	X^2=13.509**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88(40.4)	76(34.9)	54(24.8)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88(51.2)	48(27.9)	36(20.9)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66(71.0)	17(18.3)	10(10.8)	93(100.0)
	검정통계량	X^2=24.729***			

주: *p<0.05, **p<0.01, ***p<0.001

〈표 Ⅳ-74〉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단위 : 명(%))

구분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잘 모르겠음	합계
외국인 주민		328(67.9)	86(17.8)	69(14.3)	483(100.0)
성별	여성	217(71.6)	44(14.5)	42(13.9)	303(100.0)
	남성	111(61.7)	42(23.3)	27(15.0)	180(100.0)

구분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잘 모르겠음	합계
	검정통계량	X^2=6.673*			
연령	20대 이하	45(52.3)	22(25.6)	19(22.1)	86(100.0)
	30대	109(66.1)	29(17.6)	27(16.4)	165(100.0)
	40대	112(79.4)	15(10.6)	14(9.9)	141(100.0)
	50대 이상	62(68.1)	20(22.0)	9(9.9)	91(100.0)
	검정통계량	X^2=21.072**			
권역별	밀집지역	281(70.8)	66(16.6)	50(12.6)	397(100.0)
	그 외 지역	47(54.7)	20(23.3)	19(22.1)	86(100.0)
	검정통계량	X^2=8.918*			
가족 유형	독신형	52(51.5)	29(28.7)	20(19.8)	101(100.0)
	가족형	268(73.0)	56(15.3)	43(11.7)	367(100.0)
	공동 거주형	8(53.3)	1(6.7)	6(40.0)	15(100.0)
	검정통계량	X^2=25.816***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77(53.5)	43(29.9)	24(16.7)	144(100.0)
	한시적 거주	39(83.0)	5(10.6)	3(6.4)	47(100.0)
	영구적 거주	99(74.4)	14(10.5)	20(15.0)	133(100.0)
	기타자격 거주	4(100.0)	0(0.0)	0(0.0)	4(100.0)
	한국 국적	109(70.3)	24(15.5)	22(14.2)	155(100.0)
	검정통계량	X^2=29.066***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127(58.3)	53(24.3)	38(17.4)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121(70.3)	27(15.7)	24(14.0)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80(86.0)	6(6.5)	7(7.5)	93(100.0)
	검정통계량	X^2=24.477***			

주: *p<0.05, **p<0.01, ***p<0.001

〈표 Ⅳ-75〉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고용보험

(단위 : 명(%))

구분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잘 모르겠음	합계
외국인 주민		230(47.6)	166(34.4)	87(18.0)	483(100.0)
성별	여성	126(41.6)	120(39.6)	57(18.8)	303(100.0)
	남성	104(57.8)	46(25.6)	30(16.7)	180(100.0)
	검정통계량	X^2=12.991**			
연령	20대 이하	27(31.4)	39(45.3)	20(23.3)	86(100.0)
	30대	91(55.2)	47(28.5)	27(16.4)	165(100.0)
	40대	73(51.8)	46(32.6)	22(15.6)	141(100.0)
	50대 이상	39(42.9)	34(37.4)	18(19.8)	91(100.0)
	검정통계량	X^2=14.879*			
체류 자격	조건부 거주	71(49.3)	45(31.3)	28(19.4)	144(100.0)
	한시적 거주	16(34.0)	26(55.3)	5(10.6)	47(100.0)
	영구적 거주	57(42.9)	53(39.8)	23(17.3)	133(100.0)
	기타자격 거주	3(75.0)	1(25.0)	0(0.0)	4(100.0)
	한국 국적	83(53.5)	41(26.5)	31(20.0)	155(100.0)
	검정통계량	X^2=17.496*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85(39.0)	85(39.0)	48(22.0)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97(56.4)	43(25.0)	32(18.6)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48(51.6)	38(40.9)	7(7.5)	93(100.0)
	검정통계량	X^2=21.042***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12(15.6)	51(66.2)	14(18.2)	77(100.0)
	일한적 있음	218(53.7)	115(28.3)	73(18.0)	406(100.0)
	검정통계량	X^2=46.806***			

주: *p<0.05, **p<0.01, ***p<0.001

〈표 Ⅳ-76〉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단위 : 명(%))

구분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잘 모르겠음	합계
외국인 주민		222(46.0)	162(33.5)	99(20.5)	483(100.0)
성별	여성	122(40.3)	116(38.3)	65(21.5)	303(100.0)
	남성	100(55.6)	46(25.6)	34(18.9)	180(100.0)
	검정통계량	X^2=11.561**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	83(38.1)	81(37.2)	54(24.8)	218(100.0)
	어려움 거의 없음	94(54.7)	42(24.4)	36(20.9)	172(100.0)
	어려움 전혀 없음	45(48.4)	39(41.9)	9(9.7)	93(100.0)
	검정통계량	X^2=20.237***			
근로 여부	일한적 없음	11(14.3)	50(64.9)	16(20.8)	77(100.0)
	일한적 있음	211(52.0)	112(27.6)	83(20.4)	406(100.0)
	검정통계량	X^2=46.921***			

주: *p<0.05, **p<0.01, ***p<0.001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개인소득

○ 외국인 주민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취업자(406명) 기준 208만 원으로 내국인 주민(237만 원)보다 약 29만 원(약 12%)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t=-3.239, p<.01)

〈표 Ⅳ-77〉 내외국인 최근 3개월 월평균 개인소득

(단위 :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59,309.8	1,481,631
외국인 주민	2,080,988.1	1,315,743.9
내국인 주민	2,372,965.4	1,568,740.7
검정통계량	t=-3.239**	

주: *p<0.05, **p<0.01, ***p<0.001

○ 외국인 주민 내부에서는 성별(t=-5.798, p<.001)에 따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여성의 월평균 소득(176만 원)이 남성(252만 원)보다 약 76만 원(약 43%) 낮았으며, 연령(F=8.274, p<.001)에서도 40대(235만 원)가 가장 높고 20대 이하(152만 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러한 뚜렷한 성별 소득 격차는 앞서 확인한 근로 형태(여성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음), 경제활동 참여율(여성의 미취업 비중이 높음) 격차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외국인 주민 내에서도 여성이 노동시장 내 이중적 취약성(성별+이주민)에 놓여 있음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됨

〈표 Ⅳ-78〉 내외국인 최근 3개월 월평균 개인소득

(단위 :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 주민		2,080,988.1	1,315,743.9
성별	여성	1,758,632.8	1,113,077.7
	남성	2,523,990.9	1,441,481.6
	검정통계량	t=-5.798***	
연령	20대 이하	1,520,713.3	1,128,153.8
	30대	2,272,061.0	990,084.5
	40대	2,352,585.1	1,633,410.9
	50대 이상	1,812,630.8	1,192,917.7
	검정통계량	F=8.274***	

주: *p<0.05, **p<0.01, ***p<0.001

2. 면접조사

1) 면접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이주배경가족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

□ 조사 기간

○ 2026.02.26.(목)~03.29.(일), 2026.06.10.(수)~06.28.(일) (50일간)

□ 면접 대상자와 조사 방법

○ 면접 대상자는 경남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섭외함. 면접조사는 총 27명과 진행했는데, 22명은 이주배경가족 당사자이고 5명은 이주민 상담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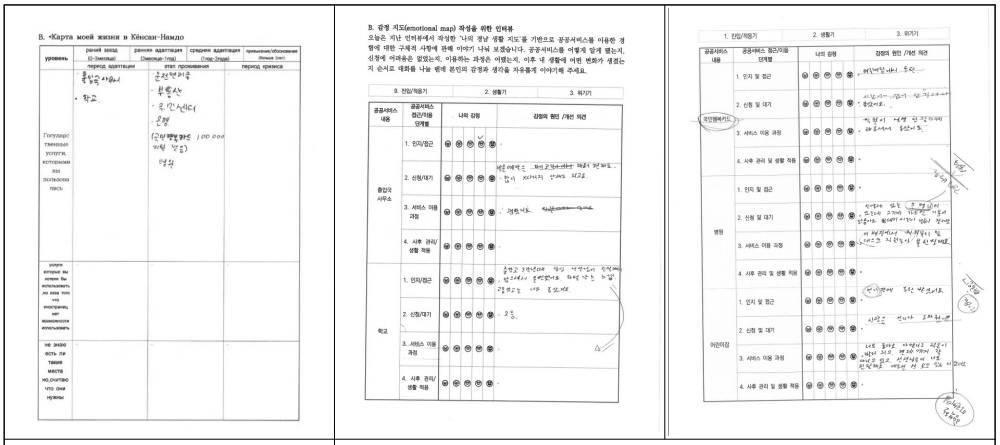
- 이주민 개인의 경험을 비롯해 다양한 이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이주민 상담사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경남 이주배경가족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표 Ⅳ-79〉 면접 대상자 규모

구분	규모
이주배경가족	결혼이민자 4명, 고려인 동포 3명, 외국인 노동자 4명, 유학생 7명, 미등록 2명, 난민 1명, 귀화자 1명
이주민 상담사	중국 1명, 베트남 1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몽골 1명

○ 이주민과의 일회성 면접조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종류, 공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개선점 등에 관해 밀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보고, 면접조사는 기본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함

- 1차 조사의 목적은 경남에 입국 후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어떤 공공서비스를 이용해 봤는지 정리하는 것이었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 정리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보면서 공공서비스 인지 경로, 이용 시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 개선 의견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함
- 기본적으로 면접조사는 2차례 진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1차 면접 결과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이 매우 부족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본국으로 출국해 2차 일정을 잡을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1차 조사만 진행함



1차 면접조사지	2차 면접조시자

[그림 Ⅳ-20] 1~2차 면접조사지

○ 조사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반구조화 질문지를 번역해 사전 배포하였고, 면접 대상자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통역이 배석하여 면접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함

□ 조사 내용

○ 이주배경가족과 이주민 상담사를 대상으로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을 질문함. 아울러, 정부는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정착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함

〈표 Ⅳ-80〉 면접조사 내용

이주배경가족	이주민 상담사
A. 공공서비스	A. 공공서비스
◦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개념	◦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개념
◦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 외국인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 공공서비스 정보 구득 방법	◦ 공공서비스 정보 구득 방법
◦ 공공서비스 이용의 어려운 점	◦ 공공서비스 이용의 어려운 점
◦ 공공서비스 개선 사항	◦ 공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시, 대응 방법
◦ 공공서비스 수요	◦ 공공서비스 수요

이주배경가족	이주민 상담사
B. 지역사회 적응/정착	B. 지역사회 적응/정착
◦ 지역사회 소속감	◦ 지역사회 소속감
◦ 소속감 영향요인	◦ 소속감 영향요인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

2) 면접 참여자의 주요 특징

□ 이주배경가족

❍ 면접 참여자의 나이는 24세부터 51세까지이고, 한국 거주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8년임. 면접 참여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귀화1'은 부룬디 내전 시 부모를 모두 여의고 국제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탈출함. 한국에 도착해 이 단체의 도움으로 난민 신청을 했고, 난민을 인정받아 F-2 자격을 얻었으며, 이후 귀화함. F-2 자격을 얻고 부룬디에서 친구였던 현재 아내(F-6)를 초청해 결혼하고 가족을 이룸

❍ '난민1'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해 아들이 한 명 있었고 간호사로 일했으나, 국내 경기가 악화해 남편과 함께 평소 동경하던 한국에 유학생으로 입국함. 입국 초기 미등록이 되었고, 한국에서 자녀 둘을 더 출산하고 2022년까지 살다가 학령기 자녀가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G-1 비자 발급으로 난민 비자를 취득함. 난민 비자 취득 후,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하여 14년 만에 큰 아이를 만났고, 큰 아이를 유학생 비자로 한국에 데려와 온전한 가족을 이룸

❍ '결혼1'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 근무하던 병원에 봉사를 왔던 남편을 만나 결혼해 한국으로 옴.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 내일 배움 카드로 간호사 공부 등을 하고 간호사로 잠깐 일했으나, 업무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관두고 현재는 대학교 진학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음

❍ '결혼2'는 남편의 사망을 계기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가족센터 담당자가 수시로 가정을 살피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지원하였고, 최근 국적 취득을 위해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 '결혼3'은 수원에 있는 협성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입국했고, 코로나 시기에

친척이 살고 있는 창원에 내려와 지내다 현재의 남편과 연애해 결혼함. 시부모를 모시는 한편, 자녀를 키우며 행정사무소에서 캄보디아 통역으로 아르바이트하며 지내는 '결혼3'은 시누이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다가 사건에 휘말려 소송 중에 있으며, 이 때문에 국적 취득이 지연되고 있음

- '결혼4'는 한국생활 18년이 되었으나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함. 결혼 초기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에 살았던 탓에 한국어 공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현재는 남편과 별거하고 딸을 데리고 동거남과 창원에 살고 있음. 딸은 중국어를 전혀 못 하므로 딸과 소통이 어려운데, 현재 딸은 고립·은둔 징후를 보이며 학교에 가지 않는 상태이나,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음
- '동포1'은 고려인 동포 남편을 만나 결혼해 창원에 살고 있음. 1차 인터뷰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1'은 아버지가 고려인이나 어머니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 한국에 초청이 어려운 상태임. 영주권 취득 후,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해 있어서 2차 인터뷰는 진행하지 못함
- '동포2'와 '동포3'은 모녀지간임. '동포3'은 중학교 때 한국에 입국해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 진학 대신 고려인 동포와 결혼을 택했고, 현재 딸 아이를 키우고 있음. 친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인근에 살고 있음. 법정통번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동포3'은 대학 진학을 위해 입학지원서를 제출한 상태임
- '유학1'과 '유학2', '유학3'과 '유학4'는 파키스탄 출신 유학생 부부로 GKS 300 프로젝트(Global Korea Study 300)로 인제대학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임. 국가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입국해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연구 환경을 경험하고 있고, 졸업 후 진로는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한국, 본국 외 다른 국가까지도 생각하고 있음
- '유학5'는 9남매로 형제·자매의 과반이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해 자리 잡고 살고 있음. 베트남에 남편과 자식이 있지만, 혼자 유학생으로 오빠 가족과 지내고 있는 '유학5'는 남편과 자식을 한국에 데려올 계획을 세우고 있음

〈표 Ⅳ-81〉 이주배경가족 주요 특징

구분	성별	나이 (세)	출생국	한국 입국 시기	비자 유형	함께 사는 가족	월평균 가구 소득 (만원)
귀화1	남	48	부룬디	2003	귀화	아내, 자녀	400
결혼1	여	43	우즈베키스탄	2019	F-6	남편	250
결혼2	여	51	인도네시아	2004	F-6	자녀	200
결혼3	여	29	캄보디아	2018	F-6	시부모, 남편, 자녀	50
결혼4	여	43	중국	2010	F-6	동거남, 자녀	700
동포1	여	28	우즈베키스탄	2018	F-5	남편	400
동포2	여	51	키르기스스탄	2016	F-5	남편	500
동포3	여	24	키르기스스탄	2017	F-4	남편, 자녀	900
유학1	남	31	파키스탄	2024	D-2	아내	280
유학2	여	28	파키스탄	2025	D-4	남편	280
유학3	남	30	파키스탄	2020	D-2	아내	160
유학4	여	25	파키스탄	2024	D-2	남편	160
유학5	여	30	베트남	2023	D-2	오빠 가족	120
유학6	여	34	몽골	2021	D-2	남편, 자녀	400
유학7	여	32	나이지리아	2024	D-2	자녀	0
노동1	남	35	네팔	2017	E-7-4	아내, 자녀	300
노동2	남	34	미얀마	2014	E-7-4	아내, 자녀	280
노동3	남	40	방글라데시	2010	F-2	아내, 자녀	300
노동4	남	36	캄보디아	2014	E-7-4R	아내, 자녀	320
미등록1	여	42	몽골	2023	미등록	남편, 자녀	350
미등록2	여	34	캄보디아	2019	미등록	남편	500
난민1	여	41	우즈베키스탄	2008	G-1	남편, 자녀	380

주: 1. '결혼3'은 자신의 수입만 정확하게 알고 있음
2. '동포2'와 '동포3'은 모녀지간
3. '유학1'과 '유학2', '유학3'과 '유학4'는 부부
4. '유학5'의 남편과 자식은 베트남에 살고 있고, 귀화한 오빠 가족과 창원에 거주
5. '유학7'은 한국에서 미등록 나이지리아인을 남편으로 만나 결혼·출산했고, 현재 남편은 추방됨

○ ‘유학6’은 남편도 창원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본인도 올해 9월부터 GSK 300 프로젝트에서 펀딩을 받아 창원대 박사과정에 입학함. ‘유학6’은 창원대 가족 기숙사에서 살며 남편과 함께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음

○ ‘유학7’은 부모가 한국과 무역업을 하고 있어 친밀감이 높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으나, 대학원 연구실에서 차별과 따돌림을 당해 현재 연구실을 나와 펀딩이 끊어져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한편, 한국에 와서 현재 남편인 미등록 상태였던 나이지리아 남성와 연애하고 결혼해 아이를 출산했으나, 남편은 추방당해 본국으로 돌아갔고,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는 중임

○ ‘노동1’은 2024년 E-9에서 E-7-4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2025년 아내를 초청해 한국에서 자녀를 낳음. 필요한 정보는 유튜브를 통해 검색하는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고, 회사 사장님이 아이의 한국 할아버지를 자처하며 회사 차원에서 돌봄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함

○ ‘노동2’는 2022년 E-9에서 E-7-4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아내를 초청해 한국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가 출생 후 4개월 만에 장애가 발병해 현재 매주 2회씩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음. 아내는 아픈 아이 돌봄에 매달려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울 겨를이 없고, 병원비 감당이 벅차지만, 본국에 돌아가도 이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일단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음. 한편, 내년쯤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농업 관련 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미얀마로 돌아갈 준비를 할 계획이 있음

○ ‘노동3’은 2020년 E-9에서 E-7-4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아내를 초청해 한국에서 자녀 둘을 낳았고, 2026년에는 F-2 자격을 취득함. ‘노동3’은 국적 취득을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 먼저, 가족과 한국 생활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아내와 자녀는 방글라데시로 일단 돌려보낼 계획임. 그동안 자녀는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 교육을 받고, 자신은 회사와 장사를 병행하며 경제적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마련하려고 함

○ ‘노동4’는 2024년 E-9에서 E-7-4R을 취득해 아내와 자녀를 한국에 초청해 함께 살고 있음. 아내가 E-9으로 한국에 체류할 당시 연애하고 결혼하

였음. 아내는 캄보디아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다가 '노동4'가 체류 자격을 변경한 후, 한국으로 재입국함. 지역특화비자는 배우자의 한국어가 TOPIK 1급 이상일 경우 취업을 허가하고 있어, 맞벌이가 가능하리라 생각했으나, 군지역 특성상 아내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경제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어, 지역특화비자를 유지하기 위한 거주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이주여성의 일자리가 많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음. 한편, '노동4'는 더 좋은 근로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목표하고 있음

- ❍ '미등록1'은 본국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더 나은 경제적환경을 찾아 2023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함. 처음부터 미등록을 마음먹고 관광 비자로 입국함
- ❍ '미등록2'는 캄보디아에서 남편과 결혼해 큰 아이를 출산했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함. 남편이 먼저 E-9으로 입국했고, 본인도 E-9으로 입국했지만, 지금은 부부 모두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지내고 있음. 7년간 캄보디아에 가지 못해 큰 아이를 만나보지 못했는데, 최근 둘째를 임신함. 불법체류 단속을 두려워하며 불안도가 높은 '미등록2'는 미등록 상태에서 한국에서 둘째 출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귀국을 준비하고 있음

□ 이주민 상담사

- ❍ 이주민 상담사는 경상남도이주민지원센터에서 최소 5년에서 최대 14년 이주민의 다양한 사례를 상담하고 지원한 베테랑 상담사이자, 국가별 교민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표 Ⅳ-82〉 이주민 상담사

구분	참여자 소속	지원 언어	지원 기간
상담사1	경상남도이주민지원센터	네팔어	6년
상담사2		캄보디아어	10년
상담사3		몽골어	5년
상담사4		베트남어	14년
상담사5		중국어	10년

3) 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이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개념

□ 공공서비스는 생존·권리 보장·사회통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됨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공공서비스를 행정민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교육, 주거, 노동, 통역, 체류·귀화, 문화·여가까지 포함하는 생활지원 체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공서비스가 생존과 행정 처리에만 한정될 경우 이주민이 노동력으로만 취급된다고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며, 문화·여가·관계 형성의 기회 역시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아야 함을 시사함

○ 외국인 주민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단순히 외국어 안내가 제공되는지만이 아니라, 자신의 체류 배경과 가족 상황이 제도 안에서 이해되고 존중되는지를 함께 경험함

○ 따라서 이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행정서비스의 편의성만이 아니라 차별받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됨

◦ “문화, 그 다음에는 말. 한국말이나 그렇게는 가정 교육 잘 가르쳐 주는 거. 여기도 있지만 더 있으면. 말을 모르면 조금 소통 안 되고, 통합도 잘 못하니까..(중략)..그리고 다문화페스티벌이나 그런 것도, 여러 나라의 문화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국인, 외국인 다 그때도 조금 통합, 다문화 통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2)

◦ “지난번에 몇 명한테 전화왔는데, 우리는 기계처럼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저녁에 오고. 몸이 너무 10년 여기 15년까지 20년까지 일을 했잖아요. 몸이 너무 사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상담사1)

◦ “도에서는 외국인에 접촉하기 위해서 외부인이 원하는 거를 알아야 해. 예를 들면, 행사. 행사는 어디 단체, 외국인센터, 경남 이주민, 이주 가족 외국인 관련하는 단체 그런 거 행사 좀 해라. 그 사람들이 좀 재미로 하게. 또 어디 여행 간 거, 경남 여행도 많잖아. 그런 거 지원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사는 맛이 있어야 ‘내가 여기 한국에 와서 일하는 기계 아니다’. 여기 대한민국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나를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해주구나. 나한테 서비스 해주구나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상담사2)

□ 공공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제약

○ 공공서비스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가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이용해도 되는지'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분위기 등 심리적 제약을 느끼고 있음

○ 이것은 공공서비스 범위를 "법·조례상으로 열려 있는 영역"과 "심리적·문화적으로 닫혀 있다고 느끼는 영역"으로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주민이기 때문에 이주 초기부터 공공서비스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민간서비스를 바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출신 이민자의 경우는 중국의 공공서비스 체계가 미비하고 무료 서비스가 거의 없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낮음. 이러한 출신국의 공공서비스의 경험이 위챗이라는 플랫폼을 통한 다종다양한 정보의 방대한 유통과 교환, 소통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특정 출신국 언어 정보 플랫폼은 공공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기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왜냐면 이제 문 다, 문 잠겨놓은 것처럼 느낌이. 문 안 열어줘요 우리한테. 아기가 아직 비자 이유는 모르는데, 뭐 때문에 비자 있어야 하고. 뭐 때문에, 잠시만요. 우리 딸은 둘째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비자 이유는 몰라요. 자기가. 왜 비자 있어야 되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너는 비자가 없어서 못 가요'. 센터 같은 곳 다니면 우리가 다른 데는, 못 데려다 가요. 위험해요. 보험도 없이 없는데, 뭐 그런 거 없어서 안전하게 안 돼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모텔로 가는, 우리 같이 계속 반복이 그거 하는 거야..(중략)..우리가 다 문 잠겨 있으니까 아무도 갖지 못하니까" (난민1)

◦ "근데 이제 한국말이 안 되거나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약간 그 차이가 있지만, 한국말 조금 어느 정도 좀 되면 대화가 되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제 말도 안 통하지, 뭐 이제 기관들이 물어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 어떤 오해 하잖아요. 약간 뭐지? 그거 뭐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아, 차별을 받았다면 특히 소심한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있어요..(중략)..사실 저도 있거든요. 저는 국적이 받기 전에, 진짜 국적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은행이나 기관에 갈 때, 약간 외국인이. 특히, 이주 여성. 우리 이렇게 생기는 외향 말고. 이제 키가 크고 예쁘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 동남아, 베트남에서 왔다고 하면 차별받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빨리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기관들이 외국인이 내국인이 다르거든요. 약간 내국인이면 서류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저희는 뭐 할 때마다, 연장할 때마다 남편이 있어야 되고. 은행 이렇게 자기 혼자로 스스로 못해요. 남편도 같이 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3)

◦ "우리는 무료 없어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다 이해가

못 해요. 그래서 혹시 진짜 아니면 사기냐 그냥 안 믿어요. 이제 무료 해 주는 걸 상상도 못 해요. 우리는 공짜 하나도 없어요..(중략)..중국은 위탁해서 하는 경우 많아요. 행정 사무소나 돈 내고 하는 게 또 편해요" (상담사3)

◦ "제가 경남 교민회에 이제 관리자로서 운영한 지 10여 년 넘어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교민들 방에서 올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오래 사는 노동자도 많고. 체류 기간 연장 못 하면 미등록자도 많고. 미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보험은 적용 안 돼서 갑자기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를 요새는 좀 많이 떠요. 그래서 저희 도와줄 수 없지만, 교민회 활동에서 기부 그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다른 텔레그램에서 통해서 좀 오천 원부터 만 원까지 받겠다" (상담사2)

◦ "이게 위챗이라는, 전 세계 중국 사람 다 이용해요. 그래서 이 위챗 안에 사람이 한 5천 명 들어올 수 있어요..(중략)..이게 그 비자 만들어주는 거 공부하고, 일자리 찾아주는 거 있고. 여기는 결혼 정보, 혹시 국제 결혼하고 싶나. 이 모든 거 다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거 여기 다 있어요..(중략)..아기 구인 구직도 있어요. 아기도 봐주시고 방 청소도 할 수 있고" (상담사5)

□ 체류 자격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보편적 주민 서비스'가 아니라 '특정 자격 대상의 선별적 서비스'로 인식

○ 비결혼 이주민·외국인 단독가구·비국적자 이주민 가족의 경우는 보육, 육아, 교육, 자녀의 국적, 배우자의 노동 문제에서 공공서비스 범위가 실질적으로 좁아지는 경험을 말하며, 이를 체류 자격에 연동된 공공서비스 제도의 차이나 불편이 아니라 차별적 구조로 인식하기도 함

○ 공공서비스는 국적자 중심, 특정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함

◦ "여기 나와서 혜택주는 거는 F-5하고 F-6 이렇게만 받을 수 있어..(중략)..근로자한테 좀 좋은 혜택 50%만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결혼3)

◦ "처음에 결혼했을 때부터 남편이 이제 한국 국적 받아야 된다. 이 한국에서 살면 외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 차별도 많이 받고, 문제도 많다. 그래 어쨌든 간 국적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봤는데 한 번 하고 안 됐고. 이제는 애들 이제 딸도 엄마가 국적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냥 영주권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4)

◦ "네, 그거 제가 알기에는 이제 한국 분들만 좀 가능하고. 지원 뭐 이런 거 한국에 있는 거는 한국분들만. 아니면은 남편 한국분, 이제 만약에 와이프 외국 분이면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동포분들이면 이제 받을 수 없다..(중략)..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처

럼 지원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포3)
◦ “결혼이민자들한테는 있어요. 아이 돌보고, 한글도 수업해주는데, 노동자 와이프들한테는 없으니까 있으면 좋겠다고” (노동1)

□ 공무원 안내·서비스 전달 방식이 공공서비스 인식에 영향

○ 공무원에 의한 설명·안내 방식에 따라 실제보다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의 폭이 좁게 느껴지거나, “내가 몰라서 못 쓰는 건가, 아예 안 되는 건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표현되기도 함

○ 즉, 공공서비스 범위는 객관적 제도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전달·안내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용자의 감각에 좌우됨

◦ “저는 일단은 인스타나 인터넷을 그냥 검색하고. 그렇게 찾고 있어요. 만약에 정보가 필요하면은 이제 곧 인터넷으로. 아니면 주변에 또래 살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약간 불편... 약간 직원들이 만약에 가서,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고. 그리고 약간 차별하는 것도 약간 느꼈어요. 그런 거는 그 한국인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 (동포3)
◦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지하철 이용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항상 도와주셨어요, 영어를 못 하셔도 번역기를 써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려고 하셨어요. 출입국도—출입국 관련 법을 이용했었는데요.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고 항상 도움이 됐어요. 콜센터도—출입국 콜센터도 정말 친절하시고요. 보험도요, 경험이 정말 좋았고 사무실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저희 나라에서는 공공서비스 콜센터를 이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일 처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에요. 사무실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유학7)

□ 공공서비스는 ‘한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기대

○ 참여자의 다수는 공공서비스를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개별 프로그램들의 나열보다는,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연결받을 수 있는 통합 체계로 인식하길 원함. 공공서비스는 단순히 ‘어떤 서비스가 있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기대함

○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주민의 이러한 기대는 사회적 포용의 첫 단계이자 사회통합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 고려 사항임

◦ “사실은 행정에서 여러 너무 많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알기가 홍보가 좀 부족하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약간 통합 서비스,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사이트처럼 서비스. 행정, 보건 이렇게 좀 나눠주고. 여러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했다. 아니면 그런 교육이 있다. 한 자리에서, 자리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하면. 통합하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사이트에 있으면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새로운 오신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근데 한 사이트에 있으면 예를 들면 출입국 사무소에 관련 사이트가 하이코리아잖아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자 관련 다 문제가 이 사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찾아보면 스스로 알아봐야 돼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알아보는 거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서비스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찾는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1)

◦ “ 자유롭게 대화하고 네트워킹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핵심은 정보를 알려 주는 거시고 비전은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귀화1)

(2) 주로 이용한 공공서비스

□ 이주 초기·정착 단계

❍ 많은 참여자가 가장 빈번하고 현실적인 공공서비스 접점으로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등을 꼽고 있음. 이는 최근 장기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을 아우르는 육성형 이민정책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체류 비자를 상급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F-5) 또는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하는 이주민이 많아진 것, 국적 취득이 아니더라도 체류 비자를 상급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교육 이수와 한국어능력시험 통과가 필수로 제도 설계가 되어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침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변경·연장, 가족 초청, 방문 예약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외국인주민지원센터·경남이주민센터·가족센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상담, 행사, 통역 연계의 거점 역할을 함. 특히 경남이주민센터는 타 지원센터와는 달리 정보 제공과 상담뿐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담사가 끝까지 동행 지원함으로써 전국에서 상담 전화가 몰려들 정도로 이용과 신뢰도가 높음

❍ 병원·보건소는 출산·산부인과·소아진료와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에, 주민센터는 전출입 신고와 민원, LH 주거 안내에 활용됨

◦ “(8년 살면서) 출입국 사무소 많이 갔어요” (동포3)
◦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자주 와요. 이렇게 물어볼 때 편하게 물어보고. 가끔씩 상담으로도 와서 힘들면, 집 생각에 힘들면 이렇게 상담받으러 와요” (노동1의 통역)
◦ “짧은 기간에 바로 휴대폰 해서 다음에 은행도 통장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3개월, 그 때는 3개월 지났다가 건강...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왜냐하면 3개월, 90일 지나야 그때 다 가능하니까 그때 다녀오고. 또 출입국에 서류 주고, 그에 외국인 등록증 나오고. 또 중간에 보건소에 들어가고” (결혼1)
◦ “처음에 왔을 때, 남편 이게 어느 의사소통 안 되고. 아마 문화 차이도 있고. 자주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다문화 센터에 알고 있는 데 있어요. 그 선생님이 집에 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해결도 해주고 그랬어요” (결혼4)

□ 가족 단위 이용

○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동포체류자격 통합으로 동반 가족과 정주하며 귀화할 수 있는 단계적 정착 경로가 제도화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음.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와 국민행복카드, 맘스카드, 지자체 보육비 지원, 출산지원금이 주요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남

○ 가족센터는 통번역·의료 통역·취업 지원·상속포기 도움까지 제공함. 행복주민센터를 통해 LH 입주, 차상위·한부모 지원, 문화누리카드, 급식카드, 경남 패스, 생리대 지원도 이용됨

○ 결혼이민자의 이용이 비교적 활발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공공서비스 이용에 있어 배우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독립적 이용 역량에는 차이가 있음

◦ “가족센터의 동네에 의료통번역, 안전보건통번역 서비스 좀 다녔고, 아는 언니 가족센터 때문에 우리 만났어요. 마산 가족센터에 다니는데 아마 연결하는 협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작하고” (결혼1)
◦ “신랑 그거 뭐라고 그러지 대출이 있어요. 돌아가신 지가 5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뭐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경상남도가족센터에서 도움받았어요. 상속포기” (결혼2)
◦ “동사무소에서 혜택 같은 거 받는 거는 다 알아봐요..(중략).. 동사무소에서 연락해 왔어 신청해서 LH 2016년에 집, 나는 이사 왔어..(중략)..또 애들도 3명 키웠으니까 또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중략)..문화누리카드, 생리대 지원, 급식카드도 있어요” (결혼2)

□ 노동자 이용

○ 고용센터·노동상담, 출입국, 병원, 송금·은행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 근무시간 때문에 평일 기관 방문이 어렵고, 사업주나 동료가 정보를 대신 제공하는 구조가 두드러짐

○ 사업주가 산후조리원·병원을 연결하거나 운전면허를 한국 면허로 변경한 사례에서 나타나듯 회사가 공공서비스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외국인 노동자 그거는 비자마다 조금 다른데, 근데 대부분 하면 세무서. 그다음에 출입국, 은행 그다음에 우편, 우체국 이런 거” (상담2)

◦ “비자 변경 등 처음에는 회사 도움을 받다가 이제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한다. 온라인으로 방문예약하고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었음..(중략)..부인이 제왕절개하고 일주일 입원하고 산후조리원 일주일 있었는데 회사에서 도와주고 연결해주었다. E-7 비자 변경 후 네팔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바꾸는데도” (노동1)

◦ “대부분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니까. 회사에서 도와주고, 가족까지 초청할 때도 다 도와주고, 가족이 아이들까지 돌보는데 사장님들이 또 돌봐주는 것도 있어요” (노동1의 통역)

□ 유학생: 대학 기반 서비스와 의료·주거 서비스

○ 학과, 국제처, 유학생지원센터, 기숙사·주거, 건강보험, 병원, 비자 연장, 장학·학사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대학 안에서는 접근성이 높았으나 학교 밖 공공기관, 주거 계약, 의료비 안내에서는 지원 공백을 경험

◦ “창신대가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입학 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고 그걸로 첫 학기 다녔다. 국적을 취득해서 이후는 국가장학금 지원 받고. 한 학기 300만 원 정도. 작게 나오면 창신대의 다문화 장학금을 신청한다. 창신대에서 안내 광고가 나온다” (결혼1)

◦ “인제대학교 커리큘럼은 영어로 수업 진행한다. 언어 문제가 없어서 수업은 만족하고 있다..(중략)..180만원 연구비랑 생활비 지원 받고 있다” (유학1)

◦ “전입, 거주지 변경 신고, 비자 변경등 출입국관리소 이용할 때 학과 사무실에서 다 해주고. 학생들이 힘든 거 있으면 선생님들이 도와준다” (유학5)

◦ “대학교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한 아이당 30만원, 둘에 60만원 비싸지만 서비스 대기 다 괜찮았다..(중략)..창원대 유학생 지원팀이 몽골 사람들 지원해주고 있다” (유학6)

□ 미등록·난민·귀화자: 권리보장과 신분 안정 서비스

○ 미등록은 의료·긴급지원 이용을 주저했고, 귀화는 자녀 교육, 국적·가족관계·생활행정 서비스를 이용함

○ 체류 지위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심리적 안전감이 크게 다르게 나타남

◦ “어디든 잘 안 가서 이용하지 않는다. 일하고 집, 마트밖에 안 간다. 제일 걱정은 건강보험이 없어서 병원비 많이 나오는 거. 임신 중이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걱정이다. 한국에 있으면 힘드니까 캄보디아에서 애 낳는 거 생각한다. 그러면 영영 못 온다. 한국에서 낳으면 남편이 혼자 버는데 많이 힘들고.” (미등록2)

◦ “경남외국인지원센터에 연결하면 지원이 있는데 부산까지 가야하고 재직증명서, 주소지 있어야 하고 힘들다. 예전에는 양산대학병원도 미등록인들 아프면 수술이나 다 됐는데 이제는 다 없어졌다. 부산에도 있었는데 다 안된다” (미등록2의 통역)

◦ “아이들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다국어를 한다..(중략)..한국어는 처음 동대문이주민센터에서 몇 년 공부하고 경남에 와서 경남이주민센터에서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한국인에게 돈 내고 배웠다. 와이프는 1년 동안 1주일에 두 번 한국어방문교육 이용했다. 학부모상담은 와이프랑 같이 간다. 와이프 초청 시 이주민센터에서 지원과 도움 많이 받았다.” (귀화1)

□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대학원 진학의 증대

○ 장기 정착 또는 영주를 희망하는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주 초기를 지나 이주 정착 단계에서 역량 강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

○ 최근 비전문취업(E-9), 지역특화비자(E-7-4) 노동자도 대학 진학이 가능해짐에 따라 역량 강화의 수단으로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본국으로 귀향하려는 노동자 역시 본국에서의 재정착 준비를 위해 석사나 박사과정 진학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결혼이민(F-6), 거주(F-2), 동반 (F-3) 등 다양한 체류 자격에서 확인됨. 인적자본 투자로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대학 진학을 하거나 계획함

◦ “외국 사람 지금 자격 변경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네, 엄청 많아요. E9에서 E7으로 변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E9에서 D2, D4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중략)..한국에 사실 입학 학년 공부 더 할 수 있는 거 이거 좋은 점이야..(중략)..한국에 입학 오면 학교는

지원금도, 장학금도 주고. 일자리도 찾아주고, 학비도 너무 싸게 해줬어요" (결혼3)

◦ "한국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중략)..지금 대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E7으로 온 사람은 공부하면 F2 비자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네팔에서 대학교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대학원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경남 커뮤니티에서도 저도 대학교, 대학원 공부하니까 우리 커뮤니티 안에 공부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우리가 서로서로 너무 잘 지내고, 공부하는 사람 5명, 6명은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지금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잘하면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요" (상담사1)

◦ "제가 방송대학교 있잖아요. 신청을 일단은 했어요. 나는 법학과 관심이 있어서. (중략)..왜냐하면 그거 본국에 있을 때도 그때는 경찰관이 꼭 되고 싶었는데, 한국 가서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법학과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제가 상담사잖아요. 그 사람 우리 동포들한테 뭐 도와줄 수도 있고. 법 잘하면은 뭐 다 잘할 수 있어서" (동포3)

◦ "또 자기도 대학을 다니고 싶어서 야간 대학을, 주말 대학도 다닐 예정이고. 그다음에 영주권 F5 비자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동4)

(3) 공공서비스 정보 구득 방법

□ SNS·메신저와 친구·지인이 가장 빠른 비공식 경로

○ 하이코리아, 카카오톡·페이스북·유튜브, 국가별 커뮤니티와 지인 추천이 실제 공공서비스의 이용으로 이어지는 핵심 경로로 나타남

◦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편하게 출입국관리소 방문 예약, 비자 연장 신청했다..(중략)..주로 SNS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해서 찾고 아니면 고려인 커뮤니티에 물어서 얻는다" (동포3)

◦ "정보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유투브 보고, 친구나 회사 지인에게 물어 본다" (노동1)

□ 이주민 관련 센터·대학·직장은 신뢰도 높은 공식 경로

○ 가족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 경남이주민센터는 통역과 신청 지원을 결합해 정보의 신뢰도가 높았음

○ 대학은 국가초청유학생장학금(GKS) 등 장학금과 어학연수에서 유학 비자로의 변경, 기숙사, 취업 등 유학생에 특화된 정보 제공

○ 노동자는 직장을 통해 체류 지위와 근로계약, 사회보장, 주거 정보를 구득

◦ “우선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회사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럼, 회사들이 분리수거를 통에 다 있기 때문에 회사가 먼저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안전 원칙 교육하고 또 분리수거도 팀장, 과장 팀을 꾸려서 그걸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나라가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자기가 거주지에 있는 외국인센터. 그다음에 공공 커뮤니티. 예를 들면, 제가 캄보디아 여기 커뮤니티는 이제 만든 지 15년. 그리고 항상 1년 딱 한 번 4월 되면 쫄츠남 행사[10] 이제 설날 행사가 열려요. 그래서 행사할 때는 거의 5천 명이 모여, 경남 있는 캄보디아 이주 여성, 노동자, 유학생 등 거의 다 와요” (상담사2)

◦ “정보는 친구들이나 대학의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얻음. 처음 입국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줌. 건강보험도. 공공시설은 대학 안에서만 이용해봤다” (유학1)

□ 정보 접근성은 체류 안정성, 한국어 능력, 관계망에 따라 차등화됨

○ 이주민 관련 센터 페이스북과 50~100명 규모 교민 메신저 그룹에 공지가 먼저 올라가 네트워크 밖 주민은 배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남

○ 몽골어·우즈베키스탄어 등 소수 언어의 홈택스·지원금 화면이 취약했고, 긴 이름·간편인증 제한으로 민생지원금 신청이 실패하는 사례도 있었음

○ 동포와 대학 재학생은 학교·커뮤니티 연결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미등록자·신규 입국자·교대근무 노동자는 정보 취약성이 큼

◦ “경상남도 안에 이런 사람들만 메신저를 받는 그룹이 있어요. 50명, 100명 그룹이 있어요. 무슨 행사 있으면 먼저 거기 올려주고. 밖에 올리면 그냥 전화 멀리에서 전화만 오니까 먼저 우리 안에, 그룹 안에 올려주고. 딱 그 사람 채워요. 그래도 안내해야 하니까 페이스북 안에 홍보해서 우리 경남이주민센터 페이스북도 있고, 네팔 교민 페이스북도 있고. 외국인 페이스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내, 알려줘요” (상담사1)

◦ “링크 들어가서 봤자 그 몽골어로, 몽골리안 되어있지 않는 이상 그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지금도 현재 홈택스 있던가, 뭐 지원금 신청했던가? 이거는 인구수 많은 베트남어, 중국어로 돼 있지 우리 인구 작은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이런 것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상담사3)

◦ “결혼 이민자나 유학생, 좀 오래된 유학생들. 예상보다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더라고요. 외국인 학생들이 그래도 아니 좀 더 외국인 등록 언어만 갖추고 있는 부분들도 좀 만나고 있는데, 다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분들, 아니면 조금 체류 자격 없는 분들, 아니면 체류 자격은 있지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어렵다. 이주 노동자들도 막상 본인이 혼자 살다가 계좌를 변경해가지고, 가족을 초청해서 가지고

10) 쫄츠남(Choul Chnam) 행사로, 매년 4월 중순에 열리는 전통 신년 축제.

왔을 때, 학교나 뭐 이렇게 은행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상담사3)

(4) 공공서비스 이용의 어려운 점

□ 언어·의사소통 장벽

○ 모든 체류 지위를 불문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해도 병원 진료 시 증상을 설명하거나 의사의 설명, 약 처방, 치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안해함

○ 행정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워 출입국, 체류 자격 변경, 가족 초청, 보험 신청 등 서류 준비에 누락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림

○ 전월세 계약 제도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사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음

◦ "한국에 들어오면서 공공기관 이용할 때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어디로 가면 다 한국말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픈 거를 의사한테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야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약 처방하지도 못하잖아요" (상담사2)

◦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 첫 번째. 아이들 아팠을 때. 아팠을 때, 이제 안 그래도 건강보험도 없고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가 이래이래 아프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의사소통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답답할 때가 많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번역기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 말했지만, 잘못 진단될 때 있고" (유학6)

◦ "한국어를 잘 못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50만원 빼고 주고 조금 소리나면 큰 소리로 문 두드리고" (유학1)

□ 언어·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할 수단의 부족

○ 이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의료 통역이 부족해 병원 진료를 미루기도 함

○ 이주 초기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습득이 필수인데 가족센터나 이주민지원센터의 한국어 수업이 많지 않음. 거주 지역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없어서 장거리를 이동해 타 지역 센터의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기도 함

○ 다언어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음.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등의 번역 자료, 통역이

부족함

❍ 다언어 지원이 약해 모바일·온라인에서 공공서비스 접근이 불리함

◦ “와이프는 한국어 조금 이해하는 정도여서 병원에서 쓰는 말은 잘 모른다. 병원 교수님하고 화상통화해서 내가 와이프한테 통역해준다..(중략)..출입국사무소, 지금은 미얀마 통역사가 없어서 와이프가 불편하다. 미얀마어 상담사도 있으면 좋겠다” (노동2)
◦ “병원 통역 인도네시아어는 없어..(중략)..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근로자들도 보통은 한국말을 못 하기 때문에 병원 안 가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결혼2의 통역)
◦ “통역사가 더 필요해요. 인도네시아어” (결혼2)
◦ “네팔어로 돌보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중략)..그 아기도 네팔말도 배우고 좀 편하게. 한국어도 배워야 되지만 그런 거는 네팔어도 있으면 생활하는 것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노동1)
◦ “옛날에 미얀마 통역사는 그렇게 있어요. 이제는 출입국에 여러 나라, 상담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미얀마 통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전화가 안돼요” (노동2)
◦ “제일 힘든 거 이제 한국 국적 받고 싶은데 출입국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려고 가는데, 한국어 좀 잘 안돼서 좀 잘 안돼요. 그것 때문에 계속..(중략)..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를 제대로 못 배워서. 그냥 주변 아줌마들, 시장 이렇게 상인들 그렇게만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어 잘 안돼요..(중략) (가족센터) 그 방문 선생님이 그 때 시장에서 올 수 있는데, 좀 몇 번 배워봤는데, 근데 일 때문에 날마다 시간이 뭐 하는 거 잘 안돼서” (결혼4)
◦ “전화도 받아야 되고 신청, 인터넷으로 해야 되고 앱으로 해야 되는데 경남은. 이게 한국말로밖에 안 돼 있잖아요” (동포3)

☐ 사회적 거리와 정서적 장벽

❍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심리적 위축과 접촉 기회의 부족도 공공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 특히 자녀를 둔 가족은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 지역사회의 낯선 시선이 겹치면 필요한 질문을 제때 하지 못할 수 있음

❍ 이주민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정보 부족에서만 찾거나 단순한 무관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접근을 가로막는 사회적 거리와 정서적 장벽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유치원 입학할 때 아니면 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 준비하는 서류. 그다음에 절차. 또 자기가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 내가 부모로서 여기 한국에 살면서 애들 학교 보내면 어떤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끼리 어떤 대화하는 건지 이런 등등의 문의 많이 들어오고" (상담사2)

◦ "왜냐하면 이주 여성 이제 공장에 대부분 이제, 아기 때문에 공장 이제 잔업하고 공장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이제 공장 외에 아까 그 커피숍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여성 취업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데, 근데 아직 한국 이제 사회의 인식은, 조금 외국 사람들. 잘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혹시 여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나 어디에 좀 제안 좀 해주면 안 되나. 우리 이주 여성들 이제 취업하는 게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교육도 많이 받고, 나라에서 이제 교육 센터 하는 그 지원. 그 뭐지...내일배움카드, 네, 그거도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공장 외에는 다른 쪽에 취업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아까처럼 제가 고용 안 하려고 대부분. 근데 나라가 아니라서 개인 사업주라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그런 권리 있다. 그런 결혼 사회 인식 완전. 이제 어떻게 좀 인식 개선하는 그거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담사5)

□ 사회통합프로그램 제약

❍ 외국인 주민의 다수가 처음 한국 입국 시 발급받은 비자를 변경하여 한국 내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가족을 초청하여 노동하며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1~5단계, 이후 심화과정에 이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함

❍ 그러나 한국어 수업과 정원이 너무 적어 신청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접수하기가 매우 힘들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도 많지 않아 대기가 김. 결국 수강을 못하면 비자 변경에 시간이 걸리고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변경이 불가해 귀국하거나 미등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자가 너무 많아 신청이 어렵고 토픽 시험장이 적다. 부산이나 진주까지 가야하고" (결혼1)

◦ "작년에 토픽 시험할 때 앞에서 5천 명이었어요. 그냥 50분 기다렸어요. 대기 시간 컴퓨터에서 계속 컴퓨터 안 사라지게 이렇게 있었어..(중략)..약간 실패하면 다 버리고 또 다시 돌아가서" (결혼1)

◦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신청이 어렵다. 그 다음은 3개월 후인데 2년간 신청을 못했다" (결혼2)

◦ "사회통합프로그램 더 필요하고 신청할 때 너무 복잡하다. 경남에 사회통합프로그램 하는 학

교가 창원, 거제, 마산, 함안에 이렇게 사람은 엄청 많이 있는데. 너무 작게 운영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몇 명 되어서 불법되었어요..(중략)..인원 수도 10명, 12명 제한이 있다." (결혼3)

◦ "제일 힘든 것은 한국 국적 취득. 출입국 가서 면접을 봐야하는데 한국어가 잘 안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에서 5단계 계속 많이 투자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생계 때문에 한국어 공부는 계속 잘 안 됐다." (결혼4)

◦ "한국어, 한국 문화 잘 가르쳐주는 교육이 많으면 좋겠다.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하지만 토, 일만 할 수 있어서. 말을 모르면 소통도 안 되고 통합도 잘 못하니까. 공부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센터가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대기 신청만 할 수 있는데 무한정 기다린다" (노동2)

◦ "(경남에서 사회통합 교육) 그것도 편안하게.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이제 일을 아무리 해도 국적 따기 위해 공부하러 가야 해요. 지금 마음이 있는데 거리도 멀고, 바로 안 되고, 신청하는 것도 복잡하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결혼4)

□ 행정·온라인 절차의 복잡성 및 불편함

❍ 온라인 인증·비자 갱신·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건강보험 자격 확인 등 절차가 복잡해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함

❍ 비자 체계의 복잡성은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 전반에 반복적인 혼란을 야기함. 비자 종류가 너무 많고 자신의 체류 자격이 건강보험, 취업, 교육, 귀화 준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기 어려움

❍ 이중언어 상담사를 통한 다언어 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지만 상담사가 각 사례의 세부 조건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공공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거나 일관된 안내를 받기 쉽지 않음

❍ 노동자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국적자가 아니면 주민센터나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서 주한국 대사관까지 가서 발급받음. 게다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재발급을 위해 재차 대사관을 방문해야 함

❍ 한국 입국 전 출신국에서 고용허가제(EPS) 온라인 시스템의 계정을 생성하고 등록, 신청 시 입국 후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EPS 시스템 이용이 불가함

❍ 은행 계좌 개설이나 본인확인, 실명 인증에 이주민의 성명이 길어 입력이 안 되거나 알파벳 철자의 오류로 몇 차례나 반복하거나 진행을 할 수 없음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는 거, 인증하는 거 너무 복잡하다” (결혼1)
◦ “한국에 오고 나서 이제 애랑 그다음에 와이프랑 비자, 외국인등록증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초청하기 전에 그 서류들이 3개월 지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서류 준비해서 출입국에서 이제 외국인 등록증 F-3 준비해야 해요. 그다음에 준비하다가도 방문 예약을 하지 않아서 여러 번 출입국을 왔다 갔다 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회사도 연차를 계속하니까, 그것도 문제 있었고. ” (노동4)
◦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한국에서 있는 가족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주 필요해요. 근데 이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거 대사관 꼭 가야 돼요. 근데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만 대사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김해나 경상도 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것도 돈도 들고. 이제 시간도 다 직장 다니고 있어서 불편한 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그 서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참 불편해요..(중략).. 근데 그거 다 문제가 좀 있는데, 가족증명서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동포1)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신청했는데, 당시 시스템 문제로 남편이 5번이나 결제를 시도한 끝에 신청에 성공했다” (결혼1)
◦ “그 산업인력공간 EPS 외국인 근로자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도 언어로 돼 있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도 많고. 그리고 거기서 이 친구들은 나는 퇴직금 얼마였구나, 삼성화재 보험 얼마였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로그인 주체가 본국에 있을 때 로그인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럼 올 때 아이디. 비밀번호를 다 까먹고 와요. 그러면 여기 와서 핸드폰 번호 집어넣어도 안 되고, 뭐 이름 집어넣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가입돼 있다고. 이런 우려들이 많아요” (상담사3)
◦ “제 이름이 원래 너무 길어요. F-6비자로 들어갈 때 우리 원래 성, 이름,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거든요. 완전히 길었어요. 그때는 한 글자가 잘못 쓰면 전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요..(중략)..또 하나 한국 이름이 짧잖아요. 세글자 들어가. 그때 어떤 상황에 전체 다 안들어가는 상황이 또 있었어요. 제꺼는 뭐 스무개까지 하니가 당연히 못들어가잖아. 진짜 이름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결혼1)
◦ “건강보험도 우리가 다른 나라, 몽골에 가서 30일 지나면 건강보험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신청하면 6개월 다음에.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해요. 그래서 그게 6개월 동안 아프면 건강보험 받을 수 없어요” (유학6)

□ 정보의 사각지대

❍ 건강보험, 출입국·체류 자격 변경, 가족관계증명 등 제도 정보가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의 연계가 쉽지 않아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귀화, 영주권 점수제와 자원봉사 포인트에 대한 정보는 정보 채널의 공백

을 선명하게 보여줌. 지역사회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했을 때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를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정보 경로가 부족함

❍ 이주민이 적은 지역의 주민센터에는 이주민 전담 공무원이 없거나 적어 이주민 관련 행정 절차를 잘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가족센터나 외국인주민센터의 이중언어 상담사가 통역자이면서 동시에 복잡한 제도를 해석하는 역할까지 맡게 됨

◦ “한국에서는 비자 관리 어떻게 해야. 관련 교육 좀 주시는 어떤 기관 아니면 어떤 단체, 사람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영주 아니면 귀화할 때 어떤 포인트 더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나 그런 활동할 때는 이렇게 포인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르쳐 주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유학2)

◦ “이주민들이 어디 이동했을 때, 그 주소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창원시에서 있다가 함안으로 이사 갔다 이럴 때 주소 변경 서비스. 다행히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게 돼 가지고 그걸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걸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 그거를 좀 확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동사무소에 막상 하려고 가면 직원들도 잘 모르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외국인 들어오면 엄청 당황스러워하더라고” (상담사3)

◦ “경남대학교 학생이 스마트뱅킹 설치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외국인 사실 증명서 가지고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같이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외국인 사실 증명서 발급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다가 출입국 기록지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 해주고 있는 직원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직원들도 어려워하는 거 있더라고” (상담사3)

□ 경제적 어려움

❍ 참여자의 대다수가 강력하게 호소하는 어려움

❍ 비싼 의료비 부담. 특히 치료 목적이나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가족 전체가 생계와 돌봄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됨

❍ 단신으로 이주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체류 자격 변경하고 가족 초청해서 가족 결합을 통해 외로움과 고립을 해소하고 정서적 만족과 안정, 건강을 회복하지만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 교육비로 생활비가 단신일 때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생활에 여유가 없음

◦ “애기 태어난지 3, 4개월 후에 예방접종하고 경기한 후에 아기가 지금 그때부터 점점 많이 나빠졌어요. 아직까지는 목도 못 가누고. 엄마, 아빠까지는 몰라요. 지금 3살이에요..(중략).. 대학병원은 보통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아기 먹는 거 하고 비용만 한 달에 200만 원. 제가 직접 내고” (노동2)

◦ “대학교 박사 과정. 거의 6년 정도 한국에 살았어. 건강보험 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분이 또 아픈 거야. 3년 정도 건강보험 내고, 근로소득세도 내고, 이렇게 아팠잖아요. 이 친구가 둘 다 이렇게 좀 큰 수술 해 가지고 400만 원, 600만 원 나왔는데, 좀 병원에서 지원금. 외국인 근로자 자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이주 노동자는 조금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안 돼요. 이거 어차피 201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은 한국에서 일했다가, 불법 체류자분한테만 써야 해. 아예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명시해버렸어” (유학6의 통역)

◦ “건강보험이 없어서 병원비 많이 나가고 진짜 애들 괜히 데려왔다고 생각들 때가 많다” (유학6)

◦ “저 이거 지금은 한국에 집값이 너무 높잖아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기숙사에 회사 계속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나는 오래됐으니까 공짜로 잘 수 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다른 집도 구하고. 그거도 새로 줘야 돼요. 물값이, 전기값이, 인터넷값이 다 모두 생활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난 300만 원 매달 월급 받아도, 아마 200만 원 넘죠. 너무 힘들어요” (노동3)

□ 보육·교육비 부담

○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등은 한국 국적자로 어린이집 무상보육, 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데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아닌 이주배경가족은 무상보육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어린이집 보육비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영아반은 48만 원에 육박하는 원비가 책정되어 있어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 가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또한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원비가 연령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차등 가격에 대한 민원이 많고 또 자신이 외국인이어서 차별받았다고 인식하기도 함

○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원비 부담으로 자녀를 가정 보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자녀는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주로 집에서 엄마와만 있게 되어 활동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한국어 습득 등 언어 발달 과정에 지체를 경험함

○ 따라서 같은 국가 출신 커뮤니티 내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대체 서비스가

성행하기도 함. 위챗(중국), 페이스북(베트남)을 통해서 아이 돌봄 광고를 하고 이 광고를 보고 자녀를 맡김

- ❍ 외국인 가정의 경우,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많은데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되어 양육비가 많이 듬
- ❍ 자녀들이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 정착하기를 바라지만 학원비가 비싸 원하는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음

◦ “애기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보내주면 아예 안 나와요 노동자 가정은. 왜냐하면 아기 나이 때문에. 나이 너무 적어서. 원래 나이 너무 적으면 그 뭐지?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5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야. 근데 나라 지원금을 10만 원밖에 못 받아서. 나머지는 부모님 부담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애기 유치원이 5살, 6살 이렇게 정도라고 하면 돈 6만 원 더 냈어요..(중략)..그 사람들이 나한테, ‘선생님 출입국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 너무 부담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애는 다시 보내요” (결혼3)

◦ “아직 나 이제 우리 딸 둘이 아직도 우리 집에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아직도 못 가요. 그런데 난 다른 생각이 있는데, 한 명 가면 아마 50만 원, 40만 원 정도로 가요. 나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왜냐하면 나는 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고 일하고. 근데 나 와이프랑 딸 둘이 나 집에 보낼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혼자 돈 벌고, 나 가족도 같이 한국에 하고 싶어도, 나는 월급에 대해서 안 맞아가지고. 나는 다시 못 올 거예요. 근데 이만큼은 이 정부에서는 우리 혜택을 받으면, 나도 행복하게 또 열심히 한국이랑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3)

◦ “이제 외국인 가정이라서. 좀 더 외국인한테 뭐지? 공과금 이런 거는 좀 할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한국에 애들 교육하는 목적이라서 생활이 좀 더 할인하게 해줬으면. 애들 교육까지 좀 관심이 있고. 또 앞으로 애들도 어차피 한국 사람 오래 살다 보면, 애가 머리 인식이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에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과금을 조금 나라에서 생각해서 할인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노동4)

◦ “내국인 아이들이면, 2명 이상 아이 있으면 다자녀 혜택받을 수 있잖아요. 외국인 가정 그런 거 없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세금도 내고 뭐 보내고 있는데, 그런 거 신청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유학6)

◦ “조금 더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그거는 아무래도 돈 때문에 좀 아닌 거죠. 한 명 쓰면 괜찮은데, 3명을 쓰니까 다 같이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학원 보다 방과 후 조금 싸요. 근데 조금 많은 체조 선택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부족해서 한 명 한, 두 가지는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더 방과 후 교육비 같은 거 좀 지원해주시면 좋다” (유학6)

◦ “자기 혼자 살았을 때는 자기 조금만 쓰고, 본국에 다 보내고. 애 교육하고, 와이프 생활비도 하고, 부모님도 조금 하는데. 근데 나중에 가족, 초청 오면 여러 가지 책임감이 커지고. 또 애 교육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애 교육, 한국의 교육 애한테 너무 좋은 거를 자기가 알아요. 근데 계속 한국에 살자 하는 거 보장할 수

도 없고. 또 한국 물론 최저임금은 지금 215만 원 정도 나오는 데에서 자기 물가 비교해서 안 남아요. 그래서 자기 애들 좀 10년 한국어 교육받다가 자기 나라 갈, 그런 사람은 생각 많아요" (상담사2)

□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들의 우울·고립 문제

○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들은 한국에 입국해서 바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문화를 배우러 다니기 어려움. 사회적 활동 및 네트워크 형성 없이 자녀와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자녀가 아픈 경우, 입국-출산 후 바로 아픈 자녀를 돌보느라 한국 사회에 초기 적응할 기회는 더욱 가지기 힘든 것으로 나타남

○ 무슬림인 경우 여성은 남성들이 이용하는 장소·공간에 접근할 수 없어, 집이나 동네에만 머무르고 한국어도 남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편이 가르치는 경우가 발견됨. 가족센터에서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아내를 동반하지 않음

○ 인구감소지역에서 E-7-4 비자를 발급받은 노동자의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 1급 자격을 취득하면 일을 할 수 있는데, 한국어 능력을 갖춰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특성상 여성 일자리가 없어 구직에 곤란을 겪고 있음. 특히, 이 경우 안정적 체류 비자를 얻을 때까지만 경남에 있고, 원하는 체류 자격을 얻으면 여성 일자리가 많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어, 경남의 인구감소지역이 비자 회전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됨

◦ "저희 와이프는 너무 힘들어요. 한국어 조금 몰라가지고. 처음에 오자마자 센터에서 교육받았어요. 한국어 수업. 수업받다가 임신되니까 좀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좀 그만두는..(중략).. 자기 말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아기 어리니까 밖에 안나오고" (노동1)

◦ "일하면 조금 친구들이 만나서 자기 이야기 하면 좀 스트레스 없고..지금은 지역특화비자만 와이프 일할 수 있어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이런 사람은 와이프는 초청하고 일은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고 와이프들이. 하루 종일 남편 없고. 저녁에 남편 올 때 남편은 피곤해서 와서 말 안하고 와이프한테. 와이프는 하루 종일 남편 안 보니까 말하고 싶어" (노동1의 통역)

◦ “같이 집에서 막 같이 먹고, 우리 같이 이렇게. 다음에는 가까이에 산책하고. 와이프도 퇴원한 몇 개월 후에 애기가 아프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마음도 아프니까” (노동2)
◦ “근데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면 왜 네 와이프는 일 안 해? 우리 문화에서는 일 거의 안 해. 우리 와이프 또 다니면 이렇게 히잡하고 다녀요..(중략)..그 사람 계속 집에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한국어 그냥 집에서 좀 공부하다가 나랑 같이” (노동3)
◦ “이분이 일단 함안군에서 2년, 3년 더 살다가 아마 다른 지역에 변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함안군에 와이프가 일을 하는 알선을 찾기가 힘들어요. 여자가 잘 안 받아지고 하니까. 지금 일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여기 한 2~3년 살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F2-R(지역특화형거주비자)로 변경할 예정이고” (노동4의 통역)

□ 사회적 차별·불평등

○ 주택, 부동산 계약 시 외국인이라고, 자녀가 많다고 계약을 거부당하기도 함
○ 국적을 확인하고 향신료를 쓰거나 음식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 주민의 집합주택 입주를 거부함
○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 반말로 응대하거나 불친절하고 설명을 잘 안해줘서 수치심을 느낌
○ 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아도 외국인이라고 고용하지 않음

◦ “2023년에 처음 가족, 아이 2명하고 남편 같이 처음 왔는데 한국어도 모르고. 문화 차이도 많이 있고. 아이 많다는 이유로 집 계약해야 되는데, 애들이 시끄러울까 봐. 층간소음 때문에 계약하려면 집주인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었다” (미등록1)
◦ “약간 우리 진영의 그런 거 있었어요. 약간 부동산이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주인이 어떤 나라? 어디 나라? 그거 물어보고 만약에 우즈백이라고 하면은 바로 안 된다고 하고.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중략)..인도네시아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유한 향신료를 쓰신대요. 그러니까 집에 냄새난다고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중략)..특히 아파트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포3)
◦ “원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가 50만 원인데 한 달에. 그래서 아이 두 명 있다. 막내 아예 없다고 이렇게 속였대요. 그래서 아이 2명인데, 이게 낮에는 없다. 하나는 유치원 가고, 하나는 학교 가기 때문에 낮에는 조용하다. 그리고 말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는 시끄러우면 안 된다 그러면, 시끄럽지 않다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그러면 아이 2명 있으니까 10만 원 더 줘라 해서 월세는 60만 원 받고 계약했대요” (유학6의 통역)
◦ “(공무원들이) 그냥 그거 신청서 보여줬잖아요. 신청서를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냥 자기가 확

인하고 딱딱딱, 뺐어, 뺐어 그렇게 하면 돼. 우리 많이 말 물어보는 거 못해" (결혼2)
◦ "간호사님이 앞에 환자들이 다 뭐, 뭐, 님 하는데 나 보고 '이해했어?' 이렇게 반말로. 그냥 외국인이라서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갔어요" (결혼1)
◦ "접근의 어려움? 대부분 처음에 신랑이랑 계속 다녔어요. 도서관도 가입시키고, 카드 만들고. 우리 동네 우리누리수영장에도 등록하고. 그때도 한국 옆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 잘 봐줘요. 혼자 있으면 조금..신랑이랑 똑 같은 상황이 아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1)
◦ "저도 당황스러운 게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제가 왔을 때, 국적 따기 전에 경남대학교 편입을 하고 싶고, 가려고 그랬는데, 출입국사무소 자격 받으러 가는데, 저게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아직 난민 국적이라서, 난민 국적 대상자가 아닌데 공부할 수 없다'. 어디 가든 난민에 대해 뭔가에 유네스코 아시잖아요. 제일 기초의 교육, 기초에 누구나 어디 가든 어떤 체류자 떠나서 기초의 교육. 교육자는 정확히 이렇게 생각해요." (귀화)
◦ "한국, 경남 쪽에 아직 차별이 있어요. 이런 일(커피숍 바리스타) 외국 사람 안 받는 것도 있어요. 다른 일도 내가 한국어 이렇데 소통, 의사소통할 수 있는데, 근데 외국 사람이라서 안 돼요" (결혼3)

□ 체류 자격별 특수 어려움

❍ 미등록은 의료보험·행정 접근의 전면 제한과 공포·은신 생활의 이중 부담을 지고 불안 속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음

❍ 난민 신청자 등 인도적 체류자는 치료 목적 입국·인도적 목적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의료 접근 공백이 발생

❍ 고려인 동포는 동포 정체성과 생활의 단절,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문화 서비스가 동포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함

❍ 노동자의 배우자는 체류 자격 상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정보·지원 접근 경로가 좁아짐

❍ 노동자는 이직 과정에서 고용처의 기숙사를 나오면 이직처의 기숙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머무를 곳이 없어지는 주거 불안정에 노출됨

❍ 유학생은 박사과정을 마쳐도 일자리가 없고, 취업을 해도 E-9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감

❍ 무슬림은 문화 차이로 종교적 무슬림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그래서 좀 건축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불법 체류자 외국인분이 우리 일한다. 이거를 좀 자

르자. 우리는 합법적인 사람 쓰고 싶다고 해서 많이 쉬게 하고. 그래서 아이도 많고, 돈 벌러 왔다고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한 번 불렀다가 일 시키고. 한 번 불렀다가 일 시키고 하다보니까 생활비도 떨어지고 좀 어려움이 많이" (미등록1)

◦ "우리 애기는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라도 우리 비자는, 일하는 비자 있잖아요. 일하는 비자라서 장애인 등록까지 안되고 있어요. 장애인 등록이 되면 아기는 좀 혜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기나 그런 거는 조금 나라가 지금 안 해주지. 안 해주고 약간, 보조기는 괜찮은데, 이 아기는 스텔렛 대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기는 그런 것도 없어, 빌릴 수도 없어요. 한 개는 1500 이상이에요" (노동2)

◦ "와이프는 아기가 조금 크면 어린이집 보내고 대학원 공부하고 싶어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친구가 생겼으면 하고. 그래서 일하고 싶어한다. 근데 가족동반 자격이어서 일을 할 수 없다. F-3 비자도 자유롭게 일하게 되면 좋겠다" (노동1)

◦ "제도적으로 동포에 대한 지원이 더 있으면 좋겠고, 한국 사람들이 동포에 대해 잘 모르고 역사를 잘 모른다. 우리를 외국인으로 본다" (동포1)

◦ "하루 5번 기도해야 하는데 공공시설에 그런 장소가 없어 조금 힘들다. 없을 때는 옥상 아니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한다" (유학2)

(5) 이주민의 지역사회 소속감

□ 거주 사실과 소속감의 분리

❍ 심층면접 참여자 대다수가 모국 사회보다 경남의 생활 환경, 인프라가 안전하고 편리해서 살기 좋다고 평가함.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곧 지역사회에 깊이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남

❍ 이것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주 사실과 "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감각이 분리되어 경험되고 있음을 의미함

◦ "한국에 살면서 16년 됐는데 못 살겠다 그런 생각 드는 일 없어요. 평소 만나는 친구들이 거의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에나 뭐 이런데 한국인 많이 접촉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결혼4)

◦ "(창원에 5, 6년 거주) 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은 아직 없어. 창원대학교 저한테 저는 조금 익숙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아니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냥 부모님도, 집에도 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데 갈 수가 없고. 그냥 다 외국인들이니까. 주말에는 가족하고만" (유학6)

◦ "근데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도 한국 사람 이렇게 크게 없어요. 여기 문화 좋고 다 좋았지만, 우리는 결혼 이민자라서 우리는 여기 고향. 가끔 갔지만 우리 여기에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느낌이 노동자랑 우리 많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서

돈 조금 하고 뭐 해도 미래를 생각해야 돼. 노동자들이는 미래를 생각했지만, 자기 나라에 가서 부모 자기 나라에 여기 있을 때만 써는 것만 하고, (지역사회 소속감) 아직 그런 거 안 들었어요" (상담사1)

□ 체류 안정

○ 비자 유지, 체류 변경, 자격 취소 같은 사건이 이주민이 "여기에 계속 살아도 되는지"에 직접 영향을 줌

○ 체류가 불안정하면 물리적 거주보다 신분 불안이 앞서서, 지역사회에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워짐

◦ "여기 와서 온 지 3년 될 때, 그때 느낌이 여기 자기 고향이다 그런 느낌이 나왔어요. 어디도 안 가고 싶어요..(중략)..제일 문제는 단속 심할 때. 그때, 그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안 떠나고 싶었는데, 근데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미등록2)

◦ "우리 딸은 둘째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비자 이유는 몰라요. 자기가. 왜 비자 있어야 되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너는 비자가 없어서 못 가요'. 센터 같은 곳 다니면 우리가 다른 데는, 못 데려다 가요. 위험해요. 보험도 없이 없는데, 뭐 그런 거 없어서 안전하게 안 돼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모텔로 가는, 우리 같이 계속 반복이 그거 하는 거야. 우린 다 같이. 계속 제가 속에서 나중에라도 방법이 생겼을 수 있어요 하고 계속 믿었어요. 일 때문에. 우리가 다 문 잠겨 있으니까 아무도 갖지 못하니까. 이제 보험도, 보험 없어도 우리가 우리 보험 없어도 이제 일반으로 계산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계 다치는 거, 입원 같은 거 없었어요. 애기도 그런 거 없는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계속 애기가 뭐 해주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센터에서, 학교에서도 해주고 싶었는데. 비자가 없어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난민1)

□ 한국어 수준·소통의 조건

○ 이주민의 한국어 수준, 통역 가능성, 다언어 정보 제공 등이 지역 정보 접근·대면 접촉·서비스 이용 전반을 좌우함

○ 언어가 부족하면 지역사회 안에 있어도 "소통 가능한 범위"만큼만 지역을 경험하게 되어, 소속감이 좁아짐

◦ "이거 나라마다 조금 차이 있는데, 네팔 같은 경우에는 외국 노동자들이 자기가 한국에 들어오면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요. 네팔 사람들이 열심히 너무해요. 너무 하고. 네팔에도 공

부적으로는 책 공부 많이 하니까. 여기 한국 와서는 책보다 다른 거 활동 때문에 활동적으로 해서 교육받지만..(중략)..한국말들이 공부해서 사용. 약간 회사 안에는 사용하고, 다른 거. 네팔분들이나 한국말 그 점은 생각하면 이해되고, 잘하고" (상담사1)

◦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있는 중국에 있는 EPS 금융허가제 아마 지금까지는 애들이 책만 보고 공부만 열심히. 책 지금은 기억만 나는 것 같은데, 발음으로 이야기는 못 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공공기관 이용할 때 제일 힘들어" (상담사2)

□ 가족 구성·가정 단위 정착

○ 남편, 자녀, 가정 공간(집) 등 가족 단위의 정착 경험이 지역을 '내 삶터'로 느끼는 바탕이 됨

○ 임신·출산·양육 맥락에서 지역사회를 체감하는 경우도 많아, 가족생활 주기가 소속감 형성과 맞물림

○ 부모는 자녀에게 통역을 의존하거나, 자녀가 먼저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간접적으로 소속감을 확장해 감

○ 반면 가족 밖의 관계가 제한된 경우 소속감이 취약함

◦ "양산에서 12년 살았는데...(중략)..미얀마랑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문법도 차이가 많이 없어서 처음부터 인상이 좋았고 제2의 고향 같다..(중략)..주말에는 가족과 보낸다, 산책하고 밥 먹고, 봉사하러 센터도 오고..(중략). 병원에서 부모들이 같이 아이들 재활 치료 기다리면서 얘기하고 소통한다" (노동2)

◦ "아예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부모님 이제 아는 분, 유치원에서 인사하고 같은 유치원 다녔는데, 인사하고 같은 반이 됐으니까 하고. 수업하고, 수학 헷갈렸어요. 무슨 뜻이지?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제가 이제 그거 잘했잖아요. 그거 시간 같아, 그거 제가 알아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딸은 수학 조금 약해요. 좀 학원 시켜야 돼요. 수학? 아까 수학... 뭐지? 하고. 약해요 는 이제 약해 알고, 무슨 수학이 약해요? 하고. 학원, 학원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 하고. 그렇게 다 아까 학부모님께서 부탁하고, 공책 뭐예요? 하고. 제가 문자로 보냈으니까 어디서 샀는지 그런 거 다 몰라요. 어디 그런 거 봤는지. 가서 여기 어디? 이거 무슨 뜻이지요? 이거 하나 주시겠어요? 1학년, 1학년도 몰라요. 무슨 우리나라 조금 다르게 말하는데, 제가 며칠 안에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책, 이거는 공책. 이거는 연필, 볼펜 , 지우개 다 배웠어요. 수학은 그거구나, 수업은 그 수업 시간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구나. 다 이해하고 배웠어요. 이제 우리 딸, 둘째 보내고 나서.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거기는 이제 학교 거기서 보내고, 우리 딸은 여기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것도 공책 같은 거 달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런 거 시스템 그냥 새로운 것처럼 다 배웠어요" (미등록3)

□ 정기적 사회관계·공동체 접촉

○ 예배, 친목 모임, 동호회, 자주 보는 지인 등 반복적으로 만나는 관계망이 지역사회 안에서 “내 자리”를 만드는 데 중요함

○ 단순히 거주지가 같다는 사실보다, 얼굴을 알고 안부를 나누는 관계가 소속감에 더 직접적 영향을 줌

○ 외국인 주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지역에서는 이주민과 지역민 사이의 대면 접촉 자체가 부족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주민의 지역사회 소속감 형성이 쉽지 않음

◦ “소모임 저랑 같은 동갑이 여성 정도에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거? 저기도 뭐 다니고, 가끔씩 교회 식당 봉사도 하고..(중략)..센터에서 무료급식 24년도 한 해 동안 했어요” (결혼1)

◦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친구처럼 해서. 게임하러 온다고 해서. 커뮤니티 안에만 아니고,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곳에서” (노동1)

◦ “처음 지역에 사는 거 시작해서 김해 삼방동에서 생활하다가 어떤 음식 사는 거.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거. 그거는 다 김해에서는 하는 게 제일 편했어요. 그거는 생각할 때 거의 파키스탄의 느낌이 느껴졌어요” (유학1)

◦ “적응, 와이프 적응. 이게 나가야 사람들이 부딪히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만나야 한국으로 문화 배우고. 언어 더 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귀화1)

□ 공공서비스 경험과 참여 기회

○ 지역의 센터 프로그램, 도서관·체육시설 이용, 자녀 교육 참여는 “지역주민으로 인정받는다”는 감각을 강화함

○ 직장과 기숙사 중심 생활로 지역 활동 경험이 적은 경우, 지역사회가 낯설다고 응답

◦ “우리 센터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후원금. 후원 운동은 12월달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친구들이 엄청 후원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랬더니, 난 엄청 도움받았으니까 저는 여기 정착하고, 일도 하고, 돈 어느 정도 벌고, 이렇게 삶이 좋은 걸 느꼈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하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경상남도에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후원하고 싶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작년에 산불이 나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몽골회에서 모집해가지고 도와주고 있다 하니까 다 손들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담사3)

◦ “새로운 나라에 왔으니까 너무 어렵다. 언어도 좀 부족한 거 많고. 또 의사소통에도 좀 어렵

고. 또 여기 한국에 저 모국, 저 나라에서 고향에서 와 있지만 조금 다른 시스템 느끼고, 그것도 있고. 근데 조금씩 조금씩 여기저기 가서 다문화 센터. 그때는 다문화 센터였잖아. 그때부터 조금 한국어도 배우고, 점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좀, 이제 좀 사람들이랑 만나고. 관계에 좀 새로운 관계얻고 이렇게 해보니까..(중략)..이제 집은 여기구나 이렇게" (결혼1).

◦ "유학생 때는 학비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한국에 안 살고 싶었는데..(중략)..결혼한 후에 다문화가족센터도 다니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도 하고 시어머니랑 TV도 보고. 결혼한 후에.." (결혼3)

☐ 지역사회에서의 차별은 소속감을 약화함

❍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상품 구매 시 한국어를 잘 모르면 무조건 "No, No"라고 함

❍ 사우나 등 공중 목욕시설을 이용할 때 외국인이라고 옆자리를 피함

❍ 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발달 과정뿐 아니라 정체성과 지역사회 소속감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귀화하여 국적 취득 이후에도 출신 배경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 "우리 공부하기 전 교재가 좀 구입해야 되는 거 상황이 있어요. 우리 동네 근처 서점이 있었어. 사진 찍고 핸드폰에. 이 사진으로 갔어요. '혹시 이 책이 있어요' 물어봐서 근데 사장님이 나 보고 핸드폰 화면 안 보고 'No, No' 이렇게" (결혼1)

◦ "처음에 경남 2005년에 왔을 때, 상남동 근처에 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하고, 진짜 끝나고 나면 사우나 갔다가 얼마나 몸이 피곤하잖아요. 사우나 갔을 때 샤워 먼저 하잖아요. 샤워하다가 다른 거 들어오는 사람 안 오고, 어디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요" (귀화1)

◦ "창원에서 처음 알바 구할 때 자신에게 맞는 거 찾기가 어려웠음. 경상도 사투리를 하나도 이해 못함. 한달 동안 알바를 다섯, 여섯 바꿨는데 사장이 왜 이리 한국말도 못하냐 일이 왜 이리 느리냐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너무 부당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자신도 없고 한국에 진짜 못 살겠다 생각했다" (유학5)

◦ "3년 됐을 때 여기가 고향이라는 느낌이 왔다. 어디에도 안 가고 싶다. 남편이 먼저 와서 집이 있었고 한 번도 이사한적이 없다. 제일 문제는 단속이 심할 때 걱정하고 불안하고. 작년에 심했다. 6월에서 12월까지 단속한다 홍보하고 길에서 ID 없으면 바로 잡히고. 출퇴근 버스에서, 버스 기다리다 많이 잡히고..(중략)..신고보다 단속으로 잡히는 게 너무 많다" (미등록2)

◦ “이제 중3 올라갈 때 담임 선생님들 타박하시잖아요. 약간 담임 선생님이 좀 안 좋으시는 분인 것 같아서. 약간 차별? 이런 거는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좀 힘들고.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도 약간 당했어요. 조금 애들한테도 약간 당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중략)..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나 여기서 사는구나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약간 선생님들이 다 착하시고, 이제 차별 안 하고. 이제 저도 언어 어느 정도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때는 바로 느꼈어요. 이제 비자도 바꾸고, 이제 귀화 생각도 했었어요” (동포3)

□ 고려인 동포의 이중적 소외감

❍ 고려인 동포는 스스로에 대해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것에 소외감을 느낌

❍ 또한 고려인 동포는 본국에서도 외국인, 한국에서도 외국인 취급을 받는 것에 이중적 소외를 경험함

◦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동포)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단 인간관계 이런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동포잖아요. 그거 외국 사람도 아니고 같은 동포지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동포 누구인지 그것도 모르시고, 역사를. 그래서 약간 외국인으로 보고 그래요” (동포1)

◦ “부동산에 자주 갔는데 집주인이 어느 나라냐고 물어보고 우즈벡이라고(국적에 따라) 하면 설명도 안해주고 안된다고 한다. 우리는 우즈벡 사람이 아니고 고려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외국인으로 받아들인다..(중략)..소속감? 어려운 질문이다. 서류 보면 국민도 아니고 여권도 다른 나라고. 근데 느끼기에는 그냥 내집처럼 생각하고 있다. 할머니의 아버지, 엄마가 이제 한국인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처럼 느낀다. 근데 그런 것도 있다. 본국에서도 외국인이고 한국에서도 외국인이고 약간 나라 없는 사람들처럼 느끼고 있다. 서류가 한국 사람으로 정해지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누가 물어보면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아이가 나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질문을 하는데 엄마들은 답하기 어렵다. 마음이 좀 불편하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도 잘 하는데 서류 보면 외국인이다. 그래서 그냥 고려인이라고 한다. 고려인 설명도 해주고 할아버지가 한국인이었다고” (동포3)

□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수용성

❍ 지역사회가 이주민을 동등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확인됨. 이러한 의문은 다문화라는 정책적 표현과 이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문화적 수용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함의

❍ 이주민의 지역사회 소속감 형성에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문화

적 수용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어 어렵고 일, 학교, 애들 때문에 조금 답답했다. 애들 두고 왔는데 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 아이들 아팠을 때 건강보험도 없고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안되고 번역 사용해서 말해도 잘 못 진단될 때도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당할 때도 있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준비물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어린이공원이나 키즈카페 가면 엄마들이나 한국인 부부들이 장난감을 따로 놔주고 그런게 보이면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아이들도 외국인 아이 장난감 빼앗고 소리 지르고 애가 겁나서 엄마한테 달려오고 이런 거 어려운 거 같아요” (유학6)

◦ “대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약간 외국인, 한국 사람들한테도 친절하지 않고. 설명 대충하고. 그리고 약간 그거 치료할 때, 만약에 이 병이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한테 잘못 정보를 알려주고. 약간 그런 소문이 많이 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대한 안 가려고, 그 병원에. 근데 어쩔 수 없이” (동포3)

◦ “대부분 이슬람에 있는 여자분들이 히잡 하잖아요. 히잡 때문에 알바 아니면, 직장에서 채용 못 한다는 소리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이해하게 해 주시는 어떤 기관이 있으면. 아니면 어떤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유학1)

◦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한국 사람 인식 바꿔야 될 게 있어. 왜냐하면 한국 문화하고,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다문화 2세. 지금 한국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나중에 일어나면, 당연히 한국 사회에 문제없어요. 어렸을 때 여기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처럼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아직 우리 나이 많지 않잖아요. 나이 많을 때는 아마 잘 모르는데, 지금은 좀 문화 충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뭐지? 어울리지 않다고 아니라, 여기는 문화가 일단 받아들일 수는 있고. 못 받아 들이는 게 있고. 그래서 일단 차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차별이, 많이 한국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서로 노력해야 돼요” (상담사5)

(6)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

□ 정보 접근성 개선

○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보다 외국인 주민이 정보를 이해하고 신청까지 완료했는지를 기준으로 접근성을 평가해야 함

○ 언어별 최신 안내 자료를 상시 갱신하고 이주민의 첫 상담에서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함께 점검하며 일정 기간 후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연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출입국·센터·병원 정보·생활 정보를 통합한 다국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SNS·문자·메신저로 신청 기간과 준비 서류를 반복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다언어·통역·상담 지원 강화

○ 병원·행정·은행에 예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연속 통역을 제공하고, 네팔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 등 다언어 상담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함

○ 전화·화상·대면 통역을 혼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임

○ 정보의 다언어화가 형식으로 그치거나 소수의 언어로만 한정될 경우 결국 정보를 얻기 위해 출신국별, 또는 선배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공공서비스 이용의 격차는 서비스 부족뿐 아니라 통역·예약·서류 준비·기관 간 연계·사후 확인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결의 단절'에서도 비롯됨. 상담 인력의 개인적 경험과 열정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을 넘어 상담-통역-기관 연계-사후관리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함

□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조기 적응, 정착에 한국어 습득은 필수임. 거주지에서 충분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 및 비대면 수업 한국어 강좌를 늘리고 초급, 중급, 고급 수준별 한국어 과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제도 개선

○ 비자 갱신 및 변경·귀화·점수제 영주권·자원봉사 포인트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체계로 표준화하고 일원화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정원 확대 및 한국어능력시험 기회, 장소 확충을 꾀함

○ 온라인 발급·예약의 본인확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긴 이름을 처리하는 온라인 인증·입력 UX 개선

○ 서류·번역·공증 절차의 부담 완화

○ EPS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함

○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목적·인도적 목적 체류자에 대한 대안적 의료보장을 마련

□ 이주배경아동·가족의 초기 적응 및 언어·돌봄 서비스를 강화

○ 이주배경가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 비교적 저렴한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이주배경 아동을 고려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놀이를 통해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

○ 이주배경가족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 모든 적응 책임을 개인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입학 전후의 언어·놀이·돌봄을 공공서비스로 연결함

□ 경제적 지원 확대

○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출산·육아·다자녀 지원,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회사 기숙사 제공

○ 출산·육아 지원의 국적 격차 완화가 필요하고 중앙 정부의 제도 개선에 앞서 지자체가 독자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전세대출·임대차 계약 차별 완화

□ 취약계층 특별 지원

○ 미등록·인도적 체류자·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 상담소 연계와 진료·비용 지원·정보 연계를 추진함

○ 무슬림 등 종교·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주민을 위한 생활시설 내 배려(식사·기도 공간)

○ 고려인 동포의 정체성과 생활 경험을 반영한 동포 특화 안내·사회통합·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자녀가 없는 노동자 배우자 등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쉬운 대상의 정보·지원 접근 경로 확보

○ 지자체 차원의 지역 기업과 취업 준비 유학생의 일자리 매칭

○ F-3 등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의 합법적 취업 경로를 확대함

○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 기간 쉼터 제공 및 건강보험 공백 완화

□ 생활밀착형 서비스 접근 개선

○ 도서관·수영장·문화센터·생활체육시설 이용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지역사회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거나 다언어 정보가 없거나 또는 알고 있어

도 시간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 주말에는 쉬고 싶다 등의 이유로 생활밀착형 서비스 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밀착형 서비스 안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이용료 감면·회원가입을 지원함

□ 지역사회 통합 촉진

○ 지자체와 이주민 관련 기관이 함께 문화·여가·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함

○ 외국인 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 가족 단위 체험, 지역 여행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접촉 기회를 늘리는 것은 소속감과 상호 이해를 동시에 높임

○ 공무원과 지역민의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경험을 축적함

3. 소결

□ 정주화 경로에 대한 계획은 막연하나 정주화 경향은 확실함

○ 외국인 주민의 90.1%가 향후에도 경남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였고, 계속 거주 희망자 중 76.1%가 영구 거주(46.2%) 또는 10년 이상(29.9%)의 장기 정착 의사를 밝혀 정주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됨. 면접조사에서도 노동 1, 노동 2, 노동 3, 노동 4는 모두 E-9에서 E-7-4, 또는 E-7-4R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아내를 초청해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거나 가족을 초청하여 경남 거주를 장기화하고 있음

○ 그러나 정주 의사가 곧 구체적인 정착 경로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체류 자격을 묻는 항목에서 ‘지금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51.3%로 과반을 차지해, 장기 거주를 원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이 상당함

○ 정착 초기 1년은 모든 지표에서 취약함이 집중되는 구간임. 거주 1년 미만 신규 이주자는 본국과 비교해 경남에서 삶의 만족도가 2.6점으로 가장 낮았고, 계속 거주 희망률(53.8%), 한국어 학습 의향(46.2%)이 상대적으로 최저 수준이며 이주민 지원 서비스 수요는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어 역량의 중요도에 비해 한국어교육 서비스 공급 부족

○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은 본 조사에서 검토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와 도움 체감도를 비롯해 고용 형태, 사회보험 가입, 삶의 만족도, 정보 획득 경로, 정책 수요의 성격 등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기 보고식 한국어 수준이 토픽(TOPIK) 취득 등급,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수강 경험자는 30.8%에 그쳤고, 16.1%는 프로그램을 아예 모른다고 응답함. 체류 자격 제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프로그램 이용률은 제도 접근의 문제로 볼 수 있음.

○ 한국어 학습 의향이 있음에도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는 '근처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별로 없음'(42.9%), '신청 희망자가 많아 신청이 어려움'(28.6%)를 주요 이유로 선택해, 수요-공급 불일치가 확인됨. 면접조사에서도 한국어 수업과 정원이 너무 적어 신청 경쟁이 치열하고 TOPIK 접수가 힘들어 대기가 길다는 의견이 많음. 결국 수강을 못하면 체류 자격 변경에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 언어 역량은 서비스 이용의 전제이자 체류 자격 유지·변경의 핵심 조건이고, 고용 안정성과 사회보험 편입 수준까지 결정하는 구조적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한국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지역 내에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한국어 추가 학습 수요 자체는 77.8%로 높았음. 그러나 추가 학습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응답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추가 학습이 필요 없는 이유로 68.4%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라 응답했기 때문임. 이는 이미 한국어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방법을 숙지해 익숙해진 탓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나, 이들이 현재 살아가는 삶의 범위를 넘어서 경남 주류 사회에 통합될 기회를 얻는 것은 요원해 질 가능성이 크기도 함. 한국어가 부족하면 지역사회 안에 있어도 "소통 가능한 범위"만큼만 지역을 경험하게 되어, 소속감이 좁아짐

○ 일을 하는 집단의 한국어 추가 학습 의향은 82.3%로 일을 하지 않은 집단 54.5%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임. 이는 구조적으로 편

입된 이주민이 더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에 이른다는 Gordon(1964)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경제활동 참여 지원과 한국어교육이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호 강화 관계에 있음을 시사함

□ 동족 중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보유통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 정보 획득 경로에서 내외국인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남. 내국인은 인터넷 포털 검색에 의존하는 반면, 외국인 주민은 배우자, 가족, 친척, 한국인 지인, 외국인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 획득 경로의 한국어 역량에 따라 달라짐.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집단은 인터넷 포털 검색이 주요 정보 획득 경로였지만,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이와 같은 구조는 공공서비스 '인지'에서 '이용'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함. 대부분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미이용 이유는 '필요 없어서'였으나, 이주민 지원 서비스와 민원 행정서비스에서는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가 주요 이유였음. 서비스가 '필요 없어서'에 대한 응답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함. 면접조사 결과, '필요 없어서'라는 응답은 문화적 차이로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정보를 몰라서', '비용이 비싸서' 등의 다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임

○ 외국인 주민은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만족도가 매우 높지만, 주로 인프라에 관련된 것이고, 체류 자격, 재산 등과 관련 있는 행정형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음(면접 대상 동포3, 결혼3, 상담사5). 또한, 자녀 돌봄과 같은 복지형 서비스 역시 민족공동체 내에서 공적 서비스를 대체하는 비공식 체제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가령, 민족공동체 내에서 SNS를 통해 개인 간 돌보미를 구하고 공적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과 더 나은 조건(양육 방식, 돌봄 시간 등)에 아이를 맡기거나(상담사5), 지인끼리 육아 품앗이(상담사4), 공동 육아(노동3) 등을 하는 경우가 있음

○ 한편,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은 모두 같은 국가 출신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아플 때, 금전 문제가 있을 때, 정서적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연 같은 국가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사회통합의 관점

에서는 한국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조사 결과 한국인과의 관계망도 상당 수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이 한국인이 외국인 지원 기관의 직원인지 개인적 친분이 깊은 사적 관계인지에 대한 정보까지 알 수는 없다는 아쉬움이 있음

- ❍ 면접조사에서는 가족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 경남이주민센터는 통역과 신청 지원을 결합해 신뢰도 높은 정보 구득처인 것을 알 수 있음
- ❍ 외국인 주민의 사회자본 즉, 네트워크 유무, 네트워크의 유형이 어떠한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본 조사에서도 확인된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와 지지는 이주민의 적응과 정착, 자립과 통합에 매우 중대한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즉, 같은 국가 출신자들 외에도 타 국가 출신 및 한국인과의 네트워크가 고르게 연결된 사람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량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 반면, 이주민 지원 기관, 사회복지 기관 등 공적 체계와만 연결된 이주민은 당장은 만족스럽겠지만, 지역 사회에 더욱 깊숙하게 연결되고 통합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 사회적 포용의 첫 단계가 '접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Gidley et al., 2010), 공적 다국어 안내 확충과 다국적 이주민 및 한국인과의 교류 촉진을 위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

□ 체류 자격별 공공서비스 접근권 차이, 사회서비스 관점의 정책 설계로 보완

- ❍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방문취업, 동반, 인도적 체류자 등 조건부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은 이주민 지원 기관, 취업/고용, 납세, 안전/사법, 사회보장, 근로 계약서 작성 등 여러 영역에서 도움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 사회보장 미이용 이유로 '접근 권한 부재'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국민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 장벽이 반영된 결과임. 시민권의 사회적 요소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보건/교육 서비스로 구체화 된다는 논의(Marshall, 1950)와, 정치적 권리는 제한되어도 생활상 기본권은 폭넓게 인정받는 데니즌쉽 모델(윤영근·정동재, 2021)이 현실에서는 체류 자격에 따라 위계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 ❍ 체류자격에 따라 위계화된 공공서비스는 공공서비스 범위를 "법·조례상 열려있는 영역"과 "심리적·문화적으로 닫혀있다고 느끼는 영역"으로 분리해

서 인식하게 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해 '보편적 주민 서비스'가 아니라 '특정 자격 대상의 선별적 서비스'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이용의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경남은 조건부 거주자 비율이 66.4%로 전국 46.8%보다 20%p 높음. 즉, 체류 자격에 따라 공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이주민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주민의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접근성을 도가 사회서비스 관점의 정책 설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서비스 이용률과 도움 체감도 사이의 차이, 정책의 개입 지점

○ 자녀 돌봄이나 사회보장과 같이 이용률 자체는 내국인과 비슷하거나 높은 영역에서도 도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용의 양적 확대가 곧 이용 내용의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시사함

○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차별, 무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6.4%였고, 그 주체는 주로 담당 공무원(55.8%)과 다른 이용자(51.3%)였음. 외국인 주민은 차별을 인지하고도 주로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42.9%), 가장 큰 이유는 대응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였음(47.6%)

○ 이는 사회적 포용성 확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 가능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발전이나, 그 '접근'으로 인해 '참여'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임. 물론, 담당 공무원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을 지속하는 것도 필요하나 그 외에,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조력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주민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한 조력으로 정보 및 다국어 안내 강화 34.2%, 현장에서의 실시간 통·번역 지원 26.5%, 시간 및 장소 접근성 확대 25.7%,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편의성 제고 24.6%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면접조사에서도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객관적 제도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전달·안내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용자의 감각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이용 시 다국어, 특히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희소 언어로의 정보 제공과 의료 통번역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남

□ 고용 불안정성-사회보험 배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

○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보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근로 형태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 전일제 비중은 38.2%로 내국인 46.0%보다 낮고, 시간제/아르바이트 33.3%, 일용직 16.7%로 모두 내국인(각 27.0%, 14.0%)보다 높게 나타남. 근로 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외국인 주민이 26.6%로 내국인 16.3%보다 높게 나타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는 사회보험 가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본 조사에서 나타난 사회보험 종류별 가입률의 내외국인 차이는 고용 형태 순서와 일치하였음.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의 내외국인 차이는 13.0%p로 가장 컸는데, 이와 같은 사실과 전술한 외국인 주민의 정주화 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의 가입 격차가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로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한편, 건강보험[11] 지역가입 자격은 국내 6개월 거주를 기준으로 하며, 체류 자격 등에 따른 예외가 있어 외국인 주민의 가입률이 가장 높고 내외국인 간 차이가 가장 적은 사회보험으로 나타남.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외에 지역 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접근성이 다른 사회보험보다 용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 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국 방문을 다녀오면 지역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6개월 후 재가입해야 함. 또, 보험료 역시 월 16만 원(2026년 기준 158,630원)에 육박하는 전체 평균 보험료가 부과되고 해당 금액을 선납하게 되어 있으며 보험료 체납 시 체류 자격 연장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음

○ 외국인 주민의 건강보험료 미납이 미등록 체류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에 대한 지적도 있음[12]. 건강보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책이 실거주 저소득층 이주민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어 의료 사각지대와 사회적 불안정을 가중하므로 체류 제도와의 연계를 완화하거나,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 등에 대한 주장이 있으나[13]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11)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는 하나 유학생은 가입 시점, 보험료 산정 등에 차이가 있음. 유학생은 입국일(최초 입국 시 외국인등록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50% 감면함(출처: 국민건강보험, '2026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12) 한겨레21(2020.05.02.) '이주민 건강보험, 헌재 간다'

13) 월간복지동향(2025.06.01.) '[기획1] 모두를 위한 의료보장: 미등록이주민과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사례를 중심으로'

적자 차단과 내국인 역차별 방지를 현행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개선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경남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미등록 체류자 전환을 막기 위해 인도적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위한 행정 자원 투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주민의 노동시장 내 성별 취약성 차이

○ 성별에 따른 취약성 차이도 발견됨. 여성은 미취업률과 시간제/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높고, 월평균 소득도 176만원으로 남성 252만원보다 약 43%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기는 하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 경향에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남성은 일용직 비중이 26.3%로 여성 9.8%보다 높아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회보험 접근 여부를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건강보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가입률이 높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여성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을 노동시장 편입 수준이 높다고 연결 짓기는 어려움

○ 주목할 점은 여성의 한국어 역량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노동시장에서 수용성이 낮다는 점임. 이는 외국인 주민의 성별화된 유입 경로와 관련이 있음. 여성은 결혼으로 남성은 노동으로 국내 유입이 되었으나, 최근 이민정책의 기조 변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동반가족 유입이 가능해지면서 이와 같은 노동시장 내 성별에 따른 이원적 구조는 점차 경계가 흐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러나 노동시장 내에 이주여성은 취약성이 중첩된 집단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역특화비자 소지자는 맞벌이를 예상하고 가족을 초청했으나, 지역에 이주민 여성의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년인구가 유출되듯 체류 안정성이 높은 상급 비자를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주여성의 노동시장 내 취약성은 사회적 활동 및 네트워크 형성의 취약함으로 이어져 이주여성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외국인 주민의 정책 수요

○ 외국인 주민이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이주민 지원 서비스(1순위)와 취업/고용 서비스(1+2순위)로 나타났고, 이 필요성에 대한 내국인의 동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외국인 주민의 정책 수요는 한국어 숙달도와 같은 적응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적응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신규 이주민은 이주민 지원 서비스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10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의 경우 취업/고용 서비스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아짐. 정착 단계가 성숙할수록 정책 수요가 적응 중심에서 경제활동 지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기존 정책의 무게중심이 산업인력 유치에서 생애주기 관점의 사회서비스로 연결/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면접조사에서도 장기 거주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러한 욕구가 대학 및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나타남

○ 한편, 정책 수요의 하위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외국인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주민으로서의 특수성에 기반한 서비스 신설보다는 기존 공공서비스의 진입 단계 장벽 해소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보건의료 영역에서 외국인 주민은 진료 시 통·번역 지원과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진료 접근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 개선과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이라는 장애물 해소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주민 지원 서비스 내에서는 한국어교육이 단연 1순위였지만, 한국 사회 이해 교육에 대한 수요도 커, 외국인 주민은 언어능력과 함께 한국 사회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가정폭력/젠더폭력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외국인 주민이 젠더폭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기존 논의와 정합하는 요구로 기존 폭력 피해 보호/지원 체계의 접근성과 지원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돌봄/교육 영역에서의 정책 수요는 부모의 한국어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견됨. 한국어 숙달도가 높은 집단은 자녀의 모국어 학습이나 보육비/교육비 지원 등 자녀의 이중언어/이중문화 역량 강화와 경제적 지원을 원하는 한편,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집단은 자녀의 한국어 학습 지

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착 단계에 따른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조건부 거주자, 한시적 거주자, 취약집단별 특수 어려움

○ D계열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에, F-3은 체류 자격상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E계열은 이직 과정에서 기숙사 등 주거 불안정에 노출되는 등 주로 경제적 기회와 관련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F-4 가운데 고려인 동포는 동포 정체성과 생활의 단절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이중의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난민 신청자 등 인도적 체류자와 미등록에서는 공공서비스 접근, 특히 의료 접근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무슬림은 기도 등 종교의식과 식사 등 음식 문화에서 무슬림 정체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특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반 서비스와 다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소속감

○ 경남의 외국인 주민은 경남의 생활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평가가 곧 지역사회에 깊이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남. 자신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안과 거리감을 경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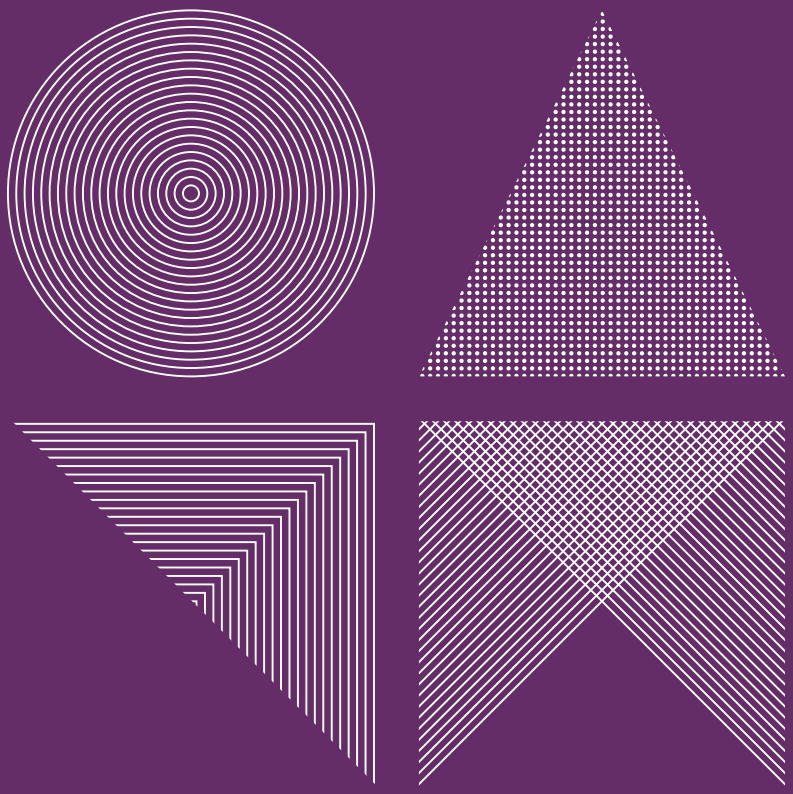
○ 지역사회 소속감에는 체류 안정, 한국어 능력, 소통의 조건, 가족 단위의 정착 경험, 정기적 사회관계·공동체 접촉, 공공서비스 경험과 참여 기회, 지역사회에서의 차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밀집지역보다 그 외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과 지역민 간 접촉 기회가 부족한 것이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것으로 확인됨

○ 외국인 주민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정주, 통합되기 위해서는 체류 안정과 한국어 학습 기회의 증대 및 편리성 제고, 다언어 정보 제공과 상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산재한 외국인 주민 생활정보를 통합한 플랫폼 구축, 정서적 상담 지원, 보육비 및 의료비 등 가족·아동의 생활 안정화, 외국인 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여가·여행 프로그램 등이 강

화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 사례는 개인의 지역사회 적응 실패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는 자료임



V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제고 방안

V. 외국인 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제고 방안

1.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실질적 공공서비스 접근 확대

○ 사회통합은 정부가 이주민의 정주와 권리, 주요 사회제도와 공공서비스 참여, 이주민으로 인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수용/조정하는 방식임. 사회적 포용성은 이주민의 주요 사회제도와 공공서비스 참여가 얼마나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둘은 상호보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공공서비스는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공공서비스 접근성은 사회적 포용의 첫 단계이자 사회통합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임. 그러나 외국인 주민의 주요 사회제도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은 체류 자격과 국적 등에 따라 법·제도에 의해 위계화되어 있고,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

○ 다만, 지방정부는 관내 외국인 주민이 적응과 정착을 넘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 필요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사회서비스의 관점에서 재량껏 추진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경상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실질적 공공서비스 접근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외국인 주민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정책 재구조화

○ 경남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26년)은 총 69개 과제, 32,788.7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음. 외국인 주민 증가와 구성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은 기존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중심의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산업인력 유치,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지원사업을 강화함

○ 이는 중앙정부의 이민정책 기조전환 이전의 성별로 이원화된 다문화 가족정책, 산업인력 유치/관리 정책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변화하는 정책 내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

책 구조를 유지/관리할 시, 외국인 주민 다양성 증가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도 차원에서 외국인 주민의 체류 자격에 따라 분절적 대응을 넘어 종합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 대상 확대 및 보편적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추진해야 함

□ 이주민 밀집지 중심 정책 추진

○ 경남의 '24년 이주배경인구는 168,121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 충남에 이어 전국 5위 규모이자 비수도권에서는 2위 규모로 형성되어 있음. 경남 이주배경인구는 제조업 분야의 산업인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남성 개인 단위 이주민 위주지만, 중앙정부의 체류 자격 개편에 따라 동반가족 초청, 국적 취득 가능성 등이 열려 있어, 가족 단위 외국인 주민 증가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가족 단위로의 이동 추세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음. 최근 10년간 경남의 이주민 인구는 15~19세 189.8%, 10~14세 177.4%가 증가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65세 이상도 123.4% 증가함. 체류 자격 구성도 비전문취업(E-9) 32.6%, 특정활동(E-7) 10.2%로 전국 15.6%, 3.8%를 크게 웃돌아 산업인력 유입이 가족 동반과 정주로 이어지는 경로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경남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님. 절대 규모로 보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에 경남 외국인 주민의 74.5%가 살고 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 민족공동체가 형성되어 도시 경관 변화와 정책 지원 대상 외국인 주민 확대를 주도하고 있음

○ 그러나, 외국인 주민의 절대 규모와 지역 주민등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김해, 거제, 밀양, 통영, 사천, 함안이 외국인 주민 규모와 비율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분류됨. 또한, 밀양, 사천, 함안은 인구 감소(관심) 지역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이 가능한 지역이라 가족 단위 이주민 증가가 예견됨. 경상남도는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경남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 외국인 주민은 전반적으로 한국/경남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놀라움과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출신국에서 경험한 공공서비스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주로 도로, 교통, 전기, 공공 와이파이, 공중화장실, 공원 등의 사회 기반 인프라의 정확성, 지속성, 청결성, 안전성 등에 대한 것임

○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각론으로 들어가 외국인 주민의 생활세계에서 어떤 공공서비스를 이용해 봤는지, 이용 경험은 어땠는지,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공공서비스 수요는 어떤지 등에 대해 조사했고, 주요 분석 결과는 표 〈V-1〉에 제시함

구분	조사·분석 결과	정책 시사점
공공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 이용 경험은 주민 편의, 민원 행정, 이주민 지원, 체류 자격 등의 순임 ◦ 한국어, 체류 자격, 가족 유무 등이 공공서비스 이용 주요 영향 변수임 ◦ 공공서비스 미이용의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임 ◦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를 얻음	◦ 한국어교육 및 정책 홍보 강화 ◦ 보편적 행정서비스 기관 활용
공공서비스 도움 정도	◦ 도움 체감도는 주민 편의, 민원 행정, 보건의료, 이주민 지원, 교육 등의 순으로 높음. 복지형 서비스의 도움 체감도가 높게 나타남 ◦ 성별, 한국어, 체류 자격, 가족 유무, 근로 여부 등이 주요 영향 변수임 ◦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 '제출 서류 많고, 신청 절차 복잡', '언어 소통 어려움' 등임 ◦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정보 및 다국어 안내 강화'임	◦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력 기능 강화
공공서비스 이용 시 차별 경험	◦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46.4%가 차별, 무시, 부당대우 경험함 ◦ 차별은 담당 직원/공무원과 공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받았다고 인식함 ◦ 차별을 인식해도 주로 참았고, 참은 이유는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임 ◦ 성별, 한국어, 체류 자격에 따라 차별 대응 방식이 달랐음	◦ 상호 문화 이해 교육 다각화 ◦ 창구형 서비스 업무 매뉴얼 구축
공공서비스 수요	◦ 공공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아동·청소년 자녀 등임 ◦ 정책 수요는 이주민 지원, 취업/고용, 보건의료 등의 순임 ◦ 이주민 지원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교육'임 ◦ 취업/고용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자격증/직업훈련/취업 교육'임 ◦ 보건의료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진료 시 통·번역 지원'임 ◦ 가족 단위 정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양육 지원은 체류 자격에 묶여 있음	◦ 공공서비스 대상과 영역 확대

한국어 교육 서비스	◦ 한국어 역량과 토픽(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등급은 정비례함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수강자가 적은 주요 이유는 인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서임 ◦ 77.8%가 한국어 공부를 추가로 할 의향이 있었고, 학교와 이주민 지원 기관에서 대면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함 ◦ 한국어를 충분히 잘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공부 의향이 없는 이유는 '불편함이 없어서'인데, 의사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다는 집단이 상당함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한국어 학습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
경남 거주 의향 및 사회자본	◦ 삶의 만족도는 3.1점/4점으로 한국어, 근로 여부 등에 따라 다름 ◦ 90.1%가 경남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영구 거주 희망자도 46.2%임 ◦ 34.3%는 영구 거주를 위해 영주/국적 취득을 희망하나, 51.3%가 체류 자격 변경에 관한 결정은 유보함 ◦ 사회적 관계망은 출신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등의 순으로 형성	◦ 사회적 포용성 관점의 사회통합정책 추진 필요
경제활동 특성	◦ 종사상 지위는 전일제, 시간제/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순임 ◦ 여성은 한국어 역량이 뛰어남에도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취약성이 중첩된 집단으로 이중고를 겪음 ◦ 근로 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26.6%임. 이는 사회보험 가입과 유관함 ◦ 고용 불안정이 사회보험 배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발생시키며, 건강보험(지역 가입자) 부담은 체류 불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큼	◦ 이주여성의 일자리 지원 계획 필요 ◦ 취약/위기 상황 외국인 주민 지원 계획

[그림 Ⅴ-1] 주요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2. 정책 제언

❍ 본 장은 앞 장에 기술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기반 마련

□ 이민정책 전담 부서 신설

❍ 경남의 외국인 주민 정책은 여성가족과가 총괄하고 있으나, 실제 관련 업무는 산업인력, 보육/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안전, 인권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음. 외국인 주민 정책의 수요는 가족 동반과 장기 정착이 증가하면서 초기 적응 지원을 넘어 가족 특성별, 생애주기별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할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큼

○ 이민정책 전담 조직은 도정 전반의 정책 조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 직속 또는 기획·조정 기능이 있는 위치에 과급의 '이민정책담당관' 또는 '이민정책과' 신설을 제안함. 장기적으로 외국인 주민 규모 변화, 현안의 복잡성 그리고 조직 여건에 따라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임

주요 사례

지역	실/국	과	팀
서울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 외국인이민정책팀 ◦ 인재유치팀 ◦ 유학생지원팀 ◦ 특화사업팀
		다문화담당관	◦ 정주환경개선팀 ◦ 외국인주민팀 ◦ 다문화지원팀
경기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 이민사회정책팀 ◦ 이주노동권익팀 ◦ 이민유치전략팀
		이민사회지원과	◦ 이민사회통합팀 ◦ 이민체류지원팀 ◦ 다문화가족지원팀
부산	기획관	인구정책담당관	◦ 인구정책팀 ◦ 외국인정책팀 ◦ 다문화지원정책팀
충남	청년여성국	외국인정책과	◦ 외국인정책팀 ◦ 외국인지원팀 ◦ 다문화지원팀

출처: 저자 작성

□ 경남 외국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경상남도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6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계획에 맞춰 부서별 사업을 취합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경남의 산업구조, 시군별 외국인 주민 분포, 가족 동반과 장기 정착 증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경남형 외국인 주민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특히 경남은 외국인 주민의 66.4%가 취업이나 학업 등 특정 활동의 유지 여부에 따라 체류에 영향을 받는 조건부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주배

경 아동·청소년과 동반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력 유치, 체류 안정, 가족생활, 공공서비스 접근 및 지역사회 참여를 하나의 정책 경로로 연결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에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 주민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계획 수립으로 구체화/체계화하지는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성과 목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경남 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정례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조례 개정(안)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현행	개정(안)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7.〉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7.7.〉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과 시기 3.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7.7.〉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출처: 저자 작성

주요 사례

지역	자체 계획	주요 특징
서울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2024~2028)	◦ 글로벌 인재 유치와 산업인력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표함 ◦ 인재 유치, 취·창업, 정착, 사회통합을 하나의 계획에 포함하되, 경제·산업 정책적 성격이 비교적 강함
경기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2021~2025)」	◦ 전국 최초 광역 단위 이민사회국을 설치하고, 계획/조례/전담조직/지원 기관을 연계함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	◦ 행정 추진체계, 인권 보장, 현장 전달체계 구축이 강조됨
인천	제1차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 (2024~2028)」	◦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으로 설정함 ◦ 정착, 소통, 인권, 참여가 균형을 이루며, 상호문화와 주민참여의 성격이 강함
경북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 인구감소와 지역산업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 주민의 유입-교육-취·창업-정착-사회통합을 연결한 전주기적 정책을 설계함 ◦ 지역형 비자, 산업·대학 연계 등 지역주도 이민정책의 성격이 강함

출처: 저자 작성

□ '경남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체'(가칭) 구성 및 운영

○ 경남은 체류 자격별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 단체, 기관 등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외국인 주민 관련 현안의 복합성, 이들의 생애주기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경상남도가 주축이 되어 지역의 유관 센터, 단체, 기관, 대학 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장/실무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사업화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지원 기관 간의 협업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함

□ 경남 외국인 주민 생활 실태에 대한 정례 조사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하는 행정통계는 외국인 주민의 규모, 국적, 체류 자격 등 인구학적 현황 파악에는 유용하나, 공공서비스 인지, 이용 경험, 이용 장벽, 차별 경험, 가족의 정책 수요 및 정착 의향 등 생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본 연구는 경남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으나, 일회성 조사로 인구구조와 정책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책 시행 전후의 성과를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고 정책을 수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정책 성과를 적확한 분석 근거에 기반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가 필요함

○ 이에 3년 주기의 '경남 외국인 주민 생활 실태조사(가칭)' 추진을 제안함. 조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조사 내용, 데이터 관리, 결과 공개, 정책 반영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실태조사는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으나(§제5조2항2호), 상술한 바와 같이 내용을 보강하여 별도 조항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조례 개정(안)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현행	신설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7.〉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7.7.〉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혼인, 자녀, 학력, 체류 자격 등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취업 상태, 근로 여건,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 양육/교육, 가족부양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 갈등 등 가족 문제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공공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현황과 실태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출처: 저자 작성

주요 사례

◦ 서울시-서울서베이



◦ NYC-이민자 연차보고서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 뉴욕시 누리집(nyc.gov)

□ 다국어 행정서비스 표준 마련

○ 본 조사에서 외국인 주민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원은 '정보 및 다국어 안내 강화'였으며, '실시간 통·번역 지원' 요구도 높게 나타남.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 역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확인됨

○ 다국어 안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규정되어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영역에서 제한적 언어만 제공되고 있음. 현재 다국어 안내는 개별 부서나 시군, 위탁기관의 필요에 따라 다른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형편이라, 번역의 품질, 정보의 최신성에도 차이가 있음.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와 직결되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에 「경상남도 다국어 행정서비스 제공 지침」(가칭) 마련을 제안함. 도를 비롯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함. 정보의 중요성, 이용 빈도에 따라 다국어 제공 수준을 ①필수(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②우선(이용 빈도 높은 민원 서식, 보육/복지/교육 서비스 등), ③선택(일반 행사, 정책 홍보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중요도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함

□ 다국어 재난안전정보 제공체계 구축

○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이나, 한국어로 발송되는 재난안전문자는 외국인 주민이 재난의 유형과 발생지역, 대피 방법 및 행동 요령을 즉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행정안전부가 Emergency Ready App의 재난문자 지원 언어를 22개로 확대함에 따라[14] 경남은 국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지역별 재난/대피 정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경남 외국인주민 다국어 재난안전 알림서비스(가칭)'을 구축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천후, 감염병, 사고 등 주요 재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표준문안을 마련하고,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은 'K-link 경남 번역단'의 전문 통·번역사가 번역/검수하

1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7.23.) 외국인의 재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국어 재난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록 하며, 이외 내용에 대해서는 AI를 활용할 수 있음. 한편, 수신자 풀은 외국인 주민 지원 기관, 지역 출입국·외국인 관서,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다국어 재난안전정보 수신 신청과 언어 수요를 함께 조사하여 구축할 수 있음

□ 공무원/현장 인력 전문성 강화

○ 본 조사에서 외국인 주민의 46.4%가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차별, 무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담당 직원과 공무원이 주요 대상으로 지목됨. 이는 개인의 태도뿐 아니라 체류 자격별 서비스 자격, 외국 서류 확인, 통역 연결 및 기관 간 의뢰 절차에 대한 일선 인력의 경험과 지식 부족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서비스의 실질적인 접근성은 제도 자체보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보건소·학교·고용기관 직원, 이주민 지원 기관의 상담 인력 등 일선 종사자의 판단과 대응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회성 다문화 이해 교육을 넘어 외국인 주민 관련 직무 중심 교육이 필요함

조례 개정(안)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조항 신설

(공무원 대상 다문화포용교육 의무화)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및 소속 기관 공무원이 외국인주민 정책을 이해하고 포용적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문화포용도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의 권리와 법적 지위
2. 차별 방지와 포용적 행정에 관한 이해
3. 다문화 갈등 예방 및 중재 방법
4. 이민사회로서 경상남도의 다양성·인권 가치
5.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지식 및 직무 역량

③ 교육은 신규 임용 시 기본교육과 재직자 정기교육(연 1회 이상), 5급이상 승진관리자과정으로 구분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기관 위탁교육, 실습형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출처: 저자 작성

2) 외국인 주민 정보 접근성 지원 강화

□ 공공형 통번역 서비스 'K-link 경남' 확대

○ 외국인 주민이 행정, 의료, 교육, 복지, 법률, 노동 및 재난안전 분야의 공

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언어장벽은 서비스 신청과 이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임. 가족이나 자녀, 지인에게 통역을 의존하는 경우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되거나, 민감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한편, 미성년 자녀가 과도한 심리·정서적 부담을 느끼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주요 사례





출처: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누리집

○ ‘K-link 경남’은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통·번역 인력풀을 활용해 의료, 법률, 관광, 산업안전 등 공공영역의 통·번역 수요에 대응함으로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지원과 함께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통번역 수요 증가 실태를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K-link 경남’은 ①생활 통·번역과 ②전문 통·번역으로 구성함

- 생활 통·번역 파트는 기존에 추진하는 통·번역 서비스, 본 연구가 제안한 「경상남도 다국어 행정서비스 제공 지침」(가칭)에 따른 필수, 우선, 선택 정보의 다국어 번역을 전담함. 다만, 경상남도의 지리적 범위와 통역 수요 언어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전화/영상 통역, 대면 통역 등 통역 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함

- 전문 통·번역 파트는 의료, 노무, 법률, 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 강사, 안전보건 통역 강사), 교육(이중언어 강사) 등으로 구성해 각 영역에서 통·번역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함. 이들은 언어 외에도 문화와 법·제도 차이를 통역하는 전문가로 전문적 자격 취득 및 그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함

○ 경남가족센터는 K-link 경남의 광역 운영기관으로서 통·번역 수요 접수, 인력 배정, 교육, 품질관리, 실적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함. 통·번역 인력은 상근 핵심 인력과 시간제 인력으로 이원화하여 반복적인 업무와 수요가 많은 언어는 상근 인력이 담당하고, 수요가 적은 언어와 비정기적 업무는 시간제 인력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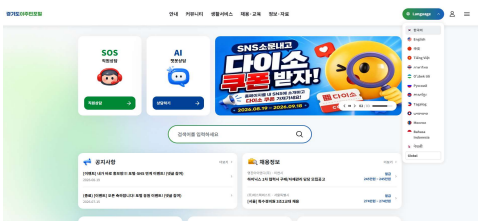
❑ 다국어 통합 정보 플랫폼 ‘경남 생활’(가칭) 구축

○ 외국인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뿐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자격요건, 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정보제공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외국인 주민은 체류 자격별, 국적별, 자녀 연령별 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 사업 목록만으로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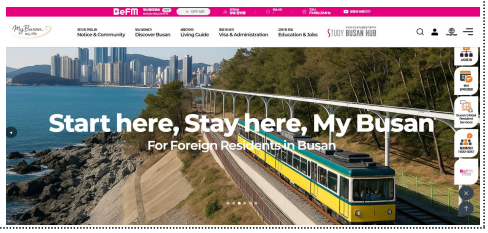
○ 외국인주민 대상 정보가 도, 시군, 교육청, 출입국·외국인 관서, 고용노동지청,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서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적절한 기관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외국인 주민 지원 기관이 생활 안내와 지역별 지원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도와 시군의 공공서비스 정보까지 연계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체계로 확대가 필요함

주요 사례

◦ 경기도이주민포털



◦ 마이부산



○ 즉, 정확한 최신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프론트 페이지를 넘어 상세 페이지의 정보까지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모든 층위에 대한 번역이 제공되도록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행정 용어와 복잡한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비용, 처리 기간 등을 외국인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과 서비스 신청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이어서 더 궁금한 점은 'K-link 경남'으로 전화 연결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정책 홍보 및 정보 확산 거점 다각화

○ 외국인 주민의 정보 이용 경로도 다양함. 온라인 정보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장시간 노동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통해 정보를 얻는 이주배경가족 등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사업장,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외국인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식료품점,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활용한 다중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생활단계 및 상황별 맞춤형 정보 제공

○ 서비스 공급 기관 중심으로 분류된 공공서비스 정보를 외국인 주민의 정착 단계 및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생활 단계별 서비스 안내서'를 책자와 인포그래픽스로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정책 홍보 거점을 통해 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3) 한국어교육 접근성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사전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어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운영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 농어촌이나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의 학습자는 장거리 이동과 수강 대기 등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 외국인 주민 규모와 교육 수요, 기존 운영기관의 정원 및 접근성을 분석하여 운영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하고, 적격 후보 기관을 발굴

해 법무부 공모 신청을 지원하는 한편,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와 법무부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추가 지정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2년 주기로 선정하는데, 최근 선정은 2024년 11월에 선정됨. 2025~2027년 지정 결과에 따르면, 경남은 2개 거점 운영기관(총 45개), 14개 일반운영기관(총 340개)이 선정됨. 지역별 분포를 보면 창원 6개소, 진주 4개소, 사천 1개소, 거제 2개소, 함안 1개소로(법무부 공고 제2024-516호)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운영기관을 확대하더라도 장시간·교대근무, 자녀 돌봄 및 이동 거리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제 참여로 이어지기 어려움. 특히 제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맞게 교육 시간과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 ‘경남, 한글 나르샤(가칭)’ 한국어 교실 운영

○ 일부 장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직장과 가족, 모국인 공동체 및 번역 앱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있어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적응은 의료기관 이용, 행정 절차, 자녀 교육, 노동권 보호 및 긴급 상황 대응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시험이나 자격 취득보다 학습 동기 형성과 생활 역량 향상에 초점을 둔 ‘경남, 한글 나르샤-말이 통하면 경남 생활이 더 넓어집니다’ 운영을 제안함. 병원 진료, 행정기관 방문, 산업안전, 금융·교통 이용, 자녀 학교와의 소통 등 실제 생활 상황을 중심으로 말하기·듣기와 기초 문해교육을 제공함. 학습자의 기존 생활 경험을 활용한 소규모·체험형 수업을 운영하여 한국어 학습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춤. 한국어는 외국인 주민의 정책 수요가 높았던 취업 교육 및 취업 기회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소양으로 이 교육은 문화적응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음

○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한국어 교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주민 밀집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출석과 학습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디지털 학습포인트제’를 운영함. 최초 한국어 진단과 체험수업 참여, 정규수업 출석, 생활 과제 수행 및 과정 수료에 따라 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지급하여 교육 참여가 지속적인 학습으로 이어

지도록 함

○ 학습 포인트는 지역화폐, 한국어 교재·학습 용품 구입 및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시험 성적만으로 보상하지 않고 출석률, 과제 수행 및 개인별 한국어 향상도를 종합하여 포인트를 지급하며, 과정 수료 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자격시험 준비 과정에 참여할 때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여 후속 학습을 유도함

4) 이주배경 영유아 양육 지원과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단계적 무상보육 추진

○ 조사 결과 외국인 주민의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43.7%였으며, 가족 유형과 체류 자격,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특히,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집단의 이용률이 높아, 입국 초기부터 영유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홍보 및 연계, 부모 교육 등이 필요함

○ 도는 2023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고, 2026년부터 지원 연령을 0~5세로 확대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지원 공백을 해소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주요 사례

지역	지원 연령	월 지원금	대상 및 요건
서울	0~5세	정율 지원형 ◦ 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70%	◦ 서울 소재 어린이집 이용 등록 외국인 아동 ◦ 미등록 체류 아동 제외
경기	0~5세	정액 지원형 ◦ 월 15만 원	◦ 경기 소재 어린이집 이용 등록 외국인 아동 ◦ 도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 폐지/등록 후 즉시 지원 가능
광주	3~5세	전액 지원형 ◦ 월 28만 원	◦ 광주 거주자 ◦ 광주 관내 어린이집 이용 등록 외국인 아동

○ 다만, 현행 지원은 월 10만 원 정액 지원으로, 외국인 주민 가정이 실제 부담하는 보육료 전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외에 각종 추가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지원 대상이 '등록' 외국인 아동이기 때문에, 미등록/인도적 체류 등 체류 취약 상태에 있는 아동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 ❍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보육권 보장, 부모의 취업 유지 및 경제적 안정,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외에도 어린이집 생태계 보호 및 보육의 질 지원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 비용 부담 완화'로 설정하고, 현행 월 10만 원 정액 지원 단계에서 연령별 부모 보육료의 일정 비율 지원을 거쳐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의 단계적 확대를 제안함

□ 다자녀 할인 혜택 적용

- ❍ 경상남도 다자녀 지원 사업인 다자녀 우대 카드,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등은 국적 요건이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주민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질적으로 이용에 배제되고 있음
- ❍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주민 가정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비중이 높음에도 다자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이에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을 다자녀 외국인주민 가정에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신청 자격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태아 포함) 가정의 부모 중 1인으로 되어 있어 90일 이상 경남에 주소를 둔 외국인주민 역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다자녀 입증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외에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취학 전 예비학교 운영

-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주배경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4~8회 과정의 '취학 전 예비학교'를 운영함. 아동에게는 기초 한국어, 교실 생활 및 학교 규칙을 체험하게 하고, 보호자에게는 입학 절차, 학교 알림 확인, 급식·돌봄교실·건강검진 이용 및 교사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안내함. 이는 학부모 간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예비학교는 초등학교 내 빈 교실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중도 입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한국어 능력과 국내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곧바로 학교에 편입학하면서 수업 이해, 또래 관계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편입학 전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단기 예비교육 과정 또는 예비학교 운영이 필요함

○ 예비학교는 본 과정 편입 전 최대 30일로 구성하고,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 학교는 학생이 배정받을 학교 내에 교실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예비학교는 학교생활 한국어, 기초 학습, 수업 참여 방식, 학교 규칙, 또래 관계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함. 아울러, 기존의 한국어 학급 또는 지역 거점기관과 연계한 단기 적응 과정으로 운영하고, 참여 기간에도 배정학교의 학적과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주요 사례

오사카시

전입·편입 이주 배경 아동·학생 초기 면담 대응

⇩

예비학급(pre-school)

- 대상: 초1~중3 아동·학생
- 학습: 1일 5단위, 연속 10일간 총 50단위
- 장소: 공생지원거점
- 담당: 예비학급 일본어 지도자, 예비학급 모어 지도자

하마마쓰시

학습기간	➲ 14일	➲ 1년	➲ 2년	➲ 3년
학습단계	초기 전기단계	초기 후기단계	교과로 이어지는 학습 단계	
지도 목표	◦ 일본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 규칙 이해 ◦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태도 함양	◦ 일본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 심화 ◦ 일본어로 학교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일본어 능력 함양	◦ 교과에서 과제를 진행하고 탐구하며 정리하는 등 다양한 학습활동에 일본어로 참가할 수 있음	

출처: 이혜림·이지영(2025). 경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p192~197.

□ 공교육 진입-교과 학습 연계 지원

○ 이주배경학생 지원의 목표를 단순한 학교 입학이나 일상 한국어 습득이

아니라 ‘한국어로 교과를 학습하고 학교생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 입학·편입 초기에는 예비교육과 기초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학습 한국어와 교과 학습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단계화함.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 규모를 기준으로 한국어 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한국어 학급 지원 기간도 기초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를 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경남 교육청과 협조하여 최소 3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함
- ❍ 담임교사, 한국어 학급 교사, 이중언어강사 및 교과 담당교사가 학생의 한국어와 교과 학습 수준을 공동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학습 계획을 수립함. 모국어가 가능한 강사와 대학생 멘토를 활용하여 수학·과학·사회 등 주요 과목의 핵심 개념을 모국어로 보충 설명하고, 한국어 교과 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한국어 능력은 TOPIK 등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되, 시험 성적 자체보다 학생별 학습 계획 수립과 성취동기 부여에 활용함. 한국어 역량 향상도뿐 아니라 교과 이해도와 기초학력 향상 정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집중된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등에 보육, 한국어, 교과 학습, 진로, 상담 인력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외국인 주민 비율은 높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군지역에는 순회형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5) 외국인 주민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

□ 상주 의료 통·번역 서비스

- ❍ 본 연구에서 외국인 주민은 보건의료 분야의 최우선 정책 수요로 ‘진료 시 통·번역 지원’(41.8%)을 선택함. 일상적인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더라도 증상, 진단 결과, 치료 방법 및 약물 복용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진료를 미루거나 가족·지인에게 통역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의료통역의 경우 ‘K-link 경남’과 연계하여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2차 의료기관 7곳[15]에 상주 통역을 배치해 통·번역 서비스를 홍보하는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상술한 바와 같이 부산의료원의 상주 통역 안내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병·의원 동의서 다국어 번역 지원

○ 병·의원에서는 검사, 시술, 수술, 마취, 수혈, 개인정보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의료용어와 법률적 표현이 많아 외국인 환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이 어려움

○ 외국인 환자가 동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할 경우 치료방법과 부작용, 대안 및 비용 등에 관한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우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분쟁이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개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동의서 번역을 시도한 경우도 있으나, 진료과목별로 수술 종류별로 동의서의 내용이 다르고, 번역한 동의서를 검수하는 단계에서 곤란을 겪기도 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의료/법률 전문가의 검수를 거친 다국어 동의서와 쉬운 설명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무료진료 정보 통합

○ 지역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민간 의료봉사단체, 외국인 주민 지원 기관 등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필요한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도내 무료 진료의 일정, 장소, 대상, 진료 과목, 지원 내용, 통화 가능 언어 및 준비 서류 등을 통합하여 다국어로 번역, 정보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외국인 주민 통합정보 플랫폼(가칭)과 가족센터,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 사업장 및 국가별 공동체 등을 통해 정보를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제안함

15) 보건복지부 지정 경남 포괄 2차 종합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김해복음병원, 진주제일병원, 거붕백병원, 대우병원

□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질병 발생 이후의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의 필요성,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 및 산업재해 예방, 기후 차이에 따른 식습관 관리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확대함. 쉬운 한국어와 그림/영상 중심의 다국어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사업장과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에 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임신 단계별 건강관리, 산전 검사, 고위험 증상, 출산 준비, 산후 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안내하는 산전 교육 운영이 필요함

□ 병원 이용 및 진료 절차 안내

○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주민은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있음. 인식한 차이는 차별로 인지될 수 있고, 또 진료/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 병원에서 이주민이 느끼는 문화 차이는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한 지점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함[16] 특히 이주민은 2차 의료기관 이용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차별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 이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한국생활정보 콘텐츠로 다루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어디가 아프면 어느 병원을 가야 하고, 병원 내원 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인포그래픽스화 하여 홍보/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6) 이주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 확대 지원

□ 다양한 체류 배경 이주여성 생활/문화적응 지원

○ 외국인 주민 지원이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정착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난민, 동반가족 등은 생활/문화

16) 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와 2026.8.11.(화)에 추진한 자문회의 내용에 근거함. “경험상, 이주민 분들은 초진 시, 의사가 지시하는 다양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들은 후,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하는 통상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요. 병원에 오면 바로 치료를 받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적응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 입국 직후 임신/출산을 경험한 경우, 더욱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낄 수 있고, 특정 종교를 가진 경우 한 공간 안에 남성과 같이 있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다양한 체류 배경을 가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주여성 생활적응 과정 운영을 제안함. 출신국과 체류유형이 다양한 선배 이주여성을 생활 멘토로 양성하여 신규 입국 여성과 연결하고, 국가별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주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특화비자 제도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노력

○ 지역특화비자 제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 노동자는 제도의 취지대로 맞벌이가 가능한 상태에서 정주를 기대하며 가족을 초청함

○ 그러나 지역에 여성 일자리, 특히 외국인 여성의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영주권 취득 후 외국인 여성의 일자리가 많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어, 경남의 일부 지역이 지역특화비자를 활용한 비자 회전문 기능을 하는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숙련된 노동자의 유출은 지역사회와 경제 전반에 생산성 하락, 인구 감소,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착을 목적으로 유입된 외국인 주민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포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가령, 당장 노동시장 진입을 하기보다 인적자본 투자가 가능한 여유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 아이돌보미 교육 등 돌봄 영역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음. 김보배 외(2025)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돌봄 영역에서 빈 일자리 발생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 외국인 주민의 노령화는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이중언어 돌봄 노동자를 양성함으로써 도래할 정책 수요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의 한계

○ 이 연구는 경남 지역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인 주민의 경남 지역 사회통합을 위해 공공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음

○ 이 연구는 외국인 주민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우산과 같은 연구로 외국인 주민의 이주 배경 즉, 가족 형태, 체류 자격 등에 따른 특성을 부각하고 그에 맞는 세밀한 정책을 제언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이와 같은 한계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후속 연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외국인 주민의 체류 자격별 연구 가령, 유학생, 고려인 동포, 난민, 미등록 이주민은 체류 자격에 따른 고유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이에 대한 세밀한 정책을 발굴하는 연구가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둘째, 외국인 주민과 관련한 현안 가령, 한부모 이주여성, 이주여성 일자리, 이주 배경 후기 청소년, 인구소멸지역 이주배경 가족 실태 등과 관련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과 관련한 현안 즉, 외국인 주민의 거주 장기화에 따른 사회보장 실태, 경남 외국인 주민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정책의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희영·이화용(2018). 『외국인지원시설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2018 정책연구-1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2026).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2026년 시행계획(안)』.

곽윤경·이병재·김기태·고민경·김경환·김규찬(2021).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연구보고서 2021-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부(2023).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김보배·박지영·오지혜·이정희·이혜림(2025). 『경상남도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연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김철효(2025).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내실화 방안 모색」. 『노동리뷰』, 242, 한국노동연구원.

오경석·박성일·이경숙·최경식·최서리·안은진(2025).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유민봉(2015). 『한국행정학』. 박영사.

유민이·최서리·김경환·이용우·박지환(2025). 『외국인 사회보장체계(공공부조) 개선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25-03). 이민정책연구원.

윤영근·정동재(2021).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2), 23-51.

이규용·김혜순·송영훈·최서리(2018).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정책연구 2018-18).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숙·이혜림·최나현(2023). 『2023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이한숙·김사강·강혜숙·오경석·우삼열(2017).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이혜림(2022). 「경남 다문화가족 생활실태와 지원 방안」. 경남여성가족재단.

이혜림·박재완(201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특성의 변화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7(4). 329-358.

이혜림·이지영(2025). 『경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전기택·김은경·정가원·정다은·심예리(2024). 『2023년 다문화사회통합전략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훈(2022). 공공서비스와 행정법. 유럽헌법연구, 43-64.

정동재·윤영근·염지선(2022). 『데니즌쉽(Denizenship)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김세진·조영관·다카기 게이스케(2023). 주민으로서 외국인의 지위(주민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조영희 외(2021).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최윤정·전기택·김이선·조혜승·동제연·염혜경·서덕희·양계민·최영미(2025).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정호·박미숙(2023).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한혜림·배정은(2023). 부산지역 외국인 주민 생활실태 조사.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Ager, A., & Strang, A. (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166-191.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Bourhis, R. Y., Moïse, L. C., Perreault, S., & Senécal, S. (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6), 369-386.

Cantle, T. (2012). Interculturalism: The New Era of Cohesion and Diversity. Palgrave Macmillan.

Castles, S., de Haas, H., & Miller, M. J. (2014).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5th ed.). Palgrave Macmillan.

Colombo, E. (2015). Multiculturalisms: An overview of multicultural debates in western societies. Current Sociology, 63(6), 800-824.

de Haas, H., Castles, S., & Miller, M. J. (2020).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6th ed.). Red Globe Press.

Garcés-Mascareñas, B., & Penninx, R. (Eds.). (2016). Integration Processes and Policies in Europe: Contexts, Levels and Actors. Springer.

Gidley, J. M., Hampson, G. P., Wheeler, L., & Bereded-Samuel, E. (2010). Social inclusion: Context, theory and practice. The Australasian Journal of University-Community Engagement, 5(1), 6-36.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Oxford University Press.

Groenendijk, K. (2006). The status of quasi-citizenship in EU member states: Why some states have 'almost-citizens'. In R. Bauböck, E. Ersbøll, K. Groenendijk, & H. Waldrauch (Eds.), Acquisition and Loss of Nationality: Policies and Trends in 15 European States, Vol. 1 (pp. 411-429). Amsterdam University Press.

Joppke, C. (2017). Civic integration in Western Europe: Three debates. West European Politics, 40(6), 1153-1176.

Jutvik, K., & Robinson, D. (2020). Permanent or temporary settlement? A study on the short-term effects of residence status on refugee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Comparative Migration Studies, 8, Article 44.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Clarendon Press.

Lesińska, M. (2014). The European backlash against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Journal of Sociology, 50(1), 37-50.

Levitas, R., Pantazis, C., Fahmy, E., Gordon, D., Lloyd, E., & Patsios, D.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Lipsky, M.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Russell Sage Foundation.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OECD (2025).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5. OECD Publishing.

Portes, A., & Rumbaut, R. G. (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avas, E. S. (1987).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Chatham House Publishers.

Silver, H. (2015). The Contexts of Social Inclusion (DESA Working Paper No. 14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nding, G. (2014). A Precariat Charter: From Denizens to Citizens. Bloomsbury Academic.

Tonkiss, K., & Bloom, T. (2015). Theorising noncitizenship: Concepts,

debates and challenges. Citizenship Studies, 19(8), 837-852.

Turner, B. S. (2016). We are all denizens now: On the erosion of citizenship. Citizenship Studies, 20(6-7), 679-692.

Williamson, A. F. (2018). Welcoming New Americans? Local Governments and Immigrant Incorpor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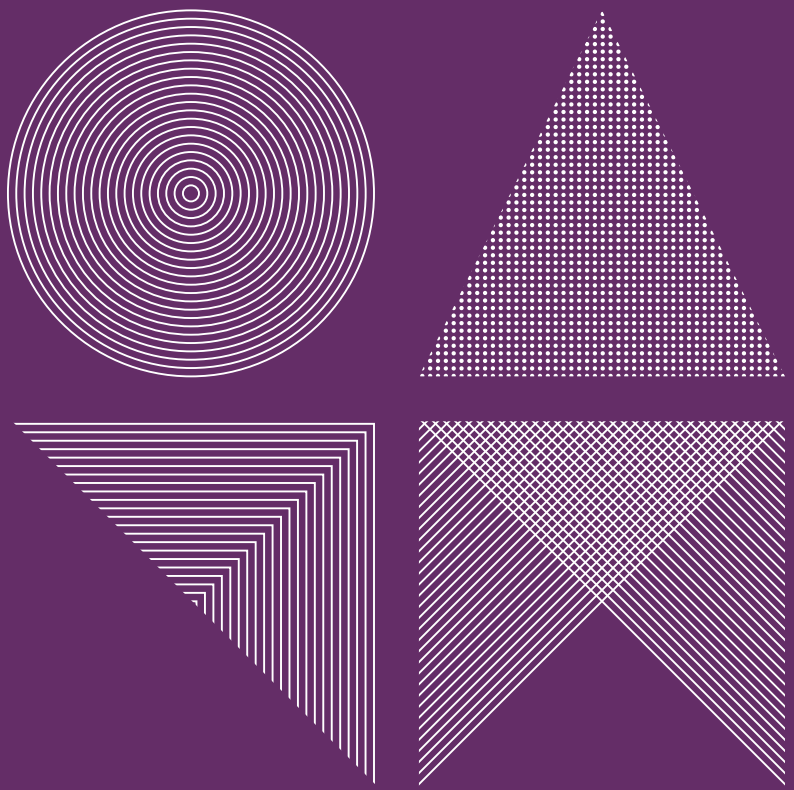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6.8.4.).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사회보장기본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5년 12월호.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4.11.1.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부록

부록1. 설문조사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 이주배경가족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이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정답이 없기에, 평소 귀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지의 응답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외국인 주민으로서 경상남도에 살면서 경험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6.05.

연구기관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 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연구책임자 : 정책연구부 이혜림 연구위원	**담당자** : 여론조사1본부 2부 정집훈 책임
연락처 : 055-713-7061	**연락처** : 02-3014-1067

//상기 내용 설문에 모두 제시 필요//

//[응답자 스크리닝 문항] //

선문1. 당신은 **현재 경상남도**에 살고 있습니까? **[단수]**

1. 예
2. 아니요 **->선정탈락**

선문2. 당신이 **경상남도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

1. 거제시
2. 김해시
3. 밀양시
4. 사천시
5. 양산시

6. 진주시
7. 창원시
8. 통영시
9. 거창군
10. 고성군
11. 남해군
12. 산청군
13. 의령군
14. 창녕군
15. 하동군
16. 함안군
17. 함양군
18. 합천군

// 쿼터1. 거주지역
1. 밀집지역(1,2,5,6,7)
2. 그 외 지역(3,4,8,9,10,11,12,13,14,15,16,17,18)

선문3.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오픈]

1. ( )년 [로직: 1950 to 2020]

// 2009년 이상 응답시 선정탈락 //

선문4. 당신은 **언제부터 경상남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까? [오픈]

1. ( )년 [로직: 선문3 응답년도 to 2026]
2. ( )월 [로직: 1 to 12]

// 2025년 10월 초과(2025.11.~2026.6) 응답자 선정탈락 //
[로직: 2026년은 6월까지만 응답 가능]

선문5.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단수]

1. 여성
2. 남성

선문6.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단수]**

1. 네팔
2. 동티모르
3. 몽골
4. 미얀마
5. 방글라데시
6. 베트남
7. 스리랑카
8. 인도네시아
9. 중국
10. 필리핀
11. 태국
12. 캄보디아
13. 파키스탄
14. 우즈베키스탄
15. 카자흐스탄
16. 키르기스스탄
17. 러시아
18. 기타( )

선문7. 당신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단수]**

1. 미혼
2. 기혼(사실혼 포함)
3. 이혼
4. 별거
5. 사별

선문8. 다음 중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
1. 혼자 살고 있음 [중복선택불가] -〉 선문11
2. 배우자(사실혼 포함)
3. 자녀
4. 손자/손녀
5. 나의 형제/자매
6. 배우자의 형제/자매
7. 나의/배우자의 부
8. 나의/배우자의 모
9. 친척
10. 가족 외의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

// 쿼터2. 가족유형
1. 독신형: 선문8=1
2. 가족형: 선문8=2~9 중 1개 이상 선택 & 선문8=10 미선택
3. 공동 거주형: 선문8=10 선택 & 선문8=1~9 미선택

선문9.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유형별 명 수**를 응답해주세요. [복수]
1. 아들: ( )명 [0 to 5]
2. 딸: ( )명 [0 to 5]
3. 손자: ( )명 [0 to 5]
4. 손녀: ( )명 [0 to 5]
5. 나의 형제/자매: ( )명 [1 to 5]
6. 배우자의 형제/자매: ( )명 [1 to 5]
7. 나의/배우자의 부: ( )명 [1 to 2]
8. 나의/배우자의 모: ( )명 [1 to 2]
9. 친척: ( )명 [1 to 5]
10. 가족 외의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 ( )명 [1 to 10]

[로직: 선문8에서 응답한 보기 항목만 노출]
[로직: 선문8에서 3번 선택 시 1. 아들 or 2. 딸 1명 이상 필수 선택]
[로직: 선문8에서 4번 선택 시 3. 손자 or 4. 손녀 1명 이상 필수 선택]

[로직: 선문8에서 2~9 중 하나라도 선택한 경우만 응답]
선문10. 함께 사는 **가족 중 한국사람**이 있습니까? [단수]
1. 예
2. 아니요

[카테고리(선문11) : ※ 귀하의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선문11. 현재 당신의 **체류 자격**은 무엇입니까? [단수]

1. 비전문취업(E-9)
2. 방문취업(H-2)
3. 특정활동(E-7)
4. 계절근로(E-8)
5. 재외동포(F-4)
6. 방문동거(F-1)/동반(F-3)
7. 영주(F-5)
8. 결혼이민(F-6, F-2-1)
9. 유학(D-4)
10. 거주(F-2, 단 F-2-1제외)
11. 기타(G-1)
12. 체류 자격 없음/미등록
13. 귀화

// 쿼터3. 체류자격
1. 조건부 거주(1,2,3,4,6,9,11)
2. 한시적 거주(5,10)
3. 영구적 거주(7,8)
4. 기타자격 거주(12)
5. 귀화자(13)

선문12. 당신은 **지난 1년간(2025.06.~2026.05.)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단수]

1. 예
2. 아니요

[카테고리(선문12):

공공서비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나라(정부, 경상남도, 시/군)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지원 및 서비스가 모두 공공서비스입니다.

[비자 및 일자리] 출입국사무소/비자센터(비자 연장 등), 노동부/고용센터(일자리 찾기 등)
[서류 발급 및 지원] 시청/군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세무서(세금신고, 연말정산 등)
[외국인 정착 지원] 외국인주민(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센터(한국어교육, 상담 등)
[건강 및 보육/교육] 보건소, 국공립 어린이집, 학교
[안전 및 권리 보호] 경찰서, 소방서, 고용노동지청(임금 체불 신고 등)
[기타 생활 편의] 도서관, 복지관, 공공 체육시설, 운전면허시험장, 공공자전거 이용 등

]

선문12-1. 경상남도에서 다음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stepbystep]

공공서비스 유형	이용 경험	
	있음	없음
	1	2
1.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외국인주민(근로자)지원센터, 가족센터, 영진코리아센터 등)		
2.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3. 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 (출입국사무소, 하이코리아(Hi Korea),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경남비자센터 등)		
4. 민원 행정 서비스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민원실, 정부24 등)		
5.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마산의료원, 보건소 등)		
6. 납세 관련 서비스 (세무소, 국세청 홈택스 등)		
7. 안전이나 사법 관련 서비스 (경찰서, 소방서, 산업안전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보호시설, 범죄피해자보호시설 등)		
8.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9. 교육 관련 서비스 (유치원, 학교, 교육청 등)		
10.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임신·출산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서비스 유형	이용 경험	
	있음	없음
	1	2
11. 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 체육시설, 지역화폐(제로페이), 공공자전거 등)		

// 선문12-1에서 모두 '2. 없음' 선택시 선정탈락 //

[로직: 선문12-1=2 항목만 로테이션 제시]

선문12-2-1~11. **공공서비스 중** [제시: 선문12-1=2 항목]의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주세요. [복수][maxrank:2]

1.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2. 서비스가 필요 없어서
3. 언어 장벽으로 서류나 절차를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어서
4.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5. 직장근무시간과 공공서비스 운영시간이 겹쳐서
6. 체류자격 때문에 서비스 이용 접근 권한이 없어서
7. 체류자격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

[카테고리 : ※ 다음은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로직: 선문12-1=1 항목만 제시]

문1. 당신은 경상남도에서 다음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음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충분한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척도]

공공서비스 유형	도움 정도						
	도움을 받지 못함	<-	-	-	-	->	충분한 도움을 받음
	1	2	3	4	5	6	7
1.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외국인주민(근로자)지원센터, 가족센터, 영진코리아센터 등)							
2.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3. 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 (출입국사무소, 하이코리아(Hi Korea),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경남비자센터 등)							
4. 민원 행정 서비스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민원실, 정부24 등)							
5.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마산의료원, 보건소 등)							
6. 납세 관련 서비스 (세무소, 국세청 홈택스 등)							
7. 안전이나 사법 관련 서비스 (경찰서, 소방서, 산업안전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보호시설, 범죄피해자보호시설 등)							
8.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서비스 유형	도움 정도						
	도움을 받지 못함	<-	-	-	-	->	충분한 도움을 받음
	1	2	3	4	5	6	7
9. 교육 관련 서비스 (유치원, 학교, 교육청 등)							
10.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임신·출산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11. 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 체육시설, 지역화폐(제로페이), 공공자전거 등)							

[로직: 문1=1~3 항목만 로테이션 제시]

문1-1. 당신은 경상남도에 살면서 **공공서비스**인 [제시: 문1=1~3 선택한 항목]를 이용했으나 만족할 만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주세요.

[복수][maxrank:2]

1.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2.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3. 제출 서류가 많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4.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서
5.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직원이 불친절해서
6. 종교, 음식, 관습 등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문2. 당신은 이용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주세요. [복수][maxrank:2]

1. 배우자, 가족, 친척이 알려줘서
2. 한국인 친구, 회사동료, 지인이 알려줘서
3. 외국인 친구(출신국인 포함), 회사동료, 지인이 알려줘서
4. 이주민 지원 관련 센터를 통해서
5. SNS(Youtube, Instagram, Facebook 등) 검색으로
6.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7.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문3. 당신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주세요. [복수][maxrank:2]

1. 도움 없이 혼자 이용 가능 [중복선택불가]
2. 정보 및 다국어 안내 강화(이용 기관 정보 및 다국어 절차 설명 등)
3. 현장에서의 실시간 통·번역 지원
4. 시간 및 장소 접근성 확대(야간·주말 운영,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 등)
5.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편의성 제고(비대면 신청 및 상담 등)

6. 외국인에 대한 친절하고 차별 없는 응대

문4. 당신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의 가족 구성원 중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복수][rank:3]

1. 본인
2. 배우자(사실혼 포함)
3. 영유아(만0~6세) 자녀(손자/손녀)
4. 아동·청소년(만7~19세) 자녀(손자/손녀)
5. 나의 형제/자매
6. 배우자의 형제/자매
7. 나의/배우자의 부
8. 나의/배우자의 모
9. 친척

[로직: 선문8에서 응답한 보기 항목만 노출]
[로직: 선문8=3 or 4 선택 시에만 문4=3 & 4보기 제시]
[로직: 선문8=1 선택시 문5로 이동]
[로직: 선문8=10만 선택시 문5로 이동]

문5.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외국인 또는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단수]

1. 있음
2. 없음 ->문6

문5-1. 누구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주세요. [복수][maxrank:3]

1. 담당 직원/공무원
2. 버스 기사
3.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학부모
4.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5.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
6. 기타( )

문5-2. 차별이나 무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주세요. [복수][maxrank:3]

1.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2. 상대방에게 말투와 행동의 수정을 요구했다
3. 가족, 친구와 상의했다
4. 상담 기관, 센터 등에 문의했다
5.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차별 시정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6. 인터넷 게시판, 카페, SNS 등에 글을 올렸다
7. 참았다 ->문5-2-1

문5-2-1. 차별이나 무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당신이 **참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주세요.
[복수][maxrank:2]

1.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2. 체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3. 체류 자격 변경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확대될까 봐
4. 대응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5. 한국말을 잘 못해서

문6.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서비스를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rank:2]

1.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2.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3.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4.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

5.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6. 기타

[로직: 문6에서 1순위로 선택한 대분류에 해당하는 소분류만 제시]

문6-1-1~6. 첫 번째로 **[제시: 문6에서 선택한 첫 번째 항목]**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서비스를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rank:2]**

공공서비스 대분류	공공서비스 소분류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1. 한국어 교육 2. 한국 사회 이해 교육 3. 한국 정착 초기 지원 4. 생활정보 지원 및 고충 상담 서비스 5. 이주민 교민회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6. 내국인 대상 외국인 관련 인식 개선 교육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7. 자격증 취득/직업훈련/취업 교육 8. 취업 관련 정보제공/취업 기회 확대 9. 사업체 내 애로/갈등 조정 지원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10. 임신·출산 지원 11. 진료 시 통·번역 지원 12. 처방전, 약 봉투, 주의 사항 문구의 다국어 병기 13. 외국인 밀집지, 사업장 등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확대 14. 예방과 자가 관리에 대한 건강 상식 교육 15.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	16. 자녀 보육비, 교육비 지원 17. 자녀 한국어 학습 지원 18. 자녀 모국어 학습 지원 19. 한국어 학습 중인 자녀의 교과 학습 지원 20. 자녀 진로/진학 교육 21. 부모 상담/교육(자녀 양육, 한국 교육 제도 등)

공공서비스 대분류	공공서비스 소분류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22. 영유아 관련 지원 23.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 24. 노인 관련 지원 25. 장애인 관련 지원 26. 가정폭력, 젠더폭력 등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기타	27. 통·번역 서비스 28. 온라인 서비스 다국어 지원 29. 정책 홍보, 주민 편의 안내 문구 등 다국어 병기 30.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학부모회, 자원봉사회,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로직: 문6에서 2순위로 선택한 대분류에 해당하는 소분류만 제시]

문6-2-1~6. 두 번째로 [제시: 문6에서 선택한 첫 번째 항목]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서비스를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rank:2]

공공서비스 대분류	공공서비스 소분류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1. 한국어 교육 2. 한국 사회 이해 교육 3. 한국 정착 초기 지원 4. 생활정보 지원 및 고충 상담 서비스 5. 이주민 교민회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6. 내국인 대상 외국인 관련 인식 개선 교육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7. 자격증 취득/직업훈련/취업 교육 8. 취업 관련 정보제공/취업 기회 확대 9. 사업체 내 애로/갈등 조정 지원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10. 임신·출산 지원 11. 진료 시 통·번역 지원 12. 처방전, 약 봉투, 주의 사항 문구의 다국어 병기 13. 외국인 밀집지, 사업장 등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확대 14. 예방과 자가 관리에 대한 건강 상식 교육 15.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공공서비스 대분류	공공서비스 소분류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	16. 자녀 보육비, 교육비 지원 17. 자녀 한국어 학습 지원 18. 자녀 모국어 학습 지원 19. 한국어 학습 중인 자녀의 교과 학습 지원 20. 자녀 진로/진학 교육 21. 부모 상담/교육(자녀 양육, 한국 교육 제도 등)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22. 영유아 관련 지원 23.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 24. 노인 관련 지원 25. 장애인 관련 지원 26. 가정폭력, 젠더폭력 등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기타	27. 통·번역 서비스 28. 온라인 서비스 다국어 지원 29. 정책 홍보, 주민 편의 안내 문구 등 다국어 병기 30.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학부모회, 자원봉사회,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한국어교육 관련 서비스//

[카테고리 : ※ 다음은 **한국어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 당신은 지금까지 한국, 본국, 또는 그 외 국가에서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단수]

1. 예
2. 아니요 ->문8

문7-1. 한국어는 **어떤 방식**으로 배웠습니까? [단수]

1. 대면교육
2. 온라인 교육
3.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 혼합

문8.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단수]**

> **※ 취업용 EPS-TOPIK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세요.**

1. 예
2. 아니요 **->문9**

문8-1. 당신은 **마지막**으로 본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몇 급**을 받았습니까?

[단수]

1. 1급
2. 2급
3. 3급
4. 4급
5. 5급
6. 6급
7. 불합격

문9. 당신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척도]**

	매우 어려움	약간 어려움	거의 없음	전혀 없음
	1	2	3	4
1. 말하기				
2. 듣기				
3. 읽기				
4. 쓰기				

[카테고리(문10~문10-1-1):

>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법무부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문10. 당신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단수]**

1. 예
2. 아니요 **->문11**
3. 사회통합프로그램에(KIIP) 대해 모름 **->문11**

문10-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단수]

1. 예
2. 아니요 ->문11

문10-1-1. 가장 **최근**에 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시험**에서 **몇 단계**를 받았습니까? [단수]

1. 0단계
2. 1단계
3. 2단계
4. 3단계
5. 4단계
6. 5단계

문11. 지금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더 공부할 생각**이 있습니까? [단수]

1. 예 ->문11-1
2. 아니요 ->문11-2

문11-1. 어디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원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주세요. [복수][maxrank:3]

1. 학교(대학, 어학원 등)
2. 외국인주민(근로자) 지원센터
3.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동포체류지원센터
5. 한국에 있는 민간기관(학원, 종교단체 등)
6. 회사(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등)
7. 혼자 공부(인터넷(AI) 학습, 독학 등)
8. 한국어 멘토링(개인지도)

[로직: 응답 후 문12으로 이동]

문11-2. 한국어 공부를 **더 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지금도 충분히 잘함
2.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불편함이 없음
3. 배우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문11-2-1

11-2-1. 한국어 공부를 하기 **어려운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단수]

1. 일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음
2. 거리가 멀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곳까지 갈 수가 없음
3.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지만, 신청 희망자가 많아 신청이 어려움
4.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지만, 근처에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별로 없음
5. 기타( )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자본 //

[카테고리 : ※ 다음은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2. 당신은 **경상남도**에 **정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rank:2]

1. 일자리/취업
2. 결혼
3. 학업
4. 사회경제적 인프라
5.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가족/친구의 권유
6. 자녀 교육
7. 모국 커뮤니티, 외국인 지원센터 등의 접근성

문13. 당신은 [제시: 선문4 응답]부터 경상남도에 살기 시작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러면 **언제 처음 한국에 입국**했습니까? [오픈]

1. ( )년 [로직:선문4 연도와 같거나 이전 응답만 가능]

2. ( )월 [로직:1 to 12]

[로직: 선문4(연도&월) 응답보다 이전 연도&월만 응답 허용]
[문구제시: 선문4(연도&월) 응답보다 이후 연도&월 응답시 "[제시: 선문4 응답]부터 경상남도에 살기 시작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한국에 처음 입국한 시기는 그 이전이거나 같은 시기여야 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문14.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경상남도에서 체류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수]

1. 예

2. 아니요 ->문15

문14-1. 당신은 **앞으로 얼마 동안** 경상남도에 체류할 계획입니까? [단수]

1. 1~3년

2. 4~6년

3. 7~9년

4. 10년 이상

5. 영구 거주

문14-2. 당신이 **최종적으로**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체류 자격**은 무엇입니까? [단수]

1. 현재 체류 자격의 기간 연장

2.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영주 자격 변경 제외)

3. 영주 자격 취득

4. 국적 취득

5. 지금은 모르겠다

문15. 당신은 본국에서의 삶과 비교해서 경상남도에서의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척도]

1. 매우 불만족

2. 다소 불만족

3. 다소 만족

4. 매우 만족

문16-1. 당신은 **몸이 아파 도움을 구해야 할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경상남도 지역에서 도움을 받거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유형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1	2	3	4
1. 한국인				
2. 출신국인				
3. 기타 외국인				

문16-2. 당신은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경상남도 지역에서 도움을 받거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유형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1	2	3	4
1. 한국인				
2. 출신국인				
3. 기타 외국인				

문16-3. 당신은 **슬프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경상남도 지역에서 도움을 받거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유형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1	2	3	4
1. 한국인				
2. 출신국인				
3. 기타 외국인				

문17.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단수]**

1. 기독교(Christianity)
2. 천주교(Catholic)
3. 이슬람교
4. 힌두교
5. 불교
6. 유교 및 중국전통종교
7. 없음(무교)
8. 기타

//경제활동 특성//

[카테고리 : ※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8. 당신은 **최근 1년 동안(2025.06.~2026.05.)** 수입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 평균 일 한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단수]

1. 일한 적 없음 ->문21
2. 주 15시간 미만
3.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 주 40시간 이상

문19. 당신은 현재 주로 **어떤 형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단수]

1. 전일제 (full-time)
2. 시간제/아르바이트 (part-time)
3. 일용직 (daily worker)
4. 자영업 (self-employed)
5. 무급 가족 종사자(Unpaid family worker)

문20. 당신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단수]

1. 예
2. 아니요

3. 모르겠음

문21. 당신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단수]

사회보험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잘 모르겠음
	1	2	3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문22. 당신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입니까? [단수]

※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응답해주세요.
※ 세금을 제외한 실제 받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1. 약 ( )원 [로직: 1 to 9,999,999]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Khảo sát việc sử dụng dịch vụ công của gia đình di cư tại Gyeongnam

Xin kính chào quý vị,
Tổ chức Phụ nữ và Gia đình tỉnh Gyeongsang-nam là cơ quan được thành lập và tài trợ bởi tỉnh Gyeongsang-nam. Hiện nay, chúng tôi đang nghiên cứu các phương án cải thiện, liên quan đến việc sử dụng dịch vụ công, nhằm hỗ trợ cư dân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ại tỉnh thích nghi và hòa nhập với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Vì đây là khảo sát không có đáp án đúng hay sai, chúng tôi rất mong quý vị trả lời một cách trung thực theo suy nghĩ và trải nghiệm thực tế của mình.
Toàn bộ thông tin quý vị cung cấp sẽ được bảo mật nghiêm ngặt theo Điều 3 của Luật Bảo vệ Thông tin Cá nhân, được xử lý ẩn danh và chỉ sử dụng cho mục đích nghiên cứu. Thời gian hoàn thành khảo sát dự kiến khoảng 15 phút. Kính mong quý vị dành chút thời gian chia sẻ những trải nghiệm của mình khi sinh sống tại tỉnh Gyeongsang-nam với tư cách là cư dân nước ngoài. Những ý kiến của quý vị sẽ là đóng góp quý báu cho nghiên cứu này. Xin chân thành cảm ơn.

Tháng 5.2026

Cơ quan nghiên cứu: Tổ chức Phụ nữ và Gia đình tỉnh Gyeongsang-nam
Cơ quan thực hiện nghiên cứu: Công ty Cổ phần Korea Research
Chủ nhiệm nghiên cứu: Lee Hye Rim (Bộ phận Nghiên cứu Chính sách) | Phụ trách: Jeong Jiphun (Ban Khảo sát Dư luận 1, Phòng 2)
Liên hệ: 055-713-7061 | Liên hệ: 02-3014-1067

[Câu hỏi sàng lọc]

SQ1. Hiện bạn có đang sống tại tỉnh Gyeongsang-nam không? 1. Có 2. Không

SQ2. Bạn đang sống ở khu vực nào tại tỉnh Gyeongsang-nam?

1. Geoje 2. Gimhae 3. Miryang 4. Sacheon 5. Yangsan 6. Jinju

7. Changwon 8. Tongyeong 9. Geochang 10. Goseong 11. Namhae 12. Sancheong

3. Uiryeong 14. Changnyeong 15. Hadong 16. Haman 17. Hamyang 18. Hapcheon

SQ3. Bạn sinh năm bao nhiêu? năm _____

SQ4. Bạn bắt đầu sống ở tỉnh Gyeongsang-nam từ khi nào? năm _____ tháng _____

SQ5. Giới tính của bạn? 1. Nữ 2. Nam

SQ6. Bạn sinh ra ở quốc gia nào?

1. Nepal 2. Đông Timor 3. Mông Cổ 4. Myanmar 5. Bangladesh 6. Việt Nam

7. Sri Lanka 8. Indonesia 9. Trung Quốc 10. Philippines 11. Thái Lan 12. Campuchia

13. Pakistan 14. Uzbekistan 15. Kazakhstan 16. Kyrgyzstan 17. Nga

18. Khác: (·····)

SQ7. Tình trạng hôn nhân của bạn?

1. Độc thân 2. Đã kết hôn (bao gồm cả sống chung như vợ chồng) 3. Ly hôn 4. Ly thân 5. Góa

SQ8. Bạn đang sống cùng những ai? (có thể chọn nhiều mục)

1. Sống một mình (→ chuyển đến câu SQ11)
2. Vợ/ chồng (bao gồm cả sống chung như vợ chồng)
3. Con
4. Cháu (nội/ngoại)
5. Anh/chị/em ruột của tôi
6. Anh/chị/em của vợ/chồng
7. Bố của tôi/vợ/chồng
8. Mẹ của tôi/vợ/chồng
9. Họ hàng
10. Người không phải gia đình (bạn bè, đồng nghiệp…)

SQ9. Vui lòng ghi rõ số người mà bạn sống cùng.

1. Con trai: ( ) người
2. Con gái: ( ) người
3. Cháu trai: ( ) người
4. Cháu gái: ( ) người
5. Anh/chị/em ruột của tôi: ( ) người
6. Anh/chị/em của vợ/chồng: ( ) người
7. Bố của tôi/vợ/chồng: ( ) người
8. Mẹ của tôi/vợ/chồng: ( ) người
9. Họ hàng: ( ) người
10. Người không phải gia đình (bạn bè, đồng nghiệp…): ( ) người

SQ10. Trong số người sống cùng, có người Hàn Quốc không? 1. Có 2. Không

※ Thông tin của bạn được bảo mật theo luật thống kê và chỉ dùng cho mục đích nghiên cứu.

SQ11. Hiện tại, visa của bạn là gì?

1. Lao động phổ thông (E-9) 2. Lao động thăm thân (H-2) 3. Lao động kỹ năng (E-7)

4. Lao động thời vụ (E-8) 5. Kiều bào (F-4) 6. Thăm thân/đi cùng (F-1, F-3) 7. Vĩnh trú (F-5)

8. Kết hôn di cư (F-6, F-2-1) 9. Du học (D-4) 10. Cư trú (F-2, trừ F-2-1) 11. Khác (G-1)

12. Không có visa / cư trú trái phép 13. Nhập quốc tịch

SQ12. Trong vòng 1 năm qua (05.2025 - 05.2026) bạn có từng sử dụng dịch vụ công không? 1. Có 2. Không

Dịch vụ công là các dịch vụ do Chính phủ hoặ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ung cấp nhằm cải thiện chất lượng cuộc sống và sự tiện lợi cho người dân. Nói một cách đơn giản, đó là tất cả các dịch vụ hỗ trợ từ nhà nước (Chính phủ, tỉnh Gyeongsangnam, Thành phố/Huyện) khi bạn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Cụ thể, các chương trình giáo dục, hỗ trợ và dịch vụ từ các cơ quan sau đây đều là dịch vụ công:
- [Visa & Việc làm]: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gia hạn visa,…), Bộ Lao động/Trung tâm việc làm.
- [Giấy tờ & Hỗ trợ hành chính]: Tòa thị chính/UBND huyện,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Cục thuế (quyết toán thuế,…).
- [Hỗ trợ định cư]: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Trung tâm gia đình đa văn hóa (học tiếng Hàn, tư vấn,…).

- [Y tế & Giáo dục]: Trạm y tế, Trường mầm non công lập, Trường học.
- [An toàn & Quyền lợi]: Đồn cảnh sát, Trạm cứu hỏa, Cục lao động (báo cáo nợ lương,…).
- [Tiện ích khác]: Thư viện, Trung tâm phúc lợi, Cơ sở thể thao công cộng, Điểm thi bằng lái xe, Xe đạp công cộng,…

SQ12-1. Bạn đã từng sử dụng các dịch vụ công dưới đây tại tỉnh Gyeongsang-nam chưa??

CÁC LOẠI HÌNH DỊCH VỤ CÔNG	Đã từng sử dụng chưa?	
	Có	Chưa
1. Dịch vụ hỗ trợ người di trú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lao động nước ngoài, Trung tâm gia đình, Trung tâm Youngjin Korea…)	1	2
2.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việc làm và tuyển dụng (Trung tâm việc làm, Trung tâm Employment Welfare Plus, Tổng công ty Phúc lợi Lao động…)	1	2
3.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tư cách lưu trú (Vis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Hi Korea, Tổng đài hướng dẫn tổng hợ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Trung tâm Visa Gyeongnam…)	1	2
4. Dịch vụ hành chính công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Trung tâm dân cư, Phòng tiếp dân tại Tòa thị chính/UBND huyện, Cổng dịch vụ công Gov24…)	1	2
5. Dịch vụ y tế và chăm sóc sức khỏe (Bệnh viện Masan Medical Center, Trạm y tế/Trung tâm y tế công cộng…)	1	2
6.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thuế (Chi cục thuế, Hệ thống thuế điện tử Hometax…)	1	2
7. Dịch vụ an toàn và tư pháp (Đồn cảnh sát, Trạm cứu hỏa, An toàn lao động, Đường dây nóng hỗ trợ phụ nữ khẩn cấp 1366, Cơ sở bảo hộ phụ nữ di trú, Cơ sở bảo hộ nạn nhân tội phạm…)	1	2
8. Dịch vụ chăm sóc và giữ trẻ (Trường mầm non, Nhà trẻ, Trung tâm nhi đồng địa phương…)	1	2
9. Dịch vụ giáo dục (Trường mẫu giáo, Trường học các cấp, Văn phòng giáo dục…)	1	2
10. Dịch vụ an sinh xã hội (Hỗ trợ mang thai và sinh con, Trung tâm phúc lợi xã hội tổng hợp…)	1	2
11. Dịch vụ tiện ích dân cư (Thư viện, Trung tâm văn hóa, Cơ sở thể dục thể thao công cộng, Zero Pay, Xe đạp công cộng…)	1	2

SQ12-2-1~11. Trong số các dịch vụ công [Mục SQ12-1=2], lý do bạn chưa từng sử dụng là gì? Vui lòng chọn tối đa 2 đáp án theo thứ tự phù hợp nhất.

1. Không biết là có dịch vụ đó tồn tại.
2. Bản thân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3. Rào cản ngôn ngữ khiến việc hỏi về hồ sơ hay thủ tục gặp khó khăn.

4. Khoảng cách địa lý quá xa.
5. Trùng giờ làm việc (giờ hoạt động của cơ quan công quyền trùng với giờ đi làm).
6. Không có quyền tiếp cận dịch vụ do giới hạn của tư cách lưu trú (loại visa).
7. Không muốn để lộ tình trạng cư trú (tư cách lưu trú) của mình.

[Kinh nghiệm sử dụng dịch vụ công]

※ Sau đây là các câu hỏi liên quan đến trải nghiệm sử dụng dịch vụ công

Q1. Bạn đã trả lời rằng mình từng sử dụng các dịch vụ công dưới đây tại tỉnh Gyeongsang-nam. Trong quá trình sử dụng, bạn có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đầy đủ không?

Các loại hình dịch vụ công	Mức độ hỗ trợ						
	Không nhận được hỗ trợ		←	-	→	Được hỗ trợ đầy đủ	
1. Dịch vụ hỗ trợ người di trú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lao động nước ngoài, Trung tâm gia đình, Trung tâm Youngjin Korea…)	1	2	3	4	5	6	7
2.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việc làm và tuyển dụng (Trung tâm việc làm, Trung tâm Employment Welfare Plus, Tổng công ty Phúc lợi Lao động…)	1	2	3	4	5	6	7
3.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tư cách lưu trú (Vis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Hi Korea, Tổng đài hướng dẫn tổng hợ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Trung tâm Visa Gyeongnam…)	1	2	3	4	5	6	7
4. Dịch vụ hành chính công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Trung tâm dân cư, Phòng tiếp dân tại Tòa thị chính/UBND huyện, Cổng dịch vụ công Gov24…)	1	2	3	4	5	6	7
5. Dịch vụ y tế và chăm sóc sức khỏe (Bệnh viện Masan Medical Center, Trạm y tế/Trung tâm y tế công cộng…)	1	2	3	4	5	6	7
6.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thuế (Chi cục thuế, Hệ thống thuế điện tử Hometax…)	1	2	3	4	5	6	7
7. Dịch vụ an toàn và tư pháp (Đồn cảnh sát, Trạm cứu hỏa, An toàn lao động, Đường dây nóng hỗ trợ phụ nữ khẩn cấp 1366, Cơ sở bảo hộ phụ nữ di trú, Cơ sở bảo hộ nạn nhân tội phạm…)	1	2	3	4	5	6	7
8. Dịch vụ chăm sóc và giữ trẻ (Trường mầm non, Nhà trẻ, Trung tâm nhi đồng địa phương…)	1	2	3	4	5	6	7
9. Dịch vụ giáo dục (Trường mẫu giáo, Trường học các cấp, Văn phòng giáo dục…)	1	2	3	4	5	6	7
10. Dịch vụ an sinh xã hội	1	2	3	4	5	6	7

(Hỗ trợ mang thai và sinh con, Trung tâm phúc lợi xã hội tổng hợp...)							
11. Dịch vụ tiện ích dân cư (Thư viện, Trung tâm văn hóa, Cơ sở thể dục thể thao công cộng, Zero Pay, Xe đạp công cộng...)	1	2	3	4	5	6	7

Q1-1. Bạn đã trả lời rằng mình từng sử dụng dịch vụ công [Mục đã chọn: Q1=1~3] tại Gyeongsangnam-do nhưng khô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hài lòng. Lý do chính là gì? Vui lòng chọn tối đa 2 đáp án theo thứ tự phù hợp nhất.

1. Do bất đồng ngôn ngữ.
2. Do thiếu thông tin về nội dung dịch vụ.
3. Hồ sơ yêu cầu quá nhiều và quy trình đăng ký phức tạp.
4. Thời gian chờ đợi để được sử dụng dịch vụ quá lâu.
5. Nhân viên/Công chức cung cấp dịch vụ không thân thiện.
6. Thiếu sự cân nhắc đến đặc thù văn hóa (tôn giáo, thực phẩm, tập quán, v.v.).

Q2. Bạn biết đến thông tin về các dịch vụ công đã sử dụng thông qua đâu? Vui lòng chọn tối đa 2 đáp án theo thứ tự phù hợp nhất.

1. Qua vợ/chồng, gia đình hoặc họ hàng.
2. Qua bạn bè, đồng nghiệp hoặc người quen là người Hàn Quốc.
3. Qua bạn bè, đồng nghiệp hoặc người quen là người nước ngoài (bao gồm đồng hương).
4. Qua các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di trú.
5. Qua tìm kiếm trên mạng xã hội (Youtube, Instagram, Facebook, v.v.).
6. Qua băng rôn hoặc các ấn phẩm quảng cáo (tờ rơi).
7. Qua tìm kiếm trên các cổng thông tin Internet.

Q3. Bạn cần sự hỗ trợ nào khi sử dụng các dịch vụ công? Vui lòng chọn tối đa 2 đáp án theo thứ tự phù hợp nhất.

1. Có thể tự sử dụng một mình mà không cần trợ giúp.
2. Tăng cường thông tin và hướng dẫn đa ngôn ngữ (thông tin cơ quan, giải thích quy trình bằng nhiều thứ tiếng).
3. Hỗ trợ thông dịch/biên dịch trực tiếp tại điểm.
4. Mở rộng thời gian và địa điểm (làm việc cả buổi tối/cuối tuần, hỗ trợ tận nơi)
5. Làm thủ tục online hoặc qua điện thoại dễ dàng hơn.
6. Tiếp đón thân thiện và không phân biệt đối xử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Q4. Trong số các thành viên gia đình đang sống cùng hiện nay, bạn nghĩ ai là người cần đến các dịch vụ công? Vui lòng chọn tối đa 3 đối tượng theo thứ tự ưu phù hợp nhất.

1. Bản thân.
2. Vợ/Chồng (bao gồm cả người đang sống chung như vợ chồng)
3. Con (Cháu) ở độ tuổi sơ sinh và mầm non (từ 0 ~ 6 tuổi).
4. Con (Cháu) ở độ tuổi nhi đồng và thiếu niên (từ 7 ~ 19 tuổi).
5. Anh/Chị/Em ruột của tôi.
6. Anh/Chị/Em của vợ/chồng.

7. Bố của tôi hoặc của vợ/chồng.
8. Mẹ của tôi hoặc của vợ/chồng.
9. Họ hàng.

Q5. Khi sử dụng dịch vụ công, bạn có bao giờ cảm thấy mình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bị coi thường hoặc bị đối xử bất công vì là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1. Có 2. Không (→Chuyển đến câu Q6)

Q5-1. Bạn cảm thấy ai phân biệt đối xử với bạn? Vui lòng chọn tối đa 3 đáp án theo thứ tự ưu tiên.

1. Nhân viên phụ trách/Công chức.
2. Tài xế xe buýt.
3. Phụ huynh tại nhà trẻ/trường mẫu giáo/trường học.
4. Giáo viên tại nhà trẻ/trường mẫu giáo/trường học.
5. Những người khác cũng đang sử dụng dịch vụ công.
6. Khác (.....)

Q5-2. Khi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coi thường hoặc đối xử bất công, bạn đã phản ứng như thế nào? Vui lòng chọn tối đa 3 đáp án theo thứ tự phù hợp nhất.

1. Yêu cầu đối phương xin lỗi.
2. Yêu cầu đối phương thay đổi thái độ và cách nói năng.
3. Tâm sự, thảo luận với gia đình hoặc bạn bè.
4. Hỏi ý kiến tại các tổ chức tư vấn hoặc các trung tâm hỗ trợ.
5. Tố cáo lên các cơ quan điều chỉnh phân biệt đối xử (ví dụ: Ủy ban Nhân quyền Quốc gia).
6. Đăng bài lên các diễn đàn mạng, hội nhóm (Café), mạng xã hội (SNS).
7. Cam chịu/Bỏ qua (→ Chuyển đến câu Q5-2-1).

Q5-2-1. Lý do bạn cam chịu hoặc bỏ qua khi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coi thường là gì? Vui lòng chọn tối đa 2 đáp án theo thứ tự phù hợp nhất.

1. Vì không biết phải làm thế nào.
2. Vì lo sợ bị lộ tình trạng cư trú (vấn đề visa).
3. Vì sợ sự việc kéo dài sẽ ảnh hưởng đến việc thay đổi tư cách lưu trú (đổi visa) sau này.
4. Vì nghĩ rằng dù có phản ứng thì mọi chuyện cũng chẳng thay đổi được gì.
5. Vì không giỏi tiếng Hàn.

Q6. Để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sinh sống tại Gyeongsangnam-do hòa nhập tốt với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vui lòng chọn 2 nhóm dịch vụ công bạn cho là cần thiết nhất và xếp theo thứ tự ưu tiên nhất và nhì.

1. Dịch vụ hỗ trợ người di trú.
2.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việc làm/tuyển dụng.
3. Dịch vụ y tế và chăm sóc sức khỏe.
4. Dịch vụ chăm sóc trẻ em/giáo dục.
5. Dịch vụ an sinh xã hội.
6. Khác.

Q6-1-1~6. Trong nhóm dịch vụ bạn đã chọn là cần ưu tiên nhất, vui lòng chọn 2 dịch vụ cụ thể cần thiết nhất và xếp theo thứ tự ưu tiên.

Q6-2-1~6. Trong nhóm dịch vụ bạn đã chọn cần ưu tiên thứ nhì, vui lòng chọn 2 dịch vụ cụ thể cần thiết nhất và xếp theo thứ tự ưu tiên.

Phân loại nhóm dịch vụ	Phân loại dịch vụ cụ thể
Dịch vụ hỗ trợ người nhập cư	1. Giáo dục tiếng Hàn 2. Giáo dục hiểu biết về xã hội Hàn Quốc 3. Hỗ trợ ban đầu khi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4. Dịch vụ cung cấp trông tinh sinh hoạt và tư vấn khó khăn 5. Hỗ trợ hoạt động cộng đồng (hội người nhập cư, giao lưu…) 6. Giáo dục nâng cao nhận thức của người Hàn về người nước ngoài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việc làm	7. Đào tạo nghề/ lấy chứng chỉ/ đào tạo tìm việc 8. Cung cấp thông tin việc làm/ mở rộng cơ hội việc làm 9. Hỗ trợ giải quyết khiếu nại, mâu thuẫn tại nơi làm việc
Dịch vụ y tế / chăm sóc sức khỏe	10. Hỗ trợ mang thai, sinh con 11. Hỗ trợ phiên dịch khi khám chữa bệnh 12. Cung cấp thông tin đa ngôn ngữ (thuốc, lưu ý khi khám chữa bệnh…) 13. Mở rộng dịch vụ khám chữa bệnh lưu động (đến khu tập trung người nước ngoài, nơi làm việc…) 14. Giáo dục kiến thức sức khỏe (phòng bệnh, tự chăm sóc) 15. Tư vấn sức khỏe tinh thần
Dịch vụ chăm sóc / giáo dục	16. Hỗ trợ nuôi dạy, chăm sóc và giáo dục con cái 17. Hỗ trợ học tiếng Hàn cho trẻ 18. Hỗ trợ học tiếng mẹ đẻ cho trẻ 19. Hỗ trợ học các môn trên lớp cho trẻ đang học tiếng Hàn 20. Tư vấn hướng nghiệp / định hướng học tập cho trẻ 21. Tư vấn phụ huynh (nuôi dạy con, hệ thống giáo dục Hàn Quốc…)
Dịch vụ an sinh xã hội	22. Hỗ trợ liên quan đến trẻ sơ sinh 23. Hỗ trợ trẻ em và thanh thiếu niên 24. Hỗ trợ người cao tuổi 25. Hỗ trợ người khuyết tật 26. Hỗ trợ nạn nhân của bạo lực gia đình, bạo lực giới
Khác	27. Dịch vụ thông biên dịch 28. Hỗ trợ đa ngôn ngữ cho dịch vụ online 29. Cung cấp thông tin chính sách, hướng dẫn sinh hoạt bằng nhiều ngôn ngữ 30. Mở rộng cơ hội tham gia xã hội (PTA,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hội đồng cư dân, hội phụ nữ, nhóm tham gia của thành phố…)

[Dịch vụ giáo dục tiếng Hàn]

※ Sau đây là các câu hỏi liên quan đến dịch vụ giáo dục tiếng Hàn.

Q7. Cho đến nay, bạn đã từng học tiếng Hàn tại Hàn Quốc, Việt Nam hoặc quốc gia khác chưa?

1. Có 2. Chưa (→ chuyển đến câu Q8)

Q7-1. Bạn đã học tiếng Hàn theo hình thức nào?

1. Học trực tiếp (Offline)
2. Học trực tuyến (Online)
3. Kết hợp học trực tiếp và trực tuyến

Q8. **Bạn đã từng thi TOPIK (Kỳ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chưa? (Không tính EPS-TOPIK.)**

1. Có 2. Chưa (→chuyển đến câu Q9)

Q8-1. Trong kỳ thi TOPIK gần đây nhất, bạn đạt cấp mấy?

1. Cấp 1 2. Cấp 2 3. Cấp 3 4. Cấp 4 5. Cấp 5 6. Cấp 6 7. Không đạt

Q9. Bạn có gặp khó khăn khi giao tiếp bằng tiếng Hàn không?

	Rất khó	Hơi khó	Hầu như không gặp khó khăn	Hoàn toàn không gặp khó khăn
1. Nói	1	2	3	4
2. Nghe	1	2	3	4
3. Đọc	1	2	3	4
4. Viết	1	2	3	4

※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KIIP) là chương trình giáo dục do Bộ Tư pháp Hàn Quốc triển khai nhằm giúp người nước ngoài thích nghi và sinh sống tốt tại Hàn Quốc thông qua việc giảng dạy tiếng Hàn và văn hóa Hàn Quốc.

Q10. Bạn đã từng tham gia lớp học KIIP nào chưa?

1. Có 2. Chưa (→ chuyển đến câu Q11) 3. Tôi không biết về KIIP (→ chuyển đến câu Q11)

Q10-1. Bạn đã từng tham gia kỳ thi KIIP chưa? 1. Có 2. Chưa (→ chuyển đến câu Q11)

Q10-1-1. Bạn đạt được trình độ nào trong kỳ thi KIIP gần đây nhất?

1. Lớp 0 2. Lớp 1 3. Lớp 2 4. Lớp 3 5. Lớp 4 6. Lớp 5

Q11. Bạn có dự định học tiếng Hàn thêm để nâng cao kỹ năng tiếng Hàn của mình không?

1. Có (→ chuyển đến câu Q11-1) 2. Không (→ chuyển đến câu Q11-2)

Q11-1. Bạn muốn học tiếng Hàn ở đâu? Vui lòng chọn tối đa 3 đáp án theo thứ tự phù hợp nhất.

1. Trường học (Đại học, Viện ngôn ngữ,..v.v.)
2.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người lao động)
3. Trung tâm gia đình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4. Trung tâm hỗ trợ kiều bào người Hàn ở nước ngoài
5. Tổ chức tư nhân tại Hàn Quốc (học viện, tổ chức tôn giáo…)
6. Công ty (lớp tiếng Hàn lưu động tại doanh nghiệp…)
7. Tự học (học qua Internet/AI, tự học tại nhà…)
8. Học kèm tiếng Hàn (mentor/gia sư cá nhân)

Q11-2. Lý do bạn không có ý định học tiếng Hàn tiếp là gì?

1. Tôi đã đủ giỏi rồi.
2. Tôi không giỏi tiếng Hàn, nhưng tôi không cảm thấy khó khăn gì
3. ôi muốn học, nhưng thực tế thì không dễ dàng (→chuyển đến câu Q11-2-1)

Q11-2-1. Khó khăn thực tế lớn nhất bạn gặp phải khi học tiếng Hàn là gì?

1. Tôi không có thời gian học tiếng Hàn do công việc.
2. Tôi không thể đến nơi có chương trình học tiếng Hàn vì khoảng cách quá xa
3. Tôi muốn đăng ký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nhưng rất khó đăng ký do số lượng người đăng ký quá đông.
4. Tôi muốn đăng ký Chương trình Hòa nhập Xã hội, nhưng có rất ít cơ quan điều hành chương trình ở gần đây.
5. Khác ( )

[Mức độ hòa nhập cộng đồng và các mối quan hệ xã hội]

※Sau đây là các câu hỏi liên quan đến việc hòa nhập vào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và các mối quan hệ xã hội.

Q12. Lý do nào khiến bạn định cư tại tỉnh Gyeongsang-nam? Vui lòng chọn 2 lý do quan trọng nhất.

1. Việc làm
2. Kết hôn
3. Giáo dục
4. Cơ sở hạ tầng kinh tế-xã hội của địa phương
5. Theo lời khuyên của gia đình/bạn bè ở tỉnh Gyeongsang-nam
6. Giáo dục con cái
7. Dễ tiếp cận cộng đồng đồng hương và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Q13. Ở câu hỏi SQ4, bạn đã trả lời về thời gian bắt đầu sinh sống ở tỉnh Gyeongsang-nam. Vậy bạn bắt đầu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ừ khi nào? năm_____ tháng_____

[Hiển thị thông báo: Nếu người trả lời ghi năm/tháng ở mục này muộn hơn thời điểm đã trả lời ở câu SQ4 thì sẽ hiện ra thông báo rằng: "[Bạn đã trả lời bắt đầu sinh sống tại tỉnh Gyeosanggnam-do từ [năm&tháng]. Vì vậy, thời điểm bạn nhập cảnh lần đầu vào Hàn phải cùng thời điểm hoặc sớm hơn thời gian đó. Vui lòng kiểm tra lại nội dung đã nhập."]]

Q14. Bạn có muốn tiếp tục ở lại tỉnh Gyeongsang-nam trong tương lai không?

1. Có 2. Không (→chuyển sang câu Q15)

Q14-1. Bạn dự định ở lại tỉnh Gyeongsang-nam trong bao lâu?

1. 1~3 năm 2. 4~6 năm 3. 7~9 năm 4. Trên 10 năm 5. Cư trú vĩnh viễn

Q14-2. Bạn mong muốn sau này có loại visa/tư cách lưu trú nào?

1. Gia hạn visa hiện tại
2. Đổi sang loại visa khác (ngoại trừ Visa Vĩnh trú)
3. Đổi sang visa Vĩnh trú
4. Nhập tịch

5. Hiên tại chưa biết được

Q15. So với khi còn sống ở nước mình, bạn thấy cuộc sống hiện tại ở tỉnh Gyeongsangnam-do thế nào?

1. Rất không hài lòng 2. Hơi không hài lòng 3. Khá hài lòng 4. Rất hài lòng

Q16-1. Khi bị ốm đau hoặc cần giúp đỡ, ngoài gia đình ra, bạn có người nào ở tỉnh Gyeongsangnam mà bạn có thể nhờ giúp đỡ hoặc tâm sự không??

Những người có thể giúp bạn	Không có	1~2 người	3~4 người	Trên 5 người
1. Người Hàn	1	2	3	4
2. Đồng hương	1	2	3	4
3. Người nước khác	1	2	3	4

Q16-2. Nếu đột nhiên cần vay một khoản tiền lớn, ngoài gia đình ra, ở vùng Gyeongsangnam-do có ai mà bạn có thể nhờ giúp đỡ hoặc tư vấn không?

Những người có thể giúp bạn	Không có	1~2 người	3~4 người	Trên 5 người
Người Hàn	1	2	3	4
Đồng hương	1	2	3	4
Người nước khác	1	2	3	4

Q16-3. Nếu bạn cảm thấy buồn bã hoặc chán nản, u uất và cần người để tâm sự, ngoài gia đình ra, liệu có ai ở vùng Gyeongsangnam-do mà bạn có thể nhờ giúp đỡ hoặc tư vấn không?

Những người có thể giúp bạn	Không có	1~2 người	3~4 người	Trên 5 người
Người Hàn	1	2	3	4
Đồng hương	1	2	3	4
Người nước khác	1	2	3	4

Q17. Bạn có tôn giáo không?

1. Đạo Kito (Christianity)
2. Đạo Thiên Chúa (Catholic)
3. Đạo Hồi
4. Đạo Hindu
5. Phật giáo
6. Nho giáo và các tôn giáo truyền thống Trung Quốc
7. Không có đạo
8. Khác

[Đặc điểm hoạt động kinh tế]

※ Sau đây là các câu hỏi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kinh tế.

Q18. Trong 1 năm gần đây (06/2025 ~ 05/2026), bạn có từng làm việc để kiếm thu nhập không? Nếu có, trung bình mỗi tuần bạn làm khoảng bao nhiêu giờ?

1. Chưa từng làm việc (→chuyển đến câu Q21)

2. Dưới 15 giờ/tuần
3. Từ 15 giờ đến dưới 40 giờ/tuần
4. Trên 40 giờ/tuần

Q19. Hiện tại chủ yếu bạn làm việc theo hình thức nào?

1. Làm toàn thời gian (full-time)
2. Làm theo giừ/ làm thêm (part-time)
3. Làm công nhật (daily worker)
4. Tự kinh doanh (self-employed)
5. Lao động phụ giúp việc gia đình không lương. (Unpaid family worker)

Q20. Bạn có ký hợp đồng lao động không?

1. Có
2. Không
3. Không biết

Q21. Bạn có bảo hiểm xã hội không?

Bảo hiểm xã hội	Có	Không	Không biết
1. Bảo hiểm hưu trí quốc dân	1	2	3
2. Bảo hiểm y tế	1	2	3
3. Bảo hiểm việc làm	1	2	3
4.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1	2	3

Q22. Thu nhập bình quân của bạn trong 3 tháng qua (3/2026 - 5/2026) là bao nhiêu?

※ Trả lời dựa trên " thu nhập cá nhân", không phải thu nhập hộ gia đình.

※ Vui lòng ghi số tiền thực tế nhận được, không bao gồm thuế.

1. Khoảng _____won

Khảo sát đã hoàn tất.

Chân thành cảm ơn bạn đã chia sẻ ý kiến của mình.

庆尚南道移民背景家庭公共服务使用情况调查

您好！ 庆尚南道女性家庭财团是庆尚南道出资设立的公共机构，目前正在开展关于改善外国居民公共服务使用制度的研究，旨在支持在庆尚南道居住的外国居民更好地适应和融入当地社会。本问卷没有标准答案，请您根据平时的真实想法作答，我们将不胜感激。

您所提供的所有信息将依据《个人信息保护法》第3条严格保密，并以匿名方式处理，仅用于研究目的。问卷填写时间约为15分钟。在百忙之中，恳请您抽出宝贵时间，分享您作为外国居民在庆尚南道生活的真实经历，这将对本研究提供极大的帮助。

2026年 5月

研究机构：庆尚南道女性家庭财团 | 研究执行机构：(株)韩国Research

研究负责人：政策研究部 李惠林 研究委员 | 项目负责人：舆论调查1本部 2部 郑集勋 负责人

联系电话：055-713-7061 | 联系电话：02-3014-1067

[应答者筛选问项]

SQ1. 您**目前**是否居住在**庆尚南道**？ 1. 是 2. 否

SQ2. 您**目前**居住在**庆尚南道的哪个地区**？

1. 居济市 2. 金海市 3. 密阳市 4. 泗川市 5. 梁山市 6. 晋州市
7. 昌原市 8. 统营市 9. 居昌郡 10. 固城郡 11. 南海郡 12. 山清郡
13. 宜宁郡 14. 昌宁郡 15. 河东郡 16. 咸安郡 17. 咸阳郡 18. 陕川郡

SQ3. 您的**出生年份**是？ _____年

SQ4. 您从**什么时候开始在庆尚南道居住**？ _____年 _____月

SQ5. 您的**性别**是？ 1. 女性 2. 男性

SQ6. 您出生于**哪个国家**？

1. 尼泊尔 2. 东帝汶 3. 蒙古 4. 缅甸 5. 孟加拉国 6. 越南
7. 斯里兰卡 8. 印度尼西亚 9. 中国 10. 菲律宾 11. 泰国 12. 柬埔寨
13. 巴基斯坦 14. 乌兹别克斯坦 15. 哈萨克斯坦 16. 吉尔吉斯斯坦 17. 俄罗斯
18. 其他 ( )

SQ7. 您的**婚姻状况**属于以下哪一项？

1. 未婚 2. 已婚(含事实婚姻) 3. 离婚 4. 分居 5. 丧偶

SQ8. 请选择所有**与您共同居住的人（可多选）**：

1. 独居 (→跳至SQ11)
2. 配偶 (含事实婚姻)
3. 子女
4. 孙子/孙女
5. 本人的兄弟姐妹

6. 配偶的兄弟姐妹
7. 本人/配偶的父亲
8. 本人/配偶的母亲
9. 亲戚
10. 非家庭成员（朋友，同事等）

SQ9. 请填写**共同居住家庭成员人数**：

1. 儿子: (　)名
2. 女儿: (　)名
3. 孙子: (　)名
4. 孙女: (　)名
5. 本人的兄弟姐妹: (　)名
6. 配偶的兄弟姐妹: (　)名
7. 本人/配偶的父亲: (　)名
8. 本人/配偶的母亲: (　)名
9. 亲戚: (　)名
10. 非家庭成员（朋友，同事等): (　)名

SQ10. 与您共同生活的家人中是否**有韩国人**？　1. 是　2. 否

※ 根据《统计法》，您的信息将严格保密，绝不用于本研究目的之外的任何用途。

SQ11. 您当前的**居留资格**是什么？

1. 非专业就业(E-9)　2. 访问就业(H-2)　3. 特定活动(E-7)　4. 季节工(E-8)

5. 在外同胞(F-4)　6. 探亲同居(F-1)，陪同(F-3)　7. 永久居住(F-5)　8. 结婚移民(F-6, F-2-1)

9. 留学(D-4)　10. 居住(F-2，但F-2-1除外)　11. 其他(G-1)　12. 无居留资格/未登记

13. 入籍

SQ12. 在**过去1年（2025年6月－2026年5月）中**，您是否使用过公共服务？　1. 是　2. 否

公共服务是指政府或地方自治团体为提高地区居民的生活质量（Quality of Life）和生活便利而提供的服务。简单来说，就是您居住在韩国期间，国家（政府、庆尚南道、市/郡）为提供帮助而提供的所有服务。特别是，以下机构所开展的教育、支援及各项服务均属于公共服务。 [签证及就业]出入境管理事务所/签证中心（签证延期等）、劳动部/就业中心（求职等） [文件签发及支援]市厅/郡厅、行政福利中心（居民中心）、税务局（税务申报、年终汇算等） [外籍居民定居支援]外籍居民（劳动者）支援中心、多元文化家庭中心（韩语教育、咨询等） [健康及保育/教育]保健所、国公立幼儿园、学校 [安全及权利保护]警察局、消防局、雇佣劳动支援厅（拖欠工资举报等） [其他生活便利]图书馆、福利馆、公共体育设施、驾照考场、公共自行车使用等

SQ12-1. 您在庆尚南道是否有**使用过以下公共服务的经历**？

公共服务类型	使用经历	
	有	无
1. 移民支援相关服务（外籍居民（劳动者）支援中心、家庭中心、永进Korea中心等）	1	2

2. 就业/雇佣相关服务（雇佣中心、雇佣福利Plus中心、劳动者福祉公团等）	1	2
3. 居留资格相关服务 （出入境事务所、Hi Korea、外国人综合咨询中心1345、庆南签证中心等）	1	2
4. 信访行政服务（行政福利中心、市郡民愿室、政府24等）	1	2
5. 保健医疗相关服务（马山医疗院、保健所等）	1	2
6. 纳税相关服务（税务局、国税厅HomeTax等）	1	2
7. 安全及司法相关服务 （警察局、消防局、产业安全机构、女性热线1366、移民女性保护设施等）	1	2
8. 子女养育相关服务（幼儿园、托儿所、地区儿童中心等）	1	2
9. 教育相关服务（幼儿园、学校、教育厅等）	1	2
10. 社会保障相关服务（怀孕·生育支援、综合社会福利馆等）	1	2
11. 居民便利相关服务 （图书馆、文化中心、公共体育设施、地区货币(Zero Pay)、公共自行车等）	1	2

SQ12-2-1~11. 对于[提问：SQ12-1=2的项目]中的公共服务，您没有使用的原因是什么？请按顺序选择**最多2项**。

1. 不知道有该服务
2. 不需要该服务
3. 因语言障碍无法进一步咨询相关文件或流程
4. 距离较远，不方便使用
5. 工作时间与服务时间冲突
6. 因居留资格无法使用该服务
7. 不希望暴露自己的居留资格

[公共服务使用经历]

※ 以下是关于公共服务使用经历的问题。

Q1. 您表示在庆尚南道有**使用过以下公共服务的经历**。在使用这些**公共服务**时，您**是否获得了足够的帮助**？

公共服务类型	帮助程度						
	未获得帮助		←	-	→	获得充分帮助	
1. 移民支援相关服务 （外籍居民（劳动者）支援中心、家庭中心、永进Korea中心等）	1	2	3	4	5	6	7
2. 就业/雇佣相关服务 （雇佣中心、雇佣福利Plus中心、劳动者福祉公团等）	1	2	3	4	5	6	7
3. 居留资格相关服务 （出入境事务所、Hi Korea、外国人综合咨询中心1345、庆南签证中心等）	1	2	3	4	5	6	7
4. 信访行政服务 （行政福利中心、市郡民愿室、政府24等）	1	2	3	4	5	6	7
5. 保健医疗相关服务（马山医疗院、保健所等）	1	2	3	4	5	6	7
6. 纳税相关服务（税务局、国税厅HomeTax等）	1	2	3	4	5	6	7
7. 安全及司法相关服务 （警察局、消防局、产业安全机构、女性热线1366、移民女性保护设施等）	1	2	3	4	5	6	7

8. 子女养育相关服务 (幼儿园、托儿所、地区儿童中心等)	1	2	3	4	5	6	7
9. 教育相关服务 (幼儿园、学校、教育厅等)	1	2	3	4	5	6	7
10. 社会保障相关服务 (怀孕·生育支援、综合社会福利馆等)	1	2	3	4	5	6	7
11. 居民便利相关服务 (图书馆、文化中心、公共体育设施、地区货币(Zero Pay)、公共自行车等)	1	2	3	4	5	6	7

Q1-1. 您表示在庆尚南道居住期间，虽然使用了 [提问：Q1=1~3选择的项目] **公共服务**，但未能获得满意的帮助。您这样回答的**主要原因**是什么？请按顺序选择**最多2项**。

1. 语言沟通不畅
2. 对服务内容的信息不足
3. 提交文件多，申请流程复杂
4. 使用服务的等待时间长
5. 提供服务的公务员/职员不亲切
6. 缺乏对宗教、饮食、习俗等文化特性的照顾

Q2. 您是**如何了解到**您所使用的**公共服务**的？请按顺序选择**最多2项**。

1. 配偶、家人或亲属介绍
2. 韩国朋友、同事或熟人介绍
3. 外国人（包括本国人）朋友、公司同事、熟人介绍
4. 通过移民支援相关中心
5. 通过SNS（YouTube、Instagram、Facebook等）
6. 通过宣传横幅或海报
7. 通过互联网搜索

Q3. 您在使用公共服务时需要**哪些**帮助？请按顺序选择**最多2项**。

1. 无需帮助，可独自使用
2. 加强信息及多语种指南（使用机构信息及多语种流程说明等）
3. 现场实时翻译支持
4. 扩大时间和地点上的可及性（夜间/周末运营、上门移动服务等）
5. 提高线上和移动服务的便利性（线上申请及咨询等）
6. 提供对外国人友好且无歧视的服务

Q4. 您认为与您同住的家庭成员中，**哪些人最需要公共服务**？请**按顺序选择最多3项**。

1. 本人
2. 配偶 (含事实婚姻)
3. 婴幼儿(满0~6周岁) 子女(孙子/孙女)
4. 儿童·青少年(满7~19周岁) 子女(孙子/孙女)
5. 本人的兄弟姐妹
6. 配偶的兄弟姐妹
7. 本人/配偶的父亲
8. 本人/配偶的母亲

9. 亲戚

Q5. 您在使用公共服务时，是否**因外国人或外国出身而遭受过歧视或不公平待遇**？

1. 有　　2. 无 (→跳至Q6)

Q5-1. 您认为是谁对您进行了歧视？请按顺序选择**最多3项**。

1. 工作人员/公务员
2. 公交车司机
3. 幼儿园/托儿所/学校的家长
4. 幼儿园/托儿所/学校的老师
5. 使用公共服务的其他人
6. 其他 (　　)

Q5-2. 当受到歧视、无视或不公平待遇时，您是**如何应对**的？请按顺序选择**最多3项**。

1. 要求对方道歉
2. 要求对方改正言行
3. 与家人、朋友商议
4. 向咨询机构或中心求助
5. 向国家人权委员会等歧视纠正相关机构举报
6. 在网络论坛或SNS发帖
7. 忍耐 (→跳至Q-5-2-1)

Q5-2-1. 当受到歧视、无视或不公平待遇时，您选择**忍耐的原因**是什么？请按顺序选择**最多2项**。

1. 不知道该如何应对
2. 担心暴露自己的居留身份
3. 担心事件扩大，可能会影响变更居留资格
4. 认为即使应对也不会有改变
5. 韩语能力不足

Q6. 为了帮助居住在庆尚南道的外籍居民更好地适应和融入地区，您认为**需要哪些公共服务**？请**按顺序选择2项**。

1. 移民支援相关服务
2. 就业/雇佣相关服务
3. 保健医疗相关服务
4. 养育/教育相关服务
5. 社会保障相关服务
6. 其他

Q6-1-1~6. 您首先选择了 [提问：Q6中选择的第一项] 为必要服务，请从中**按顺序选择2项最需要的公共服务**。

Q6-2-1~6. 您其次选择了 [提问：Q6中选择的第二项] 为必要服务，请从中**按顺序选择2项最需要的公共服务**。

公共服务大类	公共服务小类
移民支援相关服务	1. 韩语教育 2. 韩国社会理解教育 3. 韩国定居初期支援 4. 生活信息支援及困难咨询服务 5. 支援移民、同乡会等社区活动

	6. 针对韩国人的外国人相关认知改善教育
就业/雇佣相关服务	7. 资格证/职业培训/就业教育 8. 提供就业相关信息/扩大就业机会 9. 支援解决企业内的困难/矛盾
保健医疗相关服务	10. 怀孕·生育支援 11. 就诊翻译服务 12. 处方、药袋、注意事项语句的多语种标记 13. 扩大对外国人密集区、企业等的上门诊疗服务 14. 预防及自我管理的健康常识教育 15. 心理健康咨询
养育/教育相关服务	16. 子女保育费、教育费支援 17. 子女韩语学习支援 18. 子女母语学习支援 19. 对正在学习韩语子女的学科辅导支援 20. 子女升学/职业指导 21. 家长咨询/教育（子女养育、韩国教育制度等）
社会保障相关服务	22. 婴幼儿相关支援 23. 儿童·青少年相关支援 24. 老年人相关支援 25. 残疾人相关支援 26. 家庭暴力、性别暴力等犯罪受害者相关支援
其他	27. 翻译服务 28. 在线服务的多语种支持 29. 政策宣传、居民便利指南语句等多语种标记 30. 扩大社会活动参与机会（家长会、志愿服务队、居民自治委员会、女性亲和城市市民参与团等）

[韩语教育相关服务]

※以下是**关于韩语教育相关服务**的提问。

Q7. 您至今是否在韩国、本国或其他国家**学习过韩语**？

1. 是　　2. 否 (→跳至Q8)

Q7-1. 您是通过**什么方式**学习韩语的？

1. 线下教育
2. 线上教育
3. 线上线下混合教育

Q8. 您是否参加过**韩国语能力考试（TOPIK）**？（不包括就业用EPS-TOPIK）

1. 是　　2. 否 (→跳至Q9)

Q8-1. 您**最后一次**参加的**韩语能力考试（TOPIK）获得了第几级**？

1. 1级　2. 2级　3. 3级　4. 4级　5. 5级　6. 6级　7. 不合格

Q9. 您在**使用韩语沟通**时是否有**困难**？

	非常困难	比较困难	几乎没有	完全没有
1. 口语	1	2	3	4
2. 听力	1	2	3	4
3. 阅读	1	2	3	4
4. 书写作	1	2	3	4

※社会统合项目（KIIP）是法务部为帮助外国人更好地适应和生活在韩国，而提供的韩语和韩国文化教育项目。

Q10. 您是否**参加过**社会统合项目（KIIP）课程？

1. 是　2. 否 (→跳至Q11)　3. 不知道该项目 (→跳至Q11)

Q10-1. 您是否**参加过社会统合项目（KIIP）考试**？　1. 是　2. 否 (→跳至Q11)

Q10-1-1. 您**最近一次**参加的**社会统合项目（KIIP）考试**获得了**第几阶段**？

1. 0阶段　2. 1阶段　3. 2阶段　4. 3阶段　5. 4阶段　6. 5阶段

Q11. **为了提升韩语能力**，您是否有意**进一步学习韩语**？

1. 是 (→跳至Q11-1)　2. 否 (→跳至Q11-2)

Q11-1. 您希望在哪里学习韩语？请按顺序选择**最多3项**。

1. 学校（大学、语言学院等）
2. 外籍居民（劳动者）支援中心
3. 家庭中心（多文化家庭支援中心）
4. 同胞居留支援中心
5. 韩国民间机构（培训机构、宗教团体等）
6. 公司（上门韩语教育等）
7. 自学（互联网（AI）学习、自学等）
8. 韩语导师（个人指导）

Q11-2. 您**不想进一步学习**韩语的原因是什么？

1. 目前水平已足够
2. 韩语不太好，但不影响生活
3. 想学，但现实中困难 (→跳至Q11-2-1)

Q11-2-1. 学习韩语**最大的现实困难**是**什么**？

1. 因为工作没有时间学韩语
2. 距离远，无法前往提供韩语教育的地方
3. 想申请社会统合项目，但申请人数太多，很难申请成功
4. 想申请社会统合项目，但附近没有项目运营机构
5. 其他（　　）

[地区定居与社会资本]

※以下是关于地区定居与社会资本（social capital）的提问。

Q12. 您选择**定居在庆尚南道的原因**是什么？请**按顺序选择2项**。

1. 工作/就业
2. 结婚
3. 学业
4. 社会经济环境
5. 居住在庆尚南道的家人/朋友的推荐
6. 子女教育
7. 母国社区、外国人支援中心的可及性

Q13. 您表示从[提问：SQ4的回答]开始居住在庆尚南道。那么您是**什么时候首次入境韩国的**？

_____年 _____月

[提示: 如果回答的（年&月）晚于[提问：SQ4回答]中的（年&月） 则表示您从"[提问：SQ4的回答]开始居住在庆尚南道。首次入境韩国的时间应当在此之前或同一时间。请重新确认您输入的内容。"]

Q14. 您希望**今后继续**留在庆尚南道吗？ 1. 是 2. 否 (→跳至Q15)

Q14-1. 您计划在庆尚南道**继续居留多长时间**？

1. 1~3年 2. 4~6年 3. 7~9年 4. 10年以上 5. 永久居住

Q14-2. 您**最终**希望获得的**居留资格**是什么？

1. 延长当前居留资格的有效期
2. 变更其他居留资格（永居资格除外）
3. 获得永久居留资格
4. 获得国籍
5. 尚不确定

Q15. 与在本国的生活相比，您对在庆尚南道的**整体生活有多满意**？

1. 非常不满意 2. 比较不满意 3. 比较满意 4. 非常满意

Q16-1. 如果您**生病需要帮助时，除了家人以外**，在庆尚南道地区是否有可以求助或商量的人？

提供帮助的人类型	没有	1~2名	3~4名	5名以上
1. 韩国人	1	2	3	4
2. 同国人	1	2	3	4
3. 其他外国人	1	2	3	4

Q16-2. 如果您**突然需要借一大笔钱时，除了家人以外**，在庆尚南道地区是否有可以求助或商量的人？

提供帮助的人类型	没有	1~2名	3~4名	5名以上
1. 韩国人	1	2	3	4
2. 同国人	1	2	3	4
3. 其他外国人	1	2	3	4

Q16-3. 如果您**感到悲伤或抑郁需要倾诉对象时，除了家人以外**，在庆尚南道地区是否有可以求助或商量的人？

提供帮助的人类型	没有	1~2名	3~4名	5名以上
1. 韩国人	1	2	3	4

2. 同国人	1	2	3	4
3. 其他外国人	1	2	3	4

Q17. 您的**宗教信仰**是什么？

1. 基督教 (Christianity)
2. 天主教 (Catholic)
3. 伊斯兰教
4. 印度教
5. 佛教
6. 儒教及中国传统宗教
7. 无 (无宗教)
8. 其他

[经济活动]

※最后是关于**经济活动**的提问。

Q18. 在**过去一年 (2025年6月 - 2026年5月)** 中，您是否有以赚取收入为目的有偿工作的经历？如果有，平均每周工作多长时间？

1. 没有工作过 (→跳至Q21)
2. 每周少于15小时
3. 每周15小时以上 ~ 40小时以下
4. 每周40小时以上

Q19. 您目前主要从事**什么类型的工作**？

1. 全职 (full-time)
2. 兼职/打工 (part-time)
3. 日结工 (daily worker)
4. 自营业 (self-employed)
5. 无酬家庭劳动者 (Unpaid family worker)

Q20. 您是否签订了**劳动合同**？

1. 是
2. 否
3. 不清楚

Q21. 您是否加入了社会保险？

社会保险	已加入	未加入	不清楚

1. 国民年金	1	2	3
2. 健康保险	1	2	3
3. 雇佣保险	1	2	3
4. 工伤保险	1	2	3

Q22. 您最近3个月（2026年3月 – 2026年5月）的**月平均收入**大约是多少？

※ 请回答“个人收入”，而非家庭收入。

※ 请填写税后实际到手金额。

1. 约 _____韩元

问卷到此结束。

衷心感谢您的宝贵意见！

경남 이주배경가족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Survei Kondisi Penggunaan Layanan Publik oleh Keluarga Berlatar Belakang Migran di Gyeongsangnam-do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은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이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정답이 없기에, 평소 귀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지의 응답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외국인 주민으로서 경상남도에 살면서 경험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5월

연구기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 연구 수행기관: ㈜한국리서치
연구책임자: 정책연구부 이혜림 연구위원 | 담당자: 여론조사1본부 2부 정집훈 책임
연락처: 055-713-7061 | 연락처: 02-3014-1067

Halo. Yayasan Perempuan dan Keluarga Gyeongsangnam-do merupakan lembaga yang didirikan dan didukung oleh Pemerintah Provinsi Gyeongsangnam-do. Saat ini kami sedang melakukan penelitian mengenai perbaikan sistem layanan publik guna membantu adaptasi dan integrasi warga asing yang tinggal di Gyeongsangnam-do ke dalam masyarakat setempat. Survei ini tidak memiliki jawaban benar atau salah, поэтому kami akan sangat berterima kasih jika Anda menjawab sesuai dengan pengalaman dan pendapat pribadi Anda sehari-hari.

Seluruh jawaban Anda akan dijaga kerahasiaannya secara ketat sesuai Pasal 3 Undang-Undang Perlindungan Data Pribadi, diproses secara anonim, dan hanya digunakan untuk keperluan penelitian. Waktu yang dibutuhkan untuk mengisi survei ini sekitar 15 menit. Walaupun Anda sibuk, kami berharap Anda dapat meluangkan sedikit waktu untuk membagikan pengalaman Anda sebagai warga asing yang tinggal di Gyeongsangnam-do. Jawaban Anda akan sangat membantu penelitian ini.

Mei 2026

Lembaga Penelitian: Yayasan Perempuan dan Keluarga Gyeongsangnam-do |
Lembaga Pelaksana Penelitian: Korea Research Co., Ltd.

Penanggung Jawab Penelitian: Lee Hye-rim, Peneliti Divisi Kebijakan |
Penanggung Jawab Survei: Jeong Jip-hoon, Kepala Tim Divisi Survei Opini Publik 1, Departemen 2

Kontak: 055-713-7061 |
Kontak: 02-3014-1067

[응답자 스크리닝 문항]

SQ1. 당신은 **현재 경상남도**에 살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SQ1. Apakah Anda saat ini tinggal di Provinsi Gyeongsangnam-do? 1. Ya 2. Tidak

SQ2. 당신이 **경상남도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거제시 2. 김해시 3. 밀양시 4. 사천시 5. 양산시 6. 진주시
7. 창원시 8. 통영시 9. 거창군 10. 고성군 11. 남해군 12. 산청군

13. 의령군 14. 창녕군 15. 하동군 16. 함안군 17. 함양군 18. 합천군

SQ2. Di wilayah mana Anda saat ini tinggal di Gyeongsangnam-do?

1. Geoje-si 2. Gimhae-si 3. Miryang-si 4. Sacheon-si 5.Yangsan-si 6. Jinju-si
7. Changwon-si 8. Tongyeong-si 9. Geochang-gun 10. Goseong-gun 11.Namhae-gun
12. Sancheong-gun 13. Uiryeong-gun 14. Changnyeong-gun 15. Hadong-gun
16. Haman-gun 17. Hamyang-gun 18. Hapcheon-gun

SQ3.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_____년

SQ3. Tahun berapa Anda lahir? _____Tahun

SQ4. 당신은 **언제부터 경상남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까? _____년 _____월

SQ4. Sejak kapan Anda mulai tinggal di Gyeongsangnam-do? Tahun_____ Bulan_____

SQ5.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성 2. 남성

SQ5. Apa jenis kelamin Anda? 1. Perempuan 2. Laki-laki

SQ6.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1. 네팔 2. 동티모르 3. 몽골 4. 미얀마 5. 방글라데시 6. 베트남
7. 스리랑카 8. 인도네시아 9. 중국 10. 필리핀 11. 태국 12. 캄보디아
13. 파키스탄 14. 우즈베키스탄 15. 카자흐스탄 16. 키르기스스탄 17. 러시아
18. 기타 ( )

SQ6. Di negara mana Anda lahir?

1. Nepal 2. Timor Leste 3. Mongolia 4. Myanmar 5. Bangladesh 6. Vietnam
7. Sri Lanka 8. Indonesia 9. Tiongkok 10. Filipina 11. Thailand 12. Kamboja
13. Pakistan 14. Uzbekistan 15. Kazakhstan 16. Kirgizstan 17. Rusia
18. Lainnya ( )

SQ7. 당신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미혼 2. 기혼(사실혼 포함) 3. 이혼 4. 별거 5. 사별

SQ7. Apa status pernikahan Anda saat ini?

1. Belum menikah 2. Menikah (termasuk nikah siri/hubungan tanpa pencatatan resmi) 3. Bercerai
4. Pisah tempat tinggal 5. Ditinggal meninggal pasangan

SQ8. 다음 중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u>모두</u> 선택해주세요.

1. 혼자 살고 있음 (→SQ11)
2. 배우자 (사실혼 포함)
3. 자녀
4. 손자/손녀
5. 나의 형제/자매
6. 배우자의 형제/자매
7. 나의/배우자의 부
8. 나의/배우자의 모
9. 친척
10. 가족 외의 사람 (친구, 직장동료 등)

SQ8. Silakan pilih siapa saja yang tinggal bersama Anda.

1. Tinggal sendiri (→SQ11)
2. Pasangan (termasuk hubungan tanpa pencatatan resmi)
3. Anak
4. Cucu
5. Saudara kandung saya
6. Saudara kandung pasangan
7. Ayah saya/pasangan
8. Ibu saya/pasangan
9. Kerabat
10. Orang di luar keluarga (teman, rekan kerja, dll.)

SQ9.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유형별 명 수**를 응답해주세요.

1. 아들: ( )명
2. 딸: ( )명
3. 손자: ( )명
4. 손녀: ( )명
5. 나의 형제/자매: ( )명
6. 배우자의 형제/자매: ( )명
7. 나의/배우자의 부: ( )명
8. 나의/배우자의 모: ( )명
9. 친척: ( )명
10. 가족 외의 사람 (친구, 직장동료 등): ( )명

SQ9. Silakan tuliskan jumlah anggota keluarga yang tinggal bersama Anda berdasarkan kategori berikut.

1. Anak laki-laki: ( ) orang
2. Anak perempuan: ( ) orang

3. Cucu laki-laki: ( ) orang
4. Cucu perempuan: ( ) orang
5. Saudara kandung saya: ( ) orang
6. Saudara kandung pasangan: ( ) orang
7. Ayah saya/pasangan: ( ) orang
8. Ibu saya/pasangan: ( ) orang
9. Kerabat: ( ) orang
10. Orang di luar keluarga (teman, rekan kerja, dll.): ( ) orang

SQ10. 함께 사는 **가족 중 한국사람**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SQ10. Apakah ada orang Korea yang tinggal bersama Anda? 1. Ya 2. Tidak

※ 귀하의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Informasi pribadi Anda akan dijaga kerahasiaannya secara ketat sesuai Undang-Undang Statistik dan tidak akan digunakan selain untuk tujuan penelitian ini.

SQ11. 현재 당신의 **체류 자격**은 무엇입니까?

1. 비전문취업(E-9) 2. 방문취업(H-2) 3. 특정활동(E-7) 4. 계절근로(E-8)
5. 재외동포(F-4) 6. 방문동거(F-1), 동반(F-3) 7. 영주(F-5) 8. 결혼이민(F-6, F-2-1)
9. 유학(D-4) 10. 거주(F-2, 단 F-2-1 제외) 11. 기타(G-1) 12. 체류 자격 없음/미등록
13. 귀화

SQ11. Apa status izin tinggal (visa) Anda saat ini?

1. Pekerja Non-Keahlian (E-9) 2. Visa Kunjungan Kerja (H-2) 3. Aktivitas Khusus (E-7) 4. Pekerja Musiman (E-8) 5. Warga Korea di Luar Negeri (F-4) 6. Tinggal Kunjungan (F-1), Pendamping (F-3) 7. Permanent Resident (F-5) 8. Imigrasi Pernikahan (F-6, F-2-1) 9. Studi (D-4) 10. Tinggal Menetap (F-2, kecuali F-2-1) 11. Lainnya (G-1) 12. Tidak memiliki izin tinggal / tidak terdaftar 13. Naturalisasi / sudah menjadi warga negara Korea

SQ12. 당신은 **지난 1년간(2025.06.-2026.05.)**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SQ12. Apakah Anda pernah menggunakan layanan publik dalam 1 tahun terakhir (2025.06.-2026.05.)?

1. Ya 2. Tidak

공공서비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나라(정부, 경상남도, 시/군)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지원 및 서비스가 모두 공공서비스입니다.
[비자 및 일자리] 출입국사무소/비자센터(비자연장 등), 노동부/고용센터(일자리 찾기 등)
[서류 발급 및 지원] 시청/군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세무서(세금 신고, 연말정산 등)
[외국인 정착 지원] 외국인주민(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센터(한국어 교육, 상담 등)
[건강 및 보육/교육] 보건소, 국공립 어린이집, 학교
[안전 및 권리 보호] 경찰서, 소방서, 고용노동지원청(임금 체불 신고 등)
[기타 생활 편의] 도서관, 복지관, 공공 체육시설, 운전면허시험장, 공공자전거 이용 등

Layanan publik adalah layanan yang disediakan oleh pemerintah atau pemerintah daerah untuk meningkatkan kualitas hidup (quality of life) dan kenyamanan masyarakat. Dengan kata lain, layanan publik mencakup semua layanan yang diberikan oleh negara (pemerintah pusat, Provinsi Gyeongsangnam-do, kota/kabupaten) untuk membantu Anda menjalani kehidupan di Korea.
Secara khusus, pendidikan, bantuan, dan layanan yang disediakan oleh lembaga berikut termasuk layanan publik:
[Visa dan pekerjaan] Kantor Imigrasi/Pusat Visa (perpanjangan visa, dll.), Kementerian Ketenagakerjaan/Pusat Ketenagakerjaan (mencari pekerjaan, dll.)
[Penerbitan dokumen dan bantuan administrasi] Balai Kota/Kantor Kabupaten, Pusat Administrasi dan Kesejahteraan (kantor kelurahan), Kantor Pajak (pelaporan pajak, penyelesaian pajak akhir tahun, dll.)
[Dukungan adaptasi warga asing] Pusat Dukungan Warga/Pekerja Asing, Pusat Keluarga Multikultural (kelas bahasa Korea, konseling, dll.)
[Kesehatan dan pengasuhan/pendidikan] Puskesmas, daycare negeri, sekolah
[Keamanan dan perlindungan hak] Kantor Polisi, Kantor Pemadam Kebakaran, Kantor Dukungan Ketenagakerjaan dan Buruh (pelaporan gaji yang belum dibayar, dll.)
[Fasilitas kenyamanan hidup lainnya] Perpustakaan, pusat kesejahteraan, fasilitas olahraga publik, tempat ujian SIM, penggunaan sepeda publik, dll.

SQ12-1. 경상남도에서 다음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SQ12-1. Apakah Anda pernah menggunakan layanan publik berikut di Gyeongsangnam-do?

공공서비스 유형	이용 경험	
	있음	없음
1.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외국인주민(근로자)지원센터, 가족센터, 영진코리아센터 등)	1	2
2.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1	2
3. 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 (출입국사무소, 하이코리아(Hi Korea),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경남비자센터 등)	1	2
4. 민원 행정 서비스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민원실, 정부24 등)	1	2
5.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마산의료원, 보건소 등)	1	2
6. 납세 관련 서비스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등)	1	2
7. 안전이나 사법 관련 서비스	1	2

(경찰서, 소방서, 산업안전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보호시설, 범죄피해자보호시설 등)		
8.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1	2
9. 교육 관련 서비스 (유치원, 학교, 교육청 등)	1	2
10.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임신·출산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1	2
11. 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 체육시설, 지역화폐(제로페이), 공공자전거 등)	1	2

Jenis Layanan Publik	Penggunaan	
	Pernah	Tidak pernah
1. Layanan dukungan migran/orang asing (Pusat Dukungan Warga/Pekerja Asing, Pusat Keluarga, Yeongjin Korea Center, dll.)	1	2
2. Layanan pekerjaan/ketenagakerjaan (Pusat Ketenagakerjaan,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dll.)	1	2
3. Layanan terkait izin tinggal/visa (Kantor Imigrasi, Hi Korea, Pusat Informasi Orang Asing 1345, Gyeongnam Visa Center, dll.)	1	2
4. Layanan administrasi sipil (Pusat Administrasi dan Kesejahteraan, kantor pelayanan balai kota/kabupaten, Government24, dll.)	1	2
5. Layanan kesehatan dan medis (Rumah Sakit Masan Medical Center, puskesmas, dll.)	1	2
6. Layanan perpajakan (Kantor Pajak, National Tax Service Hometax, dll.)	1	2
7. Layanan keamanan atau hukum (Kantor Polisi, Kantor Pemadam Kebakaran, layanan keselamatan industri, Hotline Darurat Perempuan 1366, fasilitas perlindungan perempuan migran, fasilitas perlindungan korban kejahatan, dll.)	1	2
8. Layanan pengasuhan anak (Daycare, taman kanak-kanak, pusat anak regional, dll.)	1	2
9. Layanan pendidikan (Taman kanak-kanak, sekolah, kantor pendidikan, dll.)	1	2
10. Layanan jaminan sosial (Dukungan kehamilan dan persalinan, pusat kesejahteraan sosial terpadu, dll.)	1	2
11. Layanan kenyamanan warga (Perpustakaan, pusat budaya, fasilitas olahraga publik, mata uang lokal/Zero Pay, sepeda publik, dll.)	1	2

SQ12-2-1~11. 공공서비스 중 [제시: SQ12-1=2 항목]의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주세요.

1.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2. 서비스가 필요 없어서
3. 언어 장벽으로 서류나 절차를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어서
4.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5. 직장근무시간과 공공서비스 운영시간이 겹쳐서
6. 체류자격 때문에 서비스 이용 접근 권한이 없어서
7. 체류자격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SQ12-2-1~11. Apa alasan Anda tidak pernah menggunakan [Tampilkan: item SQ12-1=2] di antara layanan publik berikut?
Silakan pilih maksimal 2 jawaban sesuai urutan yang paling sesuai.

1. Karena tidak tahu bahwa layanan tersebut ada
2. Karena tidak membutuhkan layanan tersebut
3. Karena hambatan bahasa sehingga tidak dapat bertanya lebih lanjut mengenai dokumen atau prosedur
4. Karena jaraknya terlalu jauh secara fisik
5. Karena jam kerja bertabrakan dengan jam operasional layanan publik
6. Karena tidak memiliki hak akses untuk menggunakan layanan akibat status izin tinggal
7. Karena tidak ingin status izin tinggal diketahui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Pengalaman Menggunakan Layanan Publik]

※ 다음은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 Berikut adalah pertanyaan mengenai pengalaman menggunakan layanan publik.

Q1. 당신은 경상남도에서 다음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음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충분한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Q1. Anda menjawab bahwa pernah menggunakan layanan publik berikut di Gyeongsangnam-do. Saat menggunakan layanan publik berikut, apakah Anda merasa telah menerima bantuan yang memadai?

공공서비스 유형	도움 정도						
	도움을 받지 못함		←	-	→	충분한 도움을 받음	
1.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외국인주민(근로자)지원센터, 가족센터, 영진코리아센터 등)	1	2	3	4	5	6	7
2.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1	2	3	4	5	6	7
3. 체류 자격 관련 서비스 (출입국사무소, 하이코리아(Hi Korea),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경남비자센터 등)	1	2	3	4	5	6	7

4. 민원 행정 서비스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민원실, 정보24 등)	1	2	3	4	5	6	7
5.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마산의료원, 보건소 등)	1	2	3	4	5	6	7
6. 납세 관련 서비스 (세무소, 국세청 홈택스 등)	1	2	3	4	5	6	7
7. 안전이나 사법 관련 서비스 (경찰서, 소방서, 산업안전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보호시설, 범죄피해자보호시설 등)	1	2	3	4	5	6	7
8.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1	2	3	4	5	6	7
9. 교육 관련 서비스 (유치원, 학교, 교육청 등)	1	2	3	4	5	6	7
10.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임신·출산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1	2	3	4	5	6	7
11. 주민 편의 관련 서비스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 체육시설, 지역화폐 (제로페이), 공공자전거 등)	1	2	3	4	5	6	7

Jenis Layanan Publik	Tingkat Bantuan						
	Tidak membantu		←	-	→	Sangat membantu	
1. Layanan dukungan migran/orang asing (Pusat Dukungan Warga/Pekerja Asing, Pusat Keluarga, Yeongjin Korea Center, dll.)	1	2	3	4	5	6	7
2. Layanan pekerjaan/ketenagakerjaan (Pusat Ketenagakerjaan,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dll.)	1	2	3	4	5	6	7
3. Layanan terkait izin tinggal/visa (Kantor Imigrasi, Hi Korea, Pusat Informasi Orang Asing 1345, Gyeongnam Visa Center, dll.)	1	2	3	4	5	6	7
4. Layanan administrasi sipil (Pusat Administrasi dan Kesejahteraan, kantor pelayanan balai kota/kabupaten, Government24, dll.)	1	2	3	4	5	6	7
5. Layanan kesehatan dan medis (Rumah Sakit Masan Medical Center, puskesmas, dll.)	1	2	3	4	5	6	7
6. Layanan perpajakan (Kantor Pajak, National Tax Service Hometax, dll.)	1	2	3	4	5	6	7
7. Layanan keamanan atau hukum (Kantor Polisi, Kantor Pemadam Kebakaran, layanan keselamatan industri, Hotline Darurat Perempuan 1366, fasilitas perlindungan perempuan migran, fasilitas perlindungan korban kejahatan, dll.)	1	2	3	4	5	6	7
8. Layanan pengasuhan anak (Daycare, taman kanak-kanak, pusat anak regional, dll.)	1	2	3	4	5	6	7

9. Layanan pendidikan (Taman kanak-kanak, sekolah, kantor pendidikan, dll.)	1	2	3	4	5	6	7
10. Layanan jaminan sosial (Dukungan kehamilan dan persalinan, pusat kesejahteraan sosial terpadu, dll.)	1	2	3	4	5	6	7
11. Layanan kenyamanan warga (Perpustakaan, pusat budaya, fasilitas olahraga publik, mata uang lokal (Zero Pay), sepeda publik, dll.)	1	2	3	4	5	6	7

Q1-1. 당신은 경상남도에 살면서 **공공서비스**인 [제시: Q1=1~3 선택한 항목]를 이용했으나, 만족할 만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주세요.

1.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2.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3. 제출 서류가 많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4.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서
5.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직원이 불친절해서
6. 종교, 음식, 관습 등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Q1-1. Anda menjawab bahwa selama tinggal di Gyeongsangnam-do, Anda pernah menggunakan layanan publik [Tampilkan: item yang dipilih pada Q1=1~3], tetapi tidak mendapatkan bantuan yang memuaskan. Apa alasan utama Anda menjawab demikian?
Silakan pilih maksimal 2 jawaban sesuai urutan yang paling sesuai.

1. Karena sulit berkomunikasi/bahasa tidak lancar
2. Karena kurangnya informasi mengenai layanan tersebut
3. Karena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banyak dan prosedur pengajuan rumit
4. Karena waktu tunggu untuk menggunakan layanan terlalu lama
5. Karena pegawai/petugas layanan tidak ramah
6. Karena kurangnya perhatian terhadap perbedaan budaya seperti agama, makanan, dan adat istiadat

Q2. 당신은 이용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주세요.

1. 배우자, 가족, 친척이 알려줘서
2. 한국인 친구, 회사동료, 지인이 알려줘서
3. 외국인(출신국인 포함) 친구, 회사동료, 지인이 알려줘서
4. 이주민 지원 관련 센터를 통해서
5. SNS (Youtube, Instagram, Facebook 등) 검색으로
6.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7.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Q2. Bagaimana Anda mengetahui informasi mengenai layanan publik yang Anda gunakan?
Silakan pilih maksimal 2 jawaban sesuai urutan yang paling sesuai.

1. Diberitahu oleh pasangan, keluarga, atau kerabat
2. Diberitahu oleh teman Korea, rekan kerja, atau kenalan
3. Diberitahu oleh teman sesama orang asing (termasuk dari negara asal), rekan kerja, atau kenalan
4. Melalui pusat dukungan migran/orang asing
5. Melalui pencarian SNS (YouTube, Instagram, Facebook, dll.)
6. Melalui spanduk atau materi promosi
7. Melalui pencarian di portal internet

Q3. 당신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주세요.

1. 도움 없이 혼자 이용 가능
2. 정보 및 다국어 안내 강화 (이용 기관 정보 및 다국어 절차 설명 등)
3. 현장에서의 실시간 통·번역 지원
4. 시간 및 장소 접근성 확대 (야간/주말 운영,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 등)
5.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편의성 제고 (비대면 신청 및 상담 등)
6. 외국인에 대한 친절하고 차별 없는 응대

Q3. Bantuan seperti apa yang Anda perlukan saat menggunakan layanan publik?
Silakan pilih maksimal 2 jawaban sesuai urutan yang paling sesuai.

1. Bisa menggunakan layanan sendiri tanpa bantuan
2. Penguatan informasi dan panduan multibahasa (informasi lembaga layanan dan penjelasan prosedur dalam berbagai bahasa, dll.)
3. Dukungan penerjemahan dan interpretasi secara langsung di lokasi
4. Perluasan akses waktu dan tempat (layanan malam/hari libur, layanan keliling, dll.)
5. Peningkatan kemudahan layanan online dan mobile (pengajuan dan konsultasi non tatap muka, dll.)
6. Pelayanan yang ramah dan tanpa diskriminasi terhadap orang asing

Q4. 당신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의 가족 구성원 중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 본인
2. 배우자(사실혼 포함)
3. 영유아(만0~6세) 자녀(손자/손녀)
4. 아동·청소년(만7~19세) 자녀(손자/손녀)
5. 나의 형제/자매
6. 배우자의 형제/자매
7. 나의/배우자의 부

8. 나의/배우자의 모
9. 친척

Q4. Menurut Anda, siapa anggota keluarga yang saat ini tinggal bersama Anda yang membutuhkan layanan publik?
Silakan pilih maksimal 3 jawaban sesuai urutan yang paling sesuai.

1. Diri sendiri
2. Pasangan (termasuk hubungan tanpa pencatatan resmi)
3. Anak/cucu usia balita (0-6 tahun)
4. Anak/cucu usia anak dan remaja (7-19 tahun)
5. Saudara kandung saya
6. Saudara kandung pasangan
7. Ayah saya/pasangan
8. Ibu saya/pasangan
9. Kerabat

Q5.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외국인 또는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Q6)

Q5. Saat menggunakan layanan publik, apakah Anda pernah merasa didiskriminasi, diremehkan, atau diperlakukan tidak adil karena Anda orang asing atau berasal dari luar Korea?

1. Pernah 2. Tidak pernah (→Q6)

Q5-1. 누구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주세요.

1. 담당 직원/공무원
2. 버스 기사
3.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학부모
4.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5.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
6. 기타 ( )

Q5-1. Menurut Anda, dari siapa Anda menerima diskriminasi tersebut?
Silakan pilih maksimal 3 jawaban sesuai urutan yang paling sesuai.

1. Pegawai/petugas pemerintah
2. Sopir bus
3. Orang tua murid di daycare/taman kanak-kanak/sekolah

4. Guru daycare/taman kanak-kanak/sekolah
5. Orang lain yang menggunakan layanan publik
6. Lainnya ( )

Q5-2. 차별이나 무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주세요.

1.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2. 상대방에게 말투와 행동의 수정을 요구했다
3. 가족, 친구와 상의했다
4. 상담 기관, 센터 등에 문의했다
5.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차별 시정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6. 인터넷 게시판, 카페, SNS 등에 글을 올렸다
7. 참았다 (→Q-5-2-1)

Q5-2. Ketika Anda mengalami diskriminasi, diremehkan, atau diperlakukan tidak adil, bagaimana Anda menanggapinya?
Silakan pilih maksimal 3 jawaban sesuai urutan yang paling sesuai.

1. Meminta pihak tersebut meminta maaf
2. Meminta pihak tersebut memperbaiki cara bicara dan perilakunya
3. Berdiskusi dengan keluarga atau teman
4. Menghubungi lembaga konsultasi atau pusat bantuan
5. Melaporkan ke lembaga terkait penanganan diskriminasi seperti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6. Menulis postingan di forum internet, kafe online, atau SNS
7. Menahannya/tidak melakukan apa-apa (→Q5-2-1)

Q5-2-1. 차별이나 무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당신이 **참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주세요.

1.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2. 체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3. 체류 자격 변경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확대될까 봐
4. 대응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5. 한국말을 잘 못해서

Q5-2-1. Ketika Anda mengalami diskriminasi, diremehkan, atau diperlakukan tidak adil, mengapa Anda memilih untuk menahannya?
Silakan pilih maksimal 2 jawaban sesuai urutan yang paling sesuai.

1. Karena tidak tahu harus bagaimana atau apa yang harus dilakukan
2. Karena takut status izin tinggal diketahui

3. Karena khawatir akan menjadi masalah yang dapat memengaruhi perubahan status izin tinggal
4. Karena merasa meskipun ditanggapi, tidak akan ada perubahan
5. Karena tidak bisa berbahasa Korea dengan baik

Q6.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서비스를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2.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3.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4.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
5.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6. 기타

Q6. Menurut Anda, layanan publik apa yang paling diperlukan untuk membantu warga asing yang tinggal di Gyeongsangnam-do agar dapat beradaptasi dan berintegrasi dengan baik di masyarakat setempat?
Silakan pilih 2 jawaban sesuai urutan yang paling sesuai.

1. Layanan dukungan bagi migran/orang asing
2. Layanan terkait pekerjaan/ketenagakerjaan
3. Layanan kesehatan dan medis
4. Layanan pengasuhan/pendidikan
5. Layanan jaminan sosial
6. Lainnya

Q6-1-1~6. 첫번째로 [제시: Q6에서 선택한 첫 번째 항목]가 필요하다고 응답해주셨는데, 그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서비스를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6-1-1~6. Anda menjawab bahwa [Tampilkan: pilihan pertama yang dipilih di Q6] adalah yang paling diperlukan. Dari layanan tersebut, silakan pilih 2 layanan publik yang menurut Anda paling dibutuhkan sesuai urutan yang paling sesuai.

Q6-2-1~6. 두번째로 [제시: Q6에서 선택한 두 번째 항목]가 필요하다고 응답해주셨는데, 그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서비스를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6-2-1~6. Anda menjawab bahwa [Tampilkan: pilihan kedua yang dipilih di Q6] adalah yang paling diperlukan. Dari layanan tersebut, silakan pilih 2 layanan publik yang menurut Anda paling dibutuhkan sesuai urutan yang paling sesuai.

공공서비스 대분류	공공서비스 소분류
이주민 지원 관련 서비스	1. 한국어 교육 2. 한국 사회 이해 교육

	3. 한국 정착 초기 지원 4. 생활정보 지원 및 고충 상담 서비스 5. 이주민 교민회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6. 내국인 대상 외국인 관련 인식 개선 교육
취업/고용 관련 서비스	7. 자격증 취득/직업훈련/취업 교육 8. 취업 관련 정보제공/취업 기회 확대 9. 사업체 내 애로/갈등 조정 지원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10. 임신·출산 지원 11. 진료 시 통·번역 지원 12. 처방전, 약 봉투, 주의 사항 문구의 다국어 병기 13. 외국인 밀집지, 사업장 등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확대 14. 예방과 자가 관리에 대한 건강 상식 교육 15.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돌봄/교육 관련 서비스	16. 자녀 보육비, 교육비 지원 17. 자녀 한국어 학습 지원 18. 자녀 모국어 학습 지원 19. 한국어 학습 중인 자녀의 교과 학습 지원 20. 자녀 진로/진학 교육 21. 부모 상담/교육(자녀 양육, 한국 교육 제도 등)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22. 영유아 관련 지원 23.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 24. 노인 관련 지원 25. 장애인 관련 지원 26. 가정폭력, 젠더폭력 등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기타	27. 통·번역 서비스 28. 온라인 서비스 다국어 지원 29. 정책 홍보, 주민 편의 안내 문구 등 다국어 병기 30.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학부모회, 자원봉사회,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Kategori Besar Layanan Publik	Kategori Detail Layanan Publik
Layanan dukungan migran/orang asing	1. Pendidikan bahasa Korea 2. Pendidikan pemahaman masyarakat Korea 3. Dukungan awal adaptasi kehidupan di Korea 4. Dukungan informasi kehidupan sehari-hari dan layanan konsultasi kesulitan 5. Dukungan aktivitas komunitas seperti perkumpulan warga migran 6. Pendidikan peningkatan pemahaman masyarakat Korea terhadap orang asing

Layanan pekerjaan/ketenagakerjaan	7. Pendidikan sertifikasi/pelatihan kerja/pendidikan kerja 8. Penyediaan informasi pekerjaan/perluasan kesempatan kerja 9. Dukungan penyelesaian kesulitan/konflik di tempat kerja
Layanan kesehatan dan medis	10. Dukungan kehamilan dan persalinan 11. Dukungan penerjemahan dan interpretasi saat pemeriksaan medis 12. Penyediaan multibahasa pada resep, kantong obat, dan petunjuk penggunaan 13. Perluasan layanan pemeriksaan kesehatan keliling di daerah padat orang asing dan tempat kerja 14. Pendidikan pengetahuan kesehatan tentang pencegahan dan perawatan mandiri 15. Layanan konsultasi kesehatan mental
Layanan pengasuhan/pendidikan	16. Dukungan biaya pengasuhan dan pendidikan anak 17. Dukungan pembelajaran bahasa Korea untuk anak 18. Dukungan pembelajaran bahasa ibu untuk anak 19. Dukungan pelajaran sekolah bagi anak yang sedang belajar bahasa Korea 20. Pendidikan karier/studi lanjut anak 21. Konsultasi/pendidikan bagi orang tua (pengasuhan anak, sistem pendidikan Korea, dll.)
Layanan jaminan sosial	22. Dukungan terkait balita 23. Dukungan terkait anak dan remaja 24. Dukungan terkait lansia 25. Dukungan terkait penyandang disabilitas 26. Dukungan bagi korban kejahatan seperti kekerasan dalam rumah tangga dan kekerasan berbasis gender
Lainnya	27. Layanan penerjemahan dan interpretasi 28. Dukungan multibahasa untuk layanan online 29. Penyediaan multibahasa untuk promosi kebijakan dan petunjuk kenyamanan warga 30. Perluasan kesempatan berpartisipasi dalam kegiatan sosial (komite orang tua murid, relawan, komite warga, kelompok partisipasi warga kota ramah perempuan, dll.)

[한국어교육 관련 서비스]

※다음은 **한국어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Layanan Terkait Pendidikan Bahasa Korea]

※ Berikut adalah pertanyaan mengenai layanan pendidikan bahasa Korea.

Q7. 당신은 지금까지 한국, 본국, 또는 그 외 국가에서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Q8)

Q7. Apakah Anda pernah belajar bahasa Korea di Korea, negara asal Anda, atau negara lain?

1. Ya 2. Tidak (→Q8)

Q7-1. 한국어는 **어떤 방식**으로 배웠습니까?

1. 대면교육
2. 온라인 교육
3.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 혼합

Q7-1. Bagaimana cara Anda belajar bahasa Korea?

1. Pendidikan tatap muka
2. Pendidikan online
3. Gabungan pendidikan tatap muka dan online

Q8.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본 적이 있습니까? (취업용 EPS-TOPIK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세요.)

1. 예 2. 아니요 (→Q9)

Q8. Apakah Anda pernah mengikuti Tes Kemampuan Bahasa Korea (TOPIK)?
(Mohon jawab selain EPS-TOPIK untuk keperluan kerja.)

1. Ya 2. Tidak (→Q9)

Q8-1. 당신은 **마지막**으로 본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몇 급**을 받았습니까?

1. 1급 2. 2급 3. 3급 4. 4급 5. 5급 6. 6급 7. 불합격

Q8-1. Pada TOPIK terakhir yang Anda ikuti, level berapa yang Anda peroleh?

1. Level 1 2. Level 2 3. Level 3 4. Level 4 5. Level 5 6. Level 6 7. Tidak lulus

Q9. 당신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Q9. Apakah Anda mengalami kesulitan dalam berkomunikasi menggunakan bahasa Korea?

	매우 어려움	약간 어려움	거의 없음	전혀 없음
1. 말하기	1	2	3	4
2. 듣기	1	2	3	4
3. 읽기	1	2	3	4

4. 쓰기	1	2	3	4

	Sangat sulit	Agak sulit	Hampir tidak ada kesulitan	Tidak ada kesulitan sama sekali
1. Berbicara	1	2	3	4
2. Mendengarkan	1	2	3	4
3. Membaca	1	2	3	4
4. Menulis	1	2	3	4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법무부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Program Integrasi Sosial (KIIP) adalah program pendidikan dari Kementerian Kehakiman Korea yang mengajarkan bahasa Korea dan budaya Korea agar orang asing dapat beradaptasi dan tinggal dengan baik di Korea.

Q10. 당신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Q11) 3.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해 모름 (→Q11)

Q10. Apakah Anda pernah mengikuti kelas Program Integrasi Sosial (KIIP)?

1. Ya 2. Tidak (→Q11) 3. Tidak mengetahui tentang Program Integrasi Sosial (KIIP) (→Q11)

Q10-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Q11)

Q10-1. Apakah Anda pernah mengikuti ujian Program Integrasi Sosial (KIIP)?

1. Ya 2. Tidak (→Q11)

Q10-1-1. 가장 **최근**에 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시험**에서 **몇 단계**를 받았습니까?

1. 0단계 2. 1단계 3. 2단계 4. 3단계 5. 4단계 6. 5단계

Q10-1-1. Pada ujian KIIP terakhir yang Anda ikuti, Anda mendapat level berapa?

1. Level 0 2. Level 1 3. Level 2 4. Level 3 5. Level 4 6. Level 5

Q11. 지금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더 공부할 생각**이 있습니까?

1. 예 (→Q11-1) 2. 아니요 (→Q11-2)

Q11. Apakah Anda ingin belajar bahasa Korea lebih lanjut agar kemampuan bahasa Korea Anda menjadi lebih baik dari sekarang?

1. Ya (→Q11-1) 2. Tidak (→Q11-2)

Q11-1. 어디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원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주세요.

1. 학교(대학, 어학원 등)
2. 외국인주민(근로자) 지원센터
3.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동포체류지원센터
5. 한국에 있는 민간기관(학원, 종교단체 등)
6. 회사(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등)
7. 혼자 공부(인터넷(AI) 학습, 독학 등)
8. 한국어 멘토링(개인지도)

Q11-1. Di mana Anda ingin belajar bahasa Korea?
Silakan pilih maksimal 3 jawaban sesuai urutan yang paling sesuai.

1. Sekolah (universitas, lembaga bahasa, dll.)
2. Pusat Dukungan Warga/Pekerja Asing
3. Pusat Keluarga (Pusat Dukungan Keluarga Multikultural)
4. Pusat Dukungan Tinggal bagi Warga Keturunan Korea
5. Lembaga swasta di Korea (kursus, organisasi keagamaan, dll.)
6. Perusahaan (kelas bahasa Korea keliling, dll.)
7. Belajar sendiri (internet/pembelajaran AI, otodidak, dll.)
8. Mentoring bahasa Korea (bimbingan pribadi)

Q11-2. 한국어 공부를 **더 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지금도 충분히 잘함
2.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불편함이 없음
3. 배우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Q11-2-1)

Q11-2. Apa alasan Anda tidak ingin belajar bahasa Korea lebih lanjut?

1. Saat ini kemampuan bahasa Korea saya sudah cukup baik
2. Walaupun kemampuan bahasa Korea saya kurang baik, saya tidak merasa kesulitan
3. Ingin belajar, tetapi secara kenyataan sulit dilakukan (→Q11-2-1)

Q11-2-1. 한국어 공부를 하기 **어려운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 일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음
2. 거리가 멀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곳까지 갈 수가 없음
3.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지만, 신청 희망자가 많아 신청이 어려움
4.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지만, 근처에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별로 없음

5. 기타 ( )

Q11-2-1. Apa kesulitan terbesar yang membuat Anda sulit belajar bahasa Korea?

1. Tidak punya waktu belajar bahasa Korea karena pekerjaan
2. Tempat belajar bahasa Korea terlalu jauh sehingga sulit dijangkau
3. Ingin mendaftar Program Integrasi Sosial, tetapi sulit karena terlalu banyak pendaftar
4. Ingin mendaftar Program Integrasi Sosial, tetapi tidak banyak lembaga penyelenggara program di sekitar tempat tinggal
5. Lainnya ( )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자본]

※다음은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질문입니다.

[Adaptasi di Masyarakat dan Modal Sosial]

※ Berikut adalah pertanyaan mengenai adaptasi di masyarakat dan modal sosial (social capital).

Q12. 당신은 **경상남도**에 **정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일자리/취업
2. 결혼
3. 학업
4. 사회경제적 인프라
5.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가족/친구의 권유
6. 자녀 교육
7. 모국 커뮤니티, 외국인 지원센터의 접근성

Q12. Apa alasan Anda menetap di Gyeongsangnam-do? Silakan pilih 2 jawaban sesuai urutan yang paling utama.

1. Pekerjaan/ketenagakerjaan
2. Pernikahan
3. Pendidikan
4. Infrastruktur sosial dan ekonomi
5. Ajakan keluarga/teman yang tinggal di Gyeongsangnam-do
6. Pendidikan anak
7. Akses ke komunitas negara asal dan pusat dukungan orang asing

Q13. 당신은 [제시: SQ4 응답]부터 경상남도에 살기 시작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처음 한국에 입국**했습니까? _____년 ____월

Q13. Anda menjawab bahwa mulai tinggal di Gyeongsangnam-do sejak [Tampilkan: jawaban SQ4]. Lalu, kapan pertama

kali Anda masuk ke Korea? Tahun _____ Bulan_____

[문구제시: 선문4(연도&월) 응답보다 이후 연도&월 응답시 "[제시: 선문4 응답]부터 경상남도에 살기 시작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한국에 처음 입국한 시기는 그 이전이거나 같은 시기여야 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Tampilkan pesan: Jika jawaban tahun & bulan lebih setelah daripada jawaban SQ4]

"Anda menjawab mulai tinggal di Gyeongsangnam-do sejak [Tampilkan: jawaban SQ4]. Waktu pertama masuk ke Korea harus pada periode yang sama atau sebelum waktu tersebut. Mohon periksa kembali jawaban Anda."

Q14.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경상남도에서 체류하기를 원하십니까? 1. 예 2. 아니요 (→Q15)

Q14. Apakah Anda ingin terus tinggal di Gyeongsangnam-do di masa depan? 1.Ya 2. Tidak (→Q15)

Q14-1. 당신은 **앞으로 얼마 동안** 경상남도에 체류할 계획입니까?

1. 1~3년 2. 4~6년 3. 7~9년 4. 10년 이상 5. 영구 거주

Q14-1. Berapa lama Anda berencana tinggal di Gyeongsangnam-do di masa depan?

1. 1~3 tahun 2. 4~6 tahun 3. 7~9 tahun 4. Lebih dari 10 tahun 5. Tinggal permanen

Q14-2. 당신이 **최종적으로**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체류 자격**은 무엇입니까?

1. 현재 체류 자격의 기간 연장
2.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 (영주 자격 변경 제외)
3. 영주 자격 취득
4. 국적 취득
5. 지금은 모르겠다

Q14-2. Status izin tinggal apa yang paling ingin Anda peroleh pada akhirnya?

1. Perpanjangan status izin tinggal saat ini
2. Mengubah ke status izin tinggal lain (kecuali permanent resident)
3. Mendapatkan status permanent resident
4. Mendapatkan kewarganegaraan Korea
5. Belum tahu saat ini

Q15. 당신은 본국에서의 삶과 비교해서 경상남도에서의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1. 매우 불만족 2. 다소 불만족 3. 다소 만족 4. 매우 만족

Q15. Dibandingkan dengan kehidupan di negara asal Anda, seberapa puas Anda dengan kehidupan Anda secara keseluruhan di Gyeongsangnam-do?

1. Sangat tidak puas 2. Cukup tidak puas 3. Cukup puas 4. Sangat puas

Q16-1. 당신은 **몸이 아파 도움을 구해야 할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경상남도 지역에서 도움을 받거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유형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1. 한국인	1	2	3	4
2. 출신국인	1	2	3	4
3. 기타 외국인	1	2	3	4

Q16-1. Jika Anda sakit dan membutuhkan bantuan, apakah ada orang di wilayah Gyeongsangnam-do selain keluarga yang dapat membantu atau tempat Anda bisa meminta saran?

Orang yang dapat membantu	Tidak ada	1~2 orang	3~4 orang	5 orang lebih
1. Orang Korea	1	2	3	4
2. Orang dari negara asal	2	2	3	4
3. Orang asing lainnya	1	2	3	4

Q16-2. 당신은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경상남도 지역에서 도움을 받거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유형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1. 한국인	1	2	3	4
2. 출신국인	1	2	3	4
3. 기타 외국인	1	2	3	4

Q16-2. Jika Anda tiba-tiba perlu meminjam uang dalam jumlah besar, apakah ada orang di wilayah Gyeongsangnam-do selain keluarga yang dapat membantu atau tempat Anda bisa meminta saran?

Orang yang dapat membantu	Tidak ada	1~2 orang	3~4 orang	5 orang lebih
1. Orang Korea	1	2	3	4
2. Orang dari negara asal	2	2	3	4
3. Orang asing lainnya	1	2	3	4

Q16-3. 당신은 **슬프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경상남도 지역에서 도움을 받거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유형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1. 한국인	1	2	3	4
2. 출신국인	1	2	3	4
3. 기타 외국인	1	2	3	4

Q16-3. Jika Anda merasa sedih atau depresi dan membutuhkan teman untuk berbicara, apakah ada orang di wilayah Gyeongsangnam-do selain keluarga yang dapat membantu atau tempat Anda bisa meminta saran?

Orang yang dapat membantu	Tidak ada	1~2 orang	3~4 orang	5 orang lebih
1. Orang Korea	1	2	3	4
2. Orang dari negara asal	2	2	3	4
3. Orang asing lainnya	1	2	3	4

Q17.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기독교 (Christianity)
2. 천주교 (Catholic)
3. 이슬람교
4. 힌두교
5. 불교
6. 유교 및 중국전통종교
7. 없음 (무교)
8. 기타

Q17. Apa agama Anda?

1. Kristen (Christianity)
2. Katolik (Catholic)
3. Islam
4. Hindu
5. Buddha
6. Konghucu dan agama tradisional Tiongkok
7. Tidak ada (tidak beragama)
8. Lainnya

[경제활동 특성]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Karakteristik Aktivitas Ekonomi]
※Terakhir, berikut adalah pertanyaan mengenai karakteristik aktivitas ekonomi.

Q18. 당신은 **최근 1년 동안(2025.06.-2026.05.)** 수입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 평균 일 한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 일한 적 없음 (→Q21)
2. 주 15시간 미만
3.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 주 40시간 이상

Q18. Dalam 1 tahun terakhir (2025.06.-2026.05.), apakah Anda pernah bekerja dan menerima bayaran untuk mendapatkan penghasilan? Jika ya, rata-rata berapa jam Anda bekerja dalam seminggu?

1. Tidak pernah bekerja (→Q21)
2. Kurang dari 15 jam per minggu
3. 15 jam atau lebih ~ kurang dari 40 jam per minggu
4. 40 jam atau lebih per minggu

Q19. 당신은 현재 주로 **어떤 형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1. 전일제 (full-time)
2. 시간제/아르바이트(part-time)
3. 일용직 (daily worker)
4. 자영업 (self-employed)
5. 무급 가족 종사자(Unpaid family worker)

Q19. Saat ini, jenis pekerjaan apa yang paling utama Anda lakukan?

1. Pekerjaan penuh waktu (full-time)
2. Pekerjaan paruh waktu/part-time (part-time)
3. Pekerja harian (daily worker)
4. Wiraswasta (self-employed)
5. Pekerja keluarga tanpa upah (Unpaid family worker)

Q20. 당신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1. 예
2. 아니요
3. 모르겠음

Q20. Apakah Anda menandatangani kontrak kerja?

1. Ya
2. Tidak
3. Tidak tahu

Q21. 당신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사회보험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잘 모르겠음
1. 국민연금	1	2	3
2. 건강보험	1	2	3
3. 고용보험	1	2	3

4. 산재보험	1	2	3

Q21. Apakah Anda terdaftar dalam asuransi sosial?

사회보험	Terdaftar	Tidak terdaftar	Tidak tahu
1. Dana Pensiun Nasional (National Pension)	1	2	3
2. Asuransi Kesehatan	1	2	3
3. Asuransi Ketenagakerjaan	1	2	3
4. Asuransi Kecelakaan Kerja	1	2	3

Q22. 당신은 최근 3개월(2026.03.~2026.05.) 동안의 **월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입니까?

※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응답해주세요.

※ 세금을 제외한 실제 받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1. 약 _____원

Q22. Berapa rata-rata pendapatan bulanan Anda selama 3 bulan terakhir (2026.03.~2026.05.)?

※ Mohon jawab berdasarkan "pendapatan pribadi", bukan pendapatan keluarga.
※ Mohon tuliskan jumlah yang benar-benar Anda terima setelah dipotong pajak.

Sekitar _____won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urvei telah selesai.

Terima kasih banyak atas kesediaan Anda meluangkan waktu untuk memberikan pendapat Anda.

Опрос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семьями с миграционным происхождением в Кёнсаннамдо

Здравствуйте! Фонд женщин и семьи Кёнсаннамдо является учреждением, созданным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водит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 разработке мер по улучшению систем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оддержку адапт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и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Кёнсаннамдо.
В данном опросе нет правильных или неправильных ответов, поэтому будем благодарны, если вы ответите так, как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умаете.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3 Закона о защите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вся предоставленная вами информация строго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а, обрабатывается анонимно и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целях.
Заполнение анкеты займет примерно 15 минут. Несмотря на занятость, просим вас уделить немного времени и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 опытом проживания в Кёнсаннамдо в качестве иностранного жителя, это станет большой помощью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Май 2026 год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Фонд женщин и семьи Кёнсаннамдо |
Исполнитель исследования: ООО , Корейска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компания
Руководитель исследования: Отдел поли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Ли Херим |
Ответственный: отдел общественных опросов 1, группа 2, Чон Чипхун
Контакты:055-713-7061 | Контакты: 02-3014-1067

[Скрининговые вопросы для респондента]

SQ1. Проживаете ли в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1. Да 2. Нет

SQ2. В каком регионе (городе/уезд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вы сейчас проживаете?

1. Кочже 2. Кимхэ 3. Мирян 4. Сачхон 5. Янсан 6. Янсан
7. Чханвон 8. Тонъён 9. Кочхан 10. Косон 11. Намхэ 12. Санчхон
13. Ыйрён 14. Чханнён 15. Хадон 16. Хаман 17. Хамян 18. Хапчхон

SQ3. В каком году вы родились? _____год

SQ4. С какого времени вы начали проживать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_____год ___месяц

SQ5. Каков ваш пол? 1. Женский 2. Мужской

SQ6. В какой стране вы родились?

1. Непал 2. Восточный Тимор 3. Монголия 4. Мьянма 5. Бангладеш 6. Вьетнам
7. Шри-Ланка 8. Индонезия 9. Китай 10. Филиппины 11. Таиланд 12. Камбоджа
13. Пакистан 14. Узбекистан 15. Казахстан 16. Кыргызстан 17. Россия
18. Другое ( )

SQ7. Каков ваш семейный статус?

1. Холост/Не замужем 2. Женат/Замужем (включая гражданский брак)
3. Разведен/Разведена 4. Раздельно проживаете 5. Вдовец/Вдова

SQ8. Выберите всех, кто проживает с вами совместно.

1. Проживаю один(одна) (→ к SQ11))
2. Супруг(а) (включая гражданский брак)
3. Дети
4. Внуки
5. Мои братья/сёстры
6. Братья/сёстры супруга(и)
7. Отец (мой / супруга(и))
8. Мать (моя / супруга(и))
9. Родственники
10. Люди, не являющиеся членами семьи (друзья, коллеги и т.д.)

SQ9. Укажите количество совместно проживающих с вами членов семьи по категориям.

1. Сыновья: ( ) чел.
2. Дочери: ( ) чел.
3. Внуки: ( ) чел.
4. Внучки: ( ) чел.
5. Мои братья/сёстры: ( ) чел
6. Братья/сёстры супруга(и): ( ) чел.
7. Отец (мой / супруга(и)): ( ) чел.
8. Мать (моя / супруга(и)): ( ) чел
9. Родственники: ( ) чел.
10. Люди, не являющиеся членами семьи (друзья, коллеги и т.д.): ( ) чел.

SQ10. Есть ли среди членов вашей семьи, проживающих с вами, граждане Кореи? 1. Да 2. Нет

※ Ваша информация строго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статистике и н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а ни для каких целей, кроме дан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SQ11. Каков ваш текущий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

1.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ая трудов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E-9) 2. Трудов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H-2) 3. Специаль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E-7) 4. Сезонная работа (E-8)

5.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F-4) 6. Посещение/совмес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F-1),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F-3)
7. Постоя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F-5) 8. Брачная иммиграция (F-6, F-2-1) 9. Обучение (D-4)

10. Проживание (F-2, кроме F-2-1) 11. Прочее(G-1) 12. Нет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 нелегальное пребывание 13. Натурализация

SQ12. Пользовались ли 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услугами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его года (июнь 2025 – май 2026)? 1. Да 2. Н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слуги – это услуги,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государством или органам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с целью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quality of life) и удобства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роще говоря, это все услуги,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государств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ровинцией Кёнсаннамдо, городами/уездами)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вам в жизни в Корее. В частности,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слугам относятся об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а и различные сервисы,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следующ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Визы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Им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 визовые центры (продление визы и др.),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поиск работы и др.)
[Выдача документов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услуги]Мэрия / администрация уезд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центры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центры для жителей),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подача налоговой декларации, годовой перерасчёт и др.)
[Поддержка адаптации иностранцев] Центры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работников), центры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д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и уход за детьми / образование] Медицинские центры (пункт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етские сады, школы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защита прав] Полиция, пожарная служба, органы поддержки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а (например, подача жалобы на задержку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Прочие бытовые услуги] Библиотеки, социальные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е) цент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е центры по получению в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 общественные велосипеды и др.

SQ12-1. Пользовались ли вы следующи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услугами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Вид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Опы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Есть	Нет
1. **Услуги поддержки мигрантов** (центры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работников), семейные центры, центр Yongjin Korea и др.)	1	2
2. **Услуги, связанные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 занятостью**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и социаль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Plus, Корей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по трудовому благосостоянию и др.)	1	2
3. **Услуги, связанные со статусом пребывания (визой)** (им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Hi Korea, Еди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1345), Визовый центр Кённам и др.)	1	2
4.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услуг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центры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отделы по работе с гражданами в мэриях/администрациях уездов, Government24 и др.)	1	2
5.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Масанский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пункт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др.)	1	2
6. Налоговые услуги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Национ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HomeTax и др.)	1	2
7. Услуг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равовой защиты (полиция, пожарная служба, службы промышл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рячая линия для женщин 1366, приюты для мигранток, центры защиты жертв преступлений и др.)	1	2
8. Услуги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детские сады, ясли, региональные детские центры и др.)	1	2

9.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слуги (детские сады, школы, органы управления образованием и др.)	1	2
10. Услуг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ддержка беременности и родов, комплексные социальные центры и др.)	1	2
11. Услуги для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библиотеки,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местная валюта (Zero Pay), общественные велосипеды и др.)	1	2

SQ12-2-1~11. Каковы причины отсутствия опыт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ледующ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см.: SQ12-1 = 2]? Выберите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до 2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х вариантов .

1. Не знал(а) 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таких услуг
2. Не был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 услугах
3. Из-за языкового барьера не смог(ла) уточн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документах или процедурах
4. Слишком далеко расположено
5. Рабочее время совпадает с часами рабо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б
6. Нет доступа к услугам из-за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7. Не хочу, чтобы мой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стал известен

[Опы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 Ниже приведены вопросы об опыт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Q1Вы указали, что пользовались следующи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услугами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Получили ли вы достаточную помощь при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и?

Тип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Степень помощи:						
	Не получил(а) помощи		←	-	→	Получил(а) достаточную помощь	
1. Услуги поддержки мигрантов (центры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работников), семейные центры, центр Yongjin Korea и др.)	1	2	3	4	5	6	7
2. Услуги, связанные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 занятостью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и социаль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Plus, Корей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по трудовому благосостоянию и др.)	1	2	3	4	5	6	7
3. Услуги, связанные со статусом пребывания (визой) (им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Hi Korea, Еди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1345), Визовый центр Кённам и др.)	1	2	3	4	5	6	7
4.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услуг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центры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1	2	3	4	5	6	7

отделы по работе с гражданами в мэриях/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уездов, Government24 и др.)							
5.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Масанский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пункт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др.)	1	2	3	4	5	6	7
6. Налоговые услуги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Национ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HomeTax и др.)	1	2	3	4	5	6	7
7. Услуг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равовой защиты (полиция, пожарная служба, службы промышл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рячая линия для женщин 1366, приюты для мигранток, центры защиты жертв преступлений и др.)	1	2	3	4	5	6	7
8. Услуги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детские сады, ясли, региональные детские центры и др.)	1	2	3	4	5	6	7
9.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слуги (детские сады, школы, органы управления образованием и др.)	1	2	3	4	5	6	7
10. Услуг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ддержка беременности и родов, комплексные социальные центры и др.)	1	2	3	4	5	6	7
11. Услуги для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библиотеки,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местная валюта (Zero Pay), общественные велосипеды и др.)	1	2	3	4	5	6	7

Q1-1. Вы указали, что, проживая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пользовались следующи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услугами [см.: Q1 = выбранные варианты 1-3], однако не получили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й помощи. Какова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этого? Выберите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до 2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х вариантов.

1. Трудности в общении
2. Недостаток информации о содержании услуги
3. Слишком много документов и сложная процедура подачи заявки
4.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услуги
5. Невежливое отношение со стороны сотрудников/госслужащих
6. Недостаточный учёт культур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религии, питания, традиций и др.)

Q2. Каким образом вы узнали информацию об используемых в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ах? Выбери те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до 2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х вариантов.

1. От супруга(и), членов семьи ил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2. От корейских друзей, коллег или знакомых
3. От иностранных друзей, коллег или знакомых (включа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4. Через центры поддержки мигрантов
5.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YouTube, Instagram, Facebook и др.)
6. Через баннеры или рекламные материалы
7. Через поиск в интернет-порталах

Q3. Какая помощь вам необходима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Выберите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до 2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х вариантов.

1. Могу пользовать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без помощи
2. Улучшение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и многоязычных разъяснений (информация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объяснение процедур на разных языках и др.)
3. Поддержка устного и письм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на месте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4. Расшир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по времени и месту (работа вечером/в выходные, выездные услуги и др.)
5. Повышение удобства онлайн- и мобильных сервисов (дистанционная подача заявок и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др.)
6. Вежливое и не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иностранцам

Q4. Как вы считаете, кто из членов вашей семьи, проживающих с вам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уждаетс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убличных) услугах? Выберите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до 3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х вариантов.

1. Я сам(а)
2. Супруг(а) (включая гражданский брак)
3. Дети (или внуки) младшего возраста (0-6 лет)
4. Дети (или внуки)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и подростки (7-19 лет)
5. Мои братья/сёстры
6. Братья/сёстры супруга(и)
7. Отец (мой / супруга(и))
8. Мать (моя / супруга(и))
9. Родственники

Q5. Испытывали ли вы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дискриминацию, пренебрежительное или несправедливое отношение из-за того, что вы иностранец или иностран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1. Да 2. Нет (→ к Q6)

Q5-1. От кого, по вашему мнению, вы испытывали дискриминацию? Выберите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до 3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х вариантов .

1. Сотрудники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лужащие
2. Водитель автобуса
3. Родители детей (в детском саду / школе)
4. Воспитатели / учителя (детский сад / школа)
5. Другие пользовате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6. Другое ( )

Q5-2. Как вы отреагировали, когда столкнулись с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пренебрежительным или несправедливым отношением? Выберите до 3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х вариантов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1. Потребовал(а) извинений о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лица
2. Потребовал(а) изменить манеру речи и поведение
3. Обсудил(а) ситуацию с семьёй или друзьями
4. Обратился(ась) в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ли центры
5. Подал(а) жалобу в органы по защит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например, Комиссию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6. Опубликовал(а) сообщение в интернете (форумы, сообщества, соцсети и др.)
7. Ничего не предпринял(а) (→ к Q-5-2-1)

Q5-2-1. Почему вы предпочли не реагировать (стали терпеть), когда столкнулись с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пренебрежительным или несправедливым отношением? Выберите до 2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х вариантов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1. Не знал(а), как правильно поступить
2. Боялся(ась), что может раскрыться мой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3. Опасался(ась), что ситуация может повлиять на изменение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4. Считал(а), что даже при реакции ничего не изменится
5. Плохо владею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Q6. Как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слуги, по вашему мнению, необходим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проживающие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могли лучше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и интегрироваться в местное сообщество? Пожалуйста, выберите до 2 вариантов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1. Услуги поддержки мигрантов
2. Услуги, связанные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 занятостью
3.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4. Услуги по уходу и образованию
5. Услуг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6. Другое

Q6-1-1~6. Вы указали, ч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еобходимы [см.: первый выбранный вариант в Q6].

Пожалуйста, выберите из них до 2 наиболее необходим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Q6-2-1~6 Вы указали, что во вторую очередь необходимы [см.: второй выбранный вариант в Q6].

Пожалуйста, выберите из них до 2 наиболее необходим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Крупная катег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Подкатег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Услуги поддержки мигрантов	1.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2. Обучение пониманию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3. Поддержка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е 4.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жи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трудностям 5. Поддержка сообществ мигрантов 6.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граждан Кореи по улучшению отношения к иностранцам
Услуги, связанные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 занятостью	7. Получ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й /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 обучение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8.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 работе / расшир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9. Поддержка в решении трудностей и конфликтов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10. Поддержка беременности и родов 11. Устный и письме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 получени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12. Многоязычное оформление рецептов, упаковок лекарств и инструкций 13. Расширение выезд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 районы с высокой концентрацией иностранцев,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и др.) 14. Обучение основам профилактики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ухода за здоровьем 15.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психическому здоровью
Услуги по уходу и образованию	16. Поддержка расходов на уход за детьми и образование 17. Поддержка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детей 18. Поддержка изуче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для детей 19. Поддержка по школьным предметам для детей,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20. Профориентация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для детей 21.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обучение для родителей (воспитание детей,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рее и др.))
Услуг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22. Поддержка для детей младшего возраста 23. Поддержка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24. Поддержка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25. Поддержка для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26. Поддержка жертв преступлений (домашнее насилие, гендерное насилие и др.)
Прочее	27. Услуги устного и письм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28. Многоязычная поддержка онлайн-сервисов 29. Многоязычное оформ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политики, уведомления и др.) 30. Расшир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участия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родительские комитеты, волонтёр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совет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гражданские группы «дружественного города для женщин» и др.)

[Услуги, связанные с обучением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иже приведены вопросы об об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Q7. Изучали ли вы когда-либ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Корее, в своей стране или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1. Да 2. Нет (→ к Q8)

Q7-1. Каким способом вы изуча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1. Очное обучение
2. Онлайн-обучение
3. Смешанное обучение (очное + онлайн)

Q8. **Сдавали ли вы когда-либо экзамен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TOPIK)? (Пожалуйста, не учитывайте экзамен EPS-TOPIK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1. Да 2. Нет (→ к Q9)

Q8-1. Какой уровень вы получили на последнем экзамене TOPIK?

1. 1 уровень 2. 2 уровень 3. 3 уровень 4. 4 уровень 5. 5 уровень 6. 6 уровень
7. Не сдал(а)

Q9. Испытываете ли вы трудности в общени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чень трудно	Немного трудно	Почти нет	Совсем нет
1. Говорение	1	2	3	4
2. Аудирование	1	2	3	4
3. Чтение	1	2	3	4
4. Письмо	1	2	3	4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KIIP)** — эт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цев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культуре для успешной адаптации и жизни в Корее.

Q10. Проходили ли вы обучение по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KIIP)?

1. Да 2. Нет (→ к Q11) 3. Не знаю о программе KIIP (→ к Q11)

Q10-1Сдавали ли вы экзамен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KIIP? 1. Да 2. Нет (→ к Q11)

Q10-1-1. Какой уровень вы получили на последнем экзамене KIIP?

1. 0 уровень 2. 1 уровень 3. 2 уровень 4. 3 уровень 5. 4 уровень 6. 5 уровень

Q11. Хотели бы вы продолжить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тобы улучшить свои знания?

1. Да (→ к Q11-1) 2. Нет (→ к Q11-2)

Q11-1. Где вы хотели бы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ыберите до 3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х вариантов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1.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университет, языковые курсы и др.)
2. В центрах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работников)
3. В семейных центрах (центры поддер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4. В центрах поддержк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5. В час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орее (языковые школы, религиоз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др.)
6. На работе (например, выездные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7.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нлайн/AI-обучение, самообразование и др.)
8. С наставником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занятия)

Q11-2. Почему вы не планируете продолжать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1. Уже 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о владею
2. Владею плохо, но не испытываю неудобств
3. Есть желание учиться, но в реальности это трудно (→ к Q11-2-1)

Q11-2-1. Какая основная практическая трудность мешает вам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1. Нет времени из-за работы
2. Слишком далеко добираться до мест обучения
3. Хочу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ограмму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но сл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из-за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желающих
4. Хочу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ограмму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ции, но рядом мало учреждений, где она проводится
5. Другое ( )

[Адаптация в местном сообществе и социальный капитал]

※Ниже приведены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адаптации в местном сообществе и социального капитала (social capital).

Q12. По какой причине вы решили обосноваться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Пожалуйста, выберите до 2 основных причин в порядке важности.

1. Работа /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2. Брак
3. Учёба
4.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5. Рекомендация семьи или друз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Кёнсаннамдо
6. Образование детей
7. Доступность сообществ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центров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Q13. Вы указали, что начали проживать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с [см.: ответ SQ4]. Тогда когда вы впервые въехали в Корею? _____год____месяц

[Системное сообщение: Если указанная дата въезда в Корею позже, чем дата начала проживания в Кёнсаннамдо (SQ4)

«Вы указали, что начали проживать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с [ответ SQ4]. Дата первого въезда в Корею должна быть раньше или совпадать с этой датой. Пожалуйста, проверьте введё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Q14. Планируете ли вы и дальше проживать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1. Да 2. Нет (→ к Q15)

Q14-1. Как долго вы планируете проживать в Кёнсаннамдо?

1. 1-3 года 2. 4-6 лет 3. 7-9 лет 4. 10 лет и более 5. Постоя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Q14-2. Какой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вы хотели бы получить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1. Продление текущего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2. Смена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кроме получения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3. Получение статуса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4.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5. Пока не знаю

Q15. Насколько вы в целом удовлетворены своей жизнью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жизнью в своей родной стране?

1. Совсем не удовлетворён(а) 2. Скорее не удовлетворён(а) 3. Скорее удовлетворён(а)
4. Полностью удовлетворён(а)

Q16-1. Если вам потребуется помощь из-за болезни, есть ли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человек ,кроме членов семьи, к которому вы можете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или советом?

Тип людей, оказывающих помощь	Нет	1-2 человека	3-4 человека	5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1. Корейцы	1	2	3	4
2.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2	3	4
3. Другие иностранцы	1	2	3	4

Q16-2. Если вам срочно потребуется занять крупную сумму денег, есть ли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человек, кроме членов семьи, к которому вы можете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или советом?

Тип людей, оказывающих помощь	Нет	1-2 человека	3-4 человека	5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1. Корейцы	1	2	3	4
2.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2	3	4
3. Другие иностранцы	1	2	3	4

Q16-3. Если вам грустно или вы чувствуете подавленность и вам нужен собеседник, есть ли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человек, кроме членов семьи, к которому вы можете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ддержкой или советом?

Тип людей, оказывающих помощь	Нет	1-2 человека	3-4 человека	5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1. Корейцы	1	2	3	4
2.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2	3	4
3. Другие иностранцы	1	2	3	4

Q17. Какова ваша религия?

1. Христианство (протестантизм)
2. Католицизм
3. Ислам
4. Индуизм
5. Буддизм
6. Конфуцианство и традиционные китайские религии
7. Нет (неверующий/ая)
8. Друго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завершение —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Q18. Работали ли вы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июнь 2025 — май 2026) за оплату, с целью получения дохода? Если да, сколько часов в среднем вы работали в неделю?

1. Не работал(а) (→ к Q21)
2. Менее 15 часов в неделю
3. От 15 до менее 40 часов в неделю
4. 40 часов в неделю и более

Q19. Какой вид занятости у вас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1. Полная занятость (full-time)
2. Частичная занятость / подработка (part-time)
3. Ежедневная занятость (daily worker)
4. Самозанятость (self-employed)
5. Неоплачиваемая работа в семейном бизнесе (Unpaid family worker)

Q20. Подписывали ли вы трудовой договор?

1. Да
2. Нет
3. Затрудняюсь ответить

Q21. Застрахованы ли вы в системе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Ви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Застрахован(а)	Не застрахован(а)	Не знаю
1. Пенсионное страхование	1	2	3
2.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1	2	3
3. Страхование по безработице	1	2	3
4. Страхование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1	2	3

Q22. Каков ваш средн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за последние 3 месяца (март 2026 — май 2026)?

※ Пожалуйста, укажите личный доход, а не доход всей семьи.

※ Укажите сумму, которую вы фактически получаете после вычета налогов.

1. Примерно _____ вон

Опрос завершён.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то, что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 мнением.

ग्याङनाम प्रदेशमा आप्रवासी पृष्ठभूमि भएका परिवारहरूको सार्वजनिक सेवाको उपयोग सम्बन्धी वास्तविक अवस्था सर्वेक्षण

नमस्कार।

ग्याङसाङनाम–दो महिला तथा परिवार फाउन्डेशन ग्याङसाङनाम–दो प्रदेशको लगानी तथा सहयोगमा स्थापना गरिएको संस्था हो। यस संस्थाले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बसोबास गर्ने विदेशी बासिन्दाहरूको स्थानीय समाजमा अनुकूलन र एकीकरणलाई सहयोग गर्न सार्वजनिक सेवा प्रयोगसँग सम्बन्धित नीति सुधारका उपायहरूबारे अध्ययन गरिरहेको छ।यो सर्वेक्षणमा कुनै पनि सही वा गलत उत्तर हुँदैन, त्यसैले कृपया तपाईंले सामान्यतया सोच्ने अनुसार नै उत्तर दिनुहुनेछ भन्ने अपेक्षा गरिएको छ।

तपाईंले दिनुभएको सबै जानकारी व्यक्तिगत सूचना संरक्षण ऐन अनुसार पूर्ण रूपमा गोप्य राखिनेछ, र अज्ञात रूपमा प्रशोधन गरी अनुसन्धान उद्देश्यका लागि मात्र प्रयोग गरिनेछ। यस सर्वेक्षणलाई पूरा गर्न करिब १५ मिनेट लाग्नेछ। तपाईं व्यस्त भए पनि कृपया केही समय निकालेर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विदेशी बासिन्दाको रूपमा बस्दा तपाईंले अनुभव गर्नुभएको कुराहरू साझा गर्नुभयो भने यस अध्ययनमा ठूलो सहयोग पुग्नेछ।

२०२६ मे

अनुसन्धान संस्था : ग्याङसाङनाम–दो महिला तथा परिवार फाउन्डेशन

अनुसन्धान कार्यान्वयन संस्था : (निजी लिमिटेड कम्पनी) कोरिया अनुसन्धान कम्पनी

अनुसन्धान प्रमुख : नीति अनुसन्धान विभाग, इ हे रिम अनुसन्धान सदस्य

सम्पर्क व्यक्ति : जनमत सर्वेक्षण विभाग १, टोली २, जङ जिप–हुन (जिम्मेवार)

सम्पर्क नं. : ०५५-७१३-७०६१ | सम्पर्क नं. : ०२-३०१४-१०६७

[उत्तरदाता छनोट सम्बन्धी प्रश्नहरू]

SQ1. के तपाईं **हाल ग्याङसाङनाम–**दो मा बसोबास गर्नुहुन्छ? १. हो २. होइन

SQ2. तपाईं **हाल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कुन क्षेत्रमा** बसोबास गर्नुहुन्छ?

१. गजे सि २. गिम्हे सि ३. मिल्याङ सि ४. साछन सि ५. याङसान सि ६. जिन्जु सि ७. छाङवोन सि ८. थोङयङ सि ९. गछाङ गुन १०. गोसङ गुन ११. नाम्हे गुन १२. सानछङ गुन १३. उइर्यङ गुन १४. छाङन्यङ गुन १५. हादोङ गुन १६. हामान गुन १७. हाम्याङ गुन १८. हाप्छन गुन

SQ3. तपाईं कहिले **जन्मनु भएको हो?** _____ वर्ष

SQ4. तपाईंले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कहिलेदेखि** बस्न सुरु गर्नुभयो? _____ वर्ष _____ महिना

SQ5. तपाईंको **लिङ्ग** के हो? १. महिला २. पुरुष

SQ6. तपाईं **कुन देशमा जन्मनुभएको** हो?

१. नेपाल २. पूर्वी तिमोर ३. मङ्गोलिया ४. म्यानमार ५. बङ्गलादेश ६. भियतनाम ७. श्रीलंका ८. इन्डोनेसिया ९. चीन १०. फिलिपिन्स ११. थाइल्याण्ड १२. कम्बोडिया १३. पाकिस्तान १४. उजबेकिस्तान १५. कजाखस्तान १६. किर्गिस्तान १७. रसिया १८. अन्य ( )

SQ7. तपाईंको **वैवाहिक अवस्था** तलका मध्ये कुनमा पर्छ?

१. अविवाहित २. विवाहित (सहजीवन सहित) ३. सम्बन्ध विच्छेद (डिभोर्स) ४. अलग बस्ने ५. विधवा/विधुर

SQ8. तलका मध्ये **तपाईंसँग सँगै बस्ने व्यक्तिहरू <u>सबै</u>** चयन गर्नुहोस्।

१. एक्लै बस्दै छु (→ SQ११)
२. जीवनसाथी (सहजीवन सहित)
३. सन्तान
४. नाति/नातिनी
५. मेरो दाजु/भाइ/दिदी/बहिनी
६. जीवनसाथीको दाजु/भाइ/दिदी/बहिनी
७. मेरो/जीवनसाथीको बुबा
८. मेरो/जीवनसाथीको आमा
९. आफन्त
१०. परिवार बाहेकको व्यक्ति (साथी, काम गर्ने सहकर्मी आदि)

SQ9. सँगै बस्ने परिवारका **सदस्यहरूको संख्या** उल्लेख गर्नुहोस्।

१. छोरा: ( ) जना
२. छोरी: ( ) जना
३. नाति: ( ) जना
४. नातिनी: ( ) जना
५. मेरो दाजु/भाइ/दिदी/बहिनी: ( ) जना
६. जीवनसाथीकोदाजु/भाइ/दिदी/बहिनी: ( ) जना
७. मेरो/जीवनसाथीको बुबा: ( ) जना
८. मेरो/जीवनसाथीको आमा: ( ) जना
९. आफन्त: ( ) जना
१०. परिवार बाहेकको व्यक्ति (साथी, काम गर्ने सहकर्मी आदि): ( ) जना

SQ10. तपाईं सँगै बस्ने परिवारमध्ये **कोही कोरियाली** छन्? १. हो २. होइन

※ तपाईंको जानकारी सांख्यिकी अधिनियमको अनुसार पूर्ण रूपमा गोप्य राखिनेछ, र यो अध्ययनको उद्देश्य बाहेक अन्य कुनै प्रयोजनका लागि कहिल्यै प्रयोग गरिने छैन।

SQ11. हाल तपाईंको **बसोबास (भिसा)** स्थिति के हो?

१. गैर-प्राविधिक रोजगार (E-9) २. भ्रमण रोजगार (H-2) ३. विशेष गतिविधि (E-7) ४. मौसमी कामदार (E-8)
५. विदेशमा बस्ने कोरियाली (F-4) ६. परिवारसँग बस्ने/साथी भिसा (F-1, F-3) ७. स्थायी बसोबास (F-5)
८. विवाह आप्रवासी (F-6, F-2-1) ९. अध्ययन (D-4) १०. बसोबास (F-2, F-2-1 बाहेक) ११. अन्य (G-1)१२. बसोबास स्थिति छैन / अवैध (दर्ता नभएको) १३. नागरिकता प्राप्त

SQ12. के तपाईंले **<u>पछिल्लो १ वर्ष (२०२५.०६ – २०२६.०५)</u>** मा कुनै सार्वजनिक सेवा प्रयोग गर्नुभएको छ? १. हो २. होइन

सार्वजनिक सेवाभन्नाले सरकार वा स्थानीय निकायहरूले स्थानीय बासिन्दाको जीवनस्तर र दैनिक जीवनको सुविधा सुधार गर्न प्रदान गर्ने सेवाहरूलाई जनाउँछ। सजिलो भाषामा भन्नुपर्दा, तपाईंले कोरियामा बस्दा सरकार (केन्द्र सरकार, प्रान्त, शहर/जिल्ला) बाट सहयोगका लागि प्रदान गरिने सबै सेवाहरू सार्वजनिक सेवा हुन्। विशेष गरी, तल उल्लेखित संस्थाहरूबाट प्रदान गरिने शिक्षा, सहयोग तथा सेवाहरू सबै सार्वजनिक सेवामा पर्छन्।

[भिसा तथा रोजगारी] आप्रवासन कार्यालय / भिसा केन्द्र (भिसा नवीकरण आदि),श्रम मन्त्रालय / रोजगार केन्द्र (रोजगारी खोजी आदि)
[कागजात जारी तथा सहायता] नगरपालिकाको कार्यालय / जिल्ला कार्यालय प्रशासनिक कल्याण केन्द्र (स्थानीय वडा कार्यालय) कर कार्यालय (कर दर्ता, वार्षिक कर मिलान आदि)
[विदेशी बसोबास सहायता] विदेशी बासिन्दा (कामदार) सहायता केन्द्र बहुसांस्कृतिक परिवार केन्द्र (कोरियन भाषा शिक्षा, परामर्श आदि)
[स्वास्थ्य तथा बाल हेरचाह/शिक्षा] स्वास्थ्य चौकी / स्वास्थ्य केन्द्रसरकारी बालबालिका हेरचाह केन्द्र विद्यालय
[सुरक्षा तथा अधिकार संरक्षण] प्रहरी कार्यालय दमकल विभाग श्रम तथा रोजगार कार्यालय (तलब नपाएको उजुरी आदि)
[अन्य दैनिक सुविधा] पुस्तकालय कल्याण केन्द्र सार्वजनिक खेलकुद सुविधा सवारी चालक अनुमति परीक्षा केन्द्र सार्वजनिक साइकल सेवा आदि

SQ12-1. के तपाईंले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निम्न सार्वजनिक सेवाहरू प्रयोग गरेको अनुभव छ?

सार्वजनिक सेवाका प्रकारहरू	प्रयोग गरेको अनुभव	
	छ	छैन
१. आप्रवासी सहायता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विदेशी बासिन्दा (कामदार) सहायता केन्द्र, परिवार केन्द्र, योङजिन कोरिया केन्द्र आदि)	१	२
२. रोजगार/नियोजन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रोजगार केन्द्र, रोजगार-कल्याण प्लस केन्द्र, कामदार कल्याण निगम आदि)	१	२
३. बसोबास (भिसा) स्थिति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आप्रवासन कार्यालय, हाइ कोरिया, विदेशी समग्र सहायता केन्द्र (1345), ग्याङसाङनाम भिसा केन्द्र आदि)	१	२
४. प्रशासनिक (नागरिक) सेवा(प्रशासनिक कल्याण केन्द्र, सहर/जिल्ला कार्यालयको नागरिक सेवा कक्ष, सरकार २४ (अनलाइन सरकारी सेवा पोर्टल)आदि)	१	२
५. स्वास्थ्य तथा चिकित्सा सेवाहरू (मसान मेडिकल सेन्टर स्वास्थ्य चौकी आदि)	१	२
६. कर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कर कार्यालय, होमट्याक्स आदि)	१	२
७. सुरक्षा तथा कानुनी (न्यायिक) सेवाहरू (प्रहरी कार्यालय, दमकल विभाग, औद्योगिक सुरक्षा सम्बन्धी संस्था, महिला आपतकालीन हेल्पलाइन 1366, आप्रवासी महिला संरक्षण केन्द्र, अपराध पीडित संरक्षण केन्द्र आदि)	१	२
८. बालबालिका हेरचाह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बालबालिका केन्द्र, नर्सरी/किन्डरगार्टेन,	१	२

स्थानीय बाल केन्द्र आदि)		
९. शिक्षा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किन्डरगार्टेन, विद्यालय, शिक्षा कार्यालय आदि)	१	२
१०. सामाजिक सुरक्षा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गर्भावस्था/प्रसव सहयोग, समग्र सामाजिक कल्याण केन्द्र आदि)	१	२
११. नागरिक सुविधा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पुस्तकालय,सांस्कृतिक केन्द्र,सार्वजनिक खेलकुद सुविधा, क्षेत्रीय मुद्रा (जिरोपे),सार्वजनिक साइकल आदि)	१	२

SQ12-2-1~11. सार्वजनिक सेवामध्ये [उल्लेख: SQ१२-१=२ का विकल्पहरू] प्रयोग नगर्नुको कारण के थियो?

लागू हुनेमध्ये क्रम अनुसार **बढीमा २ वटा** छान्नुहोस्।

१. सेवा रहेको थाहा नभएकाले
२. सेवा आवश्यक नभएकाले
३. भाषा अवरोधका कारण कागजात वा प्रक्रिया बारे थप सोध्न नसकेकाले
४. भौतिक रूपमा दूरी टाढा भएकाले
५. काम गर्ने समय र सार्वजनिक सेवाको समय जुधेकाले
६. बसोबास (भिसा) स्थितिका कारण सेवा प्रयोग गर्ने अधिकार नभएकाले
७. आफ्नो बसोबास (भिसा) स्थिति खुलाउन नचाहेकाले

[सार्वजनिक सेवा प्रयोग अनुभव]

※ तलका प्रश्नहरू सार्वजनिक सेवा प्रयोग अनुभव सम्बन्धी हुन्।

Q1. तपाईंले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निम्न सार्वजनिक सेवाहरू प्रयोग** गरेको बताउनुभएको छ। यी सेवाहरू प्रयोग गर्दा तपाईंले **पर्याप्त सहयोग प्राप्त गर्नुभयो**?

सार्वजनिक सेवाका प्रकारहरू	सहयोगको स्तर						
	सहयोग प्राप्त भएन		←	-	→	पर्याप्त सहयोग प्राप्त भयो	
१. आप्रवासी सहायता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विदेशी बासिन्दा(कामदार) सहायता केन्द्र, परिवार केन्द्र, योङजिन कोरिया केन्द्र आ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२. रोजगार/नियोजन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रोजगार केन्द्र, रोजगार-कल्याण प्लस केन्द्र, कामदार कल्याण निगम आ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३. बसोबास (भिसा) स्थिति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आप्रवासन कार्यालय, हाइ कोरिया, विदेशी समग्र सहायता केन्द्र (1345), ग्याङसाङनाम भिसा केन्द्र आ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४. प्रशासनिक (नागरिक) सेवा (प्रशासनिक कल्याण केन्द्र, सहर/जिल्ला कार्यालयको नागरिक सेवा कक्ष, सरकार २४ (अनलाइन सरकारी सेवा पोर्टल)आ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५. स्वास्थ्य तथा चिकित्सा सेवाहरू (मसान मेडिकल सेन्टर स्वास्थ्य चौकी आ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६. कर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कर कार्यालय, होमट्याक्स आ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७. सुरक्षा तथा कानुनी (न्यायिक) सेवाहरू (प्रहरी कार्यालय, दमकल विभाग, औद्योगिक सुरक्षा सम्बन्धी संस्था, महिला आपतकालीन हेल्पलाइन 1366, आप्रवासी महिला संरक्षण केन्द्र, अपराध पीडित संरक्षण केन्द्र आ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८. बालबालिका हेरचाह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बालबालिका केन्द्र, नर्सरी/किन्डरगार्टेन, स्थानीय बाल केन्द्र आ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९. शिक्षा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किन्डरगार्टेन, विद्यालय, शिक्षा कार्यालय आ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१०. सामाजिक सुरक्षा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गर्भावस्था/प्रसव सहयोग, समग्र सामाजिक कल्याण केन्द्र आ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११. नागरिक सुविधा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पुस्तकालय,सांस्कृतिक केन्द्र,सार्वजनिक खेलकुद सुविधा, क्षेत्रीय मुद्रा (जिरोपे),सार्वजनिक साइकल आ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Q1-1. तपाईंले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बस्दा **सार्वजनिक सेवा** [Q1=१~३ मा छनोट गरिएको] प्रयोग गर्नुभएको भए पनि, सन्तोषजनक सहयोग प्राप्त नभएको बताउनुभएको छ। त्यसको **मुख्य कारण** के हो? लागू हुनेमध्ये क्रम अनुसार **<u>बढीमा २ वटा</u>** छान्नुहोस्।

१. भाषा राम्रोसँग नबुझिएकाले

२. सेवाको विषयमा जानकारी कम भएकाले

३. पेश गर्नुपर्ने कागजात धेरै र प्रक्रिया जटिल भएकाले

४. सेवा लिन धेरै समय कुर्नु परेकाले

५. सेवा दिने कर्मचारी/अधिकारी असभ्य वा असहयोगी भएकाले

६. धर्म, खाना, परम्परा जस्ता सांस्कृतिक विशेषताप्रति पर्याप्त ध्यान नदिइएकाले

Q2. तपाईंले प्रयोग गरेको **सार्वजनिक सेवाको** बारेमा जानकारी कसरी पाउनुभयो? लागू हुनेमध्ये क्रम अनुसार **बढीमा २ वटा** छान्नुहोस्।

१. जीवनसाथी, परिवार वा नातेदारले जानकारी दिएको

२. कोरियाली साथी, सहकर्मी वा चिनजानबाट थाहा पाएको

३. विदेशी (आफ्नो देशका सहित) साथी, सहकर्मी वा चिनजानबाट थाहा पाएको

४. आप्रवासी सहायता केन्द्रमार्फत

५. SNS (YouTube, Instagram, Facebook आदि) मा खोजेर

६. ब्यानर वा प्रचार सामग्रीबाट

७. इन्टरनेट पोर्टल साइटमा खोजेर

Q3. सार्वजनिक सेवा प्रयोग गर्दा तपाईंलाई **कस्तो सहयोग** आवश्यक पर्छ? लागू हुनेमध्ये क्रम अनुसार बढीमा **२ वटा** छान्नुहोस्।

१. कुनै सहयोग बिना आफैं प्रयोग गर्न सक्ने

२. जानकारी तथा बहुभाषिक मार्गदर्शन सुदृढ गर्ने (सेवा दिने संस्थाको जानकारी र बहुभाषिक प्रक्रिया विवरण आदि)

३. स्थलमै वास्तविक समय अनुवाद/दुभाषे सेवा

४. समय तथा स्थान पहुँच विस्तार (राति/सप्ताहन्त सेवा, मोबाइल सेवा आदि)

५. अनलाइन तथा मोबाइल सेवाको सहजता बढाउने (प्रत्यक्ष भेटघाट बिना आवेदन तथा परामर्श आदि)

६. विदेशीप्रति मैत्रीपूर्ण र भेदभावरहित व्यवहार

Q4. तपाईं सँगै बस्ने परिवारका सदस्यहरू मध्ये कसलाई **सार्वजनिक सेवा** आवश्यक छ जस्तो लाग्छ? आवश्यक भएको व्यक्ति **क्रम अनुसार बढीमा ३ जनासम्म** छान्नुहोस्।

१. स्वयं

२. जीवनसाथी (सहजीवन समेत)

३. शिशु (०–६ वर्ष) बच्चा/नाति-नातिनी

४. बालबालिका/किशोर (७–१९ वर्ष) बच्चा/नाति-नातिनी

५. मेरा दाजु/भाइ/दिदी/बहिनी

६. जीवनसाथीका दाजु/भाइ/दिदी/बहिनी

७. मेरो/जीवनसाथीकोबुबा

८. मेरो/जीवनसाथीको आमा

९. आफन्त:

Q5. सार्वजनिक सेवा प्रयोग गर्दा तपाईंले **विदेशी हुनुको कारणले भेदभाव, बेवास्ता वा अन्यायपूर्ण व्यवहार अनुभव गर्नुभएको** छ?

१. छ　　२. छैन (→ Q6)

Q5-1. तपाईंले कसबाट भेदभाव भएको ठान्नुहुन्छ? क्रम अनुसार **<u>बढीमा ३ वटा</u>** छान्नुहोस्।

१ सम्बन्धित कर्मचारी/सरकारी कर्मचारी

२. बस चालक

३. बालबालिका केन्द्र/किन्डरगार्टेन/विद्यालयको अभिभावक

४. बालबालिका केन्द्र/किन्डरगार्टेन/विद्यालयको शिक्षक

५. सार्वजनिक सेवा प्रयोग गर्ने अन्य व्यक्ति

६. अन्य (　　)

Q5-2. भेदभाव वा अन्यायपूर्ण व्यवहार हुँदा तपाईंले **कसरी प्रतिक्रिया** दिनुभयो? क्रम अनुसार **<u>बढीमा ३ वटा</u>** छान्नुहोस्।

१. सम्बन्धित व्यक्तिसँग माफी माग्न आग्रह गरे

२. उनको बोलाइ र व्यवहार सुधार्न भने

३. परिवार वा साथीहरूसँग सल्लाह गरे

४. परामर्श संस्था वा केन्द्रमा सोधे

५. राष्ट्रिय मानवअधिकार आयोग जस्ता संस्थामा उजुरी गरे

६. इन्टरनेट, क्याफे, SNS मा लेखे

७. सहेर बसें (→ Q5-2-1)

Q5-2-1. भेदभाव, बेवास्ता वा अन्यायपूर्ण व्यवहार हुँदा तपाईंले **किन सहनुभयो**? लागू हुनेमध्ये क्रम अनुसार **<u>बढीमा २ वटा</u>** छान्नुहोस्।

१. के गर्ने भन्ने थाहा नभएकाले

२. आफ्नो बसोबास स्थिति खुल्ने डरले

३. भिसा परिवर्तनमा असर पर्ने डरले

४. प्रतिक्रिया दिए पनि केही परिवर्तन हुँदैन जस्तो लागेर

५. कोरियन भाषा राम्रो नआएकाले

Q6.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बसोबास गर्ने विदेशी नागरिकहरूलाई समुदायमा राम्रोसँग अनुकूल हुन र समाहित हुन मद्दत गर्न **आवश्यक ठानिएका** सार्वजनिक सेवाहरू मध्ये **क्रम अनुसार २ वटा** छनोट गर्नुहोस्।

१. आप्रवासी सहायता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२. रोजगार/नियोजन सेवा

३. स्वास्थ्य तथा चिकित्सा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४. हेरचाह/शिक्षा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५. सामाजिक सुरक्षा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६. अन्य

Q6-1-1~6. तपाईंले पहिलो रूपमा [Q6 मा चयन गरिएको पहिलो विकल्प] आवश्यक छ भन्नुभएको छ। त्यसमा **सबैभन्दा आवश्यक २ वटा सेवा क्रम अनुसार** छान्नुहोस्।

Q6-2-1~6. तपाईंले दोस्रो रूपमा [Q6 मा चयन गरिएको दोस्रो विकल्प] आवश्यक छ भन्नुभएको छ। त्यसमा **सबैभन्दा आवश्यक २ वटा सेवा क्रम अनुसार** छान्नुहोस्।

सार्वजनिक सेवाहरूको मुख्य वर्गीकरण	सार्वजनिक सेवाहरूको उप-वर्गीकरण
आप्रवासी (प्रवासी) सहयोग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१. कोरियाली भाषा शिक्षा २. कोरियाली समाज बुझ्ने शिक्षा ३. कोरियामा बसोबास सुरु गर्दा प्रारम्भिक सहयोग ४. दैनिक जीवनसम्बन्धी जानकारी सहयोग तथा समस्या परामर्श सेवा ५. आप्रवासी तथा समुदायिक गतिविधिहरूमा सहयोग ६. स्थानीय नागरिकको लागि विदेशी सम्बन्धी सचेतना तथा धारणा सुधार शिक्षा
रोजगार / रोजगारी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७. प्रमाणपत्र प्राप्ति / व्यावसायिक तालिम / रोजगार शिक्षा ८. रोजगार सम्बन्धी जानकारी प्रदान / रोजगारीकाको अवसर विस्तार ९. कार्यस्थलभित्रको समस्या / द्वन्द्व समन्वय सहयोग
स्वास्थ्य तथा चिकित्सा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१०. गर्भावस्था तथा प्रसूति सहयोग ११. उपचारको बेला दोभाषे / अनुवाद सहयोग १२. प्रिस्क्रिप्सन, औषधिको प्याकेट र सावधानी सम्बन्धी सूचनाहरू बहुभाषामा लेखिने व्यवस्था १३. विदेशीहरूको बसोबास बढी भएको क्षेत्र तथा कार्यस्थलमा पुगेर स्वास्थ्य सेवा विस्तार १४. रोकथाम तथा स्व-हेरचाह सम्बन्धी स्वास्थ्य शिक्षा १५. मानसिक स्वास्थ्य परामर्श सेवा
हेरचाह / शिक्षा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१६. बालबालिकाको हेरचाह खर्च तथा शिक्षा खर्च सहयोग १७. बालबालिकाको कोरियाली भाषा सिकाइ सहयोग १८. बालबालिकाको मातृभाषा सिकाइ सहयोग १९. कोरियाली भाषा सिकिरहेका बालबालिकाको पाठ्यक्रम अध्ययन सहयोग

	२०. बालबालिकाको करियर / शैक्षिक मार्गदर्शन शिक्षा २१. अभिभावक परामर्श / शिक्षा (बाल पालनपोषण, कोरियाली शिक्षा प्रणाली आदि)
सामाजिक सुरक्षा सम्बन्धी सेवाहरू	२२. शिशु तथा साना बालबालिका सम्बन्धी सहयोग २३. बालबालिका तथा किशोरकिशोरी सम्बन्धी सहयोग २४. ज्येष्ठ नागरिक सम्बन्धी सहयोग २५. अपाङ्गता भएका व्यक्तिहरू सम्बन्धी सहयोग २६. घरेलु हिंसा, लैङ्गिक हिंसा आदि अपराध पीडित सम्बन्धी सहयोग
अन्य	२७. दोभाषे / अनुवाद सेवा २८. अनलाइन सेवाहरूमा बहुभाषिक सहयोग २९. नीति प्रचार, नागरिक सुविधा सम्बन्धी सूचना आदि बहुभाषामा उपलब्ध गराउने व्यवस्था ३०. सामाजिक गतिविधिमा सहभागिता अवसर विस्तार (अभिभावक संघ, स्वयंसेवा समूह, स्थानीय स्वशासन समिति, महिला मैत्री शहर नागरिक सहभागिता समूह आदि)

[कोरियाली भाषा शिक्षा सम्बन्धी सेवा]

※ तलका प्रश्नहरू कोरियाली भाषा शिक्षा सम्बन्धी सेवासँग सम्बन्धित छन्।

Q7. तपाईंले अहिलेसम्म कोरिया, आफ्नो देश, वा अन्य कुनै देशमा **कोरियाली भाषा सिक्नु** भएको छ?

१. छ　　२. छैन (→ Q8)

Q7-1. तपाईंले कोरियाली भाषा **कुन तरिकाले** सिक्नुभयो?

१. प्रत्यक्ष (कक्षामा) शिक्षा
२. अनलाइन शिक्षा
३. प्रत्यक्ष र अनलाइन शिक्षा मिश्रित

Q8. तपाईंले **कोरियाली भाषा क्षमता परीक्षा** (TOPIK) दिनुभएको छ? (रोजगारको लागि EPS-TOPIK बाहेक)

१. छ　　२. छैन (→ Q9)

Q8-1. तपाईंले **पछिल्लो** पटक दिएको **कोरियाली भाषा क्षमता परीक्षा (** TOPIK) परीक्षामा कुन स्तर प्राप्त गर्नुभयो?

१. १ स्तर　२. २ स्तर　३. ३ स्तर　४. ४ स्तर　५. ५ स्तर　६. ६ स्तर　७. असफल

Q9. तपाईंलाई **कोरियाली भाषामा संवाद** गर्न **कठिनाइ** हुन्छ?

	बहुत धेरै कठिनाइ	अलि कठिनाइ	लगभग छैन	बिल्कुल छैन
१. बोल्ने	१	२	३	४
२. सुन्ने	१	२	३	४

३. पढ्ने	१	२	३	३
३. लेख्ने	१	२	३	४

※ सामाजिक एकीकरण कार्यक्रम (KIIP) न्याय मन्त्रालय (법무부) द्वारा विदेशी नागरिकहरूलाई कोरियामा राम्रोसँग अनुकूल हुन र बस्न सहयोग गर्न कोरियाली भाषा र कोरियाली संस्कृति सिकाउने शिक्षा कार्यक्रम हो।

Q10. तपाईंले **सामाजिक एकीकरण कार्यक्रम** (KIIP) कक्षा लिएको छ?

१. छ २. छैन (→ Q11) ३. सामाजिक एकीकरण कार्यक्रम (KIIP) बारे थाहा छैन (→ Q11)

Q10-1. तपाईंले सामाजिक एकीकरण कार्यक्रम (KIIP) **परीक्षा दिएको** छ?

१. छ २. छैन (→ Q11)

Q10-1-1. तपाईंले **पछिल्लो** पटक दिएको **सामाजिक एकीकरण कार्यक्रम** (KIIP) परीक्षामा **कुन स्तर** प्राप्त गर्नुभयो?

१. स्तर ० २. स्तर १ ३. स्तर २ ४. स्तर ३ ५. स्तर ४ ६. स्तर ५

Q11. अहिलेभन्दा राम्रो कोरियाली भाषा बोल्न सिक्न तपाईं अझै अध्ययन गर्न चाहनुहुन्छ?

१. छ (→ Q11-1) २. छैन (→ Q11-2)

Q11-1. तपाईं कोरियाली भाषा कहाँ सिक्न चाहनुहुन्छ? कृपया **अधिकतम ३ वटा** क्रम अनुसार चयन गर्नुहोस्।

१. विद्यालय (विश्वविद्यालय, भाषा शिक्षालय आदि)
२. विदेशी निवासी (कामदार) सहायता केन्द्र
३. परिवार केन्द्र (बहुसांस्कृतिक परिवार सहायता केन्द्र)
४. विदेशी प्रवासी सहायता केन्द्र
५. कोरियामा रहेका निजी संस्था (एकेडेमी, धार्मिक संस्था आदि)
६. कम्पनी (घरमै आउने भाषा शिक्षा आदि)
७. आफैं अध्ययन (इन्टरनेट/AI अध्ययन, स्वयं अध्ययन आदि)
८. कोरियाली भाषा मेन्टरिङ (व्यक्तिगत ट्युटरिङ)

Q11-2. कोरियाली भाषा **अध्ययन गर्न चाहनुहुन्न** भने कारण के हो?

१. पहिल्यै पर्याप्त राम्रो बोल्न सक्छु
२. धेरै राम्रो छैन तर समस्या छैन
३. सिक्न चाहन्छु तर व्यवहारिक रूपमा कठिन छ (→ Q11-2-1)

Q11-2-1. कोरियाली भाषा अध्ययन गर्न **सबैभन्दा ठूलो व्यवहारिक कठिनाइ के** हो?

१. कामको कारणले अध्ययन गर्ने समय छैन
२. टाढा भएकोले भाषा कक्षा हुने ठाउँमा जान सकिँदैन
३. KIIP आवेदन गर्न चाहन्छु तर आवेदनकर्ता धेरै भएकाले कठिन छ
४. KIIP लिन चाहन्छु तर नजिकमा कार्यक्रम सञ्चालन गर्ने संस्था कम छ
५. अन्य ( )

[स्थानीय समुदायमा बसोबास र सामाजिक पूँजी]

※ तलका प्रश्नहरू स्थानीय समुदायमा बसोबास र सामाजिक पूँजी (social capital) सम्बन्धी हुन्।

Q12. तपाईंले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बसोबास गर्ने निर्णय गर्नुको कारण** के हो? कृपया सबैभन्दा मुख्य कारण अनुसार **क्रम मिलाएर २ वटा** चयन गर्नुहोस्।

१. रोजगारी / काम

२. विवाह

३. अध्ययन

४. सामाजिक-आर्थिक पूर्वाधार

५.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रहेका परिवार/साथीको सिफारिस

६. बालबालिकाको शिक्षा

७. मातृदेश समुदाय तथा विदेशी सहायता केन्द्रको पहुँच

Q13. तपाईंले [प्रदर्शित: SQ4 उत्तर] देखि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बस्न सुरु गर्नुभएको बताउनुभएको छ। त्यसो भए तपाईं **पहिलो पटक कोरियामा कहिले प्रवेश** गर्नुभयो? _____ वर्ष _____ महिना

[सूचना: यदि उत्तर प्रस्तुत SQ4 (वर्ष र महिना) भन्दा पछिको वर्ष/महिना छ भने] "तपाईंले [प्रदर्शित: SQ4 उत्तर] देखि .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बस्न सुरु गर्नुभएको बताउनुभएको छ। कोरियामा पहिलो प्रवेशको समय त्यस भन्दा पहिले वा त्यही समय हुनुपर्छ। कृपया तपाईंले दिएको जानकारी पुनः जाँच गर्नुहोस्।"

Q14. तपाईं **भविष्यमा पनि**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बस्न चाहनुहुन्छ? १. हो २. होइन (→ Q15)

Q14-1. तपाईं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कति समयसम्म बस्ने** योजना बनाउनुहुन्छ?

१. १–३ वर्ष २. ४–६ वर्ष ३. ७–९ वर्ष ४. १० वर्षभन्दा बढी ५. स्थायी रूपमा बसोबास

Q14-2. तपाईं **अन्ततः** कुन प्रकारको **बसोबास स्थिति** प्राप्त गर्न चाहनुहुन्छ?

१. हालको बसोबास स्थिति नवीकरण
२. अन्य बसोबास स्थितिमा परिवर्तन (स्थायी बसोबास बाहेक)
३. स्थायी बसोबास (Permanent Residency)
४. नागरिकता प्राप्ति
५. अहिले थाहा छैन

Q15. तपाईंले आफ्नो मातृदेशको जीवनसँग तुलना गर्दा ग्याङसाङनाम–दोमा आफ्नो **समग्र जीवनसँग कति सन्तुष्टि** महसुस गर्नुहुन्छ?

१. धेरै असन्तुष्ट २. केही असन्तुष्ट ३. केही सन्तुष्ट ४. धेरै सन्तुष्ट

Q16-1. यदि **तपाईं बिरामी भएर सहयोग चाहिएको अवस्थामा परिवार बाहेक**, ग्याङसाङनाम–दो क्षेत्रमा सहयोग माग्न वा परामर्श गर्न सक्ने व्यक्ति छ?

सहायता प्रदान गर्ने व्यक्तिको प्रकार	छैन	१–२ जना	३–४ जना	५ जना वा बढी
१. कोरियाली नागरिक	१	२	३	४
२. आफ्नो मूल देशका व्यक्ति	१	२	३	४
३. अन्य विदेशी नागरिक	१	२	३	४

Q16-2. यदि तपाईंलाई **अचानक ठूलो रकम ऋण लिनु परेमा, परिवार बाहेक,** , ग्याङसाङनाम–दो क्षेत्रमा सहयोग माग्न वा परामर्श गर्न सक्ने व्यक्ति छ?

सहायता प्रदान गर्ने व्यक्तिको प्रकार	छैन	१–२ जना	३–४ जना	५ जना वा बढी
१. कोरियाली नागरिक	१	२	३	४
२. आफ्नो मूल देशका व्यक्ति	१	२	३	४
३. अन्य विदेशी नागरिक	१	२	३	४

Q16-3. यदि तपाईंलाई **दुःखी वा उदास महसुस हुँदा कुरा गर्न कोही चाहिएको अवस्थामा, परिवार बाहेक**, ग्याङसाङनाम–दो क्षेत्रमा सहयोग माग्न वा परामर्श गर्न सक्ने व्यक्ति छ?

सहायता प्रदान गर्ने व्यक्तिको प्रकार	छैन	१–२ जना	३–४ जना	५ जना वा बढी
१. कोरियाली नागरिक	१	२	3	४
२. आफ्नो मूल देशका व्यक्ति	१	२	3	४
३. अन्य विदेशी नागरिक	१	२	3	४

Q17. तपाईंको **धर्म** के हो?

१. ईसाई धर्म (Christianity)
२. क्याथोलिक धर्म (Catholic)
३. इस्लाम धर्म
४. हिन्दू धर्म
५. बौद्ध धर्म
६. कन्फुसियन धर्म तथा चिनियाँ परम्परागत धर्म
७. छैन (धर्म नमान्ने)
८. अन्य

[आर्थिक गतिविधि विशेषता]

※ अन्त्यमा, आर्थिक गतिविधिको विशेषतासँग सम्बन्धित प्रश्नहरू हुन्।

Q18. **पछिल्लो १ वर्ष (२०२५.०६.–२०२६.०५.)**मा तपाईंले आम्दानीको उद्देश्यले पैसा लिएर काम गर्ने अनुभव गर्नुभएको छ? यदि छ भने, हप्तामा औसत कति घण्टा काम गर्नुभयो?

१. काम गरेको छैन (→ Q21)
२. हप्तामा १५ घण्टा भन्दा कम
३. हप्तामा १५ घण्टा देखि ४० घण्टा भन्दा कम
४. हप्तामा ४० घण्टा वा बढी

Q19. हाल तपाईं मुख्य रूपमा **कुन प्रकारको काम** गर्नुहुन्छ?

१. पूर्ण समय (Full-time)
२. आंशिक समय / पार्ट-टाइम (Part-time)
३. दैनिक ज्याला कामदार (Daily worker)p
४. स्वरोजगार (Self-employed)
५. बिना तलब परिवारिक कामदार (Unpaid family worker)

Q20. तपाईंले **रोजगार सम्झौता** गर्नुभएको छ?

१. छ

२. छैन

३. थाहा छैन

sQ21. तपाईं सामाजिक बीमामा दर्ता हुनुभएको छ?

सामाजिक बीमा	दर्ता भएको छ	दर्ता भएको छैन	थाहा छैन
१. राष्ट्रिय पेन्सन	१	२	३
२. स्वास्थ्य बीमा	१	२	३
३. रोजगार बीमा	१	२	३
४.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बीमा	१	२	३

Q22. पछिल्लो ३ महिना (२०२६.०३.–२०२६.०५.) मा तपाईंको मासिक औसत आम्दानी कति छ?
※ घरपरिवारको आम्दानी होइन, "व्यक्तिगत आम्दानी" को रूपमा उत्तर दिनुहोस्।
※ कर काटिसकेपछि प्राप्त हुने वास्तविक रकम लेख्नुहोस्।

१. लगभग _____ वोन

सर्वेक्षण पूरा भएको छ।

तपाईंको अमूल्य विचारहरू व्यक्त गरिदिनु भएकोमा हार्दिक धन्यवाद।

ការស្ទង់មតិ លើការប្រើប្រាស់សេវាសាធារណៈ: របស់ក្រួសារដែលមានប្រវត្តិធ្វើចំណាកស្រុក នៅខេត្តក្បូងណាម

ជំរាបសួរ? មូលនិធិស្ត្រី និងក្រួសារ 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គឺជាស្ថាប័នមួយ ដែលទទួលបាន មូលនិធិ និងគាំទ្រដោយ ខេត្តក្បូងសាំង ណាមដូ កំពុងធ្វើការស្រាវជ្រាវលើវិធានការនានា ដើម្បីកែលម្អប្រព័ន្ធទាក់ទងនឹង ការប្រើប្រាស់សេវាសាធារណៈ: ដើម្បីគាំពារ ដល់ការ សម្របខ្លួន និងការធ្វើសមាហរណកម្មរបស់ជនបរទេសដែលរស់នៅក្នុងតំបន់។ នៅក្នុងស្ទង់មតិ ទាំងនេះ មិនមានចម្លើយណាត្រូវ ឬខុសទេ សូមឆ្លើយតាមធម្មតានូវអ្វីដែលអ្នកគិតឃើញ, យើងខ្ញុំសូមកោតសរសើរ និងអរគុណចំពោះការឆ្លើយរបស់លោកអ្នក។
ខ្លឹមសារនៃការឆ្លើយតបរបស់លោកអ្នក នឹងត្រូវបានក្សាទុកជាសម្ងាត់ យ៉ាងក្រឹមត្រូវ ស្របតាមមាត្រាទី3នៃច្បាប់ការពារព័ត៌មានផ្ទាល់ ខ្លួន ដែលត្រូវបានដំណើរការដោយអនាមិក និងប្រើប្រាស់ សម្រាប់តែគោលបំណងស្រាវជ្រាវនេះតែប៉ុណ្ណោះ។ការឆ្លើយនេះ ចំណាយ ពេលប្រហែល15នាទី។ ទោះបីជាអ្នករស់យ៉ាងណា ក៏ដោយ បើសិនអ្នកអាច ចំណាយពេលមួយភ្លែត ដើម្បីចែករំលែក បទពិសោធន៍ របស់អ្នក ដែលបានរស់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នេះ ក្នុងនាមជាជនបរទេសមួយរូប នោះចំលើយទាំងអស់ វានឹងមាន ប្រយោជន៍ យ៉ាងខ្លាំងសម្រាប់ការស្រាវជ្រាវ។

ខែ05 ឆ្នាំ2026

វិទ្យាស្ថានស្រាវជ្រាវ: មូលនិធិស្ត្រីនិងក្រួសារ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 វិទ្យាស្ថាន អនុវត្តការស្រាវជ្រាវ: ស្រាវជ្រាវកូរ៉េ (ខូអិលធីឌី)
អ្នកទទួលខុសត្រូវគម្រោង: អ្នកស្រាវជ្រាវ Lee Hye-Rim នាយកដ្ឋានស្រាវជ្រាវគោលនយោបាយ | អ្នកគ្រប់គ្រង:
អ្នកទទួលខុសត្រូវ Jung Jip-Hoon នាយកដ្ឋានទី2 ផ្នែកស្ទង់មតិសាធារណៈ:ទី1
ទំនាក់ទំនង: 055-713-7061 | ទំនាក់ទំនង: 02-3014-1067

[សំណួរការស៊ើបអង្កេត អ្នកឆ្លើយ]

SQ1. តើអ្នក**កំពុងរស់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ងណាំ**ដូមែនទេ? 1. បាទ/ចាស 2. ទេ

SQ2. តើអ្នក**រស់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នណាំដូ** នៅកន្លែងណាដែរ?

1. ទីក្រុងកចេ 2. ទីក្រុងគីមហេ 3. ទីក្រុងមីលយ៉ាង 4. ទីក្រុងសានឆន់ 5. ទីក្រុងយ៉ាងសាន 6. ទីក្រុងជីនជូ
7. ទីក្រុងតាំងវ៉ុន 8. ទីក្រុងចុងញ៉ង 9. ស្រុកកតាំង 10. ស្រុកកូសង 11. ស្រុកណាមហេ 12. ស្រុកសានឆង់

13. ស្រុកអើយរ៉ង់ 14. ស្រុកតាំងញ៉ង់ 15. ស្រុកហាទុង 16. ស្រុកហាម៉ាន 17. ស្រុកហាមយ៉ាង 18. ស្រុកហាប់ឆន់

SQ3. តើអ្នក**កើតនៅឆ្នាំណា**? _____ឆ្នាំ

SQ4. តើអ្នក**ចាប់ផ្តើមរស់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នណាំដូ តាំងពីពេលណា** ដែរ? _____ឆ្នាំ_____ខែ

SQ5. តើអ្នកមាន**ភេទ**អ្វី? 1. ស្រី 2. ប្រុស

SQ6. តើអ្នកកើតនៅ**ប្រទេសណា**?

1. នេប៉ាល់ 2. ទីម័រខាងកើត 3. ម៉ុងហ្គោលី 4. មីយ៉ាន់ម៉ា 5. បង់ក្លាដែស 6. វៀតណាម 7. ស្រីលង្កា
8. ឥណ្ឌូនេស៊ី 9. ចិន 10. ហ្វីលីពីន 11. ថៃ 12. កម្ពុជា 13. ជ៉ាគីស្ថាន 14. អ៊ូសបេគីស្ថាន 15. កាហ្សាក់ស្ថាន
16. កៀហ្ស៊ីស៊ីស្ថាន 17. រុស្ស៊ី 18. ផ្សេងៗ ( )

SQ7. តើខាងក្រោមនេះ មួយណាដែលទាក់ទងនឹង**ស្ថានភាពអាពាហ៍ពិពាហ៍**របស់អ្នក?

1. នៅលីវ 2. រៀបការហើយ(រួមទាំង រៀបការស្របច្បាប់) 3. លែងលះគ្នា 4. រស់នៅបែកគ្នា 5. បែកគ្នាដោយសារស្លាប់

SQ8. សូមជ្រើសរើស**<u>មនុស្សទាំងអស់</u> ដែលអ្នករស់នៅជាមួយ** មានដូចខាងក្រោម។

1. រស់នៅម្នាក់ឯង (→SQ11)
2. ប្តី ឬ ប្រពន្ធ (រួមទាំង ការរៀបការស្របច្បាប់)
3. កូន
4. ចៅប្រុស / ចៅស្រី
5. បងប្អូនប្រុស / បងប្អូនស្រី បង្កើតរបស់ខ្ញុំ
6. បងប្អូនបង្កើតរបស់ប្តី / ប្រពន្ធ
7. ឪពុករបស់ប្តី / ប្រពន្ធរបស់ខ្ញុំ
9. ម្តាយរបស់ប្តី/ប្រពន្ធរបស់ខ្ញុំ
10. សាច់ញាតិ មនុស្សក្រៅពីក្រុមក្រួសារ(មិត្តភក្តិ, មិត្តរួមការងារ។ល។)

SQ9. សូមប្រាប់**ចំនួនមនុស្សនីមួយៗ នៅក្នុងក្រួសារ** ដែលរស់នៅជាមួយគ្នា។

1. កូនប្រុស: ( )នាក់
2. កូនស្រី: ( )នាក់
3. ចៅប្រុសប្រុស: ( )នាក់
4. ចៅប្រុសស្រី: ( )នាក់
5. បងប្អូនប្រុស/បងប្អូនស្រី បង្កើតរបស់ខ្ញុំ: ( )នាក់
6. បងប្អូនបង្កើតរបស់ប្តី/ប្រពន្ធ: ( )នាក់
7. ឪពុករបស់ប្តី/ប្រពន្ធខ្ញុំ: ( )នាក់
8. ម្តាយរបស់ប្តី/ប្រពន្ធខ្ញុំ: ( )នាក់
9. សាច់ញាតិ: ( )នាក់

10. មនុស្សក្រៅពីក្រុមគ្រួសារ(មិត្តភក្តិ មិត្តរួមការងារ។ល។)៖ ( )នាក់

SQ10. តើក្នុង**ចំណោមសមាជិកគ្រួសាររបស់អ្នក មានជនជាតិកូរ៉េ** រស់នៅជាមួយអ្នកដែរឬទេ? 1. ជាន/ចាស់ 2. ទេ

※ ព័ត៌មានរបស់លោកអ្នកទាំងអស់ នឹងត្រូវរក្សាទុកជាការសម្ងាត់យ៉ាងក្រឹមត្រូវ ស្របតាមច្បាប់ស្តីពី ហើយនឹងមិនប្រើប្រាស់ដើម្បីគោលបំណងណាមួយផ្សេងក្រៅពីការស្រាវជ្រាវនេះឡើយ។

SQ11. តើបច្ចុប្បន្ន អ្នក**កាន់វិសារ**ប្រភេទអ្វី?
1. ការងារមិនមានវិជ្ជាជីវៈ(E-9) 2. ការងារទស្សនកិច្ច(H-2) 3. សកម្មភាពពិសេស(E-7) 4. កម្មការតាមរដូ(E-8)
5. ជនជាតិកូរ៉េនៅបរទេស(F-4) 6. ការទស្សនកិច្ចរស់នៅជាមួយគ្នា(F-1), ការអមដំណើរ(F-3)
7. ការស្នាក់នៅអចិន្ត្រៃយ៍(F-5) 8. ជនអន្តោប្រវេសន៍អាពាហ៍ពិពាហ៍(F-6, F-2-1) 9. និស្សិត(D-4)
10. ការស្នាក់នៅ(F-2, មិនរាប់បញ្ចូល F-2-1) 11. ផ្សេងៗ(G-1) 12. ភ្ជាន់ស្ថានភាពស្នាក់នៅ/ភ្ជាន់ឯកសារ
13. សញ្ជាតិកូរ៉េ

SQ12. ក្នុងរយៈពេល**1ឆ្នាំកន្លងមកនេះ(ខែ06 ឆ្នាំ2025 - ខែ05 ឆ្នាំ2026)** តើអ្នកធ្លាប់បានប្រើសេវាសាធារណៈ ដែរឬទេ?
1. ជាន/ចាស់ 2. ទេ

សេវាសាធារណៈ:គឺសំដៅលើសេវាកម្ម ដែលផ្តល់ ដោយរដ្ឋាភិបាល ឬរដ្ឋាភិបាលមូលដ្ឋាន ដើម្បីលើកកម្ពស់គុណភាពជីវិត(quality of life) និងភាពងាយស្រួលនៃជីវិតប្រចាំថ្ងៃ របស់ប្រជាពលជន ក្នុងគំបន់។ និយាយឱ្យសាមញ្ញ គឺសំដៅ ទៅលើ សេវាកម្មទាំងអស់ដែល ផ្តល់ដោយប្រទេស(មាន រដ្ឋាភិបាល 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ទីក្រុង/ស្រុក) ដើម្បីជួយលោកអ្នកទាំងអស់គ្នាក្នុងការរស់នៅក្តែងប្រទេស កូរ៉េ។ ជាពិសេស ការអប់រំការគាំពារ និងសេវាកម្ម ដែលផ្តល់ដោយ ស្ថាប័នមាន រាយខាងក្រោមនេះ សុទ្ធតែជាសេវាកម្មសាធារណៈ ទាំងអស់។ [ទិដ្ឋាការ និងកន្លែងការងារ] ការិយាល័យអន្តោប្រវេសន៍/មណ្ឌលទិដ្ឋាការ(បន្តទិដ្ឋាការ។ល។), ក្រសួងការងារ/មណ្ឌលការងារ(ស្វែងរកកន្លែងការងារ។ល។) [ការផ្តល់ឯកសារ និងការគាំពារ] ការិយាល័យក្រុង/ស្រុក, មណ្ឌលសុខុមាលភាពរដ្ឋបាល(មណ្ឌលសហគមន៍), ការិយាល័យពន្ធដារ (ការដាក់ឯកសារពន្ធ ការដោះស្រាយពន្ធចុងឆ្នាំ។ល។) [ការគាំពារការតាំងទីលំនៅរបស់ជនបរទេស] មណ្ឌលគាំពារជនបរទេស(ពលករ), មណ្ឌល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 (ការអប់រំភាសាកូរ៉េ, ការប្រឹក្សា។ល។) [សុខភាព និងការថែទាំ/ការអប់រំ] មណ្ឌលសុខភាពសាធារណៈ, មណ្ឌលជាតិសម្រាប់ថែទាំកុមារ និងសាលារៀនរដ្ឋ [សុវត្ថិភាព និងការការពារសិទ្ធិមនុស្ស] ស្ថានីយ៍ប៉ូលីស, ស្ថានីយ៍ពន្លត់អគ្គីភ័យ, ការិយាល័យការងារនិងគាំពារការងារ (ការដាក់ពាក្យបណ្តឹងអំពីប្រាក់ឈ្នួល ដែលមិនទាន់ បានទទួល។ល។) [ភាពងាយស្រួលប្រចាំថ្ងៃផ្សេងទៀត] បណ្ណាល័យ, មណ្ឌលសុខុមាលភាព, កន្លែងកីឡាសាធារណៈ, មណ្ឌលធ្វើតេស្តប័ណ្ណបើកបរ, ការដិះកងសាធារណៈ ។ល។

SQ12-1. តើអ្នក**ធ្លាប់ប្រើប្រាស់ សេវាសាធារណៈ:** ដូចខាងក្រោម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ដែរឬទេ?

ប្រភេទនៃសេវាសាធារណៈ:	បទពិសោធន៍ប្រើប្រាស់	
	មាន	អត់មាន
1.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ការគាំទ្រដល់ជនចំណាកស្រុក (មណ្ឌលគាំទ្រអ្នកស្នាក់នៅបរទេស(ពលករ), មណ្ឌលគ្រួសារ, មជ្ឈមណ្ឌលកូរ៉េយ៉ង់ជីន។ល។)	1	2
2. សេវាកម្មការងារ/ទាក់ទងនឹងការងារ (មណ្ឌលការងារ, មណ្ឌលសុខុមាលភាពការងារផ្លាសឺ, សេវាសុខមាលភាពពលករកូរ៉េ។ល។)	1	2
3.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ស្ថានភាពស្នាក់នៅ (ការិយាល័យអន្តោប្រវេសន៍, ហៃកូរ៉េ(HiKorea), មណ្ឌលព័ត៌មានជនបរទេស(1345), មណ្ឌលទិដ្ឋាការក្បែងណាំ។ល។)	1	2
4. សេវារដ្ឋបាលស៊ីវិល (មណ្ឌលសុខុមាលភាពរដ្ឋបាល, មណ្ឌលសេវាស៊ីវិលការិយាល័យក្រុង/ខេត្ត, ចង់ឮ24 ។ល។)	1	2
5. សេវាទាក់ទងនឹងសុខភាព និងវេជ្ជសាស្ត្រ (មណ្ឌលវេជ្ជសាស្ត្រម៉ាសាន, មណ្ឌលសុខភាពសាធារណៈ។ល។)	1	2
6. សេវាកម្មពាក់ព័ន្ធនឹងបង់ពន្ធដារ (ការិយាល័យពន្ធដារ, សេវាពន្ធដារជាតិហ៊ូមថេកសឺ។ល។)	1	2
7. សេវាសុវត្ថិភាព ឬសេវាគុលាការ (ស្ថានីយ៍ប៉ូលីស, ស្ថានីយ៍ពន្លត់អគ្គីភ័យ, សេវាសុវត្ថិភាពឧស្សាហកម្ម, ទូរស័ព្ទបន្ទាន់សម្រាប់ស្ត្រី1366, ជម្រកសម្រាប់ស្ត្រីជំណាក់ស្រុក, ទីកន្លែងសម្រាប់ជនរងគ្រោះដោយឧក្រិដ្ឋកម្ម។ល។)	1	2
8.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ការថែទាំកូន (មណ្ឌលថែទាំកូនពេលថ្ងៃ, សាលាមត្តេយ្យ, មណ្ឌលកុមារសហគមន៍។ល។)	1	2
9. សេវាកម្មពាក់ព័ន្ធនឹងការអប់រំ (សាលាមត្តេយ្យ, សាលារៀន, ការិយាល័យអប់រំ។ល។)	1	2
10. សេវាពាក់ព័ន្ធនឹងទទួលខុសត្រូវសង្គម (ការគាំពារការមានផ្ទៃពោះ, ការសម្រាលកូន, មណ្ឌលសុខុមាលភាពសង្គមដទៃទៀត។ល។)	1	2
11.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ភាពងាយស្រួលនៃការរស់នៅ (បណ្ណាល័យ, មណ្ឌលវប្បធម៌, កន្លែងកីឡាសាធារណៈ, រូបិយប័ណ្ណក្នុងស្រុក(បង់ប្រាក់សួន្ស)	1	2

ជិះកង់សាធារណៈ។ល។)		

SQ12-2-1~11. តើមូលហេតុអ្វីបានជាអ្នកមិនមានបទពិសោធន៍ក្នុងការប្រើប្រាស់ [ការណែនាំ៖ SQ12-1=2] ក្នុងចំណោមសេវាសាធារណៈទាំងនេះ? សូមឆ្លើយតាម **<u>រហូតដល់ 2ចំលើយ</u>** តាមលំដាប់លំដោយ។

1. ខ្ញុំអត់បានដឹងថា មានសេវាកម្មនេះទេ
2. ដោយសារតែ សេវាកម្មនេះមិនចាំបាច់
3. ខ្ញុំមិនសូរអំពីឯកសារឬនីតិវិធីថែមទៀត ដោយសារតែខ្ញុំឧបសគ្គភាសា
4. ដោយសារតែ ទំនាក់ទំនងមានកម្ពាត់ចម្ងាយ
5. ដោយសារតែម៉ោងធ្វើការ និងម៉ោងការងារសេវាសាធារណៈត្រួតស៊ីគ្នា
6. ខ្ញុំមិនមានសិទ្ធិចូលប្រើសេវាកម្មនេះ ដោយសារតែស្ថានភាពស្នាក់នៅរបស់ខ្ញុំ
7. ដោយសារតែខ្ញុំមិនចង់ឱ្យគេដឹងពីស្ថានភាពស្នាក់នៅរបស់ខ្ញុំ

[បទពិសោធន៍ នៃការប្រើសេវាសាធារណៈ]

※ ខាងក្រោមនេះគឺជាសំណួរទាក់ទងនឹងបទពិសោធន៍ប្រើប្រាស់សេវាសាធារណៈ។

Q1. អ្នកបានឆ្លើយតបថា អ្នក**ធ្លាប់បានប្រើសេវាសាធារណៈ:** ដូចខាងក្រោម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តើអ្នកបាន**ទទួលជំនួយ គ្រប់គ្រាន់**ក្នុងពេលប្រើ**សេវាសាធារណៈ: ទាំងនេះដែរឬទេ**?

ប្រភេទនៃសេវាសាធារណៈ:	កម្រិតនៃជំនួយ						
	មិនបានទទួលជំនួយទេ		←	-	→	បានទទួលជំនួយគ្រប់គ្រាន់	
1.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ការគាំទ្រដល់ជនចំណាកស្រុក (មណ្ឌលគាំទ្រអ្នកស្នាក់នៅបរទេស(ពលករ),មជ្ឈមណ្ឌលគ្រួសារ , មជ្ឈមណ្ឌលភូវ៉េយ៉ង់ជីន។ល។)	1	2	3	4	5	6	7
2. សេវាកម្មការងារ/ទាក់ទងនឹងការងារ (មណ្ឌលការងារ, មណ្ឌលសុខុមាលភាពការងារផ្លាសី, សេវាសុខុមាលភាពពលករភូវ៉េ។ល។)	1	2	3	4	5	6	7
3.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ស្ថានភាពស្នាក់នៅ (ការិយាល័យអន្តោប្រវេសន៍, ហៃកូរ៉េ(HiKorea), មណ្ឌលព័ត៌មានជនបរទេស(1345), មណ្ឌលទិដ្ឋាការក្បាងណាំ។ល។)	1	2	3	4	5	6	7
4. សេវារដ្ឋបាលស៊ីវិល(មណ្ឌលសុខុមាលភាពរដ្ឋបាល, មណ្ឌលសេវាស៊ីវិលការិយាល័យក្រុង/ខេត្ត, ចង់ពូ24 ។ល។)	1	2	3	4	5	6	7
5. សេវាសុខភាព និងវេជ្ជសាស្ត្រ (មណ្ឌលវេជ្ជសាស្ត្រម៉ាសាន, មន្ទីរសុខភាពសាធារណៈ។ល។)	1	2	3	4	5	6	7
6. សេវាកម្មពាក់ព័ន្ធនឹងបង់ពន្ធដារ (ការិយាល័យពន្ធដារ, សេវាពន្ធដារជាតិហ៊ូមថេកសឺ។ល។)	1	2	3	4	5	6	7
7. សេវាសុវត្ថិភាព ឬសេវាតុលាការ(ស្ថានីយ៍ប៉ូលីស, ស្ថានីយ៍ពន្លត់អគ្គីភ័យ, សេវាសុវត្ថិភាព ឧស្សាហកម្ម, ទូរស័ព្ទបន្ទាន់សម្រាប់ស្ត្រី1366, ជម្រកសម្រាប់ស្ត្រីចំណាកស្រុក, ទីកន្លែងសម្រាប់ជនរងគ្រោះដោយឧក្រិដ្ឋកម្ម។ល។)	1	2	3	4	5	6	7
8.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ការថែទាំកូន(មណ្ឌលថែទាំកូន, សាលាមត្តេយ្យ, មណ្ឌលកុមារសហគមន៍។ល។)	1	2	3	4	5	6	7
9. សេវាកម្មពាក់ព័ន្ធនឹងការអប់រំ (សាលាមត្តេយ្យ, សាលារៀន, ការិយាល័យអប់រំ។ល។)	1	2	3	4	5	6	7
10. សេវាពាក់ព័ន្ធនឹងសន្តិសុខសង្គម(ការគាំពារការមានផ្ទៃពោះ, សម្រាលកូនមណ្ឌលសុខុមាលភាពសង្គមទូលំទូលាយ។ល។)	1	2	3	4	5	6	7
11.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ភាពងាយស្រួលនៃការរស់នៅ (បណ្ណាល័យ ,មណ្ឌលវប្បធម៌, កន្លែងកីឡាសាធារណៈ, រូបិយប័ណ្ណក្នុងស្រុក(ចេរ៉ូដេយ), ជិះកង់សាធារណៈ។ល។)	1	2	3	4	5	6	7

Q1-1. អ្នករស់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ហើយបានប្រើប្រាស់**សេវាសាធារណៈ:** [ការណែនាំ៖ សំណួរទី1=1~3] ប៉ុន្តែបានឆ្លើយថា, អ្នកមិនបានទទួលជំនួយដោយពេញចិត្តទេ។ តើអ្វីទៅ**ជាមូលហេតុចម្បង** សម្រាប់ការឆ្លើយតបនេះ? សូមឆ្លើយតាម **<u>ច្រើនបំផុត 2ចំលើយ</u>**
តាមលំដាប់លំដោយ។

1. ដោយសារតែមិនអាចទំនាក់ទំនងបានល្អ
2. ដោយសារតែមិនមានព័ត៌មានគ្រប់គ្រាន់លម្អិតនៃសេវាកម្ម
3. ដោយសារតែការដាក់ឯកសារមានច្រើន, ហើយដំណើរការដាក់ពាក្យមានភាពស្មុគស្មាញ
4. ដោយសារតែពេលវេលារង់ចាំ ប្រើសេវាកម្មមានរយៈពេលយូរ
5. ដោយសារតែមន្ត្រី/បុគ្គលិកសាធារណៈ ដែលផ្តល់សេវាកម្មមានភាពមិនរាក់ទាក់
6. ដោយសារតែខ្វះការពិចារណាលើលក្ខណៈជាក់លាក់នៃវប្បធម៌ ដូចជាសាសនា, ម្ហូបអាហារ, ទំនៀមទម្លាប់

Q2. តើអ្នកបានប្រើប្រាស់ ទាក់ទងនឹង**សេវាសាធារណៈ:** ដែល**បានដឹងអំពីព័ត៌មានដោយរបៀបណា**?
សូមឆ្លើយតាម **<u>ច្រើនបំផុត 2ចំលើយ</u>** តាមលំដាប់លំដោយ។

1. ដោយសារតែប្តីឬប្រពន្ធ, ក្រុមគ្រួសារ, សាច់ញាតិបានប្រាប់ខ្ញុំ
2. ដោយសារតែមិត្តភក្តិ, មិត្តរួមការងារ, អ្នកស្គាល់គ្នាជនជាតិកូរ៉េបានប្រាប់ខ្ញុំ
3. ដោយសារតែមិត្តភក្តិបរទេស(និង អ្នកមកពីប្រទេសដើមដូចគ្នា) មិត្តរួមការងារ, អ្នកស្គាល់គ្នាបានប្រាប់ខ្ញុំ
4. តាមរយៈមណ្ឌលគាំពារជនចំណាកស្រុក
5. តាមរយៈការឆែក SNS(YouTube, Instagram, Facebook ។ល។)
6. តាមរយៈ បដា ឬសម្ភារៈផ្សព្វផ្សាយផ្សេងៗ
7. តាមរយៈការស្វែងរកនៅលើគេហទំព័រ វិបផតថល អ៊ីនធឺណិត

Q3. តើអ្នកត្រូវការ **ជំនួយប្រភេទណា** នៅពេលប្រើប្រាស់សេវាសាធារណៈ? សូមឆ្លើយយក **<u>ច្រើនបំផុត 2ចំលើយ</u>** តាមលំដាប់ដោយ។

1. អាចប្រើប្រាស់ដោយ ខ្លួនឯងដោយគ្មានអ្នកជួយ
2. ការបង្កើនប្រសិទ្ធភាពព័ត៌មាន និងការណែនាំពាហុភាសា (ព័ត៌មានស្តាប៊ិនចូលរួម និងការពន្យល់អំពីនីតិវិធីជាជ្រើនភាសា។ល។)
3. ការគាំពារការបកប្រែអក្សរ.បកប្រែផ្ទាល់មាត់ នៅនឹងកន្លែង
4. ការពង្រីកភាពងាយស្រួល ចូលប្រើប្រាស់បានគ្រប់ពេលនិងទីកន្លែង (ការងារយប់/ចុងសប្តាហ៍, សេវាកម្មទៅសួរសុខទុក្ខ។ល។)
5. ការបង្កើនភាពងាយស្រួល នៃសេវាកម្មអនឡាញ និងទូរស័ព្ទ (ការដាក់ពាក្យ និងពិគ្រោះយោបល់ដោយមិនជួបមុខផ្ទាល់។ល។)
6. ការប់រើសេវាជូនជនបរទេស ដោយរួសរាយរាក់ទាក់ និងមិនរើសអើង

Q4. ក្នុងចំណោមសមាជិកគ្រួសារ ដែលកំពុងរស់នៅជាមួយអ្នក តើអ្នកគិតថា **<u>អ្នកណាត្រូវការសេវាសាធារណៈ</u>**?
សូមប្រាប់ពីមនុស្សដែលអ្នកគិតថាត្រូវការ **<u>យក 3នាក់ តាមលំដាប់លំដោយ</u>** ។

1. សមីខ្លួន
2. ប្តី/ប្រពន្ធ (រួមទាំងប្តី/ប្រពន្ធស្របច្បាប់)
3. ទារក និងក្មេងតូចៗ (អាយុ 0~6ឆ្នាំ) (ចៅប្រុស/ចៅស្រី)
4. កុមារៈក្មេងជំទង(អាយុ7~19ឆ្នាំ) (ចៅប្រុស/ចៅស្រី)
5. បងប្អូនបង្កើតរបស់ខ្លួន
6. បងប្អូនបង្កើតរបស់ប្តី/ប្រពន្ធ
7. ឪពុករបស់ប្តី/ប្រពន្ធរបស់ខ្ញុំ
8. ម្តាយរបស់ប្តី/ប្រពន្ធរបស់ខ្លួន
9. សាច់ញាតិ

Q5. តើអ្នក**ធ្លាប់មានអារម្មណ៍ថា ត្រូវបានគេរើសអើង មិនអើពើ ឬប្រព្រឹត្តចំពោះដោយអយុត្តិធម៌ នៅពេលប្រើប្រាស់សេវាសាធារណៈ:**
ដោយសារតែអ្នកជាជនបរទេស ឬមានដើមកំណើតជនបរទេស ដែរឬទេ?

1. មាន 2. អត់មាន (→Q6)

Q5-1. តើអ្នកគិតថា ត្រូវបានរើសអើងពីអ្នកណា ដែរ? សូមឆ្លើយយក **<u>ច្រើនបំផុត 3ចំលើយ</u>** តាមលំដាប់លំដោយ។

1. បុគ្គលិក/មន្ត្រីរាជការ
2. អ្នកបើកបរឡានក្រុង
3. ឪពុកម្តាយ នៅមណ្ឌលថែទាំកុមារ/មតេ្តយ្យសិក្សា/សាលារៀន
4. គ្រូបង្រៀន នៅមណ្ឌលថែទាំកុមារ/មតេ្តយ្យសិក្សា/សាលារៀន
5. អ្នកដទៃ ដែលប្រើប្រាស់សេវាសាធារណៈ
6. ផ្សេងទៀត ( )

Q5-2. តើអ្នក**បានធ្វើយ៉ាងដូចម្តេច** នៅពេលគេ រើសអើង មិនអើពើ ឬប្រព្រឹត្តដោយអយុត្តិធម៌?
សូមឆ្លើយយក **<u>ច្រើនបំផុត 3ចំលើយ</u>** តាមលំដាប់លំដោយ។

1. ទាមទារការសុំទោសពីគាត់ម្តងទៀត
2. បានស្នើសុំឱ្យគាត់ម្តងទៀត កែប្រែសម្តេងនិងអាកប្បកិរិយារបស់ពួកគេ
3. ខ្ញុំបានពិគ្រោះជាមួយក្រុមគ្រួសារ, មិត្តភក្តិ
4. ខ្ញុំបានសាកសួរជាមួយភ្នាក់ងារ, មណ្ឌលប្រឹក្សាយោបល់។ល។
5. បានប្តឹងទៅ ភ្នាក់ងារដែលទទួលខុសត្រូវចំពោះការប់បាត់ការរើសអើង ដូចជាគណៈកម្មការសិទ្ធិមនុស្សជាតិ។ល។
6. បានបង្ហោះនៅលើ បណ្តាញអ៊ីនធឺណិត, សង្គមអនឡាញ, SNS ។ល។
7. ស៊ូ អត់ទ្រាំ (→Q-5-2-1)

Q5-2-1. តើអ្វីជា**ហេតុផលដែលអ្នកស៊ូទ្រាំ**នឹងការរើសអើង ការមើលងាយ ឬអំពើអយុត្តិធម៌?
សូមឆ្លើយយក ច្រើនបំផុត 2ចំលើយ តាមលំដាប់លំដោយ។

1. ព្រោះខ្ញុំមិនដឹងពីរបៀបធ្វើ
2. ដោយសារតែខ្ញុំមិនចង់បែកផ្លាយ រឺសារស្នាក់នៅរបស់ខ្ញុំ
3. ខ្ញុំព្រួយបារម្ភថាវាអាចនឹងកើនឡើងដល់ឧប្បត្តិហេតុដែលអាចប៉ះពាល់ដល់ការផ្លាស់ប្តូរលក្ខ័ណ្ឌវីសារស្នាក់នៅរបស់ខ្ញុំ
4. ទោះបីជាខ្ញុំឆ្លើយកំដោយ កំមិនមានអ្វីផ្លាស់ប្តូរដែរ
5. ព្រោះខ្ញុំមិនអាចនិយាយភាសាកូរ៉េបានល្អ

Q6. សូមជ្រើសរើស**សេវាសាធារណៈ: <u>ចំនួយ 2ចំលើយ តាមលំដាប់លំដោយ</u>** ដែលអ្នក**គិតថា ចាំបាច់**ដើម្បីជួយជនបរទេស

ដែលរស់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ដែលសម្របខ្លួន និងធ្វើសមាហរណកម្មទៅក្នុងតំបន់។

1.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ការគាំពារជនចំណាកស្រុក
2.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ការងារ/ការស្វែងរកការងារ
3.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ការថែទាំសុខភាព
4.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ការថែទាំ/ការអប់រំ
5.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ការជានាវាំប់រងពីសង្គម
6. ផ្សេងៗ

Q6-1-1~6. ដំបូងអ្នកបានឆ្លើយតបថា [បទបង្ហាញ: ចំនុចដំបូង ដែលបានជ្រើសរើសនៅក្នុង Q6] គឺចាំបាច់ត្រូវការ, សូមជ្រើសរើស**សេវាសាធារណៈ: <u>យក 2ចំណើយ តាមលំដាប់លំដោយ</u> ដែលអ្នកគិតថាចាំបាច់បំផុត** ។

Q6-2-1~6. លើកទី2 អ្នកបានឆ្លើយតបថា [បទបង្ហាញ: ចំនុចទីពីរ ដែលបានជ្រើសរើសក្នុង Q6] គឺចាំបាច់ត្រូវការ, សូមជ្រើសរើស**សេវាសាធារណៈ: <u>យក 2ចំណើយ តាមលំដាប់លំដោយ</u> ក្នុងចំណោមដែល<u>អ្នកគិតថាចាំបាច់បំផុត</u> ។**

ប្រភេទសំខាន់ៗនៃសេវាសាធារណៈ:	ប្រភេទរងនៃសេវាសាធារណៈ: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 ការគាំពារជនចំណាកស្រុក	1. ការអប់រំភាសាកូរ៉េ 2. ការអប់រំអំពីការយល់ដឹងអំពីសង្គមកូរ៉េ 3. ការគាំពារសម្រាប់ការតាំងទីលំនៅដំបូង 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 4. សេវាគាំពារព័ត៌មានអំពីការរស់នៅ និងសេវាប្រឹក្សាយោបល់អំពីបណ្តឹងតវ៉ា 5. ការគាំពារសម្រាប់សកម្មភាពសហគមន៍ ដូចជាសមាគមជនអន្តោប្រវេសន៍ជាដើម 6. ការអប់រំសម្រាប់ជនជាតិកូរ៉េដើម្បីបង្កើនការយល់ដឹងអំពីជនបរទេស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ការងារ / ការស្វែងរកការងារ	7. ការទទួលបានវិញ្ញាបនបត្រ / ការអប់រំវិជ្ជាជីវៈ / ការអប់រំការងារ 8. ការផ្តល់ព័ត៌មានទាក់ទងនឹងការងារ / ការពង្រីកឱកាសការងារ 9. ការគាំពារសម្រាប់ការសម្របសម្រួលការលំបាក / ជម្លោះក្នុងក្រុមហ៊ុន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 ការថែទាំសុខភាព	10. ការគាំពារសម្រាប់ការមានផ្ទៃពោះ.ការសម្រាលកូន 11. ការជួយបកប្រែអក្សរ.និយាយបកប្រែផ្ទាល់, ពីការពិគ្រោះយោបល់ផ្នែកវេជ្ជសាស្ត្រ 12. មានអក្សរពហុភាសានៅលើវេជ្ជបញ្ជា, ថង់ថ្នាំ, ការកំណត់ចំណាំការប្រុងប្រយ័ត្ន 13. ការពង្រីកសេវាវេជ្ជសាស្ត្រចល័តសម្រាប់តំបន់ កន្លែងធ្វើការ ដែលមានជនបរទេសរស់នៅច្រើន។ល។ 14. ការអប់រំសុខភាពស្តីពីការបង្ការ និងការថែទាំខ្លួនឯង 15. សេវាប្រឹក្សាសុខភាពផ្លូវចិត្ត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 ការថែទាំ / ការអប់រំ	16. ការគាំពារការចំណាយលើការថែទាំកូនៗ និងការអប់រំ 17. ការគាំពារការរៀនភាសាកូរ៉េ របស់កូនៗ 18. ការគាំពារការរៀនភាសាកំណើត របស់កូនៗ 19. ការគាំពារការសិក្សា របស់កូនៗដែលកំពុងរៀនភាសាកូរ៉េ 20. ការអប់រំចូលរៀននៅមហាវិទ្យាល័យ / អាជីពរបស់កូនៗ 21. ការប្រឹក្សា / ការអប់រំឪពុកម្តាយ(ការចិញ្ចឹមកូន, ប្រព័ន្ធអប់រំកូរ៉េ។ល។)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 ជានាវាំប់រងពីសង្គម	22. ការគាំពារទាក់ទងនឹងការផ្តល់ផ្តង់ទារក និងក្មេងតូចៗ 23. ការគាំពារផ្តល់ផ្តង់កុមារ.យុវជន 24. ការគាំពារផ្តល់ផ្តង់មនុស្សចាស់ 25. ការគាំពារផ្តល់ផ្តង់ជនពិការ 26. ការគាំពារផ្តល់ផ្តង់ជនរងគ្រោះនៃឧក្រិដ្ឋកម្ម, រួមទាំងអំពើហិង្សាក្នុងគ្រួសារ និងអំពើហិង្សាផ្អែកលើយេនឌ័រ
ផ្សេងៗ	27. សេវាកម្មបកប្រែអក្សរ.បកប្រែផ្ទាល់មាត់ 28. ការគាំពារផ្តល់ផ្តង់ពាហុភាសាសម្រាប់សេវាកម្មអនឡាញ 29. មានការដាក់បញ្ចូលពាហុភាសា ការលើកកម្ពស់គោលនយោបាយ, ព័ត៌មានអំពីភាពងាយស្រួលការរស់នៅ ជាដើម 30. ការពង្រីកឱកាសចូលរួមក្នុងសកម្មភាពសង្គម (ការជួបជុំឪពុកម្តាយ, ក្រុមអ្នកស្ម័គ្រចិត្ត, គណៈកម្មាធិការស្វ័យភាពប្រជាជន, ក្រុមចូលរួមរបស់ប្រជាពលរដ្ឋ, ទីក្រុងដែលគាំពារស្ត្រី។ល។)

[សេវាកម្មទាក់ទងនឹង ការអប់រំភាសាកូរ៉េ]

※ខាងក្រោមនេះគឺជាសំណួរ **ទាក់ទងនឹងសេវាកម្មអប់រំភាសាកូរ៉េ**។

Q7. តើអ្នក**ធ្លាប់បានសិក្សាភាសាកូរ៉េ** នៅប្រទេសកូរ៉េ ប្រទេសកំណើត ឬប្រទេសផ្សេងទៀត ដែរឬទេ?

1. បាទ/ចាស៎ 2. ទេ (→Q8)

Q7-1. តើអ្នករៀនភាសាកូរ៉េ **ដោយរបៀបណា**?

1. ការរៀនដោយផ្ទាល់
2. ការរៀនតាមអ៊ីនធឺណិត
3. ការរួមបញ្ចូលគ្នារវាងការរៀនដោយផ្ទាល់ និងការរៀនតាមអ៊ីនធឺណិត

Q8. តើអ្នកធ្លាប់**ប្រឡងតេស្តជំនាញភាសាកូរ៉េ(TOPIK)** ដែរឬទេ?

(សូមឆ្លើយដោយមិនរាប់បញ្ចូល សម្រាប់គោលបំណងការងារ EPS-TOPIK ។)

1. ចាទ/ចាស់ 2. ទេ (→Q9)

Q8-1. តើអ្នកទទួលបាន**កម្រិតណា** សម្រាប់ការ**ប្រឡងភាសាកូរ៉េ(TOPIK)** លើក**ចុងក្រោយ**?

1. កម្រិតទី1 2. កម្រិតទី2 3. កម្រិតទី3 4. កម្រិតទី4 5. កម្រិតទី5 6. កម្រិតទី6 7. ប្រឡងធ្លាក់

Q9. តើអ្នក**ពិបាក**ក្នុងការ**និយាយ** ជា**ភាសាកូរ៉េ**ដែរឬទេ?

	ពិបាកខ្លាំងណាស់	ពិបាកបន្តិច	អត់ពិបាក	អត់ពិបាកសោះ
1. ការនិយាយ	1	2	3	4
2. ការស្តាប់	1	2	3	4
3. ការអាន	1	2	3	4
4. ការសរសេរ	1	2	3	4

※ កម្មវិធីសមាហរណកម្មសង្គម(KIIP) គឺជាកម្មវិធីអប់រំមួយដែលដំណើរការដោយក្រសួងយុត្តិធម៌ បង្រៀនភាសា និងវប្បធម៌កូរ៉េ ដើម្បីជួយជនបរទេសឱ្យសម្របខ្លួន និងរស់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

Q10. តើអ្នក**ធ្លាប់ដែលបានរៀន** ថ្នាក់កម្មវិធី សមាហរណកម្មសង្គម(KIIP) ដែរឬទេ?

1. ចាទ/ចាស់ 2. ទេ (→Q11) 3. ខ្ញុំមិនដឹងអំពីកម្មវិធីសមាហរណកម្មសង្គម(KIIP) ទេ (→Q11)

Q10-1. តើអ្នក**ធ្លាប់ប្រលង** ភាសាកូរ៉េសម្រាប់សមាហរណកម្មសង្គម(KIIP) ទេ?

1. ចាទ/ចាស់ 2. ទេ (→ Q11)

Q10-1-1. តើអ្នកទទួលបាន**កម្រិតណា** ក្នុងការធ្វើតេស្ត**កម្មវិធីសមាហរណកម្មសង្គម(KIIP)** នាពេលថ្មីៗ?

1. កម្រិតទី0 2. កម្រិតទី1 3. កម្រិតទី2 4. កម្រិតទី3 5. កម្រិតទី4 6. កម្រិតទី5

Q11. ប្រៀបធៀបទៅនឹងពេលនេះ តើអ្នក**មានបំណងចង់សិក្សា**ភាសាកូរ៉េបន្ថែមទៀត **ដើម្បីពូកែឡើង**នៃភាសាកូរ៉េរបស់អ្នកដែរឬទេ?

1. ចាទ/ចាស់ (→Q11) 2. ទេ(→Q11-2)

Q11-1. តើអ្នកចង់រៀនភាសាកូរ៉េនៅឯណា? សូមជ្រើសរើស **<u>យក 3ចំលើយ</u>** តាមលំដាប់លំដោយ។

1. សាលារៀន (សាកលវិទ្យាល័យ, វិទ្យាស្ថានភាសា។ល។)
2. មណ្ឌលគាំពារជនបរទេស(ពលករ)
3. មណ្ឌលគ្រួសារ (មណ្ឌលគាំពារ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
4. មណ្ឌលគាំពារជនជាតិកូរ៉េនៅបរទេស
5. ស្ថាប័នឯកជន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 (សាលា, អង្គការសាសនា។ល។)
6. ក្រុមហ៊ុន (ការអប់រំភាសាកូរ៉េដល់ទីកន្លែង។ល។)
7. ការសិក្សាដោយខ្លួនឯង (ការរៀនតាមអ៊ីនធឺណិត(AI) ការសិក្សាដោយខ្លួនឯង ជាដើម)
8. ម៉ែនថូរីង ភាសាកូរ៉េ (មេរៀនជាលក្ខណៈបុគ្គល)

Q11-2. តើមូលហេតុអ្វី បានជា**អ្នកមិនចង់សិក្សាភាសាកូរ៉េបន្ថែម**ទៀត?

1. ខ្ញុំចេះបានល្អគ្រប់គ្រាន់ហើយ
2. ខ្ញុំមិនសូវចេះភាសាកូរ៉េទេ ប៉ុន្តែខ្ញុំមិនជួបប្រទះនឹងការលំបាកអ្វីឡើយ
3. ខ្ញុំគិតចង់រៀន ប៉ុន្តែតាមពិត គឺមិនងាយស្រួលទេ (→Q11-2-1)

Q11-2-1. តើ**អ្វី**ជា **ការលំបាកធំ ជាក់ស្តែងបំផុត** ក្នុងការសិក្សាភាសាកូរ៉េ?

1. ខ្ញុំមិនមានពេលរៀនភាសាកូរ៉េទេ ដោយសារធ្វើការងារ
2. ខ្ញុំមិនអាចទៅកន្លែងរៀន ភាសាកូរ៉េបានទេ ព្រោះនៅឆ្ងាយពេក
3. ខ្ញុំចង់ដាក់ពាក្យសុំចូលរៀនកម្មវិធីសមាហរណកម្មសង្គម ប៉ុន្តែមានការពិបាកដាក់ពាក្យចុះឈ្មោះ ដោយសារតែចំនួនអ្នកដាក់ពាក្យចំនួនច្រើនពេក
4. ខ្ញុំចង់ដាក់ពាក្យសុំចូលរៀនកម្មវិធីសមាហរណកម្មសង្គម ប៉ុន្តែមិនមានសាលាបង្រៀននៅក្បែរនោះទេ
5. ផ្សេងៗ ( )

[ការតាំងទីលំនៅក្នុងតំបន់ និងការពិចារណ៍សង្គម]

※ ខាងក្រោមនេះគឺជាសំណួរទាក់ទងនឹងការតាំងទីលំនៅក្នុងតំបន់ និងការពិចារណ៍សង្គម(social capital)។

Q12. តើអ្វីទៅជា**ហេតុផល របស់អ្នក ក្នុងការតាំងទីលំនៅ នៅ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 សូមឆ្លើយ**<u>យក 2ចំលើយ</u>** តាមលំដាប់លំដោយ។

1. កន្លែងការងារ/ការងារ
2. អាពាហ៍ពិពាហ៍
3. ការសិក្សា

4. ហេដ្ឋារចនាសម្ព័ន្ធសេដ្ឋកិច្ចសង្គម
5. ការណែនាំពីក្រុមគ្រួសារ / មិត្តភក្តិដែលរស់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6. ការអប់រំគុមារ
7. ភាពងាយស្រួលចូលទៅកាន់សហគមន៍ស្រុកកំណើត, មណ្ឌលគាំពារជនបរទេស

Q13. អ្នកបានឆ្លើយថា អ្នកបានចាប់ផ្តើមរស់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នណាំដូពី [ការណែនាំ៖ ចម្លើយនៃSQ4]
បន្ទាប់មក តើអ្នកបាន**ចូលប្រទេសកូរ៉េ ជាលើកដំបូង នៅពេលណា**? _____ឆ្នាំ ____ខែ

[ណែនាំអត្ថបទ៖ នៅពេលឆ្លើយតបថា យឺតជាង ឆ្នាំ &ខែ នៃចម្លើយចំពោះសំណួរទី4(ឆ្នាំ&ខែ) អ្នកបានឆ្លើយថា អ្នកបានចាប់ផ្តើមរស់នៅក្នុង
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ចាប់ពី [ការណែនាំ៖ ចម្លើយនៃសំណួរទី4]។ ពេលវេលាដែលអ្នកចូលប្រទេសកូរ៉េ លើកដំបូង មុនឬក្នុងពេលដំណាលគ្នា។ សូមពិនិត្យឡើងវិញនូវព័ត៌មានដែលអ្នកបានបញ្ចូល។"]

Q14. តើអ្នកចង់**បន្តស្នាក់នៅ** 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រហូតដែរឬទេ? 1. បាទ/ចាស៎ (→Q11) 2. ទេ(→Q15)

Q14-1. តើអ្នកមាន**គម្រោងស្នាក់**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រយៈពេលប៉ុន្មាន**ដែរ?

1. 1~3ឆ្នាំ 2. 4~6ឆ្នាំ 3. 7~9ឆ្នាំ 4. 10ឆ្នាំ ឬច្រើនជាងនេះ 5. ស្នាក់នៅអចិន្ត្រៃយ៍

Q14-2. តើ**ចុងក្រោយ**អ្នកសង្ឃឹមថា **យកវិសារនៃការស្នាក់នៅ ប្រភេទ បែបណា**ចែមទៀត?

1. ការបន្តពន្យា វិសារនៃការស្នាក់បច្ចុប្បន្ន
2. ការផ្លាស់ប្តូរទៅវិសារស្នាក់នៅផ្សេងទៀត (មិនរាប់បញ្ចូលការផ្លាស់ប្តូរទៅវិសារស្នាក់នៅអចិន្ត្រៃយ៍)
3. ការទទួលបានសិទ្ធិស្នាក់នៅអចិន្ត្រៃយ៍
4. ចូលសញ្ជាតិកូរ៉េ
5. បច្ចុប្បន្ននេះ អត់ទាន់ដឹងទេ

Q15. តើអ្នក**ពេញចិត្តនឹងជីវិតទូទៅ**របស់អ្នក នៅ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ប៉ុណ្ណាដែរ បើប្រៀបទៅនឹងជីវិត នៅប្រទេសកំណើតវិញ?

1. មិនពេញចិត្តខ្លាំង 2. មិនពេញចិត្តបន្តិច 3. ពេញចិត្តបន្តិច 4. ពេញចិត្តខ្លាំង

Q16-1. បើសិន**អ្នកឈឺ ហើយត្រូវការជំនួយ, ក្រៅពីក្រុមគ្រួសាររបស់អ្នក**
តើមាននរណាម្នាក់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ដែលអ្នកអាចដាក់ទៅរកជំនួយ ឬពឹក្សោះយោបល់បានដែរឬទេ?

មនុស្សផ្សេងៗ ដែលធ្លាប់ជួយ	មិនមាន	1~2នាក់	3~4នាក់	លើសពី 5នាក់
1. 1. ជនជាតិកូរ៉េ	1	2	3	4
2. 2. អ្នកមកពីស្រុកកំណើត	1	2	3	4
3. 3. ជនបរទេស ផ្សេងៗ	1	2	3	4

Q16-2. បើសិនអ្នក **ស្រាប់តែ ត្រូវការខ្ចីប្រាក់ចំនួនធំ,** តើមាននរណាម្នាក់ 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 **ក្រៅពីក្រុមគ្រួសារ** ដែលអ្នកអាចជួយ ឬពឹក្សោះយោបល់ដែរឬទេ?

មនុស្សផ្សេងៗ ដែលធ្លាប់ជួយ	អត់មាន	1~2នាក់	3~4នាក់	លើសពី 5នាក់
1. ជនជាតិកូរ៉េ	1	2	3	4
2. អ្នកមកពីស្រុកកំណើត	1	2	3	4
3. ជនបរទេស ផ្សេងៗ	1	2	3	4

Q16-3. បើសិនអ្នកមាន**អារម្មណ៍សោកសៅ ឬបាក់ទឹកចិត្ត ហើយត្រូវការនរណាម្នាក់និយាយជាមួយ, លើកលែងតែក្រុមគ្រួសារ**ដែលអ្នកអាចដាក់ទៅរកជំនួយ ឬពិគ្រោះយោបល់បានទេ តើមាននរណាម្នាក់នៅក្នុងខេត្តក្បែងសាំងណាមដូដែរឬទ ?

មនុស្សផ្សេងៗ ដែលធ្លាប់ជួយ	អត់មាន	1~2នាក់	3~4នាក់	លើសពី 5នាក់
1. ជនជាតិកូរ៉េ	1	2	3	4
2. អ្នកមកពីស្រុកកំណើត	1	2	3	4
3. ជនបរទេស ផ្សេងៗ	1	2	3	4

Q17. តើអ្នកកាន់**សាសនា**អ្វី?

1. ក្រិស្តសាសនា (Christianity)
2. សាសនាកាតូលិក (Catholic)
3. សាសនាអ៊ីស្លាម
4. សាសនាហិណ្ឌូ
5. ព្រះពុទ្ធសាសនា
6. លទ្ធិខុងជឺ និងសាសនាប្រពៃណីចិន
7. អត់មាន (អត់មានសាសនា)
8. ផ្សេងៗ

[លក្ខណៈពិសេស នៃសកម្មភាពសេដ្ឋកិច្ច]

※ ជាចុងក្រោយ នេះគឺជាសំណួរទាក់ទងនឹង**លក្ខណៈពិសេសនៃសកម្មភាពសេដ្ឋកិច្ច**។

Q18. តើអ្នកធ្លាប់ធ្វើការដើម្បីរកប្រាក់ចំណូល ក្នុងរយៈពេល **1ឆ្នាំ កន្លងមកនេះ(2025.06.-2026.05.)** ដែរឬទេ?
បើដូច្នោះមែន តើធ្វើការជាមធ្យមប្រចាំសប្តាហ៍របស់អ្នកគឺប៉ុន្មានម៉ោង?

1. អត់ដែលធ្វើការងារទេ (→Q21)
2. មួយសប្តាហ៍ក្រោម15ម៉ោង
3. មួយសប្តាហ៍លើស15ម៉ោង ~ ក្រោម 40ម៉ោង
4. មួយសប្តាហ៍លើសពី 40ម៉ោង

Q19. តើបច្ចុប្បន្នអ្នកកំពុង**ធ្វើការងារលក្ខណៈ ប្រភេទអ្វី**?

1. ពេញម៉ោង(full-time)
2. តាមម៉ោង/ក្រៅម៉ោង(part-time)
3. ការងារតាមថ្ងៃ(daily worker)
4. របរការងារផ្ទាល់ខ្លួន(self-employed)
5. ការងារគ្រួសារមិនបានចំនូល(Unpaid family worker)

Q20. តើអ្នកបាន**ចុះកិច្ចសន្យាការងារ**ហើយឬនៅ?

1. បាទ/ចាស់
2. ទេ
3. ខ្ញុំមិនដឹងទេ

Q21. តើអ្នកបានចុះឈ្មោះដាក់ជានាវាំប់រងសង្គមហើយឬនៅ?

ជានាវាំប់រង សង្គម	បានចុះឈ្មោះ	អត់បានចុះឈ្មោះ	អត់បានដឹង
1. ប្រាក់សោធននិវត្តន៍ជាតិ	1	2	3
2. ការធានាវាំប់រងសុខភាព	1	2	3
3. ការធានាវាំប់រងការងារ	1	2	3
4. ការធានាវាំប់រងគ្រោះថ្នាក់ឧស្សាហកម្ម	1	2	3

Q22. តើ**ប្រាក់ចំណូលប្រចាំខែ ជាមធ្យម** របស់អ្នកក្នុងរយៈពេល3ខែចុងក្រោយនេះ (2026.03.~2026.05.) គឺជាអ្វី?

※ មិនមែនប្រាក់ចំណូលគ្រួសារ, សូមឆ្លើយពី"ប្រាក់ចំណូលផ្ទាល់ខ្លួន។

※ សូមបង្ហាញ ចំនួនទឹកប្រាក់ ជាក់ស្តែងដែលទទួលបានដោយមិនរាប់បញ្ចូលពន្ធ។

1. ប្រហែល_____វ៉ុន

ការស្ទង់មតិត្រូវបានបញ្ចប់ត្រឹមនេះ។

សូមអរគុណដោយស្មោះចំពោះការចែករំលែក មតិកែលម្អ របស់លោកអ្នកទាំងអស់គ្នា។

경남 이주배경가족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ග්‍යොංනම්හි සංක්‍රමණික පසුබිම් සහිත පවුල්වල රාජ්‍ය සේවා භාවිතය පිළිබඳ සමීක්ෂණය

ආයුබෝවන්. ග්‍යොංසංනම්-දෝ කාන්තා සහ පවුල් පදනම යනු ග්‍යොංසංනම්-දෝහි ආයෝජන ආයතනයක් වන අතර, ග්‍යොංසංනම්-දෝහි වෙසෙන විදේශීය පදිංචිකරුවන්ට ප්‍රාදේශීය සමාජයට අනුගත වීමට සහ ඒකාබද්ධ වීමට සහාය වීම සඳහා රාජ්‍ය සේවා භාවිතයට අදාළ ප්‍රතිපත්ති වැඩිදියුණු කිරීම පිළිබඳ පර්යේෂණ පවත්වයි. මෙම සමීක්ෂණය සඳහා සැපයිය යුතු නිවැරදි පිළිතුරක් නොමැති බැවින්, ඔබ සාමාන්‍යයෙන් සිතන ආකාරයට පිළිතුරු දෙන්නේ නම් අපි එය අගය කරන්නෙමු. ඔබගේ ප්‍රතිචාර පුද්ගලික තොරතුරු ආරක්ෂණ පනතේ 3 වන වගන්තියට අනුකූලව දැඩි ලෙස රහසිගතව තබා ගැනීමට කටයුතු කරන අතර, නිනර්මිකව සකසා ගබඩා කරන අතර පර්යේෂණ අරමුණු සඳහා පමණක් භාවිත කෙරේ. සමීක්ෂණය සම්පූර්ණ කිරීම සඳහා මිනිත්තු 15 ක් පමණ ගත වේ. ඔබ කායර්බහුල වුවද, විදේශීය පදිංචිකරුවෙකු ලෙස ග්‍යොංසංනම්-දෝහි ජීවත් වන අතරතුර ඔබ අත්විඳින ලද දේ අපට පැවසීමට මොහොතක් ගත කළ හැකි නම්, එය අපගේ පර්යේෂණයට බෙහෙවින් උපකාරී වනු ඇත.

2026 මැයි

පර්යේෂණ ආයතනය: ග්‍යොංසංනම්-දෝ කාන්තා සහ පවුල් පදනම | පර්යේෂණ සිදුකරන ආයතනය: කොරියා රිසර්ච් සමාගම (Hankook Research), ප්‍රධාන පර්යේෂක: ප්‍රතිපත්ති පර්යේෂණ දෙපාර්මේන්තුව ලී හ්යේ-රිම් (පර්යේෂණ සාමාජික) | භාර පුද්ගලයා: මහජන මත සමීක්ෂණ අංශය 1, 2 වන දෙපාර්මේන්තුව අධ්‍යක්ෂ ජෝං ජිජ්-හුන්, ඇමතුම්: 055-713-7061 | ඇමතුම්: 02-3014-1067

[ප්‍රතිචාර දක්වන්නන්ට ලැබෙන ප්‍රශ්න]

SQ1. ඔබ **දැනට ග්‍යොංසංනම්-දෝහි** ජීවත් වෙනවාද? 1. ඔව් 2. නැත

SQ2. ඔබ **දැනට ග්‍යොංසංනම්-දෝහි ජීවත් වන ප්‍රදේශය** කුමක්ද?

1. 거제시(ගෝජේ-සි) 2. 김해시(ගිමිහේ-සි) 3. 밀양시(මිල්යන්-සි) 4. 사천시(සචොන්-සි) 5. 양산시(යන්සාන්-සි) 6. 진주시(ජින්ජු-සි)
7. 창원시(චංවොන්-සි) 8. 통영시(තොංග්යොං-සි) 9. 거창군(ගෝචන් -ගුන්) 10. 고성군(ගොසොං-ගුන්) 11. 남해군(නම්හේ-ගුන්) 12. 산청군(සන්චොං-ගුන්)
13. 의령군(උයියෙර්ං-ගුන්) 14. 창녕군(චංන්‍යොං-ගුන්) 15. 하동군(හාදොං-ගුන්) 16. 함안군(හමන්-ගුන්) 17. 함양군(හම්‍යාං-ගුන්) 18. 합천군(හප්චොන්-ගුන්)

SQ3. ඔබ **ඉපදුණේ කවදාද?** වෂර්ය _____වෂර්ය

SQ4. ඔබ **ග්‍යොංසංනම්-දෝහි ජීවත් වීමට පටන් ගත්තේ කවදා** සිටද? _____වෂර්ය _____මාසය

SQ5. ඔබගේ **ස්ත්‍රී/පුරුෂ භාවය** කුමක්ද? 1. ස්ත්‍රී 2. පුරුෂ

SQ6. ඔබ ඉපදුණේ **කුමන රටෙද?**

1. නේපාලය 2. නැගෙනහිර ටිමෝරය 3. මොංගෝලියාව 4. මියන්මාරය 5. බංග්ලාදේශය 6. වියට්නාමය

7. ශ්‍රී ලංකාව 8. ඉන්දුනීසියාව 9. චීනය 10. පිලිපීනය 11. තායිලන්තය 12. කාම්බෝජය

13. පාකිස්තානය 14. උස්බෙකිස්තානය 15. කසකස්තානය 16. කිගර්ස්තානය 17. රුසියාව

18. වෙනත් ( )

SQ7. ඔබගේ **විවාහක තත්ත්වය** පහත සඳහන් ඒවායින් කුමක්ද?

1. අවිවාහක 2. විවාහක (පොදු නීති විවාහ ඇතුළුව) 3. දික්කසාද වූ 4. වෙන් වූ 5. වැන්දඹු

SQ8. කරුණාකර **ඔබ සමඟ ජීවත් වන සියලුම පුද්ගලයින්** පහතින් තෝරන්න.

1. තනිවම ජීවත් වේ (→SQ11 වෙත යන්න)
2. සහකරු/සහකාරිය (පොදු නීති විවාහ ඇතුළුව)
3. දරුවන්
4. මුණුබුරන්/මිණිබිරියන්
5. මගේ සහෝදර/සහෝදරියන්
6. සහකරු/සහකාරියගේ සහෝදර/සහෝදරියන්
7. මගේ/සහකරුගේ පියා
8. මගේ/සහකරුගේ මව
9. ඥාතීන්
10. පවුලෙන් පිටත පුද්ගලයින් (මිතුරන්, සගයන්, ආදිය)

SQ9. කරුණාකර **ඔබ සමඟ ජීවත් වන එක් එක් පවුල් වගර්ය සඳහා පුද්ගලයින් සංඛ්‍යාව** සඳහන් කරන්න.

1. පුතා: ( ) දෙනෙක්
2. දියණිය: ( ) දෙනෙක්
3. මුණුපුරා: ( ) දෙනෙක්
4. මිණිබිරිය: ( ) දෙනෙක්
5. මගේ සහෝදර/සහෝදරියන්: ( ) දෙනෙක්
6. සහකරුගේ සහෝදර/සහෝදරියන්: ( ) දෙනෙක්
7. මගේ/සහකරුගේ පියා: ( ) දෙනෙක්
8. මගේ/සහකරුගේ මව: ( ) දෙනෙක්
9. ඥාතීන්: ( ) දෙනෙක්
10. පවුලෙන් පිටත පුද්ගලයින් (මිතුරන්, සගයන්, ආදිය): ( ) දෙනෙක්

SQ10. ඔබ සමඟ ජීවත් වන **පවුලේ සාමාජිකයන් අතර කොරියානුවන්** සිටීද? 1. ඔව් 2. නැත

※ සංඛ්‍යාලේඛන පනතට අනුකූලව ඔබගේ තොරතුරු දැඩි ලෙස රහසිගතව තබා ඇති අතර මෙම පර්යේෂණයේ අරමුණ සඳහා හැර වෙනත් කිසිම දෙයකට භාවිතා නොකෙරේ.

SQ11. ඔබගේ වත්මන් **වීසා බලපත්‍ර තත්ත්වය** (නවාතැන් තත්ත්වය) කුමක්ද?

1. වෘත්තීය නොවන රැකියා (E-9) 2. සංචාරක රැකියා (H-2) 3. විශේෂිත ක්‍රියාකාරකම් (E-7) 4. සෘතුමය වැඩ (E-8)

5. විදේශීය කොරියානු (F-4) 6. පවුල් සංචාරක (F-1), යැපෙන (F-3) 7. ස්ථිර පදිංචිය (F-5) 8. විවාහ සංක්‍රමණික (F-

6, F-2-1) 9. අධ්‍යාපන (D-4) 10. නේවාසික (F-2, නමුත් F-2-1 හැර) 11. වෙනත් (G-1) 12. නවාතැන් තත්ත්වයක් නොමැත / ලියාපදිංචි වී නොමැත

13. පුරවැසිභාවය ලබා ඇත.

SQ12. **පසුගිය වසර පුරා (2025.06.-2026.05.)** ඔබ පොදු සේවා භාවිතා කර තිබේද? 1. ඔව් 2. නැත

රාජ්‍ය සේවා යනු ප්‍රාදේශීය පදිංචිකරුවන්ගේ ජීවන තත්ත්වය සහ ජීවන පහසුව වැඩිදියුණු කිරීම සඳහා රජය හෝ පළාත් පාලන ආයතන විසින් සපයනු ලබන සේවාවන්ය. සරලව කිවහොත්, මෙවා ඔබ කොරියාවේ ජීවත් වන විට ඔබට උපකාර කිරීම සඳහා ප්‍රාන්තය (රජය, ග්‍යොංසංනම්-දෝ, නගරය/ප්‍රාන්තය) විසින් සපයනු ලබන සියලුම සේවාවන් වේ. විශේෂයෙන්, පහත සඳහන් ආයතන විසින් සපයනු ලබන අධ්‍යාපන, සහාය සහ සේවා සියල්ල රාජ්‍ය සේවා වේ.

[වීසා සහ රැකියා] ආගමන කාර්යාලය/වීසා මධ්‍යස්ථානය (වීසා දිගු කිරීම ආදිය), කම්කරු අමාත්‍යාංශය/රැකියා මධ්‍යස්ථානය (රැකියා සෙවීම ආදිය)
[ලේඛන නිකුත් කිරීම සහ සහාය] නගර ශාලාව/ප්‍රාන්ත කාර්යාලය, පරිපාලන සුභසාධන මධ්‍යස්ථානය (ප්‍රජා මධ්‍යස්ථානය), බදු කාර්යාලය (බදු වාතර්ා කිරීම, වසර අවසාන බදු පියවීම ආදිය)
[විදේශිකයන් පදිංචි කිරීමේ සහාය] විදේශීය පදිංචිකරුවන් (කම්කරුවන්) සහාය මධ්‍යස්ථානය, බහු සංස්කෘතික පවුල් මධ්‍යස්ථානය (කොරියානු භාෂා අධ්‍යාපනය, උපදේශනය ආදිය)
[සෞඛ්‍ය සහ ළමා ආරක්ෂණ/අධ්‍යාපනය] මහජන සෞඛ්‍ය මධ්‍යස්ථාන, ජාතික/පොදු දිවා සුරැකුම් මධ්‍යස්ථාන, පාසල්
[ආරක්ෂාව සහ අයිතිවාසිකම් ආරක්ෂා කිරීම] පොලිස් ස්ථානය, ගිනි නිවන ස්ථානය, රැකියා සහ කම්කරු සහාය කාර්යාලය (නොගෙවූ වැටුප් වාතර්ා කිරීම ආදිය)
[වෙනත් ජීවන පහසුකම්] පුස්තකාල, සුභසාධන මධ්‍යස්ථාන, පොදු ක්‍රීඩා පහසුකම්, රියදුරු බලපත්‍ර පරීක්ෂණ මධ්‍යස්ථාන, පොදු බයිසිකල් භාවිතය ආදිය.

SQ12-1. ග්‍යොංසංනම්-දෝහි පහත සඳහන් **රාජ්‍ය සේවා භාවිතා කිරීමේ අත්දැකීම්** ඔබට තිබේද?

රාජ්‍ය සේවා වර්ගය	භාවිත අත්දැකීම්	
	ඔව් (තිබේ),	නැත (නොමැත)
1. සංක්‍රමණික සහාය ආශ්‍රිත සේවා, (විදේශීය පදිංචිකරුවන්ගේ (කම්කරුවන්ගේ) සහාය මධ්‍යස්ථානය, පවුල් මධ්‍යස්ථානය, යොංජින් කොරියා මධ්‍යස්ථානය ආදිය)	1	2
2. රැකියා/රැකියා නියුක්තිය ආශ්‍රිත සේවා (රැකියා මධ්‍යස්ථානය, රැකියා සුභසාධන ප්ලස් මධ්‍යස්ථානය, කම්කරු සුභසාධන සංස්ථාව ආදිය)	1	2
3. වීසා තත්ත්වය ආශ්‍රිත සේවා (ආගමන කාර්යාලය, Hi Korea, විදේශිකයන් සඳහා විස්තිරණ තොරතුරු මධ්‍යස්ථානය (1345), ග්‍යොංනම් වීසා මධ්‍යස්ථානය ආදිය)	1	2
4. සිවිල් පැමිණිලි පරිපාලන සේවා (පරිපාලන සුභසාධන මධ්‍යස්ථානය, නගර/ප්‍රාන්ත සිවිල් කටයුතු කාමරය, රජයේ 24 ආදිය)	1	2
5. සෞඛ්‍ය සේවා ආශ්‍රිත සේවා (මාසන් වෛද්‍ය මධ්‍යස්ථානය, මහජන සෞඛ්‍ය මධ්‍යස්ථානය ආදිය)	1	2

6. බදු ගෙවීමට අදාළ සේවා (බදු කාර්යාලය, ජාතික බදු සේවයේ HomeTax ආදිය)	1	2
7. ආරක්ෂාව හෝ අධිකරණ සම්බන්ධ සේවා (පොලිස් ස්ථානය, ගිනි නිවන ස්ථානය, කාමරීක ආරක්ෂාව, කාන්තාවන් සඳහා හදිසි ඇමතුම් 1366, සංක්‍රමණික කාන්තා නිවාස, අපරාධ වින්දිතයින්ගේ නිවාස ආදිය)	1	2
8. ළමා රැකවරණය ආශ්‍රිත සේවා (දිවා සුරැකුම් මධ්‍යස්ථානය, පෙර පාසල, ප්‍රාදේශීය ළමා මධ්‍යස්ථානය ආදිය)	1	2
9. අධ්‍යාපනය ආශ්‍රිත සේවා (පෙර පාසල, පාසල, අධ්‍යාපන කාර්යාලය ආදිය)	1	2
10. සමාජ ආරක්ෂණ ආශ්‍රිත සේවා (ගැබිගැනීම්/දරු ප්‍රසූතිය සඳහා සහාය, විස්තීරණ සමාජ සුභසාධන මධ්‍යස්ථානය ආදිය)	1	2
11. නේවාසික පහසුකම් ආශ්‍රිත සේවා (පුස්තකාලය, සංස්කෘතික මධ්‍යස්ථානය, පොදු ක්‍රීඩා පහසුකම්, දේශීය මුදල් (Zero Pay), පොදු බයිසිකල් ආදිය)	1	2

SQ12-2-1~11. පොදු සේවා අතරින් [ඉදිරිපත් කර ඇති: SQ12-1=2 අයිතම] භාවිතා කිරීමට ඔබට අත්දැකීමක් නොතිබීමට හේතුව කුමක්ද? අදාළ වන දේවල් අනුපිළිවෙලින් **උපරිම වශයෙන් 2**ක් දක්වා පිළිතුරු දෙන්න.

1. එවැනි සේවාවක් ඇති බව නොදැන සිටි නිසා
2. සේවාව අවශ්‍ය නොවූ නිසා
3. භාෂා බාධකය නිසා ලේඛන හෝ ක්‍රියා පටිපාටි පිළිබඳව වැඩිදුර විමසීමට නොහැකි වූ නිසා
4. භෞතිකව දුරින් පිහිටා ඇති නිසා
5. මගේ වැඩ කරන වේලාවන් සහ රාජ්‍ය සේවා මෙහෙයුම් වේලාවන් එකිනෙක ගැටෙන නිසා
6. මගේ වීසා තත්ත්වය හේතුවෙන් සේවාව භාවිතා කිරීමට ප්‍රවේශය නොමැති නිසා
7. මගේ වීසා තත්ත්වය හෙළි වීමට අකමැති වූ නිසා

[රාජ්‍ය සේවා භාවිත අත්දැකීම්]

※ පහත දැක්වෙන්නේ රාජ්‍ය සේවා භාවිත අත්දැකීම් පිළිබඳ ප්‍රශ්න වේ.

Q1. ඔබ ග්‍යොංසංනම්-දෝ හි පහත සඳහන් **රාජ්‍ය සේවා භාවිතා කිරීමේ අත්දැකීමක්** ඔබට ඇති බව ඔබ පිළිතුරු දුනි. ඔබ පහත **රාජ්‍ය සේවා** භාවිතා කරන විට ඔබට **ප්‍රමාණවත් උපකාර ලැබුණාද**?

රාජ්‍ය සේවා වගර්ය	උපකාරයේ ප්‍රමාණය						
	උපකාර, නොලැබුණි		←	-	→	ප්‍රමාණවත් උපකාර ලැබුණි	
1. සංක්‍රමණික සහාය ආශ්‍රිත සේවා, (විදේශීය පදිංචිකරුවන්ගේ (කම්කරුවන්ගේ) සහාය මධ්‍යස්ථානය, පවුල් මධ්‍යස්ථානය, යොංජින් කොරියා මධ්‍යස්ථානය ආදිය)	1	2	3	4	5	6	7
2. රැකියා/රැකියා නියුක්තිය ආශ්‍රිත සේවා (රැකියා මධ්‍යස්ථානය, රැකියා සුභසාධන ප්ලස් මධ්‍යස්ථානය, කම්කරු සුභසාධන සංස්ථාව ආදිය)	1	2	3	4	5	6	7
3. වීසා තත්ත්වය ආශ්‍රිත සේවා (ආගමන කාර්යාලය, Hi	1	2	3	4	5	6	7

Korea, විදේශිකයන් සඳහා විස්තීරණ තොරතුරු මධ්‍යස්ථානය (1345), ග්‍යෝංනම් වීසා මධ්‍යස්ථානය ආදිය)							
4. සිවිල් පැමිණිලි පරිපාලන සේවා (පරිපාලන සුභසාධන මධ්‍යස්ථානය, නගර/ප්‍රාන්ත සිවිල් කටයුතු කාමරය, රජයේ 24 ආදිය)	1	2	3	4	5	6	7
5. සෞඛ්‍ය සේවා ආශ්‍රිත සේවා (මානසික වෛද්‍ය මධ්‍යස්ථානය, මහජන සෞඛ්‍ය මධ්‍යස්ථානය ආදිය)	1	2	3	4	5	6	7
6. බදු ගෙවීමට අදාළ සේවා (බදු කාර්යාලය, ජාතික බදු සේවයේ HomeTax ආදිය)	1	2	3	4	5	6	7
7. ආරක්ෂාව හෝ අධිකරණ සම්බන්ධ සේවා (පොලිස් ස්ථානය, ගිනි නිවන ස්ථානය, කාමරික ආරක්ෂාව, කාන්තාවන් සඳහා හදිසි ඇමතුම් 1366, සංක්‍රමණික කාන්තා නිවාස, අපරාධ වින්දිතයින්ගේ නිවාස ආදිය)	1	2	3	4	5	6	7
8. ළමා රැකවරණය ආශ්‍රිත සේවා (දිවා සුරැකුම් මධ්‍යස්ථානය, පෙර පාසල, ප්‍රාදේශීය ළමා මධ්‍යස්ථානය ආදිය)	1	2	3	4	5	6	7
9. අධ්‍යාපනය ආශ්‍රිත සේවා (පෙර පාසල, පාසල, අධ්‍යාපන කාර්යාලය ආදිය)	1	2	3	4	5	6	7
10. සමාජ ආරක්ෂණ ආශ්‍රිත සේවා (ගැබ්ගැනීම්/දරු ප්‍රසූතිය සඳහා සහාය, විස්තීරණ සමාජ සුභසාධන මධ්‍යස්ථානය ආදිය)	1	2	3	4	5	6	7
11. නේවාසික පහසුකම් ආශ්‍රිත සේවා (පුස්තකාලය, සංස්කෘතික මධ්‍යස්ථානය, පොදු ක්‍රීඩා පහසුකම්, දේශීය මුදල් (Zero Pay), පොදු බයිසිකල් ආදිය)	1	2	3	4	5	6	7

Q1-1. ග්‍යෝංසංනම්-දෝහි ජීවත් වන අතරතුර ඔබ **රාජ්‍ය සේවා** වන [ඉදිරිපත් කර ඇති: Q1=1~3 තෝරාගත් අයිතම] භාවිතා කළ නමුත් ඔබට සතුටුදායක උපකාරයක් නොලැබුණු බව ඔබ පිළිතුරු දුන්නේ නම් ඔබ **එසේ පිළිතුරු දීමට ප්‍රධාන හේතුව** කුමක්ද? අදාළ වන දේවල් අනුපිළිවෙලින් **උපරිම වශයෙන් 2ක්** දක්වා පිළිතුරු දෙන්න.

1. භාෂාව හරියටම තේරුම් ගැනීමට අපහසු වූ නිසා
2. සේවාවේ අන්තගර්තය පිළිබඳ තොරතුරු නොමැතිකම නිසා
3. ඉදිරිපත් කළ යුතු ලේඛන රාශියක් ඇති නිසා සහ අයදුම් කිරීමේ ක්‍රියාවලිය සංකීර්ණ වූ නිසා
4. සේවාව භාවිතා කිරීම සඳහා දිගු රැඳී සිටීමේ කාලයක් තිබූ නිසා
5. සේවාව සපයන රජයේ නිලධාරීන්/සේවකයින් කාරුණික නොවූ නිසා
6. ආගම, ආහාර සහ චාරිත්‍ර වාරිත්‍ර වැනි සංස්කෘතික ලක්ෂණ පිළිබඳව සැලකිල්ලක් නොමැති වීම නිසා

Q2. ඔබ භාවිතා කළ **රාජ්‍ය සේවා** පිළිබඳ **තොරතුරු ඔබ සොයාගත්තේ** කෙසේද? අදාළ වන දේවල් අනුපිළිවෙලින් **උපරිම වශයෙන් 2ක්** දක්වා පිළිතුරු දෙන්න.

1. සහකරු, පවුලේ අය හෝ ඥාතීන් මට පැවසූ නිසා
2. කොරියානු මිතුරෙකු, රැකියා සගයෙකු හෝ හඳුනන අයෙකු මට පැවසූ නිසා
3. විදේශීය (මව් රටේ අය ද ඇතුළුව) මිතුරෙකු, රැකියා සගයෙකු හෝ හඳුනන අයෙකු මට පැවසූ නිසා
4. සංක්‍රමණික සහාය මධ්‍යස්ථාන හරහා
5. SNS (Youtube, Instagram, Facebook ආදිය) සෙවීම මගින්
6. බැනර් හෝ ප්‍රචාරක ද්‍රව්‍ය හරහා
7. අන්තජර්ාල භාවිතයෙන් වෙබ්අඩවි සෙවීම මගින්

Q3. රාජ්‍ය සේවා භාවිතා කිරීමේදී ඔබට අවශ්‍ය **කුමන ආකාරයේ උපකාරයක්ද**? අදාළ වන දේවල් අනුපිළිවෙලින් **උපරිම වශයෙන් 2ක්** දක්වා පිළිතුරු දෙන්න.

1. උදව්වක් නොමැතිව තනිවම භාවිතා කළ හැකිය
2. තොරතුරු සහ බහුභාෂා මාගෙර්ප්දේශ ශක්තිමත් කිරීම (ආයතනික තොරතුරු සහ බහුභාෂා ක්‍රියා පටිපාටි පැහැදිලි කිරීම් ආදිය)
3. ස්ථානීය තත්‍ය කාලීන අථර්කථනය/පරිවතර්න සහාය
4. කාලය සහ ස්ථානය වෙත ප්‍රවේශ්‍යතාව පුළුල් කිරීම (රාත්‍රී/සති අන්ත මෙහෙයුම්, පැමිණෙන ජංගම සේවා ආදිය)
5. මාගර්ගත සහ ජංගම සේවා පහසුව වැඩිදියුණු කිරීම (මුහුණට මුහුණ නොවන අයදුම් කිරීම් සහ උපදේශනය ආදිය)
6. විදේශිකයන්ට කාරුණිකව සහ වෙනස්කම් කිරීමකින් තොරව සැලකීම

Q4. ඔබ දැනට ඔබ සමඟ ජීවත් වන ඔබගේ පවුලේ සාමාජිකයින් අතරින් **රාජ්‍ය සේවා අවශ්‍ය වන්නේ කාටදැයි** ඔබ සිතනවාද? කරුණාකර අවශ්‍ය යැයි සිතන පුද්ගලයින්ගේ ඉලක්කම **අනුපිළිවෙලින් 3ක්** දක්වා පිළිතුරු දෙන්න.

1. මට
2. සහකරුට (පොදු නීති විවාහ ඇතුළුව)
3. ළදරුවන් (අවුරුදු 0-6) දරුවන් (මුණුබුරන්/මිණිබිරියන්)
4. ළමුන් සහ නව යොවුන් වියේ (අවුරුදු 7-19) දරුවන් (මුණුබුරන්/මිණිබිරියන්)
5. මගේ සහෝදර/සහෝදරියන්ට
6. සහකරු/සහකාරියගේ සහෝදර/සහෝදරියන්ට
7. මගේ/සහකරුගේ පියාට
8. මගේ/සහකරුගේ මවට
9. ඥාතීන්ට

Q5. රාජ්‍ය සේවා භාවිතා කරන විට, ඔබ **විදේශිකයෙකු වීම හෝ විදේශීය පසුබිමක් ඇති අයෙකු වීම නිසා ඔබට වෙනස් කොට සැලකීමක්, නොසලකා හැරීමක් හෝ අසාධාරණ ලෙස සැලකීමක්** දැනී තිබේද?

1. ඔව් 2. නැත (→Q6 වෙත යන්න)

Q5-1. ඔබට වෙනස් කොට සැලකුවේ කවුරුන් විසින් යැයි ඔබ සිතනවාද? අදාළ වන දේවල් අනුපිළිවෙලින් **උපරිම වශයෙන්**

3ක් දක්වා පිළිතුරු දෙන්න.

1. භාර සේවකයා/රජයේ නිලධාරියා
2. බස් රියදුරා
3. දිවා සුරැකුම් මධ්‍යස්ථානය/පෙර පාසල/පාසල් දෙමාපියන්
4. දිවා සුරැකුම් මධ්‍යස්ථානය/පෙර පාසල/පාසල් ගුරුවරුන්
5. රාජ්‍ය සේවා භාවිතා කරන වෙනත් පුද්ගලයින්
6. වෙනත් ( )

Q5-2. ඔබව වෙනස් කොට සැලකීම, නොසලකා හැරීම හෝ අසාධාරණ ලෙස සැලකූ විට **ඔබ ප්‍රතිචාර දැක්වූයේ කෙසේද?** අදාළ වන දේවල් අනුපිළිවෙලින් **උපරිම වශයෙන් 3ක්** දක්වා පිළිතුරු දෙන්න.

1. අනිත් පුද්ගලයාගෙන් සමාව අයදින ලෙස ඉල්ලා සිටියෙමි
2. අනෙක් පුද්ගලයාගේ කතා විලාසය සහ හැසිරීම නිවැරදි කරන ලෙස ඉල්ලා සිටියෙමි
3. පවුලේ අය සහ මිතුරන් සමඟ සාකච්ඡා කළෙමි
4. උපදේශන ආයතන, මධ්‍යස්ථාන ආදියෙන් විමසුවෙමි
5. ජාතික මානව හිමිකම් කොමිසම වැනි වෙනස්කම් කිරීම් නිවැරදි කරන ආයතනවලට වාතර්ා කළෙමි
6. අන්තජර්ාල පුවරු, කැෆේ, SNS ආදියේ පළ කළෙමි
7. ඉවසා සිටියෙමි (→Q-5-2-1 වෙත යන්න)

Q5-2-1. ඔබව වෙනස් කොට සැලකීම, නොසලකා හැරීම හෝ අසාධාරණ ලෙස සැලකූ විට ඔබ එය **ඉවසා සිටීමට හේතුව** කුමක්ද? අදාළ වන දේවල් අනුපිළිවෙලින් උපරිම වශයෙන් 2ක් දක්වා පිළිතුරු දෙන්න.

1. කුමක් කළ යුතුද යන්න නොදැන සිටි නිසා
2. මගේ වීසා තත්ත්වය හෙළි වීමට බිය වූ නිසා
3. එය මගේ වීසා තත්ත්වය වෙනස් කිරීමේදී එයට බලපාන සිදුවීමක් දක්වා වධර්නය වේ යැයි මා බිය වූ නිසා
4. මා ප්‍රතිචාර දැක්වූවද කිසිවක් වෙනස් නොවනු ඇතැයි මා සිතූ නිසා
5. මට කොරියානු භාෂාව හොඳින් කතා කළ නොහැකි වූ නිසා

Q6. ග්‍රෝංසංනම්-දෝහි වෙසෙන විදේශීය පදිංචිකරුවන්ට ප්‍රාදේශීය ප්‍රදේශයට හොඳින් අනුගත වීමට සහ ඒකාබද්ධ වීමට **උපකාර කිරීම සඳහා අවශ්‍ය යැයි ඔබ සිතන රාජ්‍ය සේවා 2ක්** අනුපිළිවෙලින් තෝරන්න.

1. සංක්‍රමණික සහාය ආශ්‍රිත සේවා
2. රැකියා/රැකියා නියුක්තිය ආශ්‍රිත සේවා
3. සෞඛ්‍ය සේවා ආශ්‍රිත සේවා
4. ළමා රැකවරණ/අධ්‍යාපනය ආශ්‍රිත සේවා
5. සමාජ ආරක්ෂණ ආශ්‍රිත සේවා
6. වෙනත්

Q6-1-1~6. පළමුව, [ඉදිරිපත් කර ඇති: Q6 හි තෝරාගත් පළමු අයිතමය] අවශ්‍ය බව ඔබ පිළිතුරු දුන් නිසා කරුණාකර ඒවා අතරින් **වඩාත් අවශ්‍ය යැයි ඔබ සිතන රාජ්‍ය සේවා 2ක්** අනුපිළිවෙලින් තෝරන්න.

Q6-2-1~6. දෙවනුව, [ඉදිරිපත් කර ඇති: Q6 හි තෝරාගත් දෙවන අයිතමය] අවශ්‍ය බව ඔබ පිළිතුරු දුන් නිසා **කරුණාකර ඒවා අතරින් වඩාත් අවශ්‍ය යැයි ඔබ සිතන රාජ්‍ය සේවා 2ක්** අනුපිළිවෙලින් තෝරන්න.

රාජ්‍ය සේවා ප්‍රධාන වගීකරණය	රාජ්‍ය සේවා උප වගීකරණය
සංක්‍රමණික සහාය ආශ්‍රිත සේවා	1. කොරියානු භාෂා අධ්‍යාපනය 2. කොරියානු සමාජය අවබෝධ කර ගැනීමේ අධ්‍යාපනය 3. කොරියාවේ මුල් පදිංචි වීමේ සහාය 4. ජීවන තොරතුරු සහාය සහ දුක්ගැනවිලි උපදේශන සේවා 5. සංක්‍රමණික ප්‍රජාව වැනි ප්‍රජා ක්‍රියාකාරකම් සඳහා සහාය
රැකියා/රැකියා නියුක්තිය ආශ්‍රිත සේවා	6. සහතිකපත් ලබාගැනීම/වෘත්තීය පුහුණුව/රැකියා අධ්‍යාපනය 7. රැකියා සම්බන්ධ තොරතුරු සැපයීම/රැකියා අවස්ථා පුළුල් කිරීම 8. ව්‍යාපාරික ස්ථානය තුළ දුෂ්කරතා/ගැටුම් නිරාකරණය සඳහා සහාය
සෞඛ්‍ය සේවා ආශ්‍රිත සේවා	9. ගැබ්ගැනීම්/දරු ප්‍රසූතිය සඳහා සහාය 10. වෛද්‍ය ප්‍රතිකාර අතරතුර අර්ථකථන/පරිවර්තන සහාය 11. ඖෂධ වට්ටෝරු, ඖෂධ බෑග් සහ පූර්වාරක්ෂක වාක්‍ය ඛණ්ඩ සඳහා බහුභාෂා සටහන් 12. විදේශිකයන් බහුලව ගැවසෙන ප්‍රදේශ සහ සේවා ස්ථාන වෙත පැමිණෙන වෛද්‍ය සේවා පුළුල් කිරීම 13. රෝග වලක්වා ගැනීම සහ ස්වයං කළමනාකරණය පිළිබඳ සෞඛ්‍ය දැනුම, මානසික සෞඛ්‍ය උපදේශන සේවා
ළමා රැකවරණ/අධ්‍යාපනය ආශ්‍රිත සේවා	14. ළමා රැකවරණ වියදම්, අධ්‍යාපන වියදම් සඳහා සහාය 15. ළමුන්ගේ කොරියානු භාෂා ඉගෙනීම සඳහා සහාය 16. ළමුන්ගේ මව් භාෂා ඉගෙනීම සඳහා සහාය 17. කොරියානු භාෂාව ඉගෙන ගන්නා ළමුන්ගේ විෂය ඉගෙනීම සඳහා සහාය 18. ළමුන්ගේ වෘත්තීය/උසස් අධ්‍යාපන පුහුණුව 19. දෙමාපිය උපදේශනය/අධ්‍යාපනය (ළමා ඇති දැඩි කිරීම, කොරියානු අධ්‍යාපන ක්‍රමය ආදිය)
සමාජ ආරක්ෂණ ආශ්‍රිත සේවා	20. ළදරුවන් සඳහා සහාය 21. ළමුන් සහ නව යොවුන් වියේ පසුවන්නන් සඳහා සහාය 22. වැඩිහිටියන් සඳහා සහාය 23. ආබාධිතයින් සඳහා සහාය 24. ගෘහස්ථ හිංසනය සහ ස්ත්‍රී පුරුෂ සමාජභාවය මත පදනම් වූ ප්‍රචණ්ඩත්වය වැනි අපරාධවලට ගොදුරු වූවන් සඳහා සහාය
වෙනත්	25. අර්ථකථන/පරිවර්තන සේවා 26. මාගර්ගත සේවා සඳහා බහුභාෂා සහාය 27. ප්‍රතිපත්ති ප්‍රවර්ධනය සහ පදිංචිකරුවන්ගේ පහසුව සඳහා මාගෙර්ාපදේශ වාක්‍ය ඛණ්ඩ සඳහා බහුභාෂා සටහන් 28. සමාජ ක්‍රියාකාරකම් සඳහා සහභාගී වීමේ අවස්ථා පුළුල් කිරීම (දෙමාපියන්ගේ සංගමය, ස්වේච්ඡා සංගමය, පදිංචිකරුවන්ගේ ස්වයං පාලන කමිටුව, කාන්තා හිතකාමී නගර පුරවැසි සහභාගීත්ව කණ්ඩායම ආදිය)

[කොරියානු භාෂා අධ්‍යාපනයට අදාළ සේවා]

※ පහත දැක්වෙන්නේ **කොරියානු භාෂා අධ්‍යාපනයට අදාළ සේවා** පිළිබඳ ප්‍රශ්න වේ.

Q7. ඔබ මෙතෙක් කොරියාවේ, ඔබේ මව් රටේ හෝ වෙනත් රටක **කොරියානු භාෂාව ඉගෙන ගෙන තිබේද?**

1. ඔව් 2. නැත (→Q8 වෙත යන්න)

Q7-1. ඔබ කොරියානු භාෂාව **ඉගෙන ගත්තේ කෙසේද?**

1. මුහුණට මුහුණ අධ්‍යාපනය (පන්තියකට සහභාගී වීම)
2. මාගර්ගත අධ්‍යාපනය(Online)
3. මුහුණට මුහුණ සහ මාගර්ගත(Online) අධ්‍යාපනයේ සම්මිශ්‍රණයක්

Q8. ඔබ කවදා හෝ **කොරියානු භාෂා ප්‍රවීණතා විභාගය (TOPIK)** ලබාගෙන තිබේද? (කරුණාකර රැකියා අරමුණු සඳහා වන EPS-TOPIK හැර පිළිතුරු දෙන්න.

1. ඔව් 2. නැත (→Q9 වෙත යන්න)

Q8-1. ඔබ **අවසන්** වරට ලබාගත් **කොරියානු භාෂා ප්‍රවීණතා විභාගයෙන් (TOPIK) ඔබට කුමන මට්ටමක්** ලැබුණාද?

1. 1급(Level 1) 2. 2급(Level 2) 3. 3급(Level 3) 4. 4급(Level 4) 5. 5급(Level 5) 6. 6급(Level 6) 7. 불합격(අසමත්)

Q9. **කොරියානු භාෂාවෙන් සන්නිවේදනය** කිරීමේදී ඔබට කිසියම් **අපහසුතාවයක්** තිබේද?

	ඉතා අපහසුයි	තරමක් අපහසුයි	අපහසු නැත	කිසිසේත් අපහසු නැත
1. 말하기(කතා කිරීම)	1	2	3	4
2. 듣기(ඇසීම)	1	2	3	4
3. 읽기(කියවීම)	1	2	3	4
4. 쓰기(ලිවීම)	1	2	3	4

※සමාජ ඒකාබද්ධතා වැඩසටහන (KIIP) යනු අධිකරණ අමාත්‍යාංශය විසින් සපයනු ලබන අධ්‍යාපනික වැඩසටහනක් වන අතර විදේශිකයින්ට කොරියාවට හොඳින් අනුගත වීමට සහ ජීවත් වීමට උපකාර කිරීම සඳහා කොරියානු භාෂාව සහ සංස්කෘතිය උගන්වයි.

Q10. ඔබ කවදා හෝ සමාජ ඒකාබද්ධතා වැඩසටහන් (KIIP) **පන්ති ලබාගෙන** තිබේද?

1. ඔව් 2. නැත (→Q11 වෙත යන්න) 3. සමාජ ඒකාබද්ධතා වැඩසටහන (KIIP) පිළිබඳව නොදනී (→Q11 වෙත යන්න)

Q10-1. ඔබ කවදා හෝ **සමාජ ඒකාබද්ධතා වැඩසටහන් (KIIP) විභාගය ලබාගෙන** තිබේද? 1. ඔව් 2. නැත (→Q11 වෙත යන්න)

Q10-1-1. ඔබ **මෑතකදී** ලබාගත් සමාජ ඒකාබද්ධතා වැඩසටහනේ **(KIIP)** විභාගයෙන් ඔබට කුමන **මට්ටමක්** ලැබුණාද?

1. 0단계(Level 0) 2. 1단계(Level 1) 3. 2단계(Level 2) 4. 3단계(Level 3) 5. 4단계(Level 4) 6. 5단계(Level 5)

Q11. ඔබේ කොරියානු භාෂාව **වැඩිදියුණු කිරීම සඳහා** කොරියානු භාෂාව **තවදුරටත් අධ්‍යයනය කිරීමට** ඔබ අදහස් කරනවාද?

1. ඔව් (→Q11-1 වෙත යන්න) 2. නැත (→Q11-2 වෙත යන්න)

Q11-1. ඔබට කොරියානු භාෂාව ඉගෙන ගැනීමට අවශ්‍ය කොහේද? අදාළ වන දේවල් අනුපිළිවෙලින් **උපරිම වශයෙන් 3ක්**

දක්වා පිළිතුරු දෙන්න.

1. පාසල (විශ්වවිද්‍යාලය, භාෂා ආයතනය ආදිය)
2. විදේශීය පදිංචිකරුවන් (කම්කරුවන්) සහාය මධ්‍යස්ථානය
3. පවුල් මධ්‍යස්ථානය (බහු සංස්කෘතික පවුල් සහාය මධ්‍යස්ථානය)
4. විදේශීය කොරියානු නවාතැන් සහාය මධ්‍යස්ථානය
5. කොරියාවේ පෞද්ගලික ආයතන (ඇකඩමිය, ආගමික සංවිධානය ආදිය)
6. ඔබ වැඩ කරන ආයතනය (ඔබව සොයා ගොස් කොරියානු අධ්‍යාපනය ලබාදීම)
7. තනිවම අධ්‍යයනය කිරීම (අන්තජර්ාල (AI) ඉගෙනීම, ස්වයං අධ්‍යයනය ආදිය)
8. කොරියානු උපදේශනය (පුද්ගලික උපකාරක පන්ති)

Q11-2. ඔබට කොරියානු භාෂාව **තවදුරටත් අධ්‍යයනය කිරීමට අදහසක් නොමැති වීමට** හේතුව කුමක්ද?

1. මම දැනටමත් ප්‍රමාණවත් තරම් හොඳයි
2. මට කොරියානු භාෂාව හොඳින් කතා කළ නොහැකි වුවද මට කිසිදු අපහසුතාවයක් නොමැත
3. මට ඉගෙනීමට අවශ්‍යයි, නමුත් යථාර්ථවාදීව එය පහසු නැත (→Q11-2-1 වෙත යන්න)

Q11-2-1. කොරියානු භාෂාව හැදෑරීම **දුෂ්කර කරන විශාලතම ප්‍රායෝගික දුෂ්කරතාවය** කුමක්ද?

1. වැඩ නිසා කොරියානු භාෂාව ඉගෙන ගැනීමට කාලයක් නොමැත
2. දුර ප්‍රමාණය වැඩි නිසා කොරියානු භාෂා අධ්‍යාපනය ලබාදෙන ස්ථානයකට යාමට නොහැක
3. මට සමාජ ඒකාබද්ධතා වැඩසටහන සඳහා අයදුම් කිරීමට අවශ්‍යයි, නමුත් අයදුම්කරුවන් විශාල සංඛ්‍යාවක් සිටින නිසා අයදුම් කිරීම අපහසුය
4. මට සමාජ ඒකාබද්ධතා වැඩසටහන සඳහා අයදුම් කිරීමට අවශ්‍යයි, නමුත් අසල වැඩසටහන ක්‍රියාත්මක කරන ආයතන බොහෝමයක් නොමැත
5. වෙනත් ( )

[ප්‍රාදේශීය සමාජ පදිංචි කිරීම සහ සමාජ ප්‍රාග්ධනය]

※ පහත දැක්වෙන්නේ ප්‍රාදේශීය සමාජ පදිංචි කිරීම සහ සමාජ ප්‍රාග්ධනය පිළිබඳ ප්‍රශ්න වේ.

Q12. ඔබ **ග්‍යොංසංනම්-දෝහි පදිංචි වීමට** හේතුව කුමක්ද? කරුණාකර **ප්‍රධාන හේතු 2ක්** අනුපිළිවෙලින් තෝරන්න.

1. රැකියාව/රැකියා නියුක්තිය නිසා
2. විවාහය නිසා
3. අධ්‍යාපනය නිසා
4. සමාජ ආථර්ික යටිතල පහසුකම් නිසා
5. ග්‍යොංසංනම්-දෝහි වෙසෙන පවුලේ අය/මිතුරන්ගේ නිදෙර්ශය නිසා
6. දරුවන්ගේ අධ්‍යාපනය කටයුතු නිසා
7. මව් රටේ ප්‍රජාව සහ විදේශීය සහාය මධ්‍යස්ථාන වෙත ප්‍රවේශ්‍යතාව පහසු නිසා

Q13. ඔබ [ඉදිරිපත් කර ඇති: SQ4 ප්‍රතිචාරය] සිට ග්‍යොංසංනම්-දෝ හි ජීවත් වීමට පටන් ගත් බව ඔබ පිළිතුරු දුන්නා. එසේනම් ඔබ **මුලින්ම කොරියාවට ඇතුළු වූයේ කවදාද?** වෂර්ය _____ මාසය _____

[4 වන ප්‍රශ්නයේ පිළිතුරට වඩා ඉදිරියෙන් ඇති වෂර්ය සහ මාසයක් පිළිතුර ලෙස දක්වන්නේ නම්, [සැලකිලිමත් වන්න: 4වන ප්‍රශ්නයේ සිට ග්‍යොංසංනම්-දෝහි ජීවත් වීමට පටන් ගත් බව ඔබ පිළිතුරු දුනි. ඔබ මුලින්ම කොරියාවට ඇතුළු වූ කාලය ඊට පෙර හෝ එකම වෙලාවක විය යුතුය. කරුණාකර ඔබ ඇතුළත් කළ තොරතුරු නැවත පරීක්ෂා කරන්න.]

Q14. ඔබට අනාගතයේදී ග්‍යොංසංනම්-දෝහි **දිගටම රැඳී සිටීමට** අවශ්‍යද? 1. ඔව් 2. නැත (→Q15 වෙත යන්න)

Q14-1. ඔබ **අනාගතයේදී කොපමණ කාලයක්** ග්‍යොංසංනම්-දෝහි රැඳී සිටීමට අදහස් කරනවාද?

1. අවුරුදු 1~3 2. අවුරුදු 4~6 3. අවුරුදු 7~9 4. අවුරුදු 10 හෝ ඊට වැඩි 5. ස්ථිර පදිංචිය

Q14-2. ඔබ **අවසානයේ** ලබා ගැනීමට බලාපොරොත්තු වන **වීසා තත්ත්වය** කුමක්ද?

1. වත්මන් වීසා තත්ත්වයේ කාලය දීසර් කිරීම
2. වෙනත් වීසා තත්ත්වයකට වෙනස් කිරීම (ස්ථිර පදිංචිය හැර)
3. ස්ථිර පදිංචිය ලබා ගැනීම
4. ජාතිකත්වය ලබා ගැනීම (පුරවැසිභාවය)
5. මම දැන් දන්නේ නැහැ

Q15. ඔබගේ මව් රටේ ජීවිතය හා සසඳන විට ග්‍යොංසංනම්-දෝ හි **ඔබගේ සමස්ත ජීවිතය ගැන ඔබ කොපමණ සෑහීමකට පත්වෙනවාද?**

1. ඉතා අතෘප්තිමත් 2. තරමක් අතෘප්තිමත් 3. තරමක් තෘප්තිමත් 4. ඉතා තෘප්තිමත්

Q16-1. ඔබ **අසනීප වී උපකාර පැතිය යුතු නම්, පවුලේ අය හැර** ග්‍යොංසංනම්-දෝ ප්‍රදේශයේ ඔබට උපකාර ලබා ගැනීමට හෝ සාකච්ඡා කිරීමට හැකි කෙනෙකු සිටීද?

උපකාර සපයන පුද්ගලයාගේ වගර්ය	නැත	පුද්ගලයින් 1-2	පුද්ගලයින් 3-4	පුද්ගලයින් 5 හෝ ඊට වැඩි
1. කොරියානු	1	2	3	4
2. මව් රටේ පුද්ගලයා	1	2	3	4
3. වෙනත් විදේශිකයන්	1	2	3	4

Q16-2. ඔබට **හදිසියේ විශාල මුදලක් ණයට ගැනීමට සිදුවුවහොත්, පවුලේ අය හැර** ග්‍යොංසංනම්-දෝ ප්‍රදේශයේ ඔබට උපකාර ලබා ගැනීමට හෝ සාකච්ඡා කිරීමට හැකි කෙනෙකු සිටීද?

උපකාර සපයන පුද්ගලයාගේ වගර්ය	නැත	පුද්ගලයින් 1-2	පුද්ගලයින් 3-4	පුද්ගලයින් 5 හෝ ඊට වැඩි

1. කොරියානු	1	2	3	4
2. මව් රටේ පුද්ගලයා	1	2	3	4
3. වෙනත් විදේශිකයන්	1	2	3	4

Q16-3. ඔබට **දුකක් හෝ මානසික අවපීඩනයක් දැනෙන නිසා ඔබට කතා කිරීමට කෙනෙකු අවශ්‍ය නම්, පවුලේ අය හැර** ග්‍යොංසංනම්-දෝ ප්‍රදේශයේ ඔබට උපකාර ලබා ගැනීමට හෝ සාකච්ඡා කිරීමට හැකි කෙනෙකු සිටීද?

උපකාර සපයන පුද්ගලයාගේ වගර්ය	නැත	පුද්ගලයින් 1-2	පුද්ගලයින් 3-4	පුද්ගලයින් 5 හෝ ඊට වැඩි
1. කොරියානු	1	2	3	4
2. මව් රටේ පුද්ගලයා	1	2	3	4
3. වෙනත් විදේශිකයන්	1	2	3	4

Q17. ඔබගේ **ආගම** කුමක්ද?

1. ක්‍රිස්තියානි ආගම
2. කතෝලික ආගම
3. ඉස්ලාම් ආගම
4. හින්දු ආගම
5. බුද්ධාගම
6. කොන්ෆියුසියස් ආගම සහ චීන සාම්ප්‍රදායික ආගම
7. නැත (ආගමක් නැත)
8. වෙනත්

[ආථරීක ක්‍රියාකාරකම් ලක්ෂණ]

※ අවසාන වශයෙන්, මෙය **ආථරීක ක්‍රියාකාරකම්**වල ලක්ෂණ පිළිබඳ ප්‍රශ්නයකි.

Q18. පසුගිය වසර තුළ (2025.06.-2026.05.) ආදායම් ඉපැයීමේ අරමුණින් මුදල් ලබාගනිමින් කල වැඩ සම්බන්ධව ඔබට අත්දැකීම් තිබේද? එසේ නම්, සතියකට වැඩ කරන සාමාන්‍ය පැය ගණන කොපමණද?

1. කිසි දිනෙක වැඩ කර නැත (→Q21 වෙත යන්න)
2. සතියකට පැය 15 ට අඩු
3. සතියකට පැය 15 ට වැඩි ~ පැය 40 ට අඩු
4. සතියකට පැය 40 කට වඩා

Q19. ඔබ දැනට කරන්නේ **කුමන ආකාරයේ වැඩක්ද**?

1. පූර්ණ කාලීන
2. අධර් කාලීන/අතිරේක රැකියා
3. දෛනික සේවක(Daily Worker)
4. ස්වයං රැකියා

5. නොගෙවූ පවුලේ සේවක

Q20. ඔබ **රැකියා ගිවිසුමක්** සම්පූර්ණ කළාද?

1. ඔව්
2. නැත
3. දන්නේ නැහැ

Q21. ඔබ සමාජ රක්ෂණයට ලියාපදිංචි වී සිටිනවාද?

සමාජ රක්ෂණය	ලියාපදිංචි වී ඇත	ලියාපදිංචි වී නොමැත	හරියටම දන්නේ නැහැ
1. 국민연금(ජාතික විශ්‍රාම වැටුප්)	1	2	3
2. 건강보험(සෞඛ්‍ය රක්ෂණය)	1	2	3
3. 고용보험(රැකියා රක්ෂණය)	1	2	3
4. 산재보험(කාමර්ික අනතුරු රක්ෂණය)	1	2	3

Q22. පසුගිය මාස 3 සඳහා (2026.03.~2026.05.) ඔබගේ **සාමාන්‍ය මාසික ආදායම** කොපමණද?

※ කරුණාකර පවුලේ ආදායම නොව "පුද්ගලික ආදායම" සමඟ ප්‍රතිචාර දක්වන්න.

※ කරුණාකර බදු හැර ඔබට ලැබුණු සැබෑ මුදල ඇතුළත් කරන්න.

1. දළ වශයෙන් _____ වොන්

සම්මුඛ සාකච්ඡාව සම්පූර්ණයි.

ඔබගේ අදහස් බෙදාගැනීම ගැන ඔබට බොහෝම ස්තූතියි.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본 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보고서 2026-02

경남 이주배경가족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개선 방안

인 쇄 2026년 9월 30일
발 행 2026년 9월 30일
발 행 인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발 행 처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우 : 51430)
Tel (055)713-7075 Fax (055)713-7093
홈 페 이 지 gnwff.or.kr
인 쇄 처 동하씨앤피
인쇄업체 전화번호 Tel (055)263-8819

ISBN : 979-11-996774-3-2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